


2002 연구보고서 230-4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연구책임자 : 김 태 홍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김 미 경 (연구위원)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노동시장 내의 남녀차별을 비롯한 가정과 직장의 병행의 문제 등,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한 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여성부가 출범하고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법적·제도적인 커다란 성과들을 통해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를 위한 기반들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IT산업을 중심으로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와 함께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본 원은 여성의 취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여성인적 자원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1986년 제1차에 여성 취업실태조사 실시를 출발로 1992년 제2차, 1997년 제3차에 이어 금 번 제 4차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번 제4차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및 항목을 다소 조정하여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노동시장구조 및 고용형태,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수요·공급구조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본 여성취업실태조사는 그동안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여성취업 관련 통계자료의 미흡이라는 문제를 보완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으며, 여성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여성 취업난 및 실업난 해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금 번 제 4차 조사결과 역시 여성의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의 중요한 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국 단위의 대규모 여성취업실태를 조사하여 본 연구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원내·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숨어 있습니다. 본 연구진들은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도 본 조사를 가능하게 협조해주신 시·도·군·읍·면 등의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본 조사가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방향 및 내용설정에 있어 좋은 논평을 해주신 손승영 교수님, 이재열 교수님, 장지현 박사님, 진수희 박사님 등을 비롯한 자문단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2002년 3월

한국 여성 개발 원
장 장 하 진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의의	3
2. 연구내용	6
3. 연구방법	7
가. 조사방법	7
나. 조사결과	15
다. 용어의 정의	16
4. 연구의 제한점	18
II. 표본의 특성	19
1. 가구의 특성	21
가. 가족형태	21
나. 가구의 생활정도	23
2. 가구원의 특성	27
가. 인구학적 특성	27
나. 가구원의 부양실태	31
다. 가구원의 경제활동상태	33
라. 가구주특성	35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8
가. 개인특성	38
나. 기혼여성 부부의 특성	47
III. 여성 취업자의 고용구조와 특성	55
1.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특성	57
2. 여성 취업자의 고용구조	61
가. 업종별 고용구조	61
나. 직종별 고용구조	65

다. 기업규모별 고용구조	68
라. 종사상지위별 고용구조	71
3.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특성	73
가. 여성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73
나. 여성 임금근로자의 특성	77
4. 여성 취업자의 근로조건	90
가. 노동시간	91
나. 수입 및 임금	96
5. 비정규직 여성 취업자의 특성	98
6. 직업훈련 현황 및 효과	103
가. 여성 취업자의 직업훈련 및 자격증	103
나. 직업훈련 효과	109
7. 취업만족도와 전직희망	110
가. 직장만족도와 취업지속기간	110
나. 전직성향	115

IV. 여성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자의 특성 121

1. 여성 실업자의 특성과 분포	123
가. 여성 실업자의 현황	123
나. 여성 실업자의 구직활동	129
다. 여성 실업자의 취업유형	134
라. 실업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	138
2.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특성과 분포	139
가.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현황	139
나.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현황	141
다. 취업희망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143

V. 여성의 가정영역과 경제활동 151

1. 여성취업과 가사 및 육아 부담	153
가. 가사 및 육아부담	153
나. 가사담당자	155

다. 여성취업과 육아담당자	158
2. 여성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	164
가. 여성취업과 남편태도	164
나. 남편의 찬성이유	167
다. 남편의 반대이유	168
3. 유보임금수준과 통근시간	170
가. 여성의 시장임금과 유보임금수준	170
나. 여성 경제활동과 통근시간	173

VI. 취업력 및 생활사 179

1. 가족생활사	181
가. 여성의 가족생활사	181
나. 세대별 여성의 생애사건	184
2. 취업력	187
가. 과거연령별 취업률	187
나. 과거연령별 취업구조	192
다. 생애단계별 노동시장 참가 현황	196
라. 결혼과 고용구조 변화	205

VII. 요약 및 결론 213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15
나. 여성 취업자의 고용구조와 특성	217
다. 여성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자의 특징	222
라. 취업과 가정영역의 일	223
마. 여성의 취업력	225

부 록 229

부록 1. 부표	231
부록 2. 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의 주요변수	271
부록 3. 조사표	279

표 목 차

<표 I -1> 지역 각 시도별 표본조사구 및 조사대상가구	10
<표 II -1> 지역별 농가 비농가 분포	21
<표 II -2> 지역별 가족형태별 가구분포	22
<표 II -3> 지역별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23
<표 II -4> 지역별 소득원별 가구소득	25
<표 II -5> 지역별 생활비 출처	26
<표 II -6> 주택의 소유여부	26
<표 II -7> 지역별 성별 인구분포	28
<표 II -8> 지역별 성별 혼인상태별 인구분포	29
<표 II -9> 지역별 성별 교육수준별 인구분포-본조사(6세이상 인구)	30
<표 II -10> 육아 및 보호대상자	32
<표 II -11> 육아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부양자	33
<표 II -12> 지역별 성별 가구원의 경제활동 상태	34
<표 II -13> 가구주의 직업, 산업, 종사상지위 분포	37
<표 II -14> 조사대상자의 혼인상태 비교	38
<표 II -15> 조사대상자의 가구주와의 비동거 이유	39
<표 II -16>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연령 및 교육정도 분포	40
<표 II -17> 조사대상자의 고등학교 계열 및 대학의 전공 분포	41
<표 II -18> 조사대상자의 진로선택	42
<표 II -19>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경제활동상태 분포	43
<표 II -20>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건강상태	44
<표 II -21> 조사대상자의 남녀역할에 대한 태도	45
<표 II -22> 조사대상자와 부친의 교육수준	47
<표 II -23> 조사대상자 남편의 일반적 특성 비교	48
<표 II -24> 조사대상 부부 상호간 경제활동상태별 분포	49

<표 Ⅱ -25> 지역별 조사대상 부부 상호간 경제활동상태별 분포	50
<표 Ⅱ -26> 맞벌이부부와 남편외벌이부부의 지역별 연령 및 학력분포	51
<표 Ⅱ -27> 맞벌이와 남편외벌이 부부의 종사상지위	52
<표 Ⅱ -28> 맞벌이부부 상호간 종사상지위 분포	53
<표 Ⅱ -29> 여성취업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54
<표 Ⅲ -1> 여성 경제활동자의 특성별 분포	61
<표 Ⅲ -2> 여성 취업자의 인적특성별 업종분포	63
<표 Ⅲ -3> 여성 취업자의 인적특성별 직종분포	67
<표 Ⅲ -4> 여성 취업자의 인적특성별 규모분포	70
<표 Ⅲ -5> 여성 취업자의 인적특성별 종사상지위 분포	72
<표 Ⅲ -6> 여성 고용주/자영업자의 사업자 등록여부	75
<표 Ⅲ -7> 여성 임금근로자의 입직경로	78
<표 Ⅲ -8> 여성 근로자의 종사상지위별 입직경로	79
<표 Ⅲ -9> 남녀 차별유형	82
<표 Ⅲ -10> 채용과정에서의 차별경험 유무	83
<표 Ⅲ -11> 성희롱경험 유무	84
<표 Ⅲ -12> 직종별 노조유무	85
<표 Ⅲ -13> 노조가입여부	86
<표 Ⅲ -14> 여성 임금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	88
<표 Ⅲ -15> 종사상의지위별 노동시간	92
<표 Ⅲ -16> 35시간 미만 노동 사유	93
<표 Ⅲ -17> 35시간 이상 일자리 희망여부	94
<표 Ⅲ -18> 35시간 이상 일자리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	95
<표 Ⅲ -19> 출근 소요시간	95
<표 Ⅲ -20> 종사상의 지위별 평균소득	96
<표 Ⅲ -21> 직종별 임금지급형태	97
<표 Ⅲ -22>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성	99
<표 Ⅲ -23> 여성시간제의 연령계층별 분포	101
<표 Ⅲ -24> 여성 취업자의 직업훈련 이수 현황	104

<표 III-25> 취업특성별 직업훈련 이수 현황	106
<표 III-26> 취업의 주요 결정요인	107
<표 III-27> 여성 취업자의 자격증 종류 분포	108
<표 III-28> 교육시기별 훈련기관	109
<표 III-29> 훈련시기별 훈련효과	110
<표 III-30> 여성 취업자의 취업만족도	112
<표 III-31> 여성 취업자의 희망 취업지속기간 분포	114
<표 III-32> 종사상 지위별 여성 취업자의 전직희망비율	116
<표 III-33> 취업구조별 전직희망비율	117
<표 IV-1> 인적특성별 여성의 실업률	124
<표 IV-2> 지역별 여성 실업자의 유형별 분포	126
<표 IV-3> 여성 실업자의 예상 구직활동기간별 분포	131
<표 IV-4> 여성 실업자의 구직경로별 분포	132
<표 IV-5> 여성 실업자의 구직사유별 분포	134
<표 IV-6> 여성 실업자의 주요 희망근로조건	136
<표 IV-7> 여성 실업자의 희망 종사상지위	137
<표 IV-8> 실업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	139
<표 IV-9> 인적특성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분포	140
<표 IV-10>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경로별 분포	142
<표 IV-11>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취업희망 사유	144
<표 IV-12> 희망하는 일자리의 종사상지위	145
<표 IV-13> 희망하는 일자리의 고용형태	147
<표 IV-14> 희망하는 일자리의 직종별 분포	147
<표 IV-15>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주요 희망근로조건	148
<표 V-1> 기혼여성 취업자의 가사 및 자녀양육 부담	154
<표 V-2> 가사 및 자녀양육 부담과 일을 그만둘 가능성	155
<표 V-3> 경제활동상태별 기혼여성의 가사전담자 분포	156
<표 V-4> 경제활동상태별 기혼여성의 6세 미만 자녀 보육자	158
<표 V-5> 기혼여성이 이용하고 있는 보육시설 유형	161

<표 V-6> 기혼여성의 향후 보육시설 이용 의향	162
<표 V-7> 향후 보육시설을 이용할 의향이 없는 사유	163
<표 V-8> 바람직한 보육시설의 유형	164
<표 V-9>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상태별 남편태도 변화	166
<표 V-10> 여성취업에 대한 남편의 학력별 태도	167
<표 V-11> 여성취업에 대한 남편의 찬성이유	167
<표 V-12> 여성의 경제활동상태별 남편의 찬성이유	168
<표 V-13> 인적특성별 여성취업에 대한 남편의 반대이유	169
<표 V-14> 여성취업에 대한 남편의 학력별 반대이유	170
<표 V-15> 여성의 시장임금과 유보임금수준 비교	171
<표 V-16> 여성 취업자의 출근소요시간별 분포	173
<표 V-17> 여성 취업자의 직종별 출근소요시간별 분포	174
<표 V-18> 여성 실업자의 희망출근소요기간	175
<표 V-19>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희망출근소요기간	176
<표 VI-1> 과거 연령별 표본수	182
<표 VI-2> 세대별 학력별 여성 분포	183
<표 VI-3> 과거조사와 4차 조사결과의 비교	184
<표 VI-4> 세대별 여성의 생애사건 발생 연령	185
<표 VI-5> 생애단계별 여성의 취업상태 변화	198
<표 VI-6> 학력별 여성의 생애단계별 고용구조	201
<표 VI-7> 세대별 취업여성의 초직의 종사상지위	202
<표 VI-8> 세대별 취업여성의 초직의 업종	203
<표 VI-9> 세대별 취업여성의 초직의 직종	204
<표 VI-10> 결혼 전후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205
<표 VI-11> 결혼 전후의 여성 계속취업자의 종사상지위	207
<표 VI-12> 결혼 전후의 여성 계속취업자의 직종별 구조	209
<표 VI-13> 결혼 전후의 여성 재취업자의 종사상지위 분포	211
<표 VI-14> 결혼 전후의 여성 재취업자의 직종별 구조	211

그 립 목 차

<그림 Ⅱ-1> 지역별 생활정도의 주관적 평가	27
<그림 Ⅱ-2>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	29
<그림 Ⅲ-1> 여성의 경제활동상태별 분류	58
<그림 Ⅲ-2>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58
<그림 Ⅲ-3> 경제활동인구의 연령계층별 구조	59
<그림 Ⅲ-4> 여성 취업자의 업종분포 비교	62
<그림 Ⅲ-5> 여성 취업자의 직종 분포	65
<그림 Ⅲ-6> 여성 취업자의 사업체규모별 분포	68
<그림 Ⅲ-7> 여성 고용주/자영업자의 업종별 자본금	74
<그림 Ⅲ-8> 여성 고용주/자영업자의 업종별 분포	75
<그림 Ⅲ-9> 여성 무급가족종사자의 업종별 분포	76
<그림 Ⅲ-10> 여성 임금근로자의 종사상의 지위별 업종 분포	80
<그림 Ⅲ-11> 여성 임금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81
<그림 Ⅲ-12> 여성 임금근로자의 교육정도별 평균근속년수	87
<그림 Ⅲ-13> 여성 임금근로자의 고용계약여부	89
<그림 Ⅲ-14> 여성 임금근로자의 평균고용계약 기간	90
<그림 Ⅲ-15> 현 직장 근무시 애로사항	91
<그림 Ⅲ-16> 직종별 여성 상용고의 주당 근로시간	93
<그림 Ⅲ-17> 시간제와 전일제 임금수준 비교	103
<그림 Ⅲ-18> 여성 취업자의 직장만족도 비교(3차 및 4차)	111
<그림 Ⅲ-19> 전직을 위한 노력내용	118
<그림 Ⅳ-1> 여성 실업자의 연령계층별 분포	125
<그림 Ⅳ-2> 교육수준별 여성 실업자의 유형별 분포	127
<그림 Ⅳ-3>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그만둔 여성 실업자 비율	128

<그림 IV-4>	인적특성별 여성 실업자의 평균 구직기간	129
<그림 IV-5>	학력별 주요 구직경로별 여성 실업자 분포	133
<그림 IV-6>	여성 실업자의 주요 희망근로조건에의 변화	135
<그림 IV-7>	임금근로 희망 여성 실업자 중에서 전일제 희망자 비율 ..	138
<그림 IV-8>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구직자 비율	141
<그림 IV-9>	취업희망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	143
<그림 IV-10>	연령별 희망하는 일자리의 종사상지위별 분포	146
<그림 V-1>	가사노동자 유형별 월평균 비용	157
<그림 V-2>	여성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 변화	165
<그림 V-3>	연령계층별 여성의 시장임금과 유보임금수준	172
<그림 V-4>	경제활동상태별 여성의 출근시간 분포	177
<그림 VI-1>	여성의 연령세대별 생활사의 변화추이	186
<그림 VI-2>	세대별 과거연령계층별 유업을 추이	189
<그림 VI-3>	연도별 세대별 여성의 연령별 유업을 곡선	190
<그림 VI-4>	학력별 과거연령계층별 유업을 추이	191
<그림 VI-5>	세대별 과거연령계층별 피고용을 추이	193
<그림 VI-6>	연도별 세대별 여성의 연령별 피용자 비율	195
<그림 VI-7>	학력별 과거연령계층별 피고용을 추이	195
<그림 VI-8>	학력별 과거연령계층별 유업을 추이	197
<그림 VI-9>	학력별 생애단계별 여성의 유업을 변화	200
<그림 VI-10>	여성 재취업자의 재취업시기별 분포	210

부 표 목 차

<부표 Ⅱ-1>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분포 - 본조사	231
<부표 Ⅱ-2>	지역별 생활비 출처 - 두 번째 출처	232
<부표 Ⅱ-3>	지역별 생활정도의 주관적 평가	232
<부표 Ⅱ-4>	성별 혼인상태별 인구분포 - 통계청 조사와 3차 취업실태조사	233
<부표 Ⅱ-5>	성별 교육수준별 인구분포 - 통계청 조사와 3차 취업실태조사	233
<부표 Ⅱ-6>	육아 및 보호대상자 특성	234
<부표 Ⅱ-7>	육아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부양자 특성	235
<부표 Ⅱ-8>	경제활동상태별 고등학교 계열 및 대학전공분포	236
<부표 Ⅱ-9>	조사대상자의 경제활동상태별 건강상태	236
<부표 Ⅱ-10>	조사대상자의 혼인상태별 남녀역할에 대한 태도	237
<부표 Ⅱ-11>	조사대상자의 맞벌이 유무별 남녀역할에 대한 태도	239
<부표 Ⅱ-12>	조사대상자의 경제활동상태별 남녀역할 관련태도	241
<부표 Ⅱ-13>	조사대상자의 만 15세때 가족형태	243
<부표 Ⅱ-14>	조사대상자의 만 15세때 아버지의 직업	243
<부표 Ⅱ-15>	조사대상자의 아버지의 학력	244
<부표 Ⅱ-16>	조사대상자의 만 15세때 어머니의 직업	244
<부표 Ⅱ-17>	조사대상자의 어머니의 학력	245
<부표 Ⅲ-1>	여성 임금근로자의 혼인상태별 직종분포	245
<부표 Ⅲ-2>	조사대상 여성비 임금근로자의 특징	246
<부표 Ⅲ-3>	여성 무급가족종사자의 특징	247
<부표 Ⅲ-4>	조사대상 여성 임금근로자의 특징	248
<부표 Ⅲ-5>	조사대상 여성의 경제활동상태별 분포	249
<부표 Ⅲ-6>	취업특성별 여성 취업자의 기업규모별 분포	250

<부표 III-7> 취업특성별 여성근로자의 입 직경로	251
<부표 III-8> 여성 취업자의 평균 노동시간	252
<부표 III-9> 여성 취업자의 평균 소득	253
<부표 III-10> 종사상의 지위별 임금지급 형태	254
<부표 III-11> 취업특성별 차별유무와 유형	254
<부표 III-12> 취업특성별 여성 취업자의 교육훈련 이수유무	255
<부표 III-13> 여성 취업자의 일에 대한 만족도	256
<부표 III-14> 취업특성별 여성 취업자의 희망취업 지속시간	257
<부표 III-15> 취업특성별 여성 취업자의 전 직노력 I	258
<부표 III-16> 취업특성별 여성 취업자의 전 직노력 II	259
<부표 III-17> 인적특성별 여성 취업자 소득계층별 분포	260
<부표 III-18> 여성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별 분포	261
<부표 IV-1> 인적특성별 여성 실업자 분포	262
<부표 IV-2> 구직을 그만 둔 시기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분포	263
<부표 IV-3> 1년간의 구직활동 경험	264
<부표 IV-4> 일거리 있다면 취업 의향	264
<부표 IV-5> 희망하는 통근시간	264
<부표 IV-6> 취업의향이 있음에도 구직 못한 이유	265
<부표 IV-7> 마지막 직장 종사상의 지위	265
<부표 IV-8> 마지막 직장 퇴직 사유	266
<부표 V-1> 기혼여성 취업자의 가사 및 자녀양육 부담	266
<부표 V-2> 인적특성별 기혼여성의 가사전담자	267
<부표 V-3> 여성의 인적특성별 남편의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	267
<부표 V-4> 여성의 종사상지위별 남편 태도	268
<부표 V-5> 출근시간별 분포	268
<부표 VI-1> 생애 단계별 지역별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분포	269
<부표 VI-2> 생애 단계별 학력별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분포	270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의의	3
2. 연구내용	6
3. 연구방법	7
4. 연구의 제한점	18

1. 연구의 배경 및 의의

산업화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와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전반에서의 변화 역시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구조는 여전히 결혼·출산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전통적인 M자형 곡선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졸이상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 번에 제 4차¹⁾로 이루어진 전국적 단위의 조사인 본 「여성취업실태조사」에서 역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수직적·수평적 직종격리현상, 저임금직종에의 집중현상 등은 여전히 중요한 여성취업구조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990년 이후 꾸준히 파급되기 시작하여 1997년 IMF외환 위기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시간제, 파견제, 임시직과 같은 비정규 고용형태의 여성화가 확산되어가고 있음에 따라 여성의 고용불안정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여성의 실업문제 및 대졸 고학력 여성을 중심으로 신규 여성졸업자의 취업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통계청이나 노동부가 생산하는 취업관련 조사자료는 노동과 임금에 관한 정보는 충분히 담고 있으나 노동시장 이외의 변수, 예컨대 가족, 혼인, 가구소득, 여성취업에 대한 사회 및 문화적인 관습과 의식 및 직업훈련 교육내용 등이 결여됨으로서, 여성 취업과 관련된 정확한 문제점 파악과 정책 수립이 불가능하다. 본 취업실태조사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연구뿐만 아니라 가족연구, 혼인관계연구, 출산연구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 그리고 여성취업과 가족, 여성취업과 혼인시장, 여성취업과 직업교육의 상관관계 등 학제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제 3차에 이르는 이제까지의 조사를 통해 무엇보다도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

1) 본원은 미국의 NLSW(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Women)조사와 같은 패널조사는 아니지만 1986년 제 1차 여성취업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992년 제 2차, 1997년 제 3차에 이어 금년 제 4차 조사를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앞으로도 매 5년 간격으로 여성의 취업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 결혼과 자녀양육 등 가족관련 요인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밝혔으며, 그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그간 여성노동에 대한 정책적·학문적 관심을 갖는 연구자들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본 자료를 기초로 많은 연구 및 학위논문이 발표되었으며,²⁾ 향후 지속적인 조사 수행에 대한 기대 또한 날로 커지고 있다.

금번 제 4차 취업실태조사에서는 조사대상과 연구내용을 최근의 급격한 노동시장 구조변동을 반영하여 일부 변경하였다. 우선 조사대상자를 보면, 제 1차 조사에서는 기혼여성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제 2차 조사에서는 학생을 제외한 미혼여성을 포함시켰고, 제 3차 조사에서는 15세 이상 학생까지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하지만 제 3차 조사에서 학생은 대부분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다는 이유 때문에 학생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휴학을 하거나 재학 중에 시간제 노동을 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금 번 제 4차 조사에서는 학생의 경제활동상태를 상당히 보장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표본수를 대폭 늘림으로써 조사가구 및 개인의 수가 증가하였다. 제 3차 조사 때의 조사대상은 전국 80개 지역, 3,200 가구, 개인 3,840명이었으

2) 여성취업실태조사를 이용한 연구 및 학위논문은 아래와 같다.

Mijeong Lee(1996), Women's Education, Work, and Marriage in Korea: Women's Lives Under Institutional Conflict, Doctoral Thesis, Univ. of California.

Young-shoo Shin, Tae-hong Kim(1997),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Choice of Occupation in Korea, East-West Center Working Paper.

김태홍(1995), 「기혼여성의 재취업구조와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_____(1996), 「단시간노동의 결정요인분석」, 「노동경제논집」, 19집 1호, 한국노동 경제학회.

유영희(1995), 「여성의 노동시장전환에 관한 사건사분석」, 석사학위논문, 한림대.

이재열(1996), 「여성의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의 상호연관성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인구학」, 제19권, 제1호.

최강식·정진화(1997), 「여성 잠재인력의 활용방안」, 한국노동연구원.

김영옥(1998), 「여성취업력의 동태적인 변화분석」, 한국여성개발원.

박수미(2001), 「한국여성의 취업결정요인분석 - 횡단적 자료분석을 중심으로」, 「2001년 한국인구학회 전기학술대회 발표문」.

_____(2001), 「한국여성들의 최초 노동시장 진입 및 퇴장에 대한 종단적분석」, 「2001년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발표문」.

나, 제 4차 조사대상은 125개 지역, 5,000가구, 개인 6,000명이다.

또한 제4차 실태조사에서는 이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① 여성노동분석에서 필수적인 고용, 인구, 가족학적 변인 등을 조사하였다. 이에 더불어 ②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산을 고려하여 임시 및 일고와 관련된 조사항목을 보완하였고, ③ 15세 이후부터 현재 시점까지 교육, 직업훈련 및 사회교육관련 변수를 취업력과 함께 조사함으로써, 여성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문제점과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④ IMF 경제위기 이후 청년층 여성실업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청년층집단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전이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항목을 보완하였다. 또한 ⑤ 가족 내 장애인 및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 등에 대한 현황 등에 대한 조사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여성복지대상 집단을 대상으로 생산적 복지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자 하였다. 이 외에도 ⑥ 6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의 보육시설 활용실태 및 수요, 사교육비 지출 현황 등을 보강함으로써 자녀양육 및 교육이 여성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⑦ 가족 내 여성의 소득 비중을 파악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지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⑧ IMF 구제 금융 도입 이후 여성취업구조 및 가족관계의 변화 및 여성 취업과 결혼 만족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항목을 추가하였다.

이와 같이 제 4차 조사에서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에 맞춰 여성노동력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여성인력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정책개발의 근거자료를 생산해 냄으로써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생산된 본 자료를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 표본을 모집단의 특성에 가능한 일치시킴으로써 자료로서의 가치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제 4차 조사의 또 다른 특징은 제 2차 조사부터 조사를 실시한 여성의 취업력 부분을 더욱 보강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가 만 15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취업력을 1년 단위로 회상하는 것이므로 조사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본 조사만이 갖는 독보적 영역으로 자리를 구축한 취업력에 대한 조사는 기혼여성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여성의 생애주기와 취업의 동태적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여성취업에 대한 장기적인 진단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이 번에 보강된 여성의

직업훈련과정에 대한 생애별 추적을 통해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는 여성인력 공급을 위해 필요한 School to work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본원은 본 조사를 통해 여성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실태 및 관련 요인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여성의 취업전반에 대한 방대한 통계를 생산하여 이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물론 본원에서도 본 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 중에 있다. 더불어 앞으로 더욱 많은 외부 연구자들이 본 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2. 연구내용

제Ⅱ장에서는 표본의 특성을 가구의 특성 및 가구원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가구의 특성에서는 가족형태 및 생활정도를, 가구원의 특성에서는 인구학적 특성과 가족부양실태, 경제활동상태, 가구주의 특성 등을 알아본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는 취업 등 진로선택과정 및 남녀역할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특히 조사대상부부의 경제활동상태를 중심으로 맞벌이부부와 외벌이부부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다.

제Ⅲ장에서는 취업자의 고용구조, 근로조건, 비정규직 경향 및 직업훈련현황 및 효과, 취업만족도와 전직희망 등을 분석하고 취업자의 종사상지위에 따른 인적특성 등을 알아본다.

제Ⅳ장에서는 여성 실업자의 인적특성, 구직행위, 취업희망 고용형태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인적특성, 과거 구직행위 그리고 취업희망고용형태를 분석한다.

제Ⅴ장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사, 육아 등을 분석하여, 여성경제활동 특성별 시장임금과 유보임금, 통근시간, 여성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 등을 분석한다.

제Ⅵ장에서는 조사대상자 중 취업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15세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령의 증가에 따라 노동시장 참가와 참가형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출생코드별로 분석한다.

3. 연구방법

가. 조사방법

1) 조사대상자

본 조사는 표본추출에 의해 선택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25구에 대해 먼저 가구조사표를 이용하여 가구와 가구원의 특성을 조사한 뒤, 그 가구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의 취업실태를 조사하였다.

금번 제 4차 취업실태 조사에서는 무엇보다도 학생의 경제활동상태를 자세히 조사하였다. 1985년의 제 1차 조사 때에는 미혼여성을 조사대상에서 완전히 배제시켰고, 2차 조사에는 미혼여성을 포함시켰으나 학교에 재학중인 미혼여성은 조사하지 않았다. 학생인 미혼여성이 제외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실증분석에서 표본편의(sample selection bias) 문제가 발생하여 활용에 있어 한계가 나타나 3차 여성취업실태조사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미혼여성을 모두 조사하였다. 그러나 3차 조사에서도 학생은 대부분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다는 이유로 학생의 경제활동상태는 상세히 조사하지 않았었다. 최근 학생들의 휴학이 증가하고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경제활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학생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조사를 이 번 4차 조사에서는 크게 보강하였다.

2) 표본추출

조사대상지역은 전국으로 하되 섬지역과 특수지역 등은 제외하였다. 본 조사의 표본추출단위는 가구로 하였다. 조사구(ED) 수는 3차 조사 때의 80개보다 많은 125개이며 조사구 당 조사가구수는 3차 조사 때와 같이 40가구로 하였다.

인구센서스 자료에 의해 한 가구당 조사대상자가 약 1.2명이 예상되었으므로 조사규모는 5,000가구의 6,000명이다. 조사가구의 추출과정은 세 단계로, 첫째 조사구의 추출, 둘째 추출된 조사구 내에서 통, 반, 리의 선정, 셋째 가구의 선정으로 나뉘어진다.

가) 조사구의 선정

조사구는 크기에 비례한 확률표집법으로 하였다. 우선 특별시와 직할시 및 중소도시는 동을 단위로, 군부는 읍(면)을 단위로 하여 단위별 인구수를 행정순서로 나열한 후 누계인구수를 구하였다.

보 기

	지역	인구수	인구누계	표본지역 선정번호	조 사 구 선정여부	조사구 계
서울						
종로구	청운동	4702		1	선정	1
	효자동	10942	15644	*	*	*
용산구	청파2동	8149	365060	2	선정	2
	：	：	：	：	：	：
	송인2동	7771	168775	*	*	*
중구	중림동	10332	298950	*	*	*
성동구	옥수1동	13414	727713	3	선정	3
	：	：	：	：	：	：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1동	18015	19935771	55	선정	55
	：	：	：	：	：	：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2673	45463260	125	선정	125

자료: 통계청, 「2000 인구주택 총조사 잠정보고서」(2001).

전국의 인구수는 46,125,367명이나 본 취업실태조사에서는 외국인을 제외한 45,975,999명의 한국인구(자료: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잠정보고서」, 2000, p. 30)중 제주도 인구 512,739를 제외한 45,463,2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25개의 조사구를 구하기 위해 45,463,260을 125로 나누어 363,706(363,706.08에 대한 소수점이하 생략)라는 숫자를 구하였다. 첫 조사지역(서울시 종로구 청운동)을 조사구 1로 지정한 후 매 번 363,706씩을 더한 수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을 조사구로 선정하여 125 조사구를 구하였다.

나) 통반의 선정

난수표를 이용하여 두 자리 숫자 두 개를 선택하여 앞의 것을 통으로 뒤의 것을 반으로 하였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 청운동의 경우 난수표에 의해 34(통 선정을 위한 숫자)와 67(반 선정을 위한 숫자)이라는 수가 뽑혔다. 청운동 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청운동의 통수는 11개 통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조사통수는 1통으로 정하였다. 반수의 선정을 보면 1통의 실제 반수는 3개 반으로, 난수표에 의한 3반은 67/3의 나머지 즉 1반을 조사반으로 정하였다.

보 기

	지역	난수표	실제전체 통 수	조사통	조사통의 실제전체반수	조사구 계
서울종로구	청운동	34-67	11	1	3	1
용산구	청파2동	24-80	11	2	6	2
	⋮	⋮	⋮	⋮	⋮	⋮
*	*	*	*	*	*	*

주: 난수표는 Herbert M. Blalock, Jr, Social Statistics, New York: McGraw-Hill (1979), p. 598을 이용함.

다) 가구의 선정

선정된 반(리)의 가구명부를 동(면)사무소에서 열람하여, 40가구를 조사할 목적으로 명부상단에서부터 60가구에 대한 세대주 명부를 작성하였다. 만일 선정된 반(리)이 60가구가 안될 경우 그 다음 반에서 60가구가 될 때까지 명부를 작성하였다. 제 3차 조사에서는 선정된 반(리)당 40가구에 대한 조사를 위해 48가구까지 조사대상으로 삼았으나 최근 개인정보를 보장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추세에 따라 응답거부가 증가하고 취업을 위한 이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장기출타가 많아져 조사대상 가구 수를 늘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세대주 명부에 있는 60명 이외에는 조사를 할 수 없도록 통제하였다. 1개 조사구당 40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는 것을 전제로 표본추출율은 전국의 14,330,978가구(외국인가구 제외) 중 5,000가구이므로 0.03%이다.

위의 표본선정 단계를 거쳐 선정된 조사구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1> 지역 각 시도별 표본조사구 및 조사대상가구

단위: 개, 가구

	전 국		동 부		음면부	
	조사구	대상가구	조사구	대상가구	조사구	대상가구
서울특별시	27	1,080	27	1,080	-	-
부산광역시	10	400	10	400	-	-
대구광역시	7	280	7	280	-	-
인천광역시	7	280	6	240	1	40
광주광역시	3	120	3	120	-	-
대전광역시	4	160	4	160	-	-
울산광역시	3	120	2	80	1	40
경기도	23	920	20	800	3	120
강원도	4	160	3	120	1	40
충청도	10	400	5	200	5	200
전라도	11	440	6	240	5	200
경상도	16	640	4	160	12	480
계	125	5,000	97	3,880	28	1,120

라) 가구원의 선정

조사대상 가구가 선정 되면 훈련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그 가구의 기혼 부인에게 가구질문표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기혼부인이 부재할 경우 남편이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 대상 가구에 15세 이상 65세미만의 조사대상 여성이 있는 경우 해당질문표(일반용 내지는 학생용)에 모두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는 「여성의 취업실태」의 조사표이다. 제 3차 조사표는 1장 가구질문표, 2장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3장 경제활동 상태, 4장 취업력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4차조사에서는 조사표구성을 약간 변경하였다. 조

사표의 내용은 크게 가구용, 일반용, 학생용으로 구분되며, 일반용 및 학생용 조사표는 각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경제활동 상태, 취업력으로 나누어져 있다. 질문지 구성은 1차부터 3차 조사 시 사용했던 질문내용을 가급적 유지시킴으로써 시계열적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1997년 제 3차 조사 이후 최근까지의 사회 변화를 반영한 질문을 상당히 추가하였다.

가) 가구조사표

조사대상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구질문표에는 모든 가구원에 대한 인적사항 및 15세 이상 가구원에 대한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질문을 비롯하여, 가구주의 직업, 산업, 수입에 관한 사항 및 가구전체의 수입과 생활정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본 4차 가구질문표를 1997년의 3차 조사표와 비교해보면, 여성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육아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와 관련되는 일을 하는 가구원이 누구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들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3차 조사까지 조사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재산 및 소유권 관련 문항을 간소화시켰다. 소득 파악을 위한 기존 방식의 질문은 - 특히 농가 소득에 있어 - 소득으로 환산하기도 매우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응답 거부율도 높아 조사자체가 어렵고 결과의 신뢰도 역시 높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수입을 직접 묻는 형태로 축약하였다. 반면에 여성의 소득 및 소유권 유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가구의 소유 및 소득원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질문하였다.

나) 일반용 조사표

- 조사대상

일반용 조사표의 대상은 조사가구 내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으로,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용 조사대상이 아닌 모든 여성이다. 그러나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경제활동을 주업으로 할 경우, 즉 정규직 취업자일 경우는 일반용 조사표의 조사대상이 된다.

- 일반적 특성

일반용 조사표에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의 학력과 직업 등 성장배경과, 본인의 직업능력이라 할 수 있는 자격증과 학교 때의 전공, 전공선택 이유 및 만족도,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고, 여성의 취업과 역할에 대한 의식을 측정하였다. 또한 기혼여성의 경우 남편의 인적 사항 및 취업상태를 조사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가장 큰 변동은 3차 조사 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에 각기 따로 질문하였던 가사 및 양육부담, 남편 및 가족의 취업에 대한 태도 등을 일반적 특성으로 모두 이동시켜 질문지를 간소화한 점이다. 또한 여기에 가사책임 및 보육, 사교육 문제에 대한 질문을 보강하였다. 이 밖에도 진로에 대한 질문을 늘려, 전공계열을 선택한 동기나 진로결정 시 영향을 받은 사람이나 시기, 학교 교육과 취업과의 연계정도 및 이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또한 자격증 소유유무와 소유한 자격증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이 밖에도 여성취업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을 3차 조사 때보다 늘렸으며, 여성의 취업과 결혼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 상태의 문항은 3차 조사 때와 같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자의 세 범주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최근 사회·경제변동을 고려한 질문을 보충하였다.

취업자는 3차 조사 때와 같이 취업상황, 일의 만족도, 교육경험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고용형태 및 취업에 영향을 미친 요인, 채용과정에서의 차별 경험 유무 및 직장 내 성희롱 경험, 전업을 원할 경우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실업자는 구직방법, 구직형태 등 구직활동에 관한 사항을 위주로, 실업이전의 경제활동상태 및 실업 요인으로 여성차별이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구직원인, 경제적 문제의 해결방법 및 정부의 실업대책 등에 대해 묻는 항목을 보충

하였다.

비경제활동자는 제 3차 조사에서와 같이 과거의 구직경험, 현재의 취업가능성 및 원하는 일의 종류, 취업희망이유 등을 위주로 조사하였다. 또한 비경제활동자의 경제적 문제 해결방법 및 과거 취업경험과 일을 그만 둔 이유 등을 추가 조사하였다.

- 취업력

제 2차 조사시부터 실시되어 현재까지 본 조사만이 갖는 독보적 영역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여성의 취업력에 대한 조사는 기혼여성의 재취업을 촉진 시키려는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해 여성의 생애주기와 취업의 동태적 변화를 추적하는 조사이다. 조사대상자가 만 15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취업력을 1년 단위로 회상하는 것으로써 조사과정이 까다롭고, 특히 연로한 응답자의 경우 자신의 과거 취업경력을 기억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4차 조사에서는 30세 이하 조사대상자용을 따로 만들어 31세 조사대상자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였다. 즉, 비교적 취업경력을 기억하기 쉬운 30세 이상 응답자에게는 직장을 변경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중단한 경우 그 사유를 묻고 구직 중인 경우 구직활동기간 및 구직방법을 묻는 질문을 추가하였다. 그 밖의 질문구성은 제 3차 때와 같이 조사대상자인 여성의 과거 만 15세에서부터 현재 나이에 이르기까지 경제활동상태와 본인과 관련되는 가족생활사를 조사하였다. 즉 연령을 단위로 매 연령마다 노동력 상태, 취업상태와 함께 혼인, 출산, 자녀의 출가 등 가족생활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또한 3차 질문 시 간단하게 질문되었던 교육사항이 상세히 질문되었으며 직업교육 사항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다) 학생용 조사표

조사가구의 가구원 중 1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 중에서 학생으로 등록된 여성을 조사하였으며,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경제활동을 주업으로 할 경우, 즉 정규직 취업자의 경우에는 일반용 조사표로 조사하였다.

학생용 조사표는 일반용 조사표의 기본구성을 토대로 따르고 있으며, 일반용에서는 자세히 묻고 있는 취업실태에 대한 질문을 간소화하고 정규교육 및 직업교육 내용 및 앞으로 취업 및 진로에 관한 사항을 비교적 상세히 질문하였다. 3차 조사에서의 학생용 조사표는 비경제활동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였으나, 본 4차 조사에서는 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 등을 고려하여 취업실태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하였다. 또한 학생들에게 역시 취업력을 조사하였다.

4) 본 조사 실시

본 4차 조사표는 IMF 외환위기 및 최근 사회·경제적 분위기를 반영한 질문들을 부분적으로 추가하였으며, 3차 조사표의 구성을 보다 간소화하기 위해 조사표 구조를 약간 수정하였다. 그러나 본 조사표의 기본 골격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이미 검토된 3차 조사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4차 조사에는 3차 조사 때와 같은 전국단위의 예비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사표에 대한 3차례의 전문가 자문을 거쳤으며, 본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추가된 질문내용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의 10개 가구에 대한 소규모의 모의조사를 실시하였다.

제 3차 조사까지는 본 원 연구진이 조사지도원 및 조사원을 공개채용하여 실시팀을 구성, 직접 조사에 참여하였으나 본 4차 조사는 리서치전문회사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본 조사는 2001년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3주에 걸쳐 실시되었다. 조사는 위탁회사의 조사지도원과 조사원이 수행하였으나 본 연구진들이 조사지도원을 직접 훈련하였다. 조사지도원에게 본 조사의 취지를 충분히 알리고 본 연구진이 작성한 조사지침서에 의해 조사해야 할 내용 및 면접조사방법을 설명하였으며 모의조사를 하였다. 또한 조사지도원들에게는 조사원들을 같은 방법으로 훈련하게 하였다.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조사기준 주간은 실제로 조사하는 시점의 前주일이다.

나. 조사결과

1) 표본수와 완료율

총 조사대상 5,000가구 중 조사 완료된 가구는 4,646가구이다.³⁾ 즉, 한 조사구당 40가구에 대한 조사를 목표로 했으나 실제로는 평균 37.17가구가 조사되었다. 이는 93%의 완료율로 제 3차 조사 때의 99.9%보다 저조한 결과이다. 완료율이 저조한 이유는 갈수록 개인정보를 누출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의 거부가 3차조사 때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이 중 가구 내에 -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인 - 조사대상자가 없어 가구사항만 조사된 경우는 962가구이다. 조사된 총 가구원수는 13,934명으로 이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15세 이상 65세미만 여성은 모두 4,758명으로 34.2%를 차지하고 있어 3차 조사 때의 34.3%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일반용 조사표의 응답자는 4,136명, 학생용 조사표의 응답자는 622명이며 기혼여성은 3,574명, 미혼여성은 1,184명이다.

2) 자료처리 및 분석

조사된 가구 4,646가구 중 1가구에 2명 이상 조사대상자가 있는 가구는 해당 조사표를 작성하였으며 조사대상자가 없는 가구는 가구사항만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집계된 조사표는 모두 9,404부이다.

집계된 조사표는 전산분석에 들어가지 전에 검증 및 편집과정, 코딩 및 편정 과정을 거쳤다. 검증 및 편집과정에서는 설문문항 중 누락된 부분의 보완, 설문항목들간의 내적 일관성 검토 및 개방형질문에 대한 응답내용 등을 분류하였다. 코딩과정에서는 단순부호화가 어렵고 전문지식이 필요한 직업, 업종 등을 중심으로 수치화를 하였으며, 이러한 코딩과정을 마친 후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램인 폭스프로(FoxPro)를 이용하여 수치화된 자료를 컴퓨터파일에 입력하였다. 그리

3) 조사대상자들의 조사기피경향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조사예정 가구수인 5,000가구의 조사를 위해 7,500가구를 조사대상예상가구로 선정하였다. 즉 1개 조사구당 40가구를 조사하기 위하여 60개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그중 가능한 가구를 선착순으로 조사하였다.

고 마지막으로 이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통해 수정된 최종 데이터는 SPSS for Windows 11.0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를 실시하였다.

3) 분석 대상

각 장의 분석대상과 대상자수는 다음과 같다.

단위: 가구, 명

장	분석대상	분석대상자수
II장	-조사가구	4,646가구
	-조사가구원	13,934명
	-조사대상 여성:15세이상 65세미만 여성	4,758명
III장	-여성 취업자	1,991명
IV 장	-여성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	2,767명
V 장	-조사대상 여성	4,758명
VI장	-25세이상 65세미만 여성	3,906명

본 조사대상 여성이 전체 조사가구원 중 차지하는 비율은 34.2%로, 통계청의 「2000년 총조사인구」 통계에 따른 전국 인구대비 - 본 조사대상인 - 1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의 비율 38.6%에 비교할 때 비교적 낮은 수치이지만 대표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다.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공식입장을 따르고 있다. 다만 다음의 용어는 그 정의를 약간 달리하고 있다.

- 가구주: 호적이나 주민등록상의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가구를 대표하여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생계책임자란 가구원 중에서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일뿐만 아니라 가계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판단이 애매할 경우 그 가구에 경제적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을 가구주로 조사하였다. 그 이유는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가장의 경우에도 흔히 남편을 ‘가장’ 또는 ‘가구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가구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가구원이 외지에 상주하고 있는 경우는 조사에서 제외하였지만 가구주는 예외로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모두 조사하도록 하였다.
- 농가와 비농가: 동거 가구원 중 농업이나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가구원이 전혀 없는 가구는 비농가로,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농가로 구분하였다. 또한 겸업농가의 경우는 농가로, 어업농가의 경우는 비농가로 분류하였다. 그 이유는 농가의 경우 수입산출이 복잡하기 때문에 따로 세분화된 조사표가 필요하지만, 어업농가의 경우 농가조사표에 해당사항이 없고 수입산출이 농가처럼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비농가로 분류하였다.
- 경제활동 참가율: 기본적으로 정부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같이 지난 1주간의 노동력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노동력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OECD의 기준에 맞춰 지난 한 달간의 노동력 상태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본 보고서의 V장 ‘취업력 및 생활사」에서는 수십 년에 걸친 과거의 취업상태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노동력 접근방법이 적합하지 않아 지난 1년을 기준으로 취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를 취업자로 간주하는 평상상태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용어는 편의상 유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을 병기하여 사용하였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조사연구는 여성의 취업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국규모의 정기적인 조사이다. 1986년 첫 조사를 시작으로 1997년 제 3차 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성취업실태의 변화를 다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여성취업의 장애요인 및 해결과제 발굴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세 차례에 걸친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조사대상자 수 역시 때 조사 때마다 달라 시계 열적인 비교분석은 심층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문제는 4차 조사에서 역시 해결되지 못하였다. 이는 본 조사를 패널연구화 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으로, 추후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조사 대상자는 3차 조사 때보다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표본추출과정을 거쳐 선발되었으므로 그 대표성은 어느 정도 담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주간은 특정 1주간으로 고정시키지 않고 조사시점에서 前 주일을 조사기준 주간으로 하였다. 그것은 조사기간이 한달 가까이 되어 특정 1주간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기억력에 의존해야 하므로 자료의 신빙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이다. 경제활동 상태에 대한 조사주간은 조사지역 및 대상에 따라 2001년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 3주간에 걸쳐 있으며, 이 기간 중 계절적인 상황의 변화가 조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본 조사가 11월과 12월이라는 일 년 중 경제활동참가율이 비교적 낮은 기간동안 이루어짐으로써 본 연구결과를 3월과 4월 중에 조사된 1997년의 제 3차 조사와 비교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

II

표본의 특성

1. 가구의 특성	21
2. 가구원의 특성	27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8

이 장에서는 표본추출 된 가구의 특성 및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의 일반적 특성과 가구원 중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사람(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들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1. 가구의 특성

표본가구는 동부에 3,576가구, 읍면부에 1,070가구가 분포되어 77:23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2001)의 구성비 78.5:21.5와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II-1> 지역별 농가 비농가 분포

단위: %(가구)

	통계청	본조사(4차)		
		전국	비농가	농가
전 체	100.0(14,391,374)	100.0(4,646)	87.1	12.9
동 부	78.5(11,290,609)	77.0(3,576)	95.5	4.5
읍면부	21.5(3,100,765)	23.0(1,070)	59.2	40.8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2001).

가. 가족형태

본 조사 표본가구의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5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은 단독가족, 부부가족, 직계가족 순이다. 이러한 경향은 통계청의 조사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통계청의 조사보다 부부가구 및 단독가구가 다소 높고 핵가족이 낮게 결과하였다. 3차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핵가족의 비율이 3.9%포인트 감소한 반면, 확대가족은 2.4%포인트 증가하였다. 무엇보다도 직계가족의 감소와 단독가족의 증가로 순위가 바뀐 것이 눈에 띈다.

조사지역별로는 동부의 경우 부부와 그 미혼의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읍면부는 자녀가 없는 부부가족의 비율이 가장 높다. 부부가족의 경우 읍면부의 연령구성이 저연령보다 고연령층이 많음을 볼 때(<부표 II-1> 참고), 아이를 아직 낳지 않은 신혼부부이기보다는 자녀를 출가시킨 고연령층의 부부일 확률이 높다. 동부는 핵가족, 확대가족이 높은 반면, 읍면부는 부부가족, 직계가족, 단독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3차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부부가족, 확대가족, 단독가구는 증가한 반면, 핵가족, 직계가족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 표 II-2> 지역별 가족형태별 가구분포

단위: %(가구)

	3차조사	본조사(4차)			통계청*
	전국	전국	동부	읍면부	전국
부부가족	14.7	15.9(738)	12.6(451)	26.8(287)	12.3(1,765,365)
핵가족	57.7	53.8(2,498)	58.5(2,093)	37.9(405)	56.0(8,015,410)
부부+18세 미만 자녀	35.8	33.6(1560)	36.1(1,290)	25.2(270)	-
기타 핵가족	21.9	20.2(939)	22.5(804)	12.6(135)	-
직계가족	13.1	9.6(447)	9.5(330)	10.9(117)	9.5(1,356,296)
확대가족	0.3	2.7(127)	3.1(111)	1.5(16)	2.8(403,352)
단독가구	11.7	17.5(814)	16.1(574)	22.4(240)	15.5(2,224,433)
기타	2.4	0.5(21)	0.4(16)	0.5(5)	1.1(159,231)
계	100.0(3,195)	100.0(4646)	100.0(3,576)	100.0(1,070)	100.0(14,311,807)

주: * 본 조사의 기준에 따라 원자료 분류.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2001).

가구당 가구원수를 보면 한 가구 당 가구원은 평균 2.98명으로 3차 조사의 3.26명보다 약간 감소하였다. 지역별로는 동부가 3.07명, 읍면부가 2.67명으로

동부의 가구원수가 더 많다. 통계청의 조사보다는 본조사의 가구원 수가 약간 작게 결과하였다.

< 표 II-3> 지역별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단위: %(가구)

	3차조사	본조사(4차조사)		
	전국	전국	동부	음면부
1명	11.7	17.5 (814)	16.1 (574)	22.4 (240)
2명	20.2	21.7 (1,010)	18.8 (673)	31.5 (337)
3명	20.5	20.3 (945)	21.1 (756)	17.7 (189)
4명	31.9	29.9 (1,388)	33.4 (1,193)	18.2 (195)
5명	11.7	7.8 (361)	8.2 (294)	6.3 (67)
6명 이상	4.1	2.8 (128)	2.4 (86)	3.9 (42)
전체	100.0(3,196)	100 (4,646)	100.0 (3,576)	100.0(1,070)
평균 가구원수	3.26명	2.98명	3.07명	2.67명
총조사평균가구원수*	3.34명	3.21명	3.36명	3.03명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7, 2001).

나. 가구의 생활정도

가구의 생활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3차 조사까지만 해도 매우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던 조사표를 본 4차 조사에서는 상당히 간소화시켰다. 이는 앞선 1장의 가구조사표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하였듯이 특히 농가 소득의 환산에 있어 논밭 등의 경지면적과 소유면적, 생산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시간이 오래 걸리고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꺼려하여 응답거부율이 높아짐에 따라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적도록 하였다.

비농가가구의 경우 가구주와 가구원의 소득, 생활비조달의 주요 방법, 생활정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 등을 조사한 것은 3차 조사 때와 같으나, 이 번 4차 조사에서는 가구주 배우자의 소득 및 주택소유여부를 조사하여 여성의 소득 및 소

유권 유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농가는 비농가와 공통의 질문 항목 이외에, 쌀, 채소, 과일 및 가축에 대한 농가 생산물에 대해서는 3차 조사 때만 해도 1년 생산물을 기준으로 분류, 조사한 뒤 농촌진흥청의 1992년 산출방식에 의거하여 생산물별 소득환산률을 적용, 소득액을 산출하였으나⁴⁾ 이 번에는 응답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적도록 하였다.

피고용인의 임금에 대해서는 3차 조사 때와 같이 세금을 제외하기 전의 총액(보너스 포함)임금을 그리고 고용주, 자영업자의 경우 역시 3차 조사에서처럼 사업 경비를 제외한 월소득을 조사하여 소득으로 간주하였다. 기타수입은 이자수입, 배당금, 송금, 임대료, 연금, 정부보조금, 기타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여 소득으로 합산하였다.

가구소득을 크게 가구주 소득, 가구주 배우자 소득, 기타가구원 소득 그리고 가구소득으로 구분하였다. 표본가구의 소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소득의 평균은 202만원 수준이며 동부의 경우는 약 212만원, 읍면부는 약 159만원으로 읍면부의 소득은 동부의 75%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3차 조사 때 전국 총소득 평균이 155만원, 읍면부가 92만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총소득 중에서 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70%이며, 배우자는 11.8%, 기타가구원은 12.1%, 기타가구소득은 6.1%로 가구주소득 및 기타가구소득은 동부보다 읍면부가 더 높고, 가구주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 소득은 반대로 동부보다 읍면부가 더 높았다. 가구주 소득 및 기타가구원 소득은 3차 조사와 상반된 결과이다. 3차 조사와 비교하면, 가구주소득이 6.0%포인트 감소하였으며, 기타가구원소득 역시 5.1%포인트 감소하였다. 이는 3차 조사에서 기타가구원 소득에 포함되어 있던 가구주배우자 소득을 따로 분리시켰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로 볼 수 있다.

4) 생산물별 소득환산률을 곡류는 수입의 69.6%, 채소 65.9%, 과일 72.4%, 기타 73.8% 즉산 62.7%로 하였다. 농촌진흥청(1992), "한국의 영농주요지표," 「농업경영자료」, 제82호.

< 표 II-4> 지역별 소득원 별 가구소득

단위: %, 원

	동부	읍면부	전체
총소득	100.0	100	100.0
가구주 소득	69.8	70.8	70.0
배우자 소득	12.0	10.7	11.8
기타가구원소득	12.3	10.6	12.1
기타가구소득	5.9	7.9	6.1
총소득	2,121,158	1,595,966	2,022,684
가구주 소득	1,480,949	1,129,732	1,415,124
배우자 소득	254,379	170,068	238,643
기타가구원소득	261,034	168,644	243,799
기타가구소득	124,796	127,522	125,118

생활비의 주 조달방법⁵⁾은 봉급 및 임금으로 52.3%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판매, 제조, 기타 자영업 소득이 19.7%, 농림,어,축산업에 의한 자영업 소득이 10.2%로 높았다. 3차 조사와 비교했을 때 순위에는 차이가 없으나 비율에는 다소의 변화가 있다. 즉, 봉급 및 임금(3차: 56.3%), 판매, 제조, 기타 자영업 소득(3차: 21.9%)에의 의존도는 약간 감소한 반면, 농림,어,축산업에 의한 자영업 소득(3차: 8.4%)은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동부는 봉급 및 임금 다음으로 판매, 제조, 기타 자영업 소득이 높은 반면 읍면부는 농림, 어업, 축산업에 의한 자영업 소득이 32.5%나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읍면부의 경우에는 송금의 비율이 11.0%나 차지하고 있어 비동거 가족에게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5) 생활비 조달방법에 대해서는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본 결과는 1순위 응답이다.

< 표 II -5> 지역별 생활비 출처

단위: %(가구)

	전체	동부	음면부
통금 및 임금	52.3	58.0	33.2
판매,제조,기타 자영업 소득	19.7	21.5	13.6
농림,어,축산업 자영업 소득	10.2	3.5	32.5
이자 및 배당금	1.3	1.5	0.7
임대수입	2.2	2.1	2.5
송금	8.8	8.1	11.0
연금/국가보조금	4.9	4.5	6.2
기타	0.7	0.8	0.3
전체	100.0 (4,591)	100.0 (3,528)	100.0 (1,063)

주택의 소유여부를 알아본 결과 무주택자는 전체 가구원의 3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의 주택소유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주별 차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차이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여성가구주의 경우 남성가구주에 비해 무주택자의 비율이 16.6%포인트 정도 높음을 알 수 있다.

< 표 II -6> 주택의 소유여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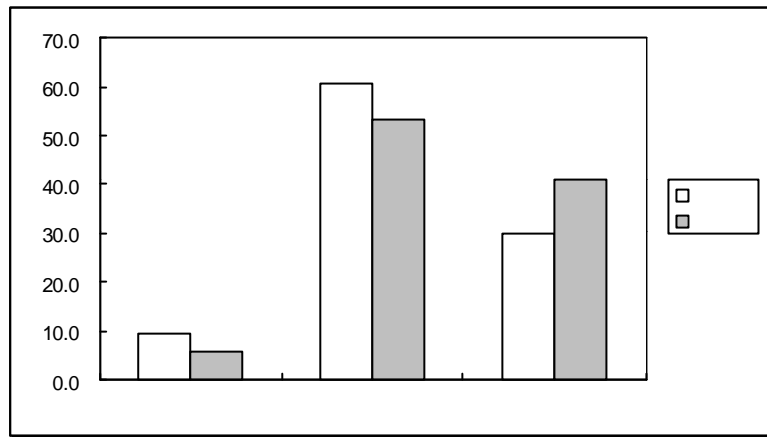
		있다	없다	전체
전 체		66.2(9,223)	33.8(4,711)	100.0(13,934)
성별	남성	66.8	33.2	100.0(6,953)
	여성	65.6	34.4	100.0(6,981)
가구주 성별	남성	65.6	34.4	100.0(3,760)
	여성	49.0	51.0	100.0(886)

자신의 생활정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제 3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그저 그렇다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못사는 편이다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

펴보면, 읍면부에 거주하는 사람이 동부 거주자보다 자신의 생활정도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3차 조사에 비해 잘 사는 편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늘었으며, 못사는 편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줄었다(<부표 Ⅱ-3> 참고).

<그림 Ⅱ-1> 지역별 생활정도의 주관적 평가

단위: %



2. 가구원의 특성

가. 인구학적 특성

본 조사 표본의 특징은 표본가구에서 나타난 가구원의 성, 연령, 학력, 혼인상태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본 조사의 가구원 분포도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3차 조사 때보다 이 번 4차조사가 통계청 조사에 더 유사하게 결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1997년 3차 조사 때 동부의 인구비율(87.5%)이 통계청 조사(78.5%)보다 9.0%포인트 높게 나타난 반면, 이번 4차 조사에서는 동부와 읍면부의 인구분포도가 79.3:20.7로 「인구주택총조사」의 79.8:20.2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 남녀분포 역시 통계청 조사와 유사하게 결과하였다. 즉, 3차 조사에서는 통계청 조사와는 대조적으로 동부의 여성

비율(50.8%)이 남성비율(49.2%)보다 약간 높게 결과하였으나, 이 번 4차 조사에서는 통계청 조사와 같이 남성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녀비율의 차이 자체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

< 표 II-7 > 지역별 성별 인구분포

단위: %(명)

	4차조사			통계청 조사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전체
동부	50.2	48.7	79.3 (11,048)	50.3	49.7	79.8 (36,755,144)
음면부	49.8	51.3	20.7 (2,886)	49.8	50.2	20.2 (9,308,957)
전체	49.9 (6,953)	50.1 (6,981)	100.0 (13,934)	50.2 (23,158,582)	49.8 (22,977,519)	100.0 (46,136,101)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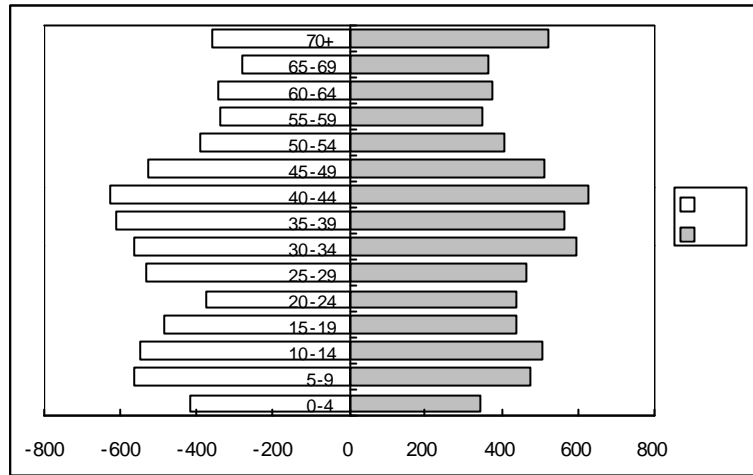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남녀 구성비는 3차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통계청 조사보다 여성이 약간 더 높게 조사되었다. 즉, 통계청 조사에서는 남녀비율이 50.2:49.8인 반면, 본 조사에서는 49.9:50.1로 본 조사의 여성비율이 약간 높으나 0.3%포인트 정도의 차이로 그 차이가 의미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가구의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3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저연령층은 남성이 많은 반면, 60세 이상의 고연령층에는 여자가 많이 나타났다. 남성의 입대 연령인 20-24세의 경우는 전후의 연령계층과 비교하여 그 수가 뚜렷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⁶⁾ 또한 40-44세의 연령층이 월등히 많은 이유는 이들이 베이붐(Babyboom) 세대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듯 3차 조사에 비해 고연령층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6) 본 조사는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군대 등 특수집단에 거주하는 인구는 제외된다. 반면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는 특수집단은 별도로 조사하여 전체인구에 합산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림 II-2>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

단위: 세, 명



조사 가구원의 혼인상태별 인구분포를 보면, 사별 및 미혼의 비율은 3차조사 때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63.8%, 이혼 및 별거가 2.7%로, 64.4%, 1.2%를 나타내고 있는 3차 조사결과에 비해 유배우율이 약간 (0.6%포인트) 감소한 반면, 이혼 및 별거비율은 1.5%포인트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대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사별한 여자 비율의 경우 읍면부가 높아 읍면부 전체 여성의 21.9%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8> 지역별 성별 혼인상태별 인구분포

단위: %(명)

	전 국			동 부			읍면부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유배우	32.1	31.8	63.8	63.9	61.6	62.7	71.6	64.4	67.8
이혼 및 별거	1.2	1.4	2.7	2.5	3.2	2.8	2.9	1.3	2.1
사별	1.2	7.2	8.3	1.9	11.8	6.9	4.3	21.9	13.5
미혼	14.5	10.7	25.2	31.7	23.4	27.5	21.3	12.4	16.6
전체	48.9 (5,422)	51.1 (5,657)	100.0 (11,079)	100.0 (4,299)	100.0 (4,424)	100.0 (8,723)	100.0 (1,123)	100.0 (1,233)	100.0 (2,356)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2001)의 결과와 비교하면 본 조사에서는 유배율이 3.2%포인트 높게 나왔으며, 특히 남자 유배율이 높았다. 미혼 비율은 4.9%포인트 낮게 나왔다. 이러한 차이는 3차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본 4차 조사와 3차 조사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별의 경우와 이혼 및 별거 비율은 거의 유사하게 나왔다(<부표 Ⅱ-4> 참고).

교육수준별 인구분포를 보면, 3차 조사에 비해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대졸이상의 학력이 증가되었다. 즉, 3차 조사 때는 고졸이상이 50.8%를 나타냈으나, 이 번 4차 조사에서는 60.1%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바야흐로 우리나라 인구의 고학력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대졸 이상이 17.4%로 3차조사 때의 13.9%보다 3.5%포인트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3차 조사 결과와 같이 읍면부의 학력수준이 동부보다 낮고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학력수준이 낮았다. 그러나 3차 조사 결과 여성보다 10.2%포인트나 높았던 남성대졸자 비율이 이 번 4차 조사에서는 8.7%로 1.5%포인트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대졸자의 증가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 표 Ⅱ-9> 지역별 성별 교육수준별 인구분포-본조사(6세이상 인구) 단위: %(명)

	전 국			동 부			읍면부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무학	5.5	14.3	10.2	3.6	9.0	6.4	12.1	32.0	22.8
초졸	13.7	19.5	16.8	9.8	17.2	13.7	27.3	27.2	27.2
중졸	12.8	13.0	12.9	12.1	13.8	13.0	15.5	10.6	12.9
고졸	41.2	35.2	38.0	43.4	39.3	41.2	33.9	21.8	27.4
초전문대졸	4.7	4.7	4.7	5.3	5.1	5.2	2.6	3.3	3.0
대학이상	22.0	13.3	17.4	25.9	15.8	20.6	8.5	5.1	6.7
전체	100.0 (4,398)	100.0 (4,944)	100.0 (9,342)	100.0 (3,407)	100.0 (3,795)	100.0 (7,202)	100.0 (991)	100.0 (1,149)	100.0 (2,140)

*초등학교 중퇴는 초등학교 졸업수준으로, 그 외 각 학력수준의 중퇴는 그 아래수준에 포함시켰다. 단 재학생은 모두 제외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와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분포하고 있는 편이지만, 고졸의 경우 통계청 조사(3.9%포인트)가, 초대졸이상은 본 조사(3.7%포인트)가 높게 잡혔다(<부표 II-5> 참고).

나. 가구원의 부양실태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가구 내 가구원의 부양실태를 조사하였다. 가구원 내 부양자와 피부양자를 밝히고 부양내용을 알아봄으로써 가구원의 부양실태와 여성 취업실태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1) 피부양자

육아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대상자는 질문에 응답한 전체 13,934명의 가구원 중 13.2%인 1,84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자 중에는 취학 전 아동이 59.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신체쇠약자(15.2%), 질병자(7.3%), 그리고 신체쇠약자임과 동시에 질병자(6.3%), 장애인(6.2%), 질병자임과 동시에 장애인(4.4%), 신체쇠약자임과 동시에 장애인(0.7%), 취학 전 아동임과 동시에 질병자(0.1%), 취학전 아동임과 동시에 장애인(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유형별 피부양자의 여성비율을 보면, 취학 전 아동의 경우 남아의 비율이 더 높았고, 신체쇠약자는 여성이 71.4%나 차지하고 있어 여성건강에 대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중인 가족 역시 여성의 비율(57.8%)이 높았고 장애자의 경우는 남성이 72.8%나 차지하고 있었다.

피부양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취학 전 아동의 경우 64.5%가 0-4세로, 5-9세의 비율이 더 낮은 이유는 이 연령층의 아동이 이전 연령층보다 보육시설 이용도가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체쇠약자의 경우는 70세 이상이 57.9%를 차지하였다. 질병 중인 가족은 20세 이후 점차적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0세 이상에 집중되어 있다. 장애가족의 경우 전 연령층에 대체적으로 고루 분포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고연령층 일수록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신체쇠약자이면서 질병중인 가족은 주로 고연령층, 특히 70세 이상(55.6%)에 분

포되어 있고 질병 중인 장애가족 역시 주로 55세 이상의 고연령층에 집중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눈에 띄는 현상은 상대적으로 높은 40대의 질병률과 장애율이라 할 수 있다.

피부양비율이 비가구주보다 가구주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신체쇠약자나 질병중인 가족이 가구주의 부모보다는 가구주가 더 높은 현상은 확대, 직계가족보다는 핵가족의 비율이 높고, 또한 고연령 핵가족 및 단독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부표 Ⅱ-6> 참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의 특징은 저연령층, 가구주의 미혼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0> 육아 및 보호대상자

단위: %(명)

	취학전 아동	신체 쇠약자	질병중 인가족	장애 가족	취학전/ 질병	취학전/ 장애	신체 쇠약/ 질병	신체 쇠약/ 장애	질병/ 장애	전체
전 체	59.7 (1,101)	15.2 (280)	7.3 (135)	6.2 (114)	0.1 (2)	0.1 (2)	6.3 (117)	0.7 (13)	4.4 (81)	100.0 (1,845)
여성비율	46.5	71.4	57.8	27.2	100.0	0.0	58.1	61.5	42.0	50.6 (933)
남성	64.6	8.8	6.3	9.1	0.0	0.2	5.4	0.5	5.2	100.0 (912)
여성	54.9	21.4	8.4	3.3	0.2	0.0	7.3	0.9	3.6	100.0 (933)

2) 부양자(Caregiver)

부양자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 중 9.9%가 부양이 필요한 가구원을 돌보고 있는 부양자로 나타났다. 그리고 취학 전 아동 및 신체쇠약자 등 보호대상자를 돌보는 사람은 주로 여성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취학 전 아동을 돌보는 사람은 77.4%가 여성이었다. 남성의 부양부담은 질병 중인 환자(43.8%)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부담(56.2%)보다는 낮다.

전체적으로 부양부담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30-34세로 전체의 3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취학전 아동에 대한 부담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부양부담

중에는 30대 여성의 육아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쇠약자에 대한 부담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40-44세로 22.8%를 차지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피부양자가 중복부양부담을 가지고 있을수록 고연령층의 부양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신체쇠약자이면서 질병중인 가족의 경우 70세 이상의 고연령층의 부양부담이 23.6%나 차지하고 있다.

부양자의 가구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구주의 배우자 부양부담이 6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가구주(25.4%), 가구주의 미혼자녀(3.7%) 순이었다. 취학 전 아동의 경우는 가구주의 배우자의 부양부담이 6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부표 II-7> 참고).

<표 II-11> 육아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부양자

단위: %(명)

	취학전 아동	신체 쇠약자	질병중 인가족	장애 가족	취학전 /신체 쇠약	취학전 /질병	취학전 /장애	신체 쇠약/ 질병	신체 쇠약/ 장애	질병/ 장애	전체
전체	71.5 (982)	6.7 (92)	5.3 (73)	6.0 (82)	0.1 (1)	0.1 (1)	0.3 (4)	5.2 (72)	1.2 (17)	3.6 (50)	100.0 (1,374)
여성비	77.4	64.1	56.2	64.6	100.0	100.0	50.0	63.9	70.6	72.0	73.6 (1,011)
남성	61.2	9.1	8.8	8.0	0.0	0.0	0.6	7.2	1.4	3.9	100.0 (363)
여성	75.2	5.8	4.1	5.2	0.1	0.1	0.2	4.6	1.2	3.6	100.0 (1,011)

다. 가구원의 경제활동상태

본 조사에서는 표본가구의 가구원 중 만 15세 이상인 가구원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하였다. 경제활동상태의 구분은 노동력 접근법에서 사용하는 기준을 적용했다.⁷⁾ 지난 주에 18시간미만으로 일한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해서는 3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비취업자로 간주,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7) 통계청은 현재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사의 성격에 따라 노동력 접근법과 유업자적 접근법을 병행하고 있다. 노동력 접근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2001) 조사개요부분을 참조.

하였다.

본 조사의 조사대상 가구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가구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6.6%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준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12월 경제활동참가율 60.3%에 비해 3.7%포인트가 낮은 것이다. 실업률의 경우, 본 조사는 3.2%로 통계청의 3.4%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과하였다.

<표 II-12> 지역별 성별 가구원의 경제활동 상태

단위: 명, %

	전국			동부			읍면부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15세이상 인구	5,422	5,657	11,079	4,299	4,424	8,723	1,123	1,233	2,356
경제활동인구	3,820	2,450	6,270	3,016	1,840	4,856	804	610	1,414
취업자	3,629	2,286	5,915	2,845	1,703	4,548	784	583	1,367
실업자	191	164	355	171	137	308	20	27	47
비경제활동인구	1,602	3,207	4,809	1,283	2,584	3,867	319	623	942
경제활동참가율	70.5	43.3	56.6	70.2	41.6	55.7	71.6	49.5	60.0
실업률	3.5	2.9	3.2	4.0	3.1	3.5	1.8	2.2	2.0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남자는 70.5%, 여자는 43.3%를 나타내고 있다. 남녀 경제활동참가율의 격차는 27.2%포인트로 3차 조사 때의 29.7%포인트 보다 2.5%포인트가 좁혀졌다. 한가지 특징적인 점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역별로 그렇게 심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는 반면, 여성의 경우 읍면부가 동부보다 7.9%포인트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 실업률의 경우 3차 조사에서는 5.9%를 나타낸 반면, 본 4차 조사에서는 2.9%로 3.0%포인트나 낮게 나타났으나 같은 시기 통계청 여성실업률이 3.3%인 점을 감안한다면 여성의 실업률이 1997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라. 가구주특성

본 조사에서는 가구주에 대해 '가구를 대표하며 동시에 가족의 생계를 주로 책임지는 사람'으로 정의하여 조사하였다. 현재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가구주로 조사하였다. 비철연가구에서는 가구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을 가구주로 하였고 기여도가 같은 경우 연장자를 가구주로 하였다. 우선 가구주의 성별분포를 보면 남자가 80.9%, 여자는 19.1%로, 14.1%였던 제 3차 조사에 비해 여자가구주의 수가 5.0%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통계청의 여성가구주 비율 역시 18.5%인 점을 감안한다면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해마다 다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증가는 이혼, 사별 등에 따른 여성단독가구의 증가 및 IMF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 가장의 증가 등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동부보다 읍면부의 여성가구주 비율이 5.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의 취업여부를 보면 전국의 가구주 중 74.4%가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차 때의 85.6%에 비해 11.2%포인트가 낮으나 통계청(2001)의 조사결과 역시 80.8%로 가구주의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여성가구주의 48.8%만이 취업자로 나타나 남성의 80.5%에 비해 매우 낮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한가지 주목할만한 점은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의 조사대상자에 있어 취업률은 동부보다 읍면부가 10.1%포인트 더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가구주의 취업률은 이와 반대로 동부 취업률이 9.3%포인트 더 높다는 사실에 있다.

가구주의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농림어업직에 가장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기능직, 기능공·준전문가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직업분포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동부의 경우는 비교적 모든 직종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편이지만, 기능공·준전문가가 14.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기능직이 14.0%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읍면부의 경우는 50.0%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여성가구주의 경우는 서비스종사자가 24.2%로 가장 높았으며, 읍면부의 경우 농림어업직이 50.4%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

결과를 3차 조사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입법·행정관리의 비율이 8.6%포인트나 감소한 반면, 전문가 및 기능공·준전문가의 비율은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기능직이나 기계조작원, 단순노무직의 경우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직의 비율 또한 21.7%로 3차 조사 때의 15.4%보다 6.3%포인트나 증가하였다. 특히 여성가구의 무직비율이 높게 나타나 동부의 여성가구 중 37.9%, 읍면부의 여성가구 중 36.5%가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3차산업 종사자가 전체의 55.1%로 가장 높으나 3차 조사 때보다 1, 2차 산업종사자가 각각 5.9%포인트, 6.8%포인트 증가하였다. 여성가구의 경우, 동부는 3차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75.4%, 읍면부는 1차산업 종사자가 53.2%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3차 조사 때보다 각각 3.5%포인트, 0.5%포인트 더 높게 나타난 결과이다.

종사상의 지위는 3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비임금근로자보다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다. 그리고 남녀가구의 경우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상용고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3차 조사 때보다 전체적으로 고용주의 비율이 감소(6.3%포인트)하였으며, 자영업자는 증가(11.8%포인트)하였다. 임금근로자 중에는 상용고의 비율이 3%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임시고 및 일용고 역시 약간 감소하였다. 그러나 여성가구의 경우 임시고가 2.0%에서 10.5%로 증가하였다.

< 표 II-13 > 가구주의 직업, 산업, 종사상지위 분포

단위: %(명)

	전국			동부			음면부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전체	80.9 (3,760)	19.1 (886)	100.0 (4,646)	82.1 (2,935)	17.9 (641)	100.0 (3,576)	77.1 (825)	22.9 (245)	100.0 (1,070)
취업여부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취업자	80.5	48.8	74.4	81.0	51.3	75.7	78.5	42.0	70.2
실업/비경제활동	19.5	51.2	25.6	19.0	48.7	24.3	21.5	58.0	29.8
직종별분포 ¹⁾	100.0 (3,108)	100.0 (476)	100.0 (3,584)	100.0 (2,421)	100.0 (353)	100.0 (2,774)	100.0 (687)	100.0 (123)	100.0 (810)
입법, 행정관리	2.7	3.1	0.0	3.7	0.0	3.2	0.9	0.0	0.7
전문가	9.2	9.5	7.4	11.0	9.3	10.8	3.9	1.6	3.6
기술공, 준전문가	12.4	13.6	4.4	16.2	5.7	14.9	4.7	0.8	4.1
사무직	9.6	9.3	11.6	10.5	15.0	11.1	4.9	1.6	4.4
서비스 종사자	9.9	7.8	24.2	8.1	26.6	10.4	6.7	17.1	8.3
판매직	11.7	11.7	11.3	13.3	12.7	13.3	6.0	7.3	6.2
농림어업직	15.7	15.1	19.5	5.2	8.8	5.7	49.9	50.4	50.0
기능직	12.7	13.5	6.9	14.7	9.1	14.0	9.5	0.8	8.1
기계조작원	6.0	6.9	0.2	7.0	0.3	6.2	6.6	0.0	5.6
단순노무직	10.2	9.5	14.5	10.2	12.5	10.5	7.0	20.3	9.0
산업별분포 ²⁾	100.0 (3,099)	100.0 (473)	100.0 (3,572)	100.0 (2,415)	100.0 (349)	100.0 (2,764)	100.0 (684)	100.0 (124)	100.0 (808)
1차산업	16.5	15.8	20.7	5.8	9.2	6.3	51.0	53.2	51.4
2차산업	28.4	30.6	14.0	34.0	15.5	31.6	18.9	9.7	17.5
3차산업	55.1	53.6	65.3	60.2	75.4	62.1	30.1	37.1	31.2
지위별 분포 ³⁾	100.0 (3,022)	100.0 (431)	100.0 (3,453)	100.0 (2,374)	100.0 (331)	100.0 (2,705)	100.0 (648)	100.0 (100)	100.0 (748)
고용주	2.9	3.2	0.2	3.7	0.3	3.3	1.5	0.0	1.3
자영업자	39.6	40.1	35.7	34.8	28.7	34.0	59.7	59.0	59.6
상용고	46.9	48.1	38.7	52.4	45.9	51.6	32.4	15.0	30.1
임시고	3.2	2.0	12.1	2.3	14.5	3.8	0.8	4.0	1.2
일용고	7.4	6.6	13.2	6.9	10.6	7.3	5.6	22.0	7.8

1) 무응답, 불확실=18가구, 가구주가 직업군인=38가구, 무직=1006가구제외.

2) 무응답, 불확실=30가구, 가구주가 직업군인=38가구, 무직=1006가구제외.

3) 무응답, 불확실=149가구, 가구주가 직업군인=38가구, 무직=1006가구제외.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1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이다. 이 절에서는 조사가 완료된 여성 4,758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일반적 특성을 검토하고 아울러 조사대상 여성 중 유배우 기혼여성 부부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동부에 거주하는 여성이 3,872명(81.4%), 읍면부에 거주하는 여성이 886명(18.6%)으로, 3차조사 때보다 읍면부 여성들이 6.8%포인트 높게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조사의 표본가구가 3차조사 때보다 증가함에 따라 읍면부의 비중 역시 커진데서 연유한다.

가. 개인특성

조사 대상자 응답자중에서 미혼의 비율이 24.9%로 3차 조사와 유사하게 결과하였다. 기혼여성 중 다른 비율은 3차 조사와 비슷하게 나왔으나 이혼 여성의 비율은 1.0%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 조사가구원의 이혼·별거 증가율 1.5%포인트에 비해 약간 낮은 수치이다.

< 표 II-14 > 조사대상자의 혼인상태 비교

단위: %(명)

	3차조사		4차조사	
혼인상태	100.0	(3,638)	100.0	(4,758)
미 혼	25.2	(915)	24.9	(1,184)
기 혼	74.8	(2,723)	75.1	(3,574)
유배우	66.8	(2,431)	66.4	(3,160)
이 혼	1.4	(52)	2.4	(112)
사 별	6.0	(219)	5.7	(270)
별거/유기	0.6	(21)	0.7	(32)

가구원의 가구주와의 동거여부를 조사한 결과 98.5%가 같이 산다고 응답하였다. 같이 살지 않는다고 응답한 1.5%인 71명에게 같이 살지 않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취업으로 타지 상주가 7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비율은 동부보다는 읍면부가 더 높았다.

< 표 Ⅱ-15 > 조사대상자의 가구주와의 비동거 이유

단위: %(명)

	전체		동부		읍면부	
전 체	100.0	(71)	100.0	(57)	100.0	(14)
취업으로 타지 상주	76.1	(54)	73.7	(42)	85.7	(12)
해외취업	11.3	(8)	12.3	(7)	7.1	(1)
가족 일로 잠시 출타	2.8	(2)	3.5	(2)	0.0	-
건강상 일시적으로 입원/요양	4.2	(3)	3.5	(2)	7.1	(1)
기타	4.2	(3)	5.3	(3)	0.0	-
무응답	1.4	(1)	1.8	(1)	0.0	-

조사대상자의 연령 분포는 30대가 24.3%로 가장 많고 다음은 40대(24.0%), 20대(19.0%), 50대(15.8%), 20세 미만 (9.2%), 그리고 60세 이상(7.8%)의 순이다. 이는 3차 조사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20대가 4.1%포인트 줄고, 40대가 1.6%포인트 늘어 순위 바꿈을 하였고, 10대가 2.3%포인트 줄고, 50대와 60대가 각각 1.1%포인트, 1.3%포인트 증가하여 고령화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층은 동부에 비해 읍면부가 8.7%포인트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교육정도는 고졸이 41.5%로 3차 조사 때의 37.6%보다 3.9%포인트나 증가하였으며, 중졸이하는 32.4%로 3차 때의 45.0%보다 12.6%포인트나 감소하였다. 또한 초대졸 이상은 26.1%로 3차 조사보다 8.7%포인트나 증가하여 여성의 고학력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표 Ⅱ-16>에서 알 수 있듯이 읍면부 여성의 고학력화보다는 동부여성의 고학력화의 결과로 읍면부 여

성은 오히려 학력이 더 낮아진 것으로 조사됨으로써 고학력 여성의 도시집중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 표 II -16>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연령 및 교육정도 분포

단위: %(명)

	전체		동부		음연부	
연령별	100.0	(4,758)	100.0	(3,872)	100.0	(886)
15-19세	9.2	(439)	9.5	(368)	8.0	(71)
20-29세	19.0	(902)	20.1	(780)	13.8	(122)
30-39세	24.3	(1,154)	25.1	(971)	20.7	(183)
40-49세	24.0	(1,140)	24.1	(934)	23.3	(206)
50-59세	15.8	(751)	15.0	(579)	19.4	(172)
60-64세	7.8	(372)	6.2	(240)	14.9	(132)
교육정도	100.0	(4,758)	100.0	(3,872)	100.0	(886)
중졸미만	18.1	(859)	13.5	(521)	38.1	(338)
중 졸	14.3	(682)	14.1	(547)	15.2	(135)
고 졸	41.5	(1,973)	43.5	(1,685)	32.5	(288)
초대졸이상	26.1	(1,244)	28.9	(1,119)	14.1	(125)

조사 대상자의 고등학교 계열 및 대학의 전공분포를 살펴보면, 응답자 중 64%가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으로 3차 조사보다 13.7%포인트가 증가한 반면, 상업계 및 기타실업계 출신이 각각 10.9%포인트, 2.9%포인트 감소하였다. 이는 최근의 고학력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갈수록 높아져 가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의 선호도를 대변하고 있다. 또한 대학을 졸업한 응답자의 1,228명의 전공분포를 보면, 인문계가 25.3%에서 30.0%로 3차 조사 때보다 4.7%포인트 증가하였고, 예체능계(2.4%포인트), 공학계(1.7%포인트)가 증가한 반면, 사회과학계, 이학계, 의학계, 사범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여학생의 이공계열 진학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공학계에의 진학자는 1.7%포인트만 증가하는데 그쳤고 이학계 진학자는 오히려 3.5%포인트나 감소하였다.

< 표 II-17 > 조사대상자의 고등학교 계열 및 대학의 전공 분포

단위: %(명)

	3차 조사		4차 조사	
고등학교	100.0	(1,285)	100.0	(3,201)*
일반계	50.3	(646)	64.0	(2,050)
상업계	43.1	(554)	32.2	(1,031)
기타실업계	6.6	(85)	3.7	(120)
대학전공	100.0	(638)	100.0	(1,228)*
인문어문계	25.3	(173)	30.0	(368)
예체능계	12.0	(82)	14.4	(177)
사회과학계	13.8	(94)	9.3	(114)
이학계	16.7	(114)	13.2	(162)
공학계	6.0	(41)	7.7	(94)
의학계	8.5	(58)	6.5	(80)
농림수산해양계	1.0	(7)	0.9	(11)
사범계	14.6	(100)	10.0	(123)
경상계**	-	-	5.5	(68)
기타	2.0	(14)	2.5	(31)

* 무응답자를 제외한 수치임.

** 3차에서 경상계는 사회과학에 포함.

조사대상자의 진로선택과정을 보면, 고교계열 및 대학전공선택의 이유는 적성에 맞아서가 각각 28.5%, 55.2%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고교계열선택의 경우 그 다음으로 높은 이유는 상급학교진학(26.4%)인 반면, 대학전공선택은 졸업이후 취업을 생각해서가 18.2%로 높았다.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응답비율은 약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공 및 계열선택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47.1%)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자가 비경제활동자 보다 만족도가 약간 높았다.

< 표 II -18> 조사대상자의 진로선택

단위: %(명)

		전체	경제활동자	비활동자
고교 계열 선택 이유	계	100.0 (3,117)	100.0 (1,371)	100.0 (1,746)
	상급학교 진학	26.4 (824)	22.4 (307)	29.6 (517)
	적성에 맞아서	28.5 (887)	28.2 (387)	28.6 (500)
	성적 때문에	7.6 (237)	7.1 (97)	8.0 (140)
	부모나 주위의 권유로	10.0 (311)	9.5 (130)	10.4 (181)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10.5 (328)	12.3 (168)	9.2 (160)
	졸업이후 취업을 생각해서	17.0 (530)	20.6 (282)	14.2 (248)
대학 전공 선택 이유	계	100.0 (1,205)	100.0 (542)	100.0 (663)
	상급학교 진학	2.7 (32)	2.6 (14)	2.7 (18)
	적성에 맞아서	55.2 (665)	55.0 (298)	55.4 (367)
	성적 때문에	13.7 (165)	12.4 (67)	14.8 (98)
	부모나 주위의 권유로	8.5 (103)	7.7 (942)	9.2 (61)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1.7 (21)	2.2 (12)	1.4 (9)
	졸업이후 취업을 생각해서	18.2 (219)	20.1 (109)	16.6 (110)
만족 도	계	100.0 (1,228)	100.0 (554)	100.0 (674)
	매우 불만족한다	2.6 (32)	2.9 (16)	2.4 (16)
	대체로 불만족한다	10.1 (124)	11.2 (62)	9.2 (62)
	그저 그렇다	27.0 (331)	24.2 (134)	29.2 (197)
	대체로 만족한다	47.1 (579)	47.3 (262)	47.0 (317)
	매우 만족한다	13.2 (162)	14.4 (80)	12.2 (82)
영향 준 사람	계	100.0 (4,258)	100.0 (2,047)	100.0 (2,211)
	아버지	27.8 (1,183)	26.6 (544)	28.9 (639)
	어머니	27.5 (1,171)	28.4 (581)	26.7 (590)
	(부모를 제외한) 가족 및 친지	8.8 (375)	8.7 (178)	8.9 (197)
	담임교사 및 전공교수	10.7 (454)	10.2 (208)	11.1 (246)
	진로(취업)지도교사	5.8 (247)	6.3 (129)	5.3 (118)
	학원 등 비정규 교육기관	0.6 (26)	0.8 (16)	0.5 (10)
	기타	4.0 (169)	3.3 (68)	4.6 (101)
영향 받은 시기	본인 스스로	14.9 (633)	15.8 (323)	14.0 (310)
	계	100.0 (4,257)	100.0 (2,046)	100.0 (2,211)
	중학교 이전 단계	26.9 (1,147)	28.5 (584)	25.5 (563)
	중학교 재학 때	30.4 (1,293)	29.1 (595)	31.6 (698)
	고등학교 재학 때	39.7 (1,691)	39.1 (799)	40.3 (892)
	대학 재학 때	2.4 (102)	2.8 (57)	2.0 (45)
	대학졸업 이후	0.6 (24)	0.5 (11)	0.6 (13)

진로에 영향을 준 사람은 아버지(27.8%)와 어머니(27.5)가 비슷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활동여성의 경우 어머니(28.4%)가, 비경제활동여성은 아버지(28.9%)가 영향을 가장 많이 준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본인 스스로의 결정이나 담임교사 및 전공교수의 영향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을 받은 시기는 경제활동자나 비경제활동자 모두 고등학교 재학 때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절대다수가 고등학교 재학 이전에 진로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비경제활동자가 54.3%로 3차조사 보다 1.5%포인트 증가하였다. 취업자는 41.8%로 2.6%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실업자는 3.9%로 1.0%포인트 증가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경제활동 상태를 전체 가구원과 비교해보면, 조사대상자의 실업률은 전체 가구원(6.0%)보다 2.1%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또한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전체 가구원은 45.7%로 전체 가구원의 취업자가 조사대상자의 취업자보다 6.5%포인트 높다. 지역별로는 전체 실업자 185명중 152명(82.2%)이 동부지역에 분포해 있으며, 읍면부는 동부지역에 비해 취업자 비율이 11.1%포인트 높다. 제 3차 조사 때 동부실업률이 96.2%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동부와 읍면부 실업률차이가 어느 정도 좁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부와 읍면부의 취업률 차이는 4.7%포인트 증가하였다.

< 표 II -19>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경제활동상태 분포

단위: %(명)

	전체		동부		읍면부	
경제활동상태	100.0	(4,758)	100.0	(3,872)	100.0	(886)
취업자	41.8	(1,991)	39.8	(1,540)	50.9	(451)
실업자	3.9	(185)	3.9	(152)	3.7	(33)
비경제활동인구	54.3	(2,582)	56.3	(2,180)	45.4	(402)

한편 조사대상자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자가판단을 점검해봄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가능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6%가 일상생활 또는 직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다고 말함으로써 제 3차 조사 때 보다 5.5%포인트가 더 건강하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목할 만한 사실은 3차 조사때까지만 해도 차이가 많이 났던 동부, 읍면부의 건강상태의 폭이 많이 좁혀졌다는 점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령자가 많은 읍면부의 경우, 3차 조사때만 해도 건강상태가 일상생활 또는 직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58.6%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 번 4차 조사에서는 77.1%로 18.5%포인트나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조사대상자 여성의 건강상태가 5년 전 보다 전반적으로 좋아졌음을 알 수 있다.

< 표 II-20 >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건강상태

단위: %(명)

	전체		동부		읍면부	
일상생활을 돌볼 수 없을 정도로 나쁘다	1.8	(84)	1.6	(62)	2.5	(22)
일상생활을 돌볼 수 있으나 직업을 갖기는 어렵다	10.3	(492)	10.7	(416)	8.6	(76)
직업을 가질 수 있으나 힘든 일 많은 일은 못한다	11.9	(566)	11.9	(461)	11.9	(105)
일상생활 또는 직업활동에 제한받지 않는다	76.0	(3,613)	75.7	(2,931)	77.1	(682)
전 체	100.0	(4,755)	100.0	(3,870)	100.0	(885)

조사대상자의 남녀역할에 대한 태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3차 조사에서 질문했던 내용과 함께 IMF 외환위기 이후의 사회분위기를 고려한 문항들을 추가하여 질문하였다.

여성의 결혼 후 취업에 대해서는 찬성이 매우 많았으며, 여성의 가사 및 육아 부담이 취업에 방해요인이 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사 및 양육이 주로 여성의 책임이라는 사고에 대해 대체로 반대의사를 나타냈으며, 여성의 취업이 남편수입의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은 많지 않았다. 또한 여성의 취업난이 남성보다 직업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여성 역시 많지 않아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능력이 같다면 남성이 먼저 취업을 해야한다거나, 정리해고를 해야

한다면 맞벌이의 경우 여자가 퇴사해야 한다 등과 같이 직장생활에 있어 남성 중심주의적 보수주의가 여전히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은 찬성하지만 남성의 기득권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보수적인 사고가 아직까지 지배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역별, 혼인상태별로 남녀역할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의외로 커다란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혼여성의 경우는 대체로 기혼여성에 비해 평등지향적인 태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부표 II-10> 참고).

<표 II-21> 조사대상자의 남녀역할에 대한 태도

단위: 명, %

	전체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여성도 결혼후 계속 취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754 100.0	64 1.3	220 4.6	585 12.3	2,387 50.2	1,498 31.5
여성은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남성처럼 성공하려 애쓸 필요 없음	4,747 100.0	1,189 25.0	1,970 41.5	803 16.9	644 13.6	141 3.0
능력이 같다면 여자보다 남자 를 취직시켜야 한다	4,749 100.0	690 14.5	1,078 22.7	966 20.3	1,370 28.8	645 13.6
정리해고를 해야한다면 맞벌 이의 경우 여자가 퇴사하는게 낫다	4,751 100.0	473 10.0	922 19.4	993 20.9	1,683 35.4	680 14.3
여성의 취업률이 남성보다 낮 은 것은 가사 및 육아부담때문 이다	4,749 100.0	103 2.2	362 7.6	795 16.7	2,293 48.3	1,196 25.2
여성은 취업을 해도 집안일과 자녀 양육은 여성책임이다	4,745 100.0	803 16.9	1,233 26.0	1,000 21.1	1,358 28.6	351 7.4
여성이 잘되는 길은 자신의 성 공보다 남편을 잘 섬겨야 한다	4,743 100.0	629 13.3	1,087 22.9	1,078 22.7	1,450 30.6	499 10.5
여성의 취업률이 남성보다 낮 은 것은 여성의 직업적 능력부 족때문이다	4,750 100.0	937 19.7	1,904 40.1	1,032 21.7	760 16.0	117 2.5
여성의 취업은 남편수입의 보 조적인 수단일 뿐이다	4,750 100.0	819 17.2	1,440 30.3	1,211 25.5	1,101 23.2	179 3.8

남녀역할에 대한 태도에 있어 혼인상태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나타났듯이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맞벌이 여부에 따른 남녀역할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혼인여부보다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맞벌이 여성의 경우에도 남녀역할에 대한 태도에 있어 남편외벌이 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예를 들어 여성이 잘되는 길은 자신의 성공보다 “남편을 잘 섬겨야 한다”와 같은 문항의 경우에는 남편외벌이 여성보다 더 보수적인 견해를 나타냈다(<부표 II-11> 참고).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의 성장배경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응답자 부모의 학력 및 직업 등을 살펴보았다.^{B)} 조사대상자의 아버지는 초졸, 고졸, 무학, 중졸, 대졸, 초대졸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는 초졸, 무학, 중졸, 고졸, 대졸, 초대졸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와 부모의 학력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도 낮았으나, 부모의 교육수준이 아주 낮은 경우 자녀는 부모보다 교육수준이 높게 나타나 학력수준이 낮은 부모의 자식에 대한 교육열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조사대상자의 맞벌이유무별 부친의 직업을 살펴보면, 부모가 비교적 기술이 없는 하위직종(무직 및 단순노무직)에 종사할수록 조사대상자의 맞벌이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조사대상자가 고용주일 경우에는 모친이 사무직 종사자가 많았으며, 부친의 경우는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가 높게 나타났다.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부모 모두 농·임업 및 어업숙련노동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상용고의 경우 아버지가 군인이고 어머니가 사무직종사자일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용고의 경우는 부모가 모두 단순노무자일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나 부모의 직업이 자식의 종사상의 지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B)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표 II-13> ~<부표 II-17>을 참고할 것.

< 표 II -22> 조사대상자와 부친의 교육수준

단위: 명(%)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					부친 계
		초졸미만	중졸	고졸	초대졸	대졸이상	
부친 교육 수준	무학	349 (8.2)	123 (2.9)	148 (3.5)	94 (2.2)	37 (0.9)	751 (17.7)
	초졸	548 (12.9)	196 (4.6)	320 (7.6)	164 (3.9)	91 (2.1)	1,319 (31.1)
	중졸	272 (6.4)	99 (2.3)	184 (4.3)	91 (2.1)	73 (1.7)	719 (17.0)
	고졸	335 (7.9)	144 (3.4)	186 (4.4)	137 (3.2)	144 (3.4)	946 (22.3)
	전문대 졸업	22 (0.5)	5 (0.1)	9 (0.2)	4 (0.1)	10 (0.2)	50 (1.2)
	대졸 이상	159 (3.8)	69 (1.6)	32 (0.8)	76 (1.8)	117 (2.8)	453 (10.7)
소계		1,685 (39.8)	636 (15.0)	879 (20.7)	566 (13.4)	472 (11.1)	4,238 (100.0)
							모친 계
모친 교육 수준	무학	547 (12.1)	184 (4.1)	250 (5.5)	151 (3.3)	73 (1.6)	1,205 (26.7)
	초졸	712 (15.7)	236 (5.2)	404 (8.9)	203 (4.5)	136 (3.0)	1,691 (37.4)
	중졸	237 (5.2)	107 (2.4)	175 (3.9)	116 (2.6)	111 (2.5)	746 (16.5)
	고졸	259 (5.7)	115 (2.5)	109 (2.4)	102 (2.3)	118 (2.6)	703 (15.5)
	전문대 졸업	12 (0.3)	6 (0.1)	4 (0.1)	3 (0.1)	9 (0.2)	34 (0.8)
	대졸 이상	45 (1.0)	27 (0.6)	5 (0.1)	27 (0.6)	38 (0.8)	142 (3.1)
소계		1,812 (40.1)	675 (14.9)	947 (20.9)	602 (13.3)	485 (10.7)	4,521 (100.0)

나. 기혼여성 부부의 특성

조사대상자 4,758명 중 유배우 기혼여성의 남편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조사된 2,727명을 대상으로 조사대상자 남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II -23>과 같다.

< 표 II-23 > 조사대상자 남편의 일반적 특성 비교

단위: %(명)

	전체		동부		음면부	
연령분포	100.0	(2,727)	100.0	(2,193)	100.0	(534)
15-19세	-	-	-	-	-	-
20-29세	3.5	(96)	3.3	(72)	4.5	(24)
30-39세	28.3	(771)	29.6	(650)	22.7	(121)
40-49세	35.4	(965)	36.4	(798)	31.3	(167)
50-59세	22.8	(623)	22.8	(499)	23.2	(124)
60-64세	10.0	(272)	7.9	(174)	18.4	(98)
교육정도	100.0	(2,727)	100.0	(2,193)	100.0	(534)
중졸미만	12.3	(335)	8.3	(183)	28.5	(152)
중졸	13.0	(355)	11.9	(261)	17.6	(94)
고졸	41.3	(1,127)	42.3	(928)	37.3	(199)
초대졸이상	33.4	(910)	37.4	(821)	16.7	(89)
경제활동상태	100.0	(2,727)	100.0	(2,193)	100.0	(534)
취업자	90.0	(2,453)	89.4	(1,961)	92.1	(492)
실업자	2.4	(66)	2.9	(63)	0.6	(3)
비경제활동인구	7.6	(208)	7.7	(169)	7.3	(39)
종사상의 지위	100.0	(2,453)	100.0	(1,961)	100.0	(492)
고용주	3.5	(87)	4.0	(78)	1.8	(9)
자영업자	38.7	(950)	35.2	(691)	52.6	(259)
무급가족종사자	0.3	(7)	0.3	(6)	0.2	(1)
상용고	50.0	(1,226)	52.7	(1,034)	39.0	(192)
임시 및 일용고	7.5	(183)	7.8	(152)	6.3	(31)

연령별로는 40대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그림 II-2>의 연령별 인구분포도를 반영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특이한 사항은 3차 조사 때와는 달리 20대와 60대의 비율이 각각 2.9%, 3.8%로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학력은 고졸이 41.3%로 가장 많고 초대졸 이상이 33.4%로 3차 조사에서 보다 7.1%포인트나 증가함에 따라 고학력화현상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조사대상자의

26.1%가 초대졸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남편의 학력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 남편의 종사상의 지위를 살펴보면, 상용고가 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높은 자영업자가 38.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읍면부의 경우 자영업자가 52.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상용고로 39%를 나타내고 있다.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은 0.3%에 불과하다.

조사대상 부부의 상호 경제활동상태를 비교해보면, 조사대상자 남편의 86.0%가 취업자인 반면, 부인의 취업률은 41.3%로 남편의 경제활동율이 2배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실업률의 경우 부인 2.5%, 남편 2.3%로 비슷하게 결과하였다.

조사대상 부부 상호간 경제활동상태 분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남편 혼자 취업한 부부가 4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맞벌이부부가 36.6%로 많았다. 부인만 취업한 가구는 3.6%에 지나지 않으며, 부인이 취업자이고 남편이 실업자인 부부는 1.1%로 나타났다. 남편, 부인 모두 비경제활동상태인 가구는 12.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 표 II -24> 조사대상 부부 상호간 경제활동상태별 분포

단위: 명(%)

		부인의 경제활동상태			남편 전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자	
남편의 경제활동	취업자	1,111(36.6)	63(2.1)	1,434(47.3)	2,608(86.0)
	실업자	35(1.2)	8(3)	28(9)	71(2.3)
	비경제활동자	108(3.6)	5(2)	241(7.9)	354(11.7)
부인 전체		1,254(41.3)	76(2.5)	1703(56.1)	3,033(100.0)

조사대상 부부의 상호 경제활동 상태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의 경우 남편 혼자 취업한 가구가 49.5%로 읍면부의 38.7%보다 높았으며, 부인이 취업하였으나 남편이 실업자인 가구 역시 동부가 1.3%, 읍면부가 0.3%로 동부가 높게

나왔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동부 34.2%, 읍면부 46.3%로 읍면부가 12.1%포인트 더 높았다. 동부의 경우 남편 외벌이가 가장 많았고 읍면부의 경우는 맞벌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표 II -25> 지역별 조사대상 부부 상호간 경제활동상태별 분포

단위: 명(%)

동부		부인의 경제활동상태			남편 전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자	
남편의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827(34.2)	48(2.0)	1,197(49.5)	2,072(85.6)
	실업자	32(1.3)	7(0.3)	28(1.2)	67(2.8)
	비경제활동자	78(3.2)	4(0.2)	199(8.2)	281(11.6)
부인 계		937(38.7)	59(2.4)	1,424(58.8)	2,420(100.0)
읍면부					
남편의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284(46.3)	15(2.4)	237(38.7)	536(87.4)
	실업자	3(0.5)	1(0.2)	0(0.0)	4(0.7)
	비경제활동자	30(4.9)	1(0.2)	42(6.9)	73(11.9)
부인 전체		317(51.7)	17(2.8)	279(45.5)	613(100.0)

다음으로는 맞벌이 부부와 남편은 취업자이고 부인은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남편외벌이 부부에 대한 인적 특성을 보다 자세히 비교해 보고자 한다.

먼저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남편외벌이부부가 맞벌이에 비해 젊은 연령층이 많은 점이 눈에 띈다. 즉, 맞벌이 남편은 40대(39.3%)에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반면, 외벌이 남편의 경우 30대가 35.1%로 가장 높게 분포되어 있다. 부인의 경우 역시 맞벌이는 40대(42.0%)가, 외벌이는 30대(39.1%)가 가장 많았다. 이처럼 맞벌이 부부보다 외벌이 부부의 연령이 더 낮은 이유는 임신 및 육아의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여성의 임신 및 육아의 부담이 있는 젊은 층일수록 외벌이 부부가 더 많다는 것이다.

< 표 II -26> 맞벌이부부와 남편외벌이부부의 지역별 연령 및 학력분포
단위: %(명)

		맞벌이 부부		남편외벌이 부부	
		남편	부인	남편	부인
전체					
연령	계	100.0 (1,111)	100.0 (1,111)	100.0 (1,497)	100.0 (1,497)
	15-19세				0.1 (1)
	20-29세	2.3 (25)	4.9 (54)	4.7 (70)	11.5 (172)
	30-39세	22.1 (246)	31.0 (344)	35.1 (525)	39.1 (585)
	40-49세	39.3 (437)	42.0 (467)	33.5 (501)	29.8 (446)
	50-59세	26.4 (293)	17.4 (193)	17.2 (258)	15.5 (232)
	60세 이상	9.9 (110)	4.8 (53)	9.6 (143)	4.1 (61)
교육정도	계	100.0 (1,111)	100.0 (1,111)	100.0 (1,497)	100.0 (1,497)
	중졸미만	16.7 (186)	24.0 (267)	8.2 (123)	11.8 (177)
	중졸	15.9 (177)	17.4 (193)	9.4 (141)	14.4 (216)
	고졸	41.8 (464)	40.7 (452)	42.6 (638)	48.9 (732)
	초대졸	2.7 (30)	2.7 (30)	3.7 (55)	4.5 (67)
	대졸이상	22.9 (254)	15.2 (169)	36.1 (540)	20.4 (305)
동부					
연령	계	100.0 (827)	100.0 (827)	100.0 (1,245)	100.0 (1,245)
	15-19세				0.1 (1)
	20-29세	2.8 (23)	6.2 (51)	3.9 (49)	10.7 (133)
	30-39세	25.4 (210)	34.5 (285)	35.1 (437)	39.4 (491)
	40-49세	41.2 (341)	43.4 (359)	34.3 (427)	30.8 (383)
	50-59세	25.5 (211)	14.1 (117)	18.0 (224)	15.7 (195)
	60세 이상	5.1 (42)	1.8 (15)	8.7 (108)	3.4 (42)
교육정도	계	100.0 (827)	100.0 (827)	100.0 (1,245)	100.0 (1,245)
	중졸미만	9.7 (80)	15.0 (124)	6.0 (75)	9.2 (114)
	중졸	14.0 (116)	17.2 (142)	8.8 (110)	14.3 (178)
	고졸	44.5 (368)	45.2 (374)	42.7 (531)	50.4 (628)
	초대졸	3.1 (26)	3.1 (26)	3.9 (48)	4.7 (58)
	대졸이상	28.7 (237)	19.5 (161)	38.6 (481)	21.4 (267)

학력별 차이를 보면, 젊은 연령층이 많은 남편외벌이부부가 맞벌이부부에 비해 고학력자가 많다. 맞벌이남편의 경우 고졸이 41.8%이고 초대졸 이상이 25.6%임에 비해 외벌이 남편은 고졸 42.6%, 초대졸 이상은 39.8%로 나타났다. 부인의 경우 역시, 맞벌이의 경우 고졸은 40.7%, 초대졸 이상은 17.9%인데 반해 남편 외벌이는 고졸이 48.9%, 초대졸 이상은 24.9%로 더 높았다. 따라서 남편외벌이 부부의 고학력화 현상은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고학력 여성인력의 노동시장에서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맞벌이 부부와 남편외벌이 부부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남편의 경우 맞벌이는 외벌이에 비해 자영업자가 월등히 많고, 외벌이는 임금근로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맞벌이 부인의 경우 가족종사자(37.5%)가 가장 많은 반면, 외벌이 남편의 경우 가족종사자가 단 1명에 불과하였다. 맞벌이 부부 임금근로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부인이 남편에 비해 상용고의 비율은 더 낮고 임시 및 일용고의 비율은 7.6%포인트 높아 남편보다 더 불안한 고용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II-27 > 맞벌이와 남편외벌이 부부의 종사상지위

단위: %, 명

	맞벌이 부부				외벌이 부부	
	남편		부인		남편	
전 체	100.0	1,109	100.0	1,108	100.0	1,495
고용주	1.9	21	0.2	2	4.7	71
자영업자	52.8	585	15.0	166	30.2	452
가족종사자	0.7	8	37.5	416	0.1	1
상용고	38.2	424	33.3	369	56.7	848
임시 및 일용고	6.4	71	14.0	155	8.2	123

맞벌이부부의 상호간 종사상 지위분포를 보면 남편이 자영업자이고 부인은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가 37.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부부 모두 임금근로

자인 경우가 35.0%, 그 다음은 남편이 자영업자이고 부인이 임금근로자인 경우가 10.7%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3차 조사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결과로, 3차에서는 부부가 임금근로자인 경우가 40.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남편은 자영업자이면서 부인은 가족종사자(25.7%), 그 다음으로는 남편이 임금근로자이면서 부인은 자영업자(10.6%)의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변화는 IMF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조정에 따른 조기퇴직 등으로 인한 남성 임금노동자의 자영업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 표 II-28 > 맞벌이부부 상호간 종사상지위 분포

단위: 명(%)

		부인의 경제활동상태				남편 전체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남편의 경제활동 상태	고용주	0(0.0)	3(0.3)	14(1.2)	7(0.6)	24(2.1)
	자영업자	0(0.0)	63(5.5)	425(37.2)	122(10.7)	610(53.3)
	가족종사자	0(0.0)	8(0.7)	0(0.0)	0(0.0)	8(0.7)
	임금근로자	2(0.2)	92(8.0)	8(0.7)	400(35.0)	502(43.9)
부인 전체		2(0.2)	166(14.5)	447(39.1)	529(46.2)	1,144(100.0)

조사대상자에 대해 여성취업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여성의 취업이 결혼생활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가 5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자 순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하였으며, 종사상의 지위별로는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고, 임시고, 자영업자, 일용고, 고용주 순으로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 표 II -29> 여성취업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 체
전 체	1.1 (46)	9.2 (382)	25.9 (1,072)	51.6 (2,134)	12.1 (498)	100.0 (4,132)
종사상의 위치	1.0 (39)	9.2 (346)	25.4 (958)	51.9 (1,955)	12.4 (467)	100.0 (3,765)
고용주		11.3	38.7	45.2	4.8	100.0
자영업자	0.9	11.0	26.9	50.1	11.1	100.0
무급가족	0.5	10.9	22.5	56.7	9.5	100.0
상용고	1.1	9.0	24.3	51.8	13.9	100.0
임시고	2.0	6.8	25.6	53.2	12.3	100.0
일용고	0.9	5.2	34.3	49.8	9.9	100.0
경제활동 상태	1.1 (46)	9.2 (382)	25.9 (1,072)	51.6 (2,134)	12.1 (498)	100.0 (4,132)
취업자	1.0	7.7	22.1	56.2	13.1	100.0
실업자		6.6	27.1	48.2	18.1	100.0
비경제활동자	1.3	11.0	29.6	47.5	10.6	100.0

III

여성 취업자의 고용구조와 특성

1.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특성	57
2. 여성 취업자의 고용구조	61
3.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특성	73
4. 여성 취업자의 근로조건	90
5. 비정규직 여성 취업자의 특성	98
6. 직업훈련현황 및 효과	103
7. 취업만족도와 전직희망	110

본 장에서는 조사대상 가구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 중에서 조사가 완료되어 분석이 가능한 표본수 4,758명 중 취업자 1,991명에 대해서 고용구조 및 종사상지위별 특성, 근로조건, 직업훈련과 취업만족도 등을 분석하였다.

1.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특성

4,758명의 조사대상 여성의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41.8%인 1,991명이 취업자이고, 3.9%(185명)가 실업자, 그리고 54.3%인 2,582명이 비경제활동인구이다. 취업자의 경우는 3차조사보다 2.6%포인트가 감소하였으며, 실업자는 1.1%포인트 증가하였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5%포인트가 증가하였다. 이 결과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연보」(2001) 결과와 비교하면 본 조사결과가 「취업률」은 낮고, 「실업률」은 높게 나왔다.⁹⁾

여성 경제활동인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 여성의 39.8%가 취업자이고 실업자는 3.9%인데 반해, 읍면부는 취업자가 50.9%, 실업자가 3.7%이었다. 이로써 전체 조사가구원 중 여성실업률은 동부가 읍면부보다 0.9%포인트 더 높고, 조사대상자의 실업률은 동부와 읍면부 모두 비슷하다. 그러나 취업자의 비율은 읍면부가 11.1%포인트나 높아 전체 조사가구원의 취업자 차이(8.8%포인트) 보다도 더 높았다(<표 II-1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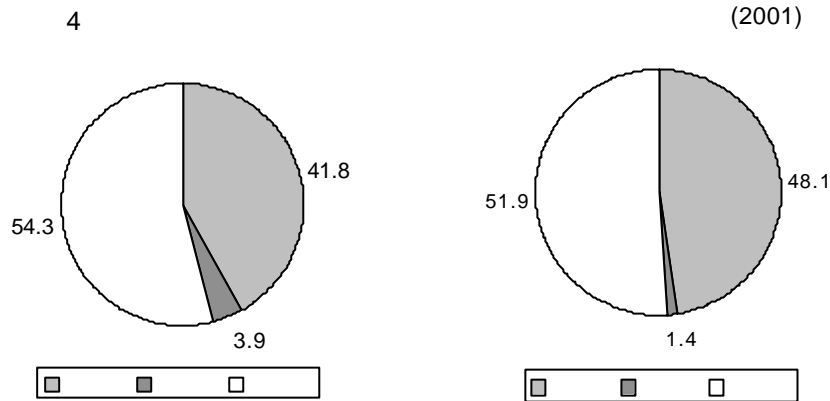
우리 나라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본 조사와 통계청의 조사 모두 아직까지 전형적인 M자형 곡선을 보이고 있다. 즉 경제활동이 법적으로 가능한 연령인 15세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다가 결혼 적령기인 20-24세를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30-34세를 기점으로 다시 급격히 증가, 40-44세에 절정을 이루다 다시 급격히 감소하는 M자형 곡선은 여성의 취업과 결혼, 출산, 육아, 자녀교육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밝히는 틀이 되어 왔다. 여성의 취업이 결

9) 참고로 본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를 1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제한한데 반해, 통계청 조사에서는 15세 이상 인구모두가 조사대상이다.

혼, 출산, 육아, 자녀교육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수록 이 M자형 곡선은 완만하게 되어 기린형¹⁰⁾에 가까워지는 바, 서구의 경우 이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III-1> 여성의 경제활동상태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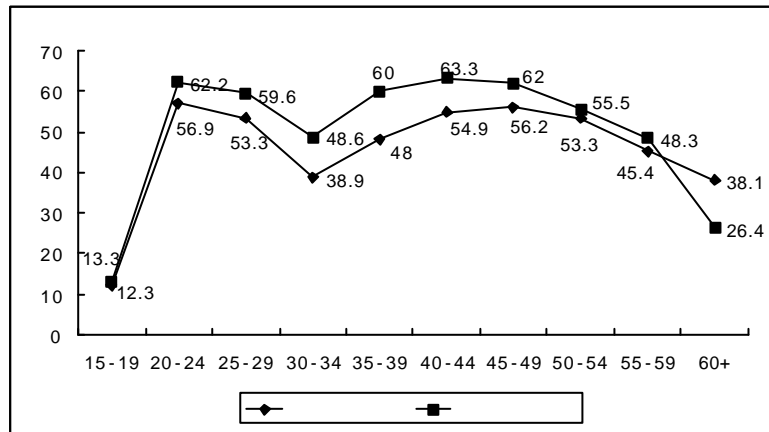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1)

<그림 III-2>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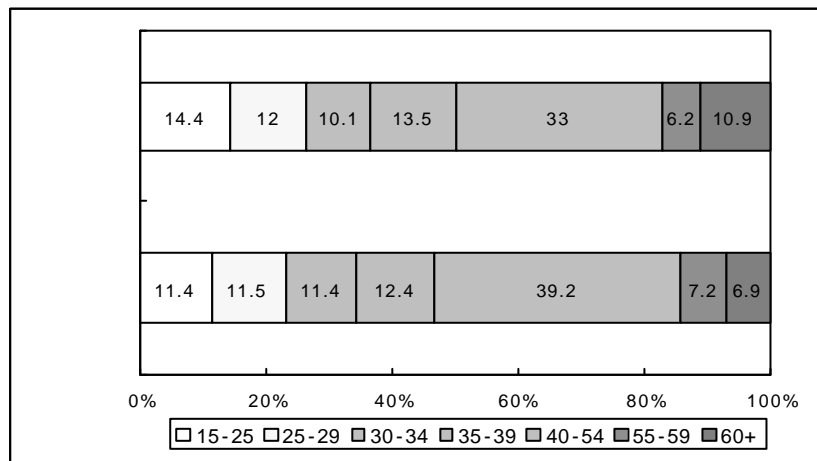
10) 가즈코 다나카(2000), 「경제의 세계화와 여성노동: 여성의 노동권 확립을 향해」,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동아시아의 근대성/세계화와 여성. 한·중·일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P. 17.

4차 조사에 나타난 이 M자형 곡선은 3차 조사결과에 비해 그 기울기가 비교적 완만해졌다. 이는 결혼, 출산, 육아, 자녀교육 시기에도 여성의 경제활동이 약간씩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변수들이 여성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들이 점차적으로 수정되어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조사의 연령별 참가율 곡선은 통계청의 곡선보다 전반적으로 아래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55-59세를 지나 60세 이상의 경우의 여성취업률이 통계청의 조사결과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연령계층별 구성을 보면, 40-54세의 구성비가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통계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본 조사의 경우 6.2%포인트가 높았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경제활동인구연보의 경우 15-24세(14.4%)이나 본 조사는 35-39세(12.4%)이다. 이 밖에 연령에 따른 분포도가 두 조사 모두 비교적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60세 이상 인구가 본 조사에서는 4%포인트 낮게 잡혔다.

<그림 Ⅲ-3> 경제활동인구의 연령계층별 구조

단위: %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지역별로 77.8%가 동부에, 22.2%가 읍면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읍면부 거주자가 3차 조사 때보다 9.5%포인트나 높았다.

3차 조사와의 공통점은 동부에는 30세 이하의 저연령층이 많은 반면, 읍면부에는 55세 이상의 고연령 여성의 구성비가 높다는 점이다. 그러나 3차 조사 때만 해도 낮게 나타났던 읍면부의 15세 이상 24세 미만 경제활동인구가 본조사에서는 20.3%로 11.7%포인트나 증가하였으며, 30대 이상 60대 이하의 중장년층 여성의 구성비는 대폭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동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5세 이상 24세 미만 구성비가 23.5%포인트나 증가하였으며, 30대 이상 60대 이하의 중장년층은 21.5%포인트가 감소하였다. 전체 여성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가구주의 비율은 3차 때와 같이 14.5%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3차 조사 때만 해도 가구주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에서 54세(25.4%)였으나 이 번 4차 조사에서는 15세에서 24세(19.9%) 사이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IMF 외환위기의 영향에 따른 소녀가장의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 여성경제활동인구의 혼인 상태별 특성을 살펴보면, 3차 조사 때와는 달리 저연령층의 기혼 비율이 증가하였고 고연령층의 미혼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여성경제활동 인구의 39.8%가 초졸 미만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고졸이 22.2%, 초대졸 14.5%, 중졸 13.1%, 대졸이상 10.4% 순이었다. 초졸 미만의 경제활동 인구가 가장 많이 그리고 비교적 모든 연령대에 고루 나타나는 이유는 고학력 여성 취업자일수록 대부분 임금근로자로서 취업하여 결혼이나 출산과 함께 퇴직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저학력 여성들은 무급가족종사자나 자영업자로 결혼이나 출산 이후에도 계속 취업상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력이 높을수록 35세 이상 59세 이하의 여성경제활동인구가 현저하게 낮은 현상은 우리 나라 여성의 가족 내에서의 역할을 반영하고 있다. 즉, 여기에는 남성들이 한참 일할 나이인 이 연령대에 여성들은 가정에서 그들의 내조자로서, 또는 대학을 준비해야 하는 자녀들을 돌보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더 충실해야 하는 중산층¹¹⁾ 가족관계가 반영되어 있다.

11) 여성의 학력이 높을수록 중산층을 이룬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표 Ⅲ-1> 여성 경제활동자의 특성별 분포

단위: %(명)

	15-24	25-29	30-34	35-39	40-54	55-59	60-64	전 체
	39.6 (861)	11.4 (249)	10.3 (225)	10.0 (217)	12.4 (270)	2.7 (58)	13.6 (296)	100.0 (2,176)
지역								
동부	42.5	12.8	10.8	10.9	11.1	2.1	9.8	100.0 (1,692)
읍면부	29.3	6.6	8.9	6.6	17.1	4.5	26.9	100.0 (484)
가구주여부								
가구주	19.9	15.8	14.2	9.8	19.3	8.2	12.7	100.0 (316)
비가구주	42.9	10.7	9.7	10.0	11.2	1.7	13.8	100.0 (1860)
혼인상태								
미혼	69.5	13.7	4.0	1.0	1.8	0.0	10.1	100.0 (910)
기혼	18.1	9.8	14.9	16.4	20.1	4.6	16.1	100.0 (1,266)
교육정도								
초졸미만	26.3	2.3	10.3	19.9	20.3	4.8	16.1	100.0 (866)
중졸	71.7	3.5	1.7	1.7	10.8	2.8	7.7	100.0 (286)
고졸	36.2	21.5	15.7	3.9	9.3	1.2	12.0	100.0 (483)
초대졸	68.9	15.2	3.2	0.6	1.9	0.0	10.2	100.0 (315)
대졸이상	15.9	29.6	19.9	8.4	5.3	0.9	19.9	100.0 (226)

2. 여성 취업자의 고용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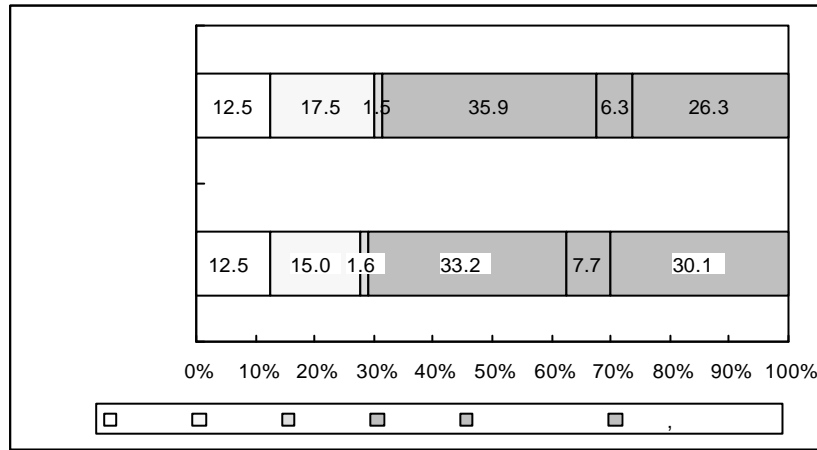
가. 업종별 고용구조

여성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33.2%가 도소매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3차 조사 때의 29.7%보다 약간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산업은 개인사회서비스업(30.1%)으로 3차 조사 때보다 6.2%포인트가 증가하였다. 반면, 제조업은 5.3%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여성참가율이 저조한 건설업에서 역시 1.1%포인트가 감소하였다. 여성의 취업

이 가장 저조한 산업은 전기가스수도업(0.4%)으로 3차 조사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연보」(2001)와 비교해보면, 농어업 종사자는 같은 비율로 나왔고, 여성들의 집중취업업종인 도소매숙박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구성비는 상대적으로 낮게, 개인사회서비스업 종사자는 더 높게 결과하였다.

<그림 III-4> 여성 취업자의 업종분포 비교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2001)

산업별 고용구조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어업광업 및 전기가스수도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 걸쳐 동부 여성 취업자의 비율이 훨씬 높다. 이는 읍면부 여성의 경우 농어업광업(38.8%)을 제외한 전 산업직종에의 취업기회가 동부여성만큼 많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나마 농어업광업 종사자 역시 3차 조사 때보다 10.3%포인트나 감소하였다. 동부여성의 취업이 가장 높은 산업은 도소매숙박업(35.1%) 및 개인사회서비스업(34.2%)으로, 이와 같이 동부여성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산업에서의 읍면부여성 취업을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기가스수도업의 경우는 동부뿐만 아니라 읍면부의 여성 취업자가 상당히 증가한데 비해, 건설업의 경우는 동부, 읍면부 모두 3차 조사 때보다 낮은 취업을 보이고 있다.

< 표 Ⅲ-2> 여성 취업자의 인적특성별 업종분포

단위: %(명)

	농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 보험 부동산	개인 사회 서비스업	전체
전 체	12.5 (247)	15.0 (298)	0.4 (7)	1.6 (31)	33.2 (658)	2.6 (51)	4.7 (93)	30.1 (596)	100.0 (1,981)
지역									
동부	4.7	15.8	0.3	1.7	35.1	3.1	5.2	34.2	100.0 (1,530)
음면부	38.8	12.6	0.7	1.1	26.8	0.9	2.9	16.2	100.0 (451)
혼인상태									
미혼	5.1	15.7	0.4	2.5	33.0	3.8	4.9	34.7	100.0 (824)
기혼	17.7	14.6	0.3	0.9	33.4	1.7	4.6	26.8	100.0 (1,157)
가구주여부									
가구주	11.1	10.1	1.0	1.4	35.9	3.8	4.2	32.4	100.0 (287)
비가구주	12.7	15.9	0.2	1.6	32.8	2.4	4.8	29.7	100.0 (1,694)
연령									
15-24세	7.8	17.2	0.3	2.3	37.1	2.9	5.1	27.4	100.0 (785)
25-29세	6.5	13.1	0.5	1.9	27.6	4.2	4.7	41.6	100.0 (214)
30-34세	3.9	16.5	0.0	1.5	32.5	3.4	4.9	37.4	100.0 (206)
35-39세	2.5	19.8	0.5	0.0	34.7	2.0	6.9	33.7	100.0 (202)
40-54세	18.9	11.9	0.4	0.4	37.3	0.8	4.9	25.4	100.0 (244)
55-59세	34.0	15.1	0.0	1.9	26.4	3.8	1.9	17.0	100.0 (53)
60-64세	34.3	8.7	0.7	1.4	23.8	1.4	2.2	27.4	100.0 (277)
교육정도									
초졸미만	19.4	16.2	0.3	0.6	33.7	1.8	4.0	24.1	100.0 (798)
중졸	13.6	16.7	0.0	1.2	38.4	1.2	5.0	24.0	100.0 (258)
고졸	7.7	17.5	0.9	3.0	34.7	4.0	5.6	26.6	100.0 (429)
초대졸	7.3	14.0	0.3	2.8	33.9	2.8	4.9	33.9	100.0 (286)
대졸이상	1.4	5.2	0.0	1.0	21.0	4.3	4.8	62.4	100.0 (210)

인적특성별 여성의 취업업종을 보면, 먼저 미혼 여성 취업자는 주로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34.7%)에, 기혼 여성 취업자는 농어업광업(17.7%)에 종사하였고,

3차 조사에서 혼인상태별 차이가 많이 났던 도소매숙박업 및 금융보험부동산 종사자 비율이 금 번 조사에서는 기혼 과 미혼이 비슷한 비율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여부별 여성 취업자의 산업분포도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가구주나 비가구주 모두 도소매숙박업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었다. 가구주 여부별 차이가 가장 높게 나타난 산업은 제조업으로 비가구주가 5.8%포인트 더 높게 종사하고 있다.

산업별로 연령차이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고연령 여성의 경우는 주로 농어업광업에, 저연령 여성은 주로 개인사회서비스업 및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3차 조사에서 비교적 큰 연령별 차이를 보였던 도소매숙박업 및 금융보험부동산 종사자 비율이 금 번 조사에서는 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차이는 도소매숙박업에 15-24세의 저연령 여성 종사자 비율이 3차 조사에 비해 17.4%포인트나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개인사회서비스업에 주로 저연령층이 몰려 있었던 3차 조사와는 달리 금 번 조사에서 고연령층 여성의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학력별 산업분포도를 살펴보면, 농어업광업에는 3차 조사에서와 같이 주로 저학력 여성이 취업해 있으며, 제조업에의 초대졸자 진출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제조업은 대졸을 제외한 학력별 차이가 많이 감소하였다. 또한 도소매 숙박업에는 대졸자의 취업이 3차 조사에 비해 12.7%포인트나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5.3%포인트가 감소하였다.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고급인력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산업은 개인사회서비스업으로 62.4%를 차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3차 조사까지만 해도 산업별 학력차이가 두드러졌던 현상이 이 번 조사에서는 많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성 취업자의 산업별 고용구조를 요약해 보면, 우리 나라 노동시장의 업종별 학력, 혼인상태(혹은 연령계층) 구분이 많이 감소하였다. 즉, 각 업종마다 혼인상태별, 연령별, 학력별 차이가 많이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농어업광업은 기혼여성이, 개인사회서비스업은 미혼이 주로 종사하는 경향은 아직까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존재한다. 여성취업 업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역차이라고 할 수 있다. 농어업광업 및 전기가스수도업을 제외한 전 업종은 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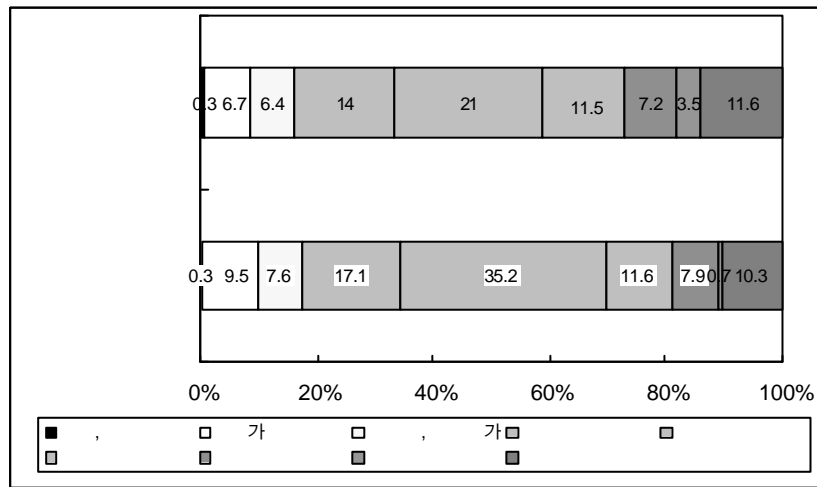
에 치중되어 있었다. 업종별 연령분포의 차이 역시 많이 줄었으나 농어업의 고연령화 및 개인사회서비스업의 저연령화 현상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여성 취업자의 인적특성별 업종분포의 가장 큰 특징은 농어업·광업 종사자의 읍면부, 기혼, 고연령, 저학력화 현상과 개인사회서비스업의 동부, 미혼, 저연령, 고학력화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나. 직종별 고용구조

여성 취업자는 직종별로 서비스 및 판매직(35.2%), 사무직(17.1%), 농림어업직(11.6%), 단순노무직(10.3%)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림 Ⅲ-5> 여성 취업자의 직종 분포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1)

본 조사의 이러한 결과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연보」(2000)와 비교해 보면 (<그림 Ⅲ-5> 참고), 본 조사결과는 통계청의 조사결과에 비해 서비스·판매직 14.2%포인트, 사무직 3.1%포인트, 전문가 2.8%포인트 순으로 높게 나온 반면, 조립공은 2.8%포인트, 단순노무직은 1.3%포인트 낮게 결과하였으며 이 밖의 직

종에는 두 조사 모두 비슷한 비율로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3차 조사 때의 통계청 조사결과가 서비스판매직이 훨씬 높게 나타난 점과 크게 비교된다.

여성 취업자의 직종별 분포도를 살펴보면(<표 III-3> 참고), 전체적으로는 서비스판매직, 사무직, 농림어업직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동부여성 취업자의 경우 서비스판매직(37.2%), 사무직원(19.2%), 전문가(11.3%) 순이었고, 읍면부에 거주하는 여성 취업자는 농림어업직(37.0%), 서비스판매직(28.6%), 단순노무직(11.3%) 순으로 높았다. 입법공무원관리자는 전체적으로 매우 저조하여 0.3%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는 3차 조사 때와 비교하여 전문가(5.8%), 사무직원(16.7%), 서비스판매직(28.8%), 농림어업직, 기능직(5.5%)은 증가한 반면, 입법공무원관리자(2.0%), 준전문가(5.8%), 조립공조작공(1.8%), 단순노무자(14.7%)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결과이다.

혼인상태별 직종분포를 보면 기·미혼 모두 서비스판매직 종사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미혼여성은 사무직 종사자가, 기혼여성은 농림어업직 종사자가 많았다. 이 밖에 미혼여성 취업자는 기혼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가, 준전문가, 사무직원의 비율이 높은 반면, 기혼여성은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단순노무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혼여성의 고용구조가 더 열악함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혼인상태별 직종구조는 연령별 직종구조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 전문가, 준전문가, 사무직원의 경우는 저연령층이, 농림어업직, 단순노무직은 고연령층이 주로 분포되어 있다. 단순노무직과 관련해서는 30대에 낮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조립공조작공의 경우 주로 30, 40대에 분포되어 있었다. 생산관련직 중에서도 기능직은 비교적 저연령층에 분포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여성의 고용구조는 연령 및 혼인상태에 따른 직종분리현상¹²⁾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즉 노

12) 직종별 기혼여성비율(「기혼여성 취업자/전체 여성 취업자*100」)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미혼직종인 사무직에 40.1%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3차 조사 때의 33.6%보다 6.5%포인트가 증가한 결과이나 오히려 전문가(48.4%)나 준전문가(48.4%)는 각 각 6.5%포인트, 11.1%포인트 감소하였다. 3차조사결과보다는 대체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기혼여성은 아직까지 농림어업직(86.1%), 조립공/조작공(76.9%), 단순노무직(66.8%), 서비스/판매직(61.6%)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3차 조사때만 해도 84.4%를 차지하였던 기혼여성의 입법행정관리직에서의 비율은 이번 조

< 표 Ⅲ-3> 여성 취업자의 인적특성별 직종분포

단위: %(명)

	일반 공무원 관리자	전문가	준 전문가	사무 직원	서비스 판매직	농림 어업직	기능직	조립공 조직공	단순 노무직	전체
전 체	0.3 (5)	9.5 (188)	7.6 (151)	17.1 (339)	35.2 (700)	11.6 (230)	7.9 (157)	0.7 (13)	10.3 (205)	100.0 (1,988)
지역별										
동부	0.3	11.3	8.8	19.2	37.2	4.1	8.3	0.8	10.0	100.0 (1,537)
음면부	0.2	3.1	3.5	9.8	28.6	37.0	6.4	0.0	11.3	100.0 (451)
혼인상태별										
미혼	0.2	11.7	10.9	24.5	32.5	3.9	7.7	0.4	8.2	100.0 (828)
기혼	0.3	7.8	5.3	11.7	37.2	17.1	8.0	0.9	11.8	100.0 (1,160)
가구주여부										
가구주	0.3	8.0	5.9	15.3	40.6	10.4	5.6	0.0	13.9	100.0 (288)
비가구주	0.2	9.7	7.9	17.4	34.3	11.8	8.3	0.8	9.7	100.0 (1,700)
연령별										
15-24세	0.3	8.7	6.6	18.5	38.2	6.8	10.0	0.5	10.4	100.0 (790)
25-29세	0.0	14.0	12.6	24.2	26.0	6.0	5.1	0.5	11.6	100.0 (215)
30-34세	0.0	8.3	13.6	20.4	38.3	3.9	5.8	0.0	9.7	100.0 (206)
35-39세	0.5	15.3	8.9	18.2	36.0	2.5	13.8	2.0	3.0	100.0 (203)
40-54세	0.8	5.7	4.1	10.2	42.2	18.9	6.1	1.2	10.7	100.0 (244)
55-59세	0.0	3.8	1.9	7.5	35.8	28.3	1.9	0.0	20.8	100.0 (53)
60-64세	0.0	9.0	5.4	11.9	24.5	32.1	4.0	0.4	12.6	100.0 (277)
교육정도별										
초졸미만	0.2	7.2	4.5	11.2	35.8	18.5	9.5	1.5	11.5	100.0 (801)
중졸	0.4	5.4	5.8	14.0	38.4	12.4	10.9	0.0	12.8	100.0 (258)
고졸	0.0	2.8	6.9	26.1	39.5	6.9	7.4	0.0	10.4	100.0 (433)
초대졸	0.3	12.6	9.8	21.7	32.5	6.3	7.0	0.3	9.4	100.0 (286)
대졸이상	0.5	32.4	20.0	18.1	23.8	1.0	0.5	0.0	3.8	100.0 (210)

사에서 60.0%로 감소하였다(<부표 Ⅲ-1> 참고). 전체적으로 기혼여성은 기술이 없는 단순직에 집중되어 있으나 직종별 분포도에서 미혼여성과의 차이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동시장에서의 저연령층의 미혼여성에 대한 선호도가 기혼여성을 고용구조가 열악하고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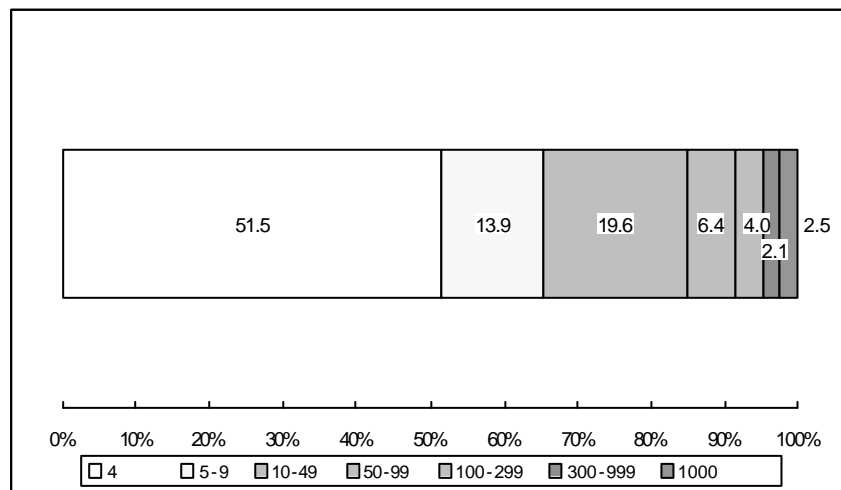
교육수준별 직종분포를 살펴보면, 3차 조사 때보다 직종별 학력차이가 많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직종별 학력차이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즉, 전문가의 경우는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이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단순노무직은 고졸 이하 출신들이 주로 종사하고 있다. 사무직의 경우는 고졸과 초대졸 출신들이 주로 분포하고 있다. 학력별로 비교적 가장 고른 분포도를 보이고 있는 직종은 서비스판매직으로 3차 조사 때 만해도 주로 고졸이하가 분포하고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학력별 차이를 많이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졸이상의 고학력자의 진출이 가장 저조한 직종은 조립/조작공이었다.

다. 기업규모별 고용구조

조사대상 여성 취업자의 기업규모별 분포를 보면 여전히 4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에 과반수가 넘는 51.5%가 종사하고 있다. 이는 3차 조사 때보다 높은 수치이다. 또한 5-9인 사업장 종사자는 2.1%포인트 증가한 반면, 10-49인 사업장은

<그림 III-6> 여성 취업자의 사업체규모별 분포

단위: %



2.8%포인트 감소하였다. 이 밖에 5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들은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종업원수 300인 이상의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 취업자는 전체 조사대상 취업자의 4.6%에 불과하다. 즉, 여성 취업자의 84.5%가 종업원수 50인미만의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여성 취업자의 대부분이 소규모사업체의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로 종사하거나 임금근로자인 경우 역시 영세한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사업체규모별 여성 취업자의 특성을 살펴보면(<표 Ⅲ-4> 참고), 먼저 지역별로 농업비중이 큰 읍면부의 경우 여성 취업자의 70.3%가 4인 이하의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는 3차조사의 62.6%보다도 9.7%포인트가 증가한 것이다. 100인 이상의 중소 혹은 대기업에 종사하는 여성 취업자의 경우 읍면부에는 3.3% 밖에 종사하지 않는 반면, 동부의 경우는 10.1%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 취업자의 기업규모별 분포를 종사상지위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남편이 운영하는 농업이나 소규모 자영업, 가족사업체에서 일을 하는 무급가족종사자의 93.6%가 4인 이하의 영세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3차 조사 때보다 5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체의 종사자 비율이 1.3%포인트나 증가하였다. 또한 여성의 고용주, 자영업자의 위치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사업체 규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주의 경우는 모두 50인 미만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며, 자영업자 역시 4인 이하의 영세 사업체가 94.4%나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상용고종사자들은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나 임시고, 일용고 종사자들은 역시 4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혼인상태, 가구주여부는 종업원규모별 취업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차 조사 때 미혼이 기혼보다 상대적으로 기업체규모가 큰 사업체에 많이 종사하고 있었던 결과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 원인은 미혼 중 4인 이하의 사업체 종사비율이 19.3%포인트나 증가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령별 차이는 3차 조사 때처럼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비교적 연령층이 젊게 나타났던 현상은 많이 사라졌지만, 영세사업장의 고연령화 현상은 여전하였다. 교육수준별 종사업체의 규모차이 역시 많이 사라졌지만, 대규모 업체일수록 고학력자의 분포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대졸자의 분포가 가장

< 표 III-4 > 여성 취업자의 인적특성별 규모분포

단위: %(명)

	4인 이하	5- 9인	10- 49인	50- 99인	100- 299인	300- 999인	1000인 이상	전체
전체	51.5 (1,022)	13.9 (277)	19.6 (389)	6.4 (128)	4.0 (79)	2.1 (42)	2.5 (49)	100.0 (1,986)
지역								
동부	45.9	15.8	21.2	7.0	4.5	2.6	3.0	100.0 (1,535)
읍면부	70.3	7.8	14.0	4.7	2.2	0.4	0.7	100.0 (451)
종사상지위								
고용주	25.0	25.0	50.0	0.0	0.0	0.0	0.0	100.0 (4)
자영업자	94.4	2.6	1.1	1.5	0.4	0.0	0.0	100.0 (266)
무급가족	93.6	2.9	1.1	1.3	0.3	0.0	0.8	100.0 (376)
상용고	26.3	17.9	32.1	10.3	5.8	3.6	4.0	100.0 (989)
임시고	41.5	20.3	19.9	6.6	7.1	2.5	2.1	100.0 (241)
일용고	52.8	29.6	13.0	0.9	2.8	0.0	0.9	100.0 (108)
혼인상태								
미혼	40.7	16.7	24.1	7.6	5.1	2.8	3.0	100.0 (826)
기혼	59.1	12.0	16.4	5.6	3.2	1.6	2.1	100.0 (1,160)
가구주여부								
가구주	53.1	18.3	17.9	4.5	3.1	1.7	1.4	100.0 (290)
비가구주	51.2	13.2	19.9	6.8	4.1	2.2	2.7	100.0 (1,696)
연령								
15-24세	48.1	14.6	21.5	6.2	4.8	2.3	2.5	100.0 (790)
25-29세	38.0	18.3	23.0	7.5	7.5	3.3	2.3	100.0 (213)
30-34세	45.6	17.0	23.8	5.8	1.9	2.4	3.4	100.0 (206)
35-39세	47.3	13.3	22.7	9.4	2.0	1.5	3.9	100.0 (203)
40-54세	66.8	8.2	12.7	6.1	4.1	0.8	1.2	100.0 (244)
55-59세	73.6	13.2	7.5	1.9	1.9	0.0	1.9	100.0 (53)
60-64세	61.0	12.3	14.4	5.8	2.2	2.5	1.8	100.0 (277)
교육정도								
초졸미만	59.2	12.0	16.4	6.8	2.9	1.3	1.5	100.0 (799)
중졸	57.2	11.7	19.5	5.8	3.9	0.8	1.2	100.0 (257)
고졸	48.8	16.6	18.7	6.5	3.9	2.1	3.5	100.0 (434)
초대졸	47.2	12.6	21.3	4.2	7.7	3.8	3.1	100.0 (286)
대졸이상	26.2	20.5	31.4	9.0	3.3	4.8	4.8	100.0 (210)

높은 곳은 10인 이상 50인 이하 사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차 조사 때 10인 이상 50인 이하였던 결과와 비교된다.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미혼 및 고학력 여성의 형세사업장으로의 진출 현상과 기혼 및 저학력 여성의 비교적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취업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종사상지위별 고용구조

본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종사상지위별 여성 취업구조를 살펴보면(<표 Ⅲ-5>참고), 전체 여성 취업자의 49.8%가 상용고로 나타났으며 임시고와의 비율을 합한다면 60.9%로 3차 조사에서보다 상용 및 일용고의 비율이 7.6%포인트나 증가하였다.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3차 조사 때와 유사하게 결과하였다. 즉, 동부의 여성 취업자는 상대적으로 고용주와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 읍면부는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높았고, 자영업자의 비율도 약간 높았다.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동부의 경우 상용고와 임시고가 높은데 비해, 읍면부는 일용고가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를 보였다. 그러나 보다 자세한 수치를 비교해보면 3차 조사결과와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즉, 고용주의 비율은 동부나 읍면부 모두 감소하였으며, 자영업자의 경우 동부나 읍면부 모두 약간씩 증가하였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읍면부에서는 큰 변동이 없었으나 동부에서는 증가하였고, 상용고 역시 읍면부에서는 큰 변동이 없으나 동부는 11.7%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고는 동부, 읍면부 모두 증가하였으며, 일용고는 읍면부는 약간 감소한 반면, 동부는 5.8%포인트나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동부, 읍면부 모두 종사상의 지위가 3차 조사 때보다 열악해졌음을 알 수 있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 기혼 모두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으나, 미혼은 상용고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기혼의 경우는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영업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주의 경우, 3차 조사에서는 기혼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 번 결과에서는 기·미혼 모두 같은 비율로 나

타났다. 가구주여부별로 보면 상용고의 경우 가구주 여부와 상관없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여성 가구주는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고용주, 임시·일용고의 비율이 높은 반면, 비가구주의 경우는 무급가족종사자 및 상용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 III-5 > 여성 취업자의 인적특성별 종사상지위 분포

단위: %(명)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상용고	임시고	일용고	전 체
전 체	0.2 (4)	13.5 (268)	19.0 (377)	49.8 (990)	12.1 (241)	5.5 (109)	100.0 (1,989)
지역							
동부	0.3	12.8	13.3	54.9	14.0	4.7	100.0 (1,538)
음면부	0.0	15.7	38.4	32.2	5.8	8.0	100.0 (451)
혼인상태							
미혼	0.2	8.7	8.3	64.9	13.3	4.5	100.0 (827)
기혼	0.2	16.9	26.5	39.0	11.3	6.2	100.0 (1,162)
가구주여부							
가구주	0.3	29.3	2.4	45.5	14.1	8.3	100.0 (290)
비가구주	0.2	10.8	21.8	50.5	11.8	5.0	100.0 (1,699)
연령							
15-24세	0.3	10.9	13.9	55.8	13.6	5.6	100.0 (789)
25-29세	0.0	7.0	9.8	69.8	10.7	2.8	100.0 (215)
30-34세	0.0	12.1	12.1	55.1	13.5	7.2	100.0 (207)
35-39세	1.0	13.3	22.2	43.3	16.7	3.4	100.0 (203)
40-54세	0.0	24.6	33.6	28.7	9.4	3.7	100.0 (244)
55-59세	0.0	34.0	26.4	26.4	5.7	7.5	100.0 (53)
60-64세	0.0	13.3	28.8	41.0	8.3	8.6	100.0 (278)
교육정도							
초졸미만	0.1	15.2	28.8	35.5	13.7	6.6	100.0 (801)
중졸	0.4	16.3	21.4	45.1	9.3	7.4	100.0 (257)
고졸	0.2	12.6	12.2	60.2	10.3	4.4	100.0 (435)
초대졸	0.0	8.7	10.8	61.2	14.3	4.9	100.0 (286)
대졸이상	0.5	11.4	3.3	72.9	10.0	1.9	100.0 (210)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및 일용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저연령 집단일수록 상용고 및 임시고, 고용주의 비율이 높았다. 고용주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집단은 35-39세 연령층이었고, 자영업자는 주로 40-50대에 분포해 있었다. 반면, 상용고는 25-29세에 몰려 있고, 40-50대에는 비교적 낮게 분포되어 있다. 임시고는 55-59세가 가장 적게 분포되어 있고, 일용고는 35-54세의 비율이 가장 낮다. 30대 이후 상용고의 감소와 임시고의 증가 현상은 여성 임금근로자의 대부분이 결혼 및 출산과 더불어 퇴직하는 우리 나라 여성고용구조의 특성을 잘 나타내어 주고 있다.¹³⁾

교육정도별 특성을 보면 상용고, 임시고, 고용주의 비율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반면, 일용고와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의 비율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용고의 비율은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구조임이 두드러진다. 학력수준에 관계 없이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이 고용주와 임시고이다.

3.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특성

가. 여성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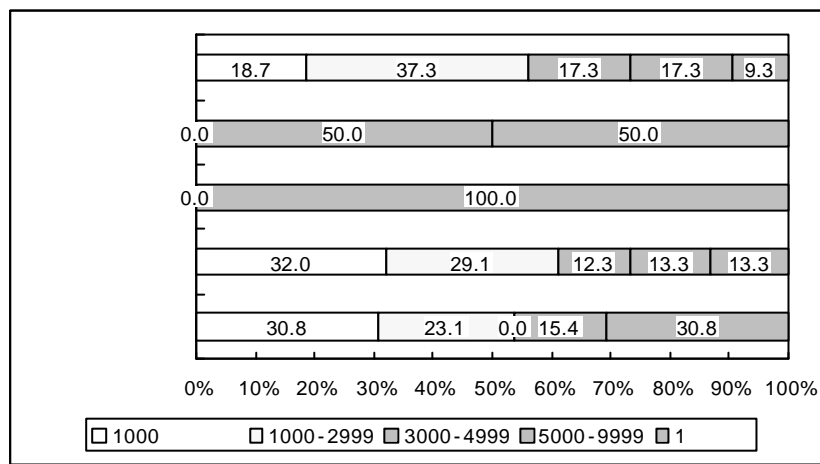
1) 여성 고용주와 자영업자

여성 취업자 중에서 고용주의 비율은 0.2%로 3차 조사 때보다 2.6%포인트나 적게 잡혔다. 자영업자는 13.5%, 무급가족종사자는 19.0%로, 전체 여성 취업자 중에서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은 32.7%로 3차조사보다 4.0%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용주의 경우는 35-39세 사이에, 자영업자는 40-50대에 몰려 있어 여성 고용주와 자영업자는 대부분이 중장년층 여성임을 알 수 있다(<표 III-5> 참고).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이 69.1%이었다. 교육수준별로는

13) 우리나라 여성 취업자의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퇴출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오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취업력 부분을 참조하기 바람.

초졸미만이 4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고졸 22.9%, 중졸 13.8%, 초대졸 12.5%, 대졸이상 8.9% 순이었다. 즉 미혼일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창업을 하기보다는 임금근로자에 더 높게 분포해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부표 Ⅲ-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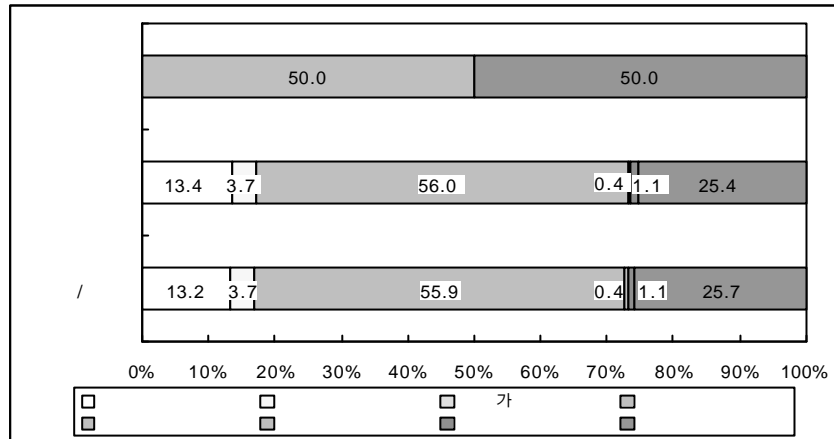
<그림 Ⅲ-7> 여성 고용주/자영업자의 업종별 자본금
단위: %



여성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자본금 분포도를 살펴보면, 고용주의 자본금은 1억 이상이 57.1%로 가장 높은 반면, 자영업자는 1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미만이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 자영업자가 여성 고용주에 비해 자본금이 훨씬 적음을 알 수 있다. 여성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자본금규모를 운영하는 사업체의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1천만원 미만과 1억 이상이 각각 30.8%로 높게 나타났으며, 도소매숙박업은 1천만원 미만이 3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인사회서비스업의 경우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가 37.3%로 가장 높았다. 운수창고업의 자본금 규모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금융보험부동산업을 알 수 있다.

<그림 Ⅲ-8> 여성 고용주/자영업자의 업종별 분포

단위: %



여성 고용주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업종을 보면, 여성 고용주의 50%는 도소매 숙박업에, 나머지 50%는 개인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여성이 규모가 있는 창업을 할 수 있는 범주가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여성 자영업자의 경우는 여성 고용주에 비해서 업종별로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도소매숙박업이 56.0%로 가장 높게 분포되어 있으며, 개인사회서비스업은 25.4%, 농업·축산업·농림어업이 13.4%, 제조업 3.7%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Ⅲ-6> 여성 고용주/자영업자의 사업자 등록여부

단위: %(명)

	전체	동부	읍면부
등록하지 않았다	26.9 (79)	25.4 (60)	32.8 (19)
등록했다	73.1 (215)	74.6 (176)	67.2 (39)
전 체	100.0 (294)	100.0 (236)	100.0 (58)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사업자 등록여부를 알아본 결과, 전체의 26.9%가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부보다는 읍면부에서 공식적인 정부의 허가

없이 사업을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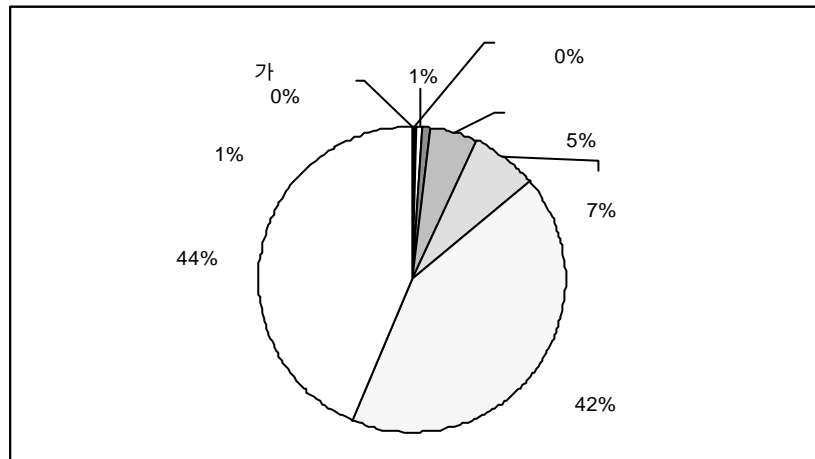
사업자 등록여부는 경제비공식부분에 대한 통계생산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며, 공식적인 정부의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무허가 영세사업체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2) 여성 무급가족종사자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성 무급가족종사자는 여성 전체 취업자의 19.0%이다(<표 Ⅲ-5> 참고). 이는 3차 조사와 비슷한 결과이다. 연령계층별로 무급가족종사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15-24세가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64세가 19.9%, 40-54세가 19.4%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 무급가족종사자를 학력별로 살펴보면, 초졸 미만이 54.2%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이 16.0%, 중졸이 13.9%이다. 대졸이상의 경우는 4.2%에 불과하지만 초대졸은 11.8%나 차지하고 있다(<부표 Ⅲ-3> 참고).

<그림 Ⅲ-9> 여성 무급가족종사자의 업종별 분포

단위: %



여성무급종사자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도소매숙박업이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농어업광업이 42%를 차지하고 있다. 즉, 여성 무

급가족종사자의 대부분은 저학력 여성들로서 도소매업이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여성 임금근로자의 특성

여성 임금근로자는 여성 취업자의 6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상용고가 49.8%, 임시고 12.1% 그리고 일용고가 5.5%이다(<표 Ⅲ-5> 참고). 이들 여성 임금근로자, 특히 상용고의 특징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혼, 고학력집단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입직경로 및 업종별분포, 남녀차별 현황 등을 중심으로 여성 임금근로자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1) 여성 임금근로자의 입직경로

여성 임금근로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취업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 본 결과, 3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웃이나 친구소개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 비율은 3차 때 48.8%에서 38.6%로 감소한 반면, 신문광고의 경우 6.3%포인트 증가하여 가장 많은 증가추세를 보였고, 직업소개소의 비율 역시 증가하였다. 무엇보다도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채용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듯 인터넷을 통한 공개채용의 비율 역시 7.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최근의 노동시장의 변동 추세를 반영하여 이 번에 새로 조사된 내용이다. 그러나 부모형제 및 이웃친구, 학교 추천 등 개인적인 소개나 추천을 통해서 일자리를 얻게 된 경우가 전체의 63.7%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사회단체나 여성센터 등을 통한 취업은 1.4%에 불과하여 여성의 취업을 알선하는 사회단체의 활용도가 여전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저연령일수록 부모형제의 소개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연령일수록 이웃, 친구소개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경우는 15세에서 29세 사이와 40세에서 59세 사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신문광고의 경우는 모든 연령대에서 비교적 비슷하게 활용하고 있었다. 학교추천은 30대 이하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사회단체 및 여성

센터는 4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 20대 후반이 주로 활용하고 있었다. 요약하자면,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상대적으로 학교추천 및 인터넷 활용이 많은 반면, 40세 이상의 고연령일수록 이웃이나 친구의 소개 및 사회단체나 여성센터를 이용해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 여성 임금근로자의 입직경로

단위: %(명)

	부모 형제	이웃 친구	직업 소개 소	신문 광고	학교 추천	자신 직접	사회단 체/여성 센터	인터넷 공채	기타	전 체
전 체	12.6 (147)	38.6 (452)	4.2 (49)	12.4 (145)	12.5 (146)	5.1 (60)	1.4 (16)	7.3 (86)	6.0 (70)	100.0 (1,171)
연령										
15-24세	11.8	34.8	5.5	13.6	13.4	5.5	1.4	7.1	6.7	100.0 (491)
25-29세	12.6	31.4	5.0	10.7	17.6	6.3		10.7	5.7	100.0 (159)
30-34세	13.1	44.1	0.7	15.2	8.3	4.8	0.7	8.3	4.8	100.0 (145)
35-39세	16	38.5	2	9.8	12.3	7.4	0.8	8.2	4.9	100.0 (122)
40-54세	14.1	47.5	6.1	12.1	6.1	5.1	3.0	2.0	4.0	100.0 (99)
55-59세	4.8	57.1	4.8	14.3	9.5	4.8			4.8	100.0 (21)
60-64세	11.9	45.5	2.2	9.0	12.7	0.7	3.0	7.5	7.5	100.0 (134)
혼인상태										
미혼	12.1	32.8	4.3	13.0	15.9	5.1	1.5	9.4	6.0	100.0 (586)
기혼	13.0	44.4	4.1	11.8	9.1	5.1	1.2	5.3	6.0	100.0 (585)
가구주여부										
가구주	10.0	45.6	3.3	10.6	4.4	8.3	2.8	7.8	7.2	100.0 (180)
비가구주	13.0	37.3	4.3	12.7	13.9	4.5	1.1	7.3	5.8	100.0 (991)
교육정도										
초졸미만	12.2	48.0	5.0	10.0	8.2	4.0	1.5	5.5	5.7	100.0 (402)
중졸	9.2	36.2	4.3	14.9	9.9	7.1	2.1	5.7	10.6	100.0 (141)
고졸	16.5	36.5	3.9	14.4	13.7	4.2	1.4	4.6	4.9	100.0 (285)
초대졸	11.7	35.0	5.6	13.3	13.3	5.0	1.1	9.4	5.6	100.0 (180)
대졸이상	10.4	25.2	1.2	11.7	22.1	8.0	0.6	16.0	4.9	100.0 (163)

혼인상태별로 보면, 미혼의 경우 신문광고, 학교추천, 인터넷 이용이 많은 반면, 기혼은 부모, 형제 및 이웃, 친구의 소개가 많았다. 직업소개소 및 사회단체나 여성센터를 통해서 취업한 근로자비율은 기·미혼이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가구주의 경우는 이웃, 친구의 소개나 자신이 직접 일자리를 찾아가서 취업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난 반면, 비가구주의 경우 부모, 형제나 학교추천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신문광고 및 학교추천 또는 자신이 직접 찾거나 인터넷을 통해 취업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학력이 낮을수록 부모, 형제 및 이웃, 친구, 직업소개소, 사회단체나 여성센터의 소개로 취업된 근로자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성 임금근로자의 입직경로를 종사상지위별로 살펴보면, 상용고는 신문광고나 학교추천을 통해서 또는 자신이 직접 찾거나 인터넷을 통해 취업한 근로자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임시고는 부모, 형제 및 직업소개소를 통해 취업한 근로자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일용고의 경우는 이웃, 친구 및 사회단체나 여성센터를 통해 취업한 근로자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Ⅲ-8 > 여성 근로자의 종사상지위별 입직경로

단위: %(명)

	부모 형제	이웃 친구	직업 소개소	신문 광고	학교 추천	자신 직접	사회단체/여성 센터	인터넷 공채	기타	전 체
상용고	12.6	33.3	3.5	13	15.3	6.2	1.3	9.1	6.2	100.0 (875)
임시고	14.4	51.1	6.9	11	5.9	2.1	1.1	2.7	5.3	100.0 (188)
일용고	8.1	61.6	5.8	12	1.2	0.0	3.5	1.2	7.0	100.0 (86)

2) 여성 임금근로자의 업종 및 직종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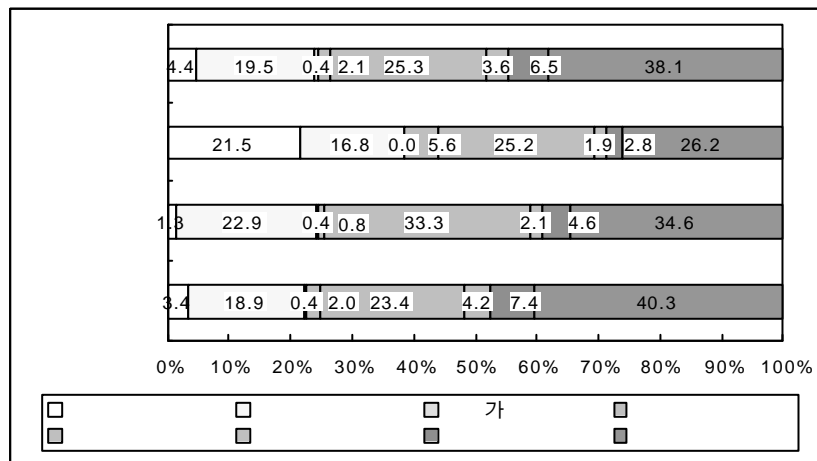
여성 임금근로자의 업종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개인사회서비스업(38.1%)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도소매숙박업(25.3%), 제조업(19.5%), 금융보험부동산(6.5%), 제조업(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취업자의

업종별 분포구조(<표 Ⅲ-2> 참고)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 여성 취업자의 경우 도소매숙박업(33.2%)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제조업의 비율 역시 12.5%나 차지하고 있다.

여성 임금근로자의 종사상의 지위별 업종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는 일용고(21.5%)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임시고는 1.3%의 비중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 상용고의 경우도 3.4%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개인사회서비스업의 경우는 상용고가 4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도소매숙박업은 임시고가 33.3%로 가장 높았다. 농어업 및 광업의 경우 일용고 종사자가 21.5%로 가장 많고, 또한 일용고의 비율이 높은 업종은 건설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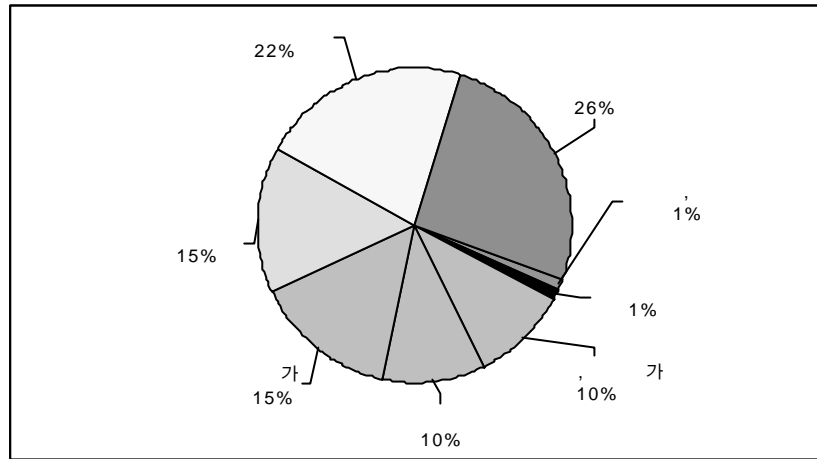
조사 대상 여성임금근로자의 직종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사무직이 2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서비스(22.0%), 전문가(15.0%), 단순노무직(15.0%), 기능직(10.0%), 기술공/준전문가(10.0%), 농림어업직(1.0%), 조립/조작공(1.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0> 여성 임금근로자의 종사상의 지위별 업종 분포
단위: %



<그림 Ⅲ-11> 여성 임금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단위: %



3) 여성 임금근로자의 남녀차별 실태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의 남녀차별을 감지하고 있는지 여성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전체 여성 임금근로자의 32.0%가 차별이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여성차별의 인지도가 3차 조사 때보다 11.5%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차별인지도에 대한 학력별 차이를 살펴보면, 학력이 낮을수록 차별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나 3차 조사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차별 인지영역에 있어서는 학력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임금차별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승진차별, 부당한 능력차별, 보조적 업무 순이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사무직의 차별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는 비슷한 수준이긴 하나 단순노무직, 기능직, 조립공 및 조작공 순으로 차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비숙련직종에서 차별을 감지하는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서비스판매직 근로자의 차별인지도가 가장 낮았으며, 준전문가, 전문가 순으로 차별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대체적으로 전 직종에 걸쳐 임금차별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으나, 전문가의 경우 승진차별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임금수준이 높은 직종의 경우 임금차별보다는 승진 차별을 더 높게 인

< 표 III-9 > 남녀 차별유형

단위: %(명)

	전 체	임 금 차별	승진 차별	부당한 능력 평가	보조적 업무	강제 퇴직	정년 차별	교육 연수	출산 휴가/ 육아 휴직	기타
	100.0 (446)	28.5 (127)	19.3 (86)	14.8 (66)	13.5 (60)	4.0 (18)	3.1 (14)	8.1 (36)	7.4 (33)	1.3 (6)
교육정도										
초졸이하	100 (74)	30.6	19.4	16.0	11.8	2.1	3.5	9.7	6.3	0.7
중졸	100 (21)	42.9	22.9	14.3	8.6	2.9	0.0	2.9	5.7	0.0
고졸	100 (68)	25.0	15.7	12.9	19.3	5.7	5.7	5.7	8.6	1.4
초대졸이상	100 (67)	26.0	22.0	15.7	10.2	4.7	0.8	10.2	7.9	2.4
직종										
전문가	100 (27)	10.9	37.0	19.6	4.3	0.0	0.0	17.4	8.7	2.2
준전문가	100 (19)	23.4	21.3	21.3	8.5	8.5	2.1	4.3	10.6	0.0
사무직	100 (96)	24.0	20.7	12.0	17.8	4.8	3.4	8.2	7.2	1.9
서비스, 판매자	100 (30)	34.0	14.0	20.0	8.0	4.0	4.0	12.0	4.0	0.0
기능직	100 (21)	39.5	7.9	15.8	10.5	2.6	7.9	5.3	10.5	0.0
조립공, 조작공	100 (2)	25.0	25.0	25.0	25.0	0.0	0.0	0.0	0.0	0.0
단순노무직	100 (34)	54.9	7.8	7.8	15.7	2.0	2.0	2.0	5.9	2.0

주: 차별이 있는 경우, 차별유형은 복수응답항목임.

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준전문가와 조립공/조작공의 경우에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있어서의 차별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채용과정에서의 차별경험을 조사한 결과, 차별이 전혀 없다(80.6%), 드물게 있었다(13.6%), 몇 번 있었다(4.2%), 빈번하게 있었다(1.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채용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임금근로자는 전체의 19.4%이다. 학력별로는 큰 차이 없이 대체적으로 차별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종사상 지위별로 봤을 때 상용고의 차별경험은 비교적 낮은 반면, 일용고는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의 경우 전혀 없다와 빈번하게 있었다는 비율이 많아 높은 편차를 보인 반면, 미혼의 경우는 채용차별을 간혹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Ⅲ-10 > 채용과정에서의 차별경험 유무

단위: %(명)

	전혀 없다	드물게 있었다	몇 번 있었다	빈번하게 있었다	전체
교육정도	80.6 (944)	13.6 (159)	4.2 (49)	1.6 (19)	100.0 (1,171)
초졸미만	81.3	13.4	3.7	1.5	100.0
중졸	80.9	11.3	5.7	2.1	100.0
고졸	79.6	14.4	4.9	1.1	100.0
초대졸	83.3	10.6	3.9	2.2	100.0
대졸이상	77.3	17.8	3.1	1.8	100.0
종사상지위	80.6 (927)	13.6 (155)	4.2 (48)	1.6 (19)	100.0 (1,149)
상용고	81.5	13.3	3.8	1.5	100.0
임시고	79.3	14.9	4.3	1.6	100.0
일용고	75.6	12.8	8.1	3.5	100.0
혼인상태	80.7 944	13.5 159	4.2 49	1.7 19	100.0 (1,171)
미혼	79.9	14.7	4.4	1.0	100.0
기혼	81.4	12.5	3.9	2.2	100.0

성희롱에 대한 경험유무를 물었을 때 전혀 없다(89.6%), 드물게 있었다(8.3%), 몇 번 있었다(1.5%), 빈번하게 있었다(0.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학력이나 저학력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일용고가 성희롱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의 성희롱경험이 더 빈번하였다.

< 표 III-11 > 성희롱경험 유무

단위: %(명)

	전혀 없다	드물게 있었다	몇 번 있었다	빈번하게 있었다	전체
교육정도	89.6 (1,049)	8.3 (97)	1.5 (17)	0.7 (8)	100.0 (1,171)
초졸미만	91.5	6.0	2.0	0.5	100.0
중졸	90.8	7.8	0.7	0.7	100.0
고졸	88.1	10.5	0.7	0.7	100.0
초대졸	86.1	11.1	1.7	1.1	100.0
대졸이상	90.2	7.4	1.8	0.6	100.0
종사상 위치	89.5 (1,028)	8.4 (96)	1.5 (17)	0.7 (8)	100.0 (1,149)
상용고	88.9	9.4	1.1	0.6	100.0
임시고	91.5	5.3	2.7	0.5	100.0
일용고	90.7	4.7	2.3	2.3	100.0
혼인상태	89.6 (1,049)	8.3 (97)	1.5 (17)	0.7 (8)	100.0 (1,171)
미혼	88.4	9.2	1.7	0.7	100.0
기혼	90.8	7.4	1.2	0.7	100.0

4) 여성 임금근로자의 노조가입여부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사업체에 노조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17.1%만이 노조가 있다고 대답함으로써 대다수의 사업체가 아직까지 노조가 없음(82.9%)을 알 수 있다. 노조가 있는 경우는 사무직이 가장 많고 조립/조작공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가 및 서비스판매직은 노조가 많고 농림어업직, 기능직, 기계조작직, 단순노무직과 같은 직종은 노조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

< 표 Ⅲ-12 > 직종별 노조유무

단위: %(명)

	없다	있다	전 체
전 체	82.9 (968)	17.1 (200)	100.0 (1,168)
직종별	100.0	100.0	100.0
전문가	12.7	24.5	14.7
기술공, 준전문가	10.1	10.5	10.2
사무직	23.5	37.5	25.9
서비스 판매직	23.3	14.0	21.7
농림어업직	1.3	0.0	1.1
기능직	11.2	6.5	10.4
기계조작원	1.1	0.5	1.0
단순노무직	16.7	6.5	15.0

노조가입여부에 응답한 201명¹⁴⁾ 중 45.8%가 노조에 가입하였으며, 시간제 근로자는 26.3%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응답한 11.4% 중 전일제 근로자의 비율은 9.3%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정도별로는 가입자 중에는 고졸이 가장 많았고 비가입자 중에는 대졸 이상의 비율이 높았다. 이로써 학력이 높을수록 노조가입률이 현저하게 떨어짐을 알 수 있다. 혼인상태별로는 가입자 및 비가입자 모두 미혼이 많았으며, 기혼, 미혼 모두 가입률이 비가입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사람으로는 기혼이 많아 비정규직에 기혼여성이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

14) 응답자는 본인 소속 사업체에 노조가 있다고 응답한 200명 일 것으로 추측되나 본인 소속 사업체에 노조가 없는 한 명이 더 응답하였다.

< 표 III-13 > 노조가입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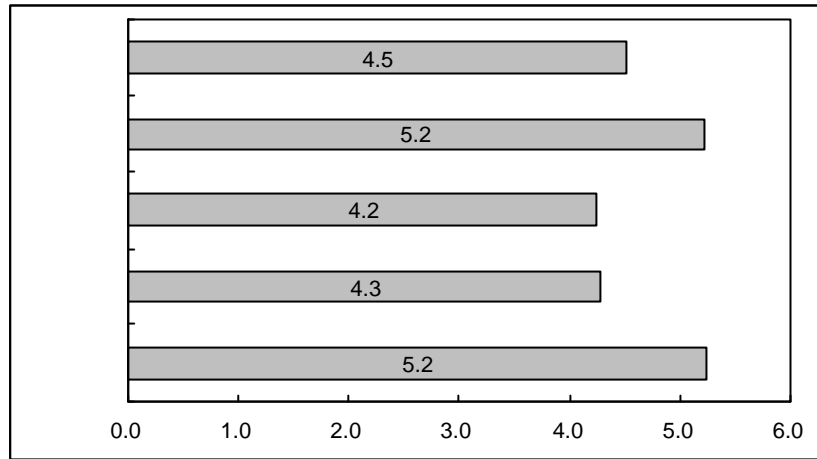
단위: %(명)

	가입	미가입	가입 대상 아님	전체
전 체	45.8 (92)	42.8 (86)	11.4 (23)	100.0 (201)
고용형태				
전일제 근로자	47.8	42.9	9.3	100.0 (182)
시간제 근로자	26.3	42.1	31.6	100.0 (19)
교육정도				
초졸미만	49.1	39.6	11.3	100.0 (53)
중졸	50.0	35.0	15.0	100.0 (20)
고졸	55.1	32.7	12.2	100.0 (49)
초대졸	35.0	52.5	12.5	100.0 (40)
대졸이상	38.5	53.8	7.7	100.0 (39)
혼인상태				
미혼	46.4	45.5	8.2	100.0 (110)
기혼	45.1	39.6	15.4	100.0 (91)

5) 여성 임금근로자의 근속년수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여성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4년 6개월이었다. 따라서 이 번 조사에서는 3차 조사의 3년 4개월보다 1년 2개월이 증가한 것으로 결과하였다. 교육수준별 여성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를 보면 중졸과 대졸 이상이 5년 2개월로 가장 길었고, 다음은 초졸 미만, 초 대졸, 고졸 순으로 고졸이 4년 2개월로 가장 짧게 나타났다.

<그림 Ⅲ-12> 여성 임금근로자의 교육정도별 평균근속연수
단위: 년



여성 임금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구주의 경우 4년 7개월이었고 비가구주는 4년 5개월로 가구주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의 근속연수가 5년 2개월로 미혼의 4년보다 길었다. 직종별로는 농림어업직이 8년 4개월로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전문가가 6년 4개월로 3차 조사의 5년보다 길었다. 반면, 조립/조작공이 가장 짧아 2년 7개월이었다. 판매직 역시 3년 1개월로 그리 길지 않았다. 업종별로는 역시 농림어업광업이 10년 7개월로 가장 길었고, 도소매숙박업이 2년 9개월로 가장 짧았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사실은 비교적 고용이 불안정한 업종인 건설업이 6년 1개월로 두 번째로 길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다. 이는 본 조사에서 일용직의 근속기간을 현재 일을 한 기간 즉, 경력연수로 조사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표 III-14 > 여성 임금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

단위: 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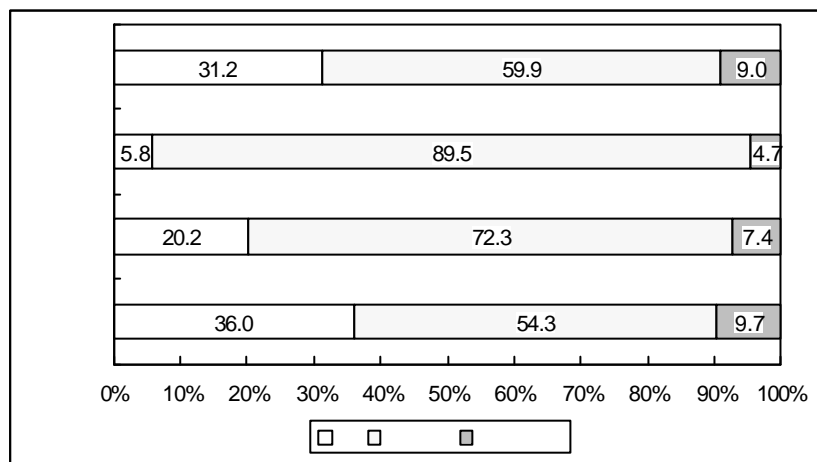
	평균	(N)
전 체	4.60	(1,171)
가구주여부		
가구주	4.78	(180)
비가구주	4.57	(991)
혼인상태		
미혼	4.00	(586)
기혼	5.20	(585)
직종		
전문가	6.43	(172)
기술공, 준전문가	4.67	(119)
사무직	4.58	(302)
서비스 판매직	3.13	(254)
농림어업직	8.45	(13)
기능직	4.39	(121)
조립공, 조작공	2.73	(12)
단순노무직	4.83	(175)
업종		
농어업광업	10.70	(29)
제조업	3.88	(234)
전기가스수도업	4.92	(6)
건설업	6.10	(28)
도소매숙박업	2.99	(252)
운수창고통신업	5.40	(48)
금융보험부동산	5.04	(87)
개인사회서비스업	5.13	(478)

여성 임금근로자의 고용계약여부를 살펴보면, 59.9%가 서류상의 고용계약을 맺고 있지 않다고 응답함으로써 매우 불안정한 고용구조 속에 놓여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서류상의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에 대해서조차 모르고 있는 여성도 9.0%나 되었다. 일용고의 경우 89.5%가 서류상의 고용계약 없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임시고는 72.3%였다. 상용고에서조차도 54.3%가 서류상의 계약 없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3> 여성 임금근로자의 고용계약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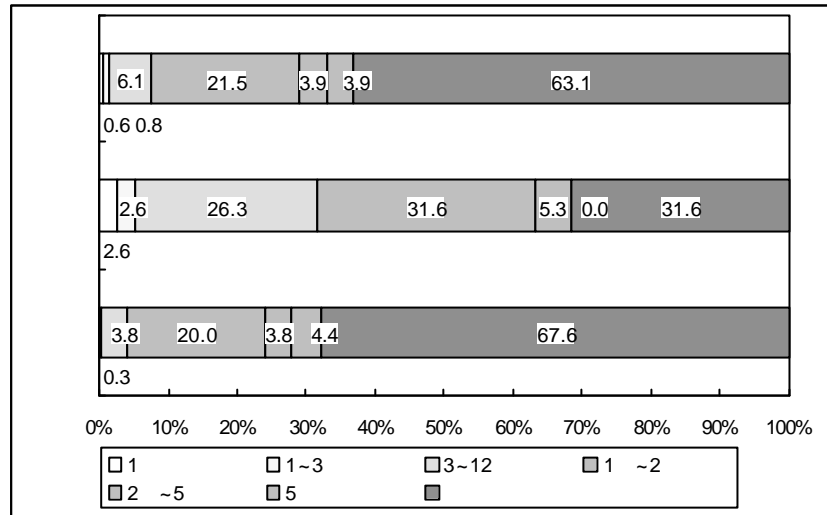
단위: %



고용계약을 맺은 임금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을 물어본 결과, 전체의 63.1%가 정년까지 근무한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1년에서 2년 미만이 21.5%, 3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이 6.1%로 높게 나타났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경향에 따라 고용형태가 연봉제 및 계약제로 전환해 가는 추세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년제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정년제까지 근무하는 임금근로자는 상용고가 6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¹⁵⁾

15) 임시고와 일용고에 대해서는 통계청 정의에 따라 임시고는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미만인 자, 일용고는 1개월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고용계약기간에 의한 분류가 곤란한 경우 예외조항을 두었다. 예를 들어, - 일정한 사업완료의 필요에 의하여 고용된 자(사업완료가 1년미만), - 단순업무 보조원으로서 상여금 등 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다른 직업이 없는 통장, 리장 등), -근속기간이 1년이상인 사람으로서 퇴직금 및 의료보험 비수혜자 등.

<그림 Ⅲ-14> 여성 임금근로자의 평균고용계약 기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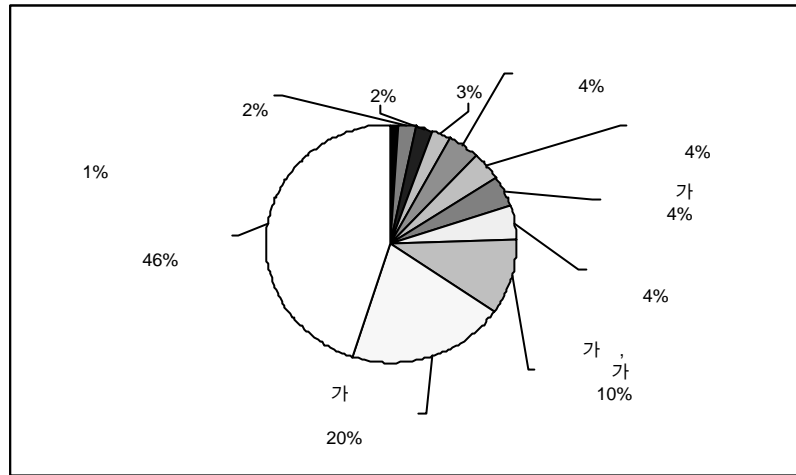
4. 여성 취업자의 근로조건

조사 대상 여성 취업자에게 현 직장 근무 시 어려운 점을 물어본 결과¹⁶⁾ 노력에 비해 수입이 적다가 46.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일 자체가 많고 힘들다(20.0%), 일과 가사, 육아를 병행하기가 힘들다(10.0%),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진다(4.0%), 대인관계가 어렵다(4.0%), 작업환경이 너무 열악하다(4.0%), 자아발전이 어렵다(4.0%), 전문지식이 부족하다(2.0%), 기타(2.0%)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 한 것은 남녀차별에 부딪힌다로 1.0%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취업자들에게는 노동운동의 가장 고전적인 문제인 노동시간과 임금 이 근로조건에 있어 아직까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 이에 대해서는 복수응답을 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1순위 응답결과이다.

<그림 Ⅲ-15> 현 직장 근무시 애로사항

단위: %



가. 노동시간

여성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보면, 평균 주당근로시간은 50.6시간으로 3차 조사의 45.5시간보다 약간 증가하였다. 주당 노동시간이 가장 긴 종사상의 지위는 고용주로 60시간이었고 다음으로는 자영업자(56.9시간), 무급가족종사자(53.7시간) 순으로 비임금근로자의 노동시간이 임금근로자보다 10.8시간 가량 길게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상용고가 50시간, 임시고는 43시간, 그리고 일용고는 45시간이었다. 따라서 상용고와 임시직·일용직간의 노동시간 차이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간의 차이만큼 크지 않았다.

전체 취업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인 50.5%가 주당 49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38.3%가 35-48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위 시간제¹⁷⁾ 노동자로 불리우는 주당 35시간 미만 노동은 전체 취업자의 11.3%

17) 흔히 35시간을 기준으로 35시간 미만 노동자를 시간제 노동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이 기준을 따르게 되면, 주당 35시간 미만 노동을 하는 상근제 근로자가 시간제 근로자로, 주당 35시간 이상 노동시간을 가진 시간제 근로자는 상근제 근로자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 한편, ILO는 한 작업장에서 수행되고 있는 평균노동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에 대해 시간제 노동으로 본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 사업장의 평균노동시간이 50시간일 경우 49시간 노동자도 시간제 노동자가

를 차지하고 있었다. 35시간 미만 노동자로는 임시고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일용고였다. 35-48시간은 상용고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49시간이상의 경우는 고용주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Ⅲ-15> 종사상의지위별 노동시간

단위: %(명)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상용고	임시고	일용고	전체
평균노동시간	60.0	56.9	53.7	50.1	43.1	44.9	50.6
노동시간	100.0 (4)	100.0 (268)	100.0 (377)	100.0 (990)	100.0 (241)	100.0 (109)	100.0 (1,989)
35시간미만	0.0	10.1	14.3	5.8	26.1	22.0	11.3 (225)
35-48시간	25.0	21.3	21.2	49.5	37.8	38.5	38.3 (761)
49시간이상	75.0	68.7	64.4	44.7	36.1	39.4	50.5 (1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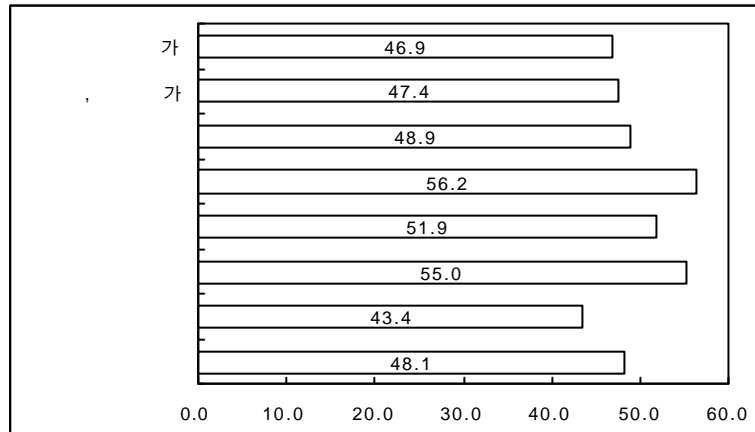
주당 근로시간은 학력에 큰 상관관계 없이 전 시간대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졸이상의 경우 35-48시간대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어 대졸의 안정된 상용고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 초졸미만은 35시간 미만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어 기술을 소유하지 못한 저학력자들의 임시·일용고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중졸의 경우는 100시간 이상대에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는데, 이는 이 학력계층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시사한다.

소득별로는 저소득 계층일수록 노동시간이 짧았다. 혼인상태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기혼여성의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직종별로는 전문·기술직일수록 노동시간이 길고 비전문·단순직일수록 노동시간이 짧았다. 산업별로는 농어업 및 광업의 노동시간이 35시간미만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도소매숙박업의 노동시간은 100시간 이상 대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부표 Ⅲ-8> 참고).

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기준은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50시간을 육박하는 우리나라 노동조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김태홍(1994), 시간제 및 임시직 노동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pp. 19-23을 참조.

임금노동자 중 상용고의 직종별 노동시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조립/조작공이 43.4시간으로 가장 짧았고, 서비스판매직이 56.2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기술·전문직의 노동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반면, 서비스판매, 농림어업, 단순노무직에서와 같이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노동일수록 노동조건이 열악함을 알 수 있다.

<그림 Ⅲ-16> 직종별 여성 상용고의 주당 근로시간
단위: 시간



<표 Ⅲ-16> 35시간 미만 노동 사유

단위: %(명)

	일거리가 없어서	계절적인 이유로	휴가	연로및 건강상의 이유로	휴일이 끼어서	가사및 육아 탓	노부모 부양및 가족 수발	날씨 때문에	교육 및 훈련	기타	전체
전체	100.0 (51)	100.0 (16)	100.0 (1)	100.0 (10)	100.0 (1)	100.0 (17)	100.0 (3)	100.0 (1)	100.0 (2)	100.0 (10)	100.0 (112)
종사상지위											
자영업자	5.9	31.3	0.0	50.0	0.0	0.0	0.0	100.0	0.0	10.0	13.4
무급가족	25.5	50.0	100.0	10.0	0.0	0.0	0.0	0.0	50.0	0.0	21.4
상용고	21.6	12.5	0.0	20.0	0.0	41.2	0.0	0.0	0.0	70.0	25.9
임시고	23.5	6.3	0.0	0.0	100.0	47.1	66.7	0.0	0.0	10.0	22.3
일용고	23.5	0.0	0.0	20.0	0.0	11.8	33.3	0.0	50.0	10.0	17.0

35시간 미만 일을 하는 여성 취업자(112명)를 대상으로 35시간 미만의 일을 하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45.5%가 일거리가 없어서라고 대답하고 있어 일거리가 있을 경우 전일제를 원하는 사람이 많음을 시사한다. 이 중에서도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25.5%)이 가장 높았다. 가사 및 육아, 탁아 때문에 시간제로 일하는 여성은 15.2%로 다음으로 높았으며, 이 중 임시고(47.1%)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노부모 부양 및 가족수발 때문에 시간제 노동을 한다고 응답한 여성들 중에는 임시고(66.7%)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35시간 이상 일자리 희망여부를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42.4%가 35시간 이상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사상의 지위별로 살펴보면, 일용고의 35시간 이상 일자리 희망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II-17 > 35시간 이상 일자리 희망여부

단위: %(명)

	예	아니오	전체
전 체	42.4 (112)	57.6 (152)	100.0 (264)
종사상지위			
자영업자	40.5	59.5	100.0
무급가족	38.7	61.3	100.0
상용고	42.1	57.9	100.0
임시고	36.7	63.3	100.0
일용고	68.0	32.0	100.0

35시간이상의 일자리를 원하지 않은 47.6%의 여성에게 그 이유를 물어 본 결과, 가장 많은 32.9%가 가사 및 탁아, 육아 문제를 꼽았다. 다음으로 필요가 없어서가 17.1%, 건강상의 이유가 16.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임시고의 경우는 가사 및 탁아, 육아 문제가 가장 컸으며, 상용고, 임시고는 학업이나 훈련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Ⅲ-18 > 35시간 이상 일자리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가사및 육아 문제	노부모 무양및 가족 수발	기타 집안 사정	건강 상의 이유	학업 (훈련)	연로 및 질병	필요가 없어서	안정성 이없고 보수가 낮아서	기타	전체
전 체	100.0 (50)	100.0 (6)	100.0 (9)	100.0 (25)	100.0 (15)	100.0 (6)	100.0 (26)	100.0 (3)	100.0 (12)	100.0 (152)
종사상지위										
자영업자	12.0	33.3	11.1	28.0	0.0	16.7	11.5	0.0	16.7	14.5
무급가족	24.0	33.3	44.4	28.0	0.0	66.7	23.1	33.3	16.7	25.0
상용고	28.0	0.0	22.2	20.0	40.0	16.7	26.9	33.3	33.3	26.3
임시고	28.0	33.3	22.2	20.0	53.3	0.0	26.9	33.3	33.3	28.3
일용고	8.0	0.0	0.0	4.0	6.7	0.0	11.5	0.0	0.0	5.9

여성 취업자의 출근 소요시간을 살펴보면, 집이나 집근처에서 일한다가 3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부보다도 읍면부의 경우 일터와 집의 거리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근을 위한 소요시간은 30분 미만이 28.1%로 가장 높았다.

< 표 Ⅲ-19 > 출근 소요시간

단위: %(명)

	전체		동부		읍면부	
집이나 집 근처에서 일한다	39.7	(790)	32.7	(504)	63.4	(286)
30분 미만	28.1	(560)	29.4	(452)	23.9	(108)
30분-1시간미만	25.0	(498)	29.2	(449)	10.9	(49)
1시간-2시간 미만	6.4	(127)	7.9	(121)	1.3	(6)
2시간 이상	0.8	(16)	0.9	(14)	0.4	(2)
전 체	100.0	(1,991)	100.0	(1,540)	100.0	(451)

나. 수입 및 임금

여성 취업자의 월 평균 소득을 조사한 결과 97-98만원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의 평균 소득은 2,153,846원, 자영업자는 1,180,362원이었고, 전일제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004,155원, 시간제근로자는 652,555원으로 나타났다. 가내노동자의 수입은 413,218원으로 가장 낮았다.

< 표 III-20 > 종사상의 지위별 평균소득

단위: 원, 명

	평균소득	N
종사상 지위 전체	981,288	1,505
고용주	2,153,846	13
자영업자	1,180,362	304
가내노동자	413,218	29
전일제 근로자	1,004,155	915
시간제 근로자	652,555	244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이 가장 높아 127만원수준이었고, 중졸이 가장 낮아 87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고학력일수록 임금수준이 더 높다. 연령별로는 35-39세 사이가 114만원대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40-54세가 106만7천원대, 30-34세가 106만1천원대 순으로 나타났다. 즉 30대부터 50대 초반까지의 임금수준이 평균수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연령계층별 임금수준이 15-19세에서 증가하기 시작하여 40-54세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55세 이후로 다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임금곡선은 계약제 및 연봉제 등 임금체계가 노동시장의 유연화 따라 변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연공급 임금체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령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여성의 연공급 임금체계는 남성에서만큼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¹⁸⁾.

18) 김태홍 외(1997),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p. 66.

직종별로는 입법행정관리직의 임금이 가장 높고, 전문가, 기술공/준전문가, 서비스판매직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단순노무직, 조립/조작공, 기능직, 농림어업직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들 저임금 직종은 평균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부동산, 개인사회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 순으로 높았으며, 농어업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업, 도소매숙박업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부표 Ⅲ-9> 참고).

<표 Ⅲ-21> 직종별 임금지급형태

단위: %(명)

	시간급	일당	주급	월급	갯수급	기타	전체
전 체	6.7 (78)	9.2 (108)	0.1 (1)	76.3 (894)	7.4 (87)	0.3 (3)	100.0 (1,171)
전문가	5.2	0.6	0.0	91.3	2.3	0.6	100.0 (172)
기술공, 준전문가	4.2	0.8	0.0	79.8	14.3	0.8	100.0 (119)
사무직	1.0	1.0	0.0	87.7	10.3	0.0	100.0 (302)
서비스 판매직	11.0	8.3	0.4	70.5	9.4	0.4	100.0 (254)
농림어업직	0.0	92.3	0.0	7.7	0.0	0.0	100.0 (13)
기능직	8.3	11.6	0.0	77.7	2.5	0.0	100.0 (121)
조립공, 조작공	8.3	8.3	0.0	75.0	8.3	0.0	100.0 (12)
단순노무직	12.6	30.9	0.0	52.6	4.0	0.0	100.0 (175)

여성 임금근로자의 임금지급형태를 보면 가장 많은 76.3%가 월단위로, 9.2%가 일급으로, 7.4% 개수급(성과)급제로, 6.7%가 시간급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차 조사와 거의 같은 결과이다.

종사상의 지위별로는 상용고의 경우 87.9%가 임금을 월급으로 받고 있었으며, 일용고는 60.5%가 일급으로 지불받고 있었다. 임시고 역시 월급이 4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부표 Ⅲ-10>).

5. 비정규직 여성 취업자의 특성

IMF 외환위기 이후 추진되어 온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노동자가 급증하였으며, 비정규직의 여성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¹⁹⁾ 그러나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서류상의 고용계약유무나 노동시간(주당 35시간미만), 근무형태(가내, 파견 등), 고용계약형태(임시, 일용) 등을 중심으로 개념이 규정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임금근로자의 고용계약형태를 중심으로 상용고를 제외한 노동자, 즉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고용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²⁰⁾

전체 여성 취업자 중 임시직 및 일용고의 비율은 17.6%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의 42.4%보다 낮게 나타났다.²¹⁾ 연령별로는 15-24세의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55-59세 비율이 가장 낮았다. 교육정도별로는 초졸미만이 가장 높고, 대졸이상이 가장 낮았으며,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소득별로는 50-79만원 사이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80만원 이하의 소득자가 전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중 78.5%를 차지하고 있다. 상용직의 경우 37.6%만이 80만원 이하의 소득자인 점과 비교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19) 김태홍(1999),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확산에 따른 여성고용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 노동부, 권혜자, 박선영(1999), “비정규노동자의 규모, 법적지위, 조직화방안”, 한국노동중앙연구원

20) 비정규직에 관한 논쟁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개념규정을 시도하는 것은 본 보고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정규직과 다른 형태를 가진 다양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존재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를 단순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21) 그 원인의 일부는 본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가 1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으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 통계청 조사의 경우 15세 이상 여성인데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연보(2001)에 의하면 65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2.5%에 불과하지만, 이 연령층의 상용고 비율은 1%에도 미치지 않는 반면, 임시·일용고의 비율은 24.2%를 차지하고 있다.

< 표 Ⅲ-22 >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성

단위: %(명)

	임시고		일용고		가내노동자	
연령 계	100.0	(241)	100.0	(109)	100.0	(29)
15-24	44.4	(107)	40.4	(44)	31.0	(9)
25-29	9.5	(23)	5.5	(6)	10.3	(3)
30-34	11.6	(28)	13.8	(15)	10.3	(3)
35-39	14.1	(34)	6.4	(7)	24.1	(7)
40-59	10.7	(26)	12.0	(13)	13.8	(4)
60-64	9.5	(23)	22.0	(24)	10.3	(3)
교육정도	100.0	(241)	100.0	(109)	100.0	(29)
초졸미만	45.6	(110)	48.6	(53)	72.4	(21)
중졸	10.0	(24)	17.4	(19)	10.3	(3)
고졸	18.7	(45)	17.4	(19)	13.8	(4)
초대졸	17.0	(41)	12.8	(14)	3.4	(10)
대졸이상	8.7	(21)	3.7	(4)	0.0	(0)
혼인상태	100.0	(241)	100.0	(109)	100.0	(29)
미혼	45.6	(110)	33.9	(37)	27.6	(8)
기혼	54.4	(131)	66.1	(72)	72.4	(21)
소득	100.0	(233)	100.0	(102)	100.0	(29)
29만원이하	6.4	(15)	23.5	(24)	34.5	(10)
30-49	18.5	(43)	24.5	(25)	34.5	(10)
50-79	49.8	(116)	39.2	(40)	24.1	(7)
80-99	8.6	(20)	5.9	(6)	0.0	(0)
100-149	9.9	(23)	4.9	(5)	6.9	(2)
150만원이상	6.9	(16)	2.0	(2)	0.0	(0)
주당노동시간	100.0	(241)	100.0	(109)	100.0	(29)
35시간미만	26.1	(63)	22.0	(24)	24.1	(7)
35-48시간	37.8	(91)	38.5	(42)	34.5	(10)
49시간이상	36.1	(87)	39.4	(43)	41.3	(12)

(계 속)

	임시고		일용고		가내노동자	
사업장규모	100.0	(241)	100.0	(108)	100.0	(28)
4인이하	41.5	(100)	52.8	(57)	78.6	(22)
5-9인	20.3	(49)	29.6	(32)	7.1	(2)
10-49인	19.9	(48)	13.0	(14)	14.3	(4)
50-99인	6.6	(16)	0.9	(1)	0.0	(0)
100-299인	7.1	(17)	2.8	(3)	0.0	(0)
300인이상	4.6	(11)	0.9	(1)	0.0	(0)
직종별	100.0	(241)	100.0	(109)	100.0	(29)
입법, 행정관리 및 전문가	7.1	(17)	1.8	(2)	3.4	(1)
기술공, 준전문가	8.7	(21)	2.8	(3)	0.0	(0)
사무직	12.9	(31)	8.3	(9)	0.0	(0)
서비스 판매직	33.6	(81)	21.1	(23)	3.4	(1)
농림어업직	0.8	(2)	13.8	(15)	10.3	(3)
기능직	14.5	(35)	7.3	(8)	41.4	(12)
조립공	1.7	(4)	0.9	(1)	3.4	(1)
단순노무직	20.7	(50)	44.0	(48)	37.9	(11)

노동시간의 경우, 임시직은 35-48시간대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일용직은 49시간 이상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일용직의 경우 고용조건이 임시직에 비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사업장규모별로는 4인이하의 영세사업장에 45.0%가 고용되어 있었다. 10인 이하의 사업장에 68.2%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음으로써 매우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종별로는 임시직의 경우 서비스 판매직(33.6%), 일용고는 단순노무직(44.0%)의 비율이 높았다.

조사대상 여성 취업자 중에서 집에서 샅일 등을 하면서 수입을 올리는 가내노동자²²⁾는 정규적인 일거리와 수입이 보장되어 있지 않음으로 비정규직에 해

당된다. 이들 여성가내노동자는 전체 여성 취업자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3차 조사의 3.1%보다 줄어든 수치이다. 가내노동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15-24세가 31.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5-39세가 24.1%를 차지하고 있다. 3차조사의 경우 30-34세 연령층이 전체 가내노동자의 38.8%로 가장 많았던 것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3차 조사에서는 30-49세 중장년층 여성이 전체 가내근로자의 79.6%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데 반해, 금 번 조사에서는 35세 미만이 51.5%로 과반수를 이루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초졸(72.4%)미만이 가장 많고, 고학력자들의 비율은 아주 낮았다. 혼인 상태 역시 미혼보다는 기혼여성(72.4%)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았으며, 소득수준은 50만원대 이하가 6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48.0%를 차지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와도 비교되는 소득수준으로 비정규직 여성 취업자 중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계층이 바로 가내여성근로자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반면에 주당노동은 가장 길어, 49시간 이상에 41.3%나 분포되어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직종별로는 기능직이 41.4%로 가장 높게 분포되어 있고 다음으로 단순노무직이 37.9%를 차지하고 있다.

< 표 III-23 > 여성시간제의 연령계층별 분포

단위: %(명)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전체
전일제	6.1	4.0	7.6	10.6	9.5	3.8	16.0	24.7	11.4	6.4	100.0(927)
시간제	7.8	2.5	3.7	14.3	11.1	4.9	15.6	16.8	13.5	9.8	100.0(244)

여성 임금근로자 중에서 조사대상자가 시간제²³⁾라고 응답한 근로자에 관해

22) 가내근로자는 사용자의 작업장이 아닌 자신의 주거 또는 자신이 선택한 장소에서 보수를 받기 위해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그리고 종업원의 지위를 가진 자가 단지 때때로 종업원으로서의 작업을 통상의 작업장이 아닌 주거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가내근로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국제노동기구(ILO), '가내노동협약 및 권고' 참조

23) 근로자를 시간제와 풀타임근로자로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일정한 주당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거나, '근로자 자신이 풀타임이라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모두 풀타임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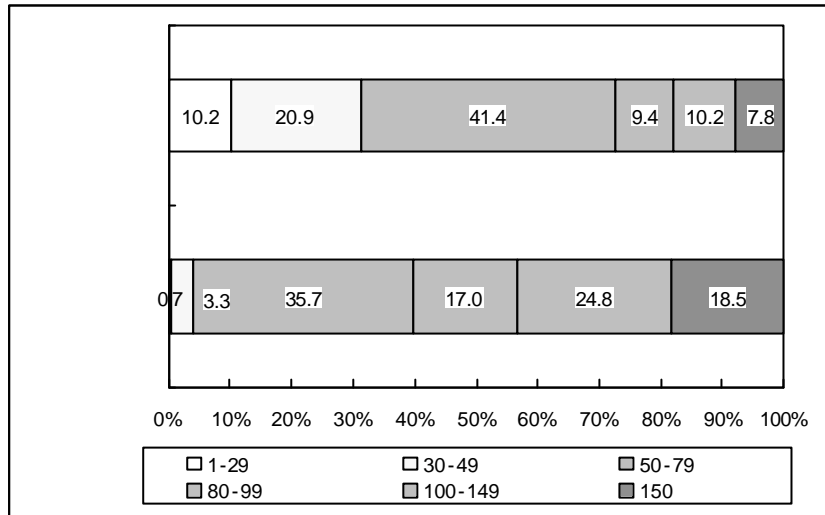
살펴보면, 그 비율은 전체 여성 임금근로자의 20.8%로서, 3차 조사 결과보다 23%가 증가하였다. 시간제 근로자의 연령별분포를 살펴보면, 30세 이하의 저연령층보다 40세 이상의 고연령층에 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50-54세의 비율이 가장 높고 20-24세가 가장 낮다. 이는 3차와는 차이를 나타내는 결과로, 3차에서는 30세 이하의 저연령층의 분포가 높았으나 본조사에서는 45세 이상의 고연령층에 시간제 노동자가 주로 분포되어 있다. 특히, 45-54세(32.4%)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시간제근로자 비율이 낮은 연령층은 20-24세(11.3%)로 같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시간제여성노동자의 연령분포와 전일제 분포에 있어 큰 차이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다만 학업이나 육아, 자녀양육의 부담이 큰 연령층의 시간제와 전일제 분포 차이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간제 근로자와 전일제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비교해 보면(<그림 Ⅲ-17> 참고),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50-79만원 수준이 41.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30-49만원(20.9%), 30-49만원(10.2%), 100-149만원(10.2%), 80-99만원(9.4%), 150만원 이상(7.8%) 순이었다. 반면, 전일제 근로자는 50-79만원이 35.7%로 시간제보다 낮았으나, 100-149만원이 24.8%로 시간제근로자보다 14.6%포인트나 높게 나타났다. 또한 150만원 이상의 수입의 경우 시간제 노동자는 전체의 7.8%에 지나지 않는 반면, 전일제는 18.5%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80-99만원이 17.0%로 시간제보다 7.6%포인트 높아 전체적으로 임금수준이 시간제 노동자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시간제 노동자는 50만원 이하의 수입이 31.1%나 되는데 반해, 전일제 근로자의 경우는 4.0%에 불과하고, 100만원이상을 버는 사람 역시 전일제의 경우 43.3%였으나 시간제는 18.9%에 지나지 않는다.

이고 그 이외에는 일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풀타임과 시간제로 구분하는 방법', 또는 '근로자나 기업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본 조사에서는 이 중에서 '근로자가 시간제로 생각하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시간제와 풀타임근로자로 구분하였다. 시간제근로자의 구분에 대해서는, 김태홍(1994), 「시간제 및 임시직 고용현황과 정책과제」, pp.21-22, 참고로 비정규직논의와 관련해서 풀타임노동자 중 시간제 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시간제 근로자를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라고만은 볼 수 없다.

<그림 Ⅲ-17> 시간제와 전일제 임금수준 비교

단위: %



6. 직업훈련현황 및 효과

가. 여성 취업자의 직업훈련 및 자격증

조사대상 여성 취업자의 직업훈련 이수 현황을 보면, 조사대상 여성 취업자의 12.5%만이 직업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 직업훈련 이수율이 3차 조사의 13.8%보다 1.3%포인트 낮게 결과하였다. 이렇듯 낮은 비율은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정책의 효율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 표 III-24 > 여성 취업자의 직업훈련 이수 현황

단위: %(명)

	받지 않았다	취업전·후 모두 받았다	취업전에 만 받았다	취업후에만 받았다	전 체
전 체	87.5(1,738)	5.0(100)	4.7(94)	2.8(55)	100.0(1,987)
지역					
동 부	85.9	5.7	5.2	3.1	100.0(1,537)
읍면부	92.7	2.7	3.1	1.6	100.0(450)
혼인상태					
미혼	86.5	4.4	5.9	3.3	100.0(827)
기혼	88.2	5.5	3.9	2.4	100.0(1,160)
가구주여부					
가구주	88.6	3.1	5.5	2.8	100.0(290)
비가구주	87.3	5.4	4.6	2.8	100.0(1,697)
연령					
15-24	88.7	4.6	4.2	2.5	100.0(789)
25-29	81.9	5.6	7.0	5.6	100.0(215)
30-34	83.1	7.7	7.7	1.4	100.0(207)
35-39	84.7	6.9	4.4	3.9	100.0(203)
40-54	87.3	4.9	4.5	3.3	100.0(244)
55-59	90.4	9.6	0.0	0.0	100.0(52)
60-64	93.1	1.8	3.6	1.4	100.0(277)
교육정도					
초졸미만	90.2	4.9	3.1	1.8	100.0(799)
중졸	90.7	3.5	3.5	2.3	100.0(257)
고졸	83.2	6.2	6.9	3.7	100.0(435)
초대졸	87.8	4.2	4.9	3.1	100.0(286)
대졸이상	81.4	6.2	7.6	4.8	100.0(210)

직업훈련을 이수한 여성 취업자 분포를 살펴보면, 직업훈련을 취업 전·후 모두 받은 여성이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3차 조사에서 보다 2.5%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반면에 취업 전이나 후에만 받은 비율은 각각 4.7%, 2.8%로 3차 조사에 비해 각 각 1.5%포인트, 2.2%포인트 적게 결과하였다.

지역별로는 동부 여성 취업자의 직업훈련 이수율이 읍면부에 비해 6.8%포인트가 높았으며, 읍면부의 직업훈련 이수율은 7.3%에 지나지 않은 매우 저조한 비율을 나타냈다. 동부 여성 취업자의 경우는 취업 전·후 모두 직업훈련을 받은 여성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읍면부는 취업 전에만 받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여성 취업자의 인적특성별 직업훈련 이수율을 살펴보면, 기혼보다는 미혼 여성이, 비가구주보다는 가구주 취업자의 이수율이 더 높았으며, 미혼과 가구주는 취업 전에만, 기혼과 비가구주는 취업 전·후 모두 가장 많이 이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과 비가구주의 경우 직업훈련 이수율이 취업 전·후 모두 가장 높은 이유는 이 계층의 여성인구의 재취업의 수요는 더 많은 반면, 취업의 문은 더 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직업훈련을 이수한 여성 취업자 비율이 더 높았으며, 이수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25-29세(18.1%)였다. 3차 조사에서는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직업훈련 이수율이 높았던 것과는 달리 본 4차 조사에서는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 취업 전·후 모두 훈련을 받은 비율이 높게 나왔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훈련을 이수한 비율이 높았다. 요약하자면, 저연령, 고학력일수록 취업 전에만 직업훈련을 받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특성별 여성 취업자의 직업훈련 이수현황을 살펴보면, 직종별로 서비스 판매직의 직업훈련 이수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다. 다음으로는 사무직, 단순노무직, 기능직 순 이었고, 이수율이 가장 낮은 직종은 전문가, 입법행정관리, 조립/조작공 순으로 결과하였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숙박업과 제조업의 직업훈련이수율이 높았으며, 개인사회서비스업 및 농어업광업의 이수율이 낮았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임시고, 일용고의 직업훈련 이수비율이 높은 반면, 상용고, 자영업자의 이수율이 낮았다.

< 표 III-25 > 취업특성별 직업훈련 이수 현황

단위: %(명)

	예	아니오	전체	
전 체	100.0 (543)	100.0 (1,416)	100.0 (1,959)	
직종				
입법, 행정관리	0.2	0.3	0.3	(5)
전문가	4.1	11.6	9.5	(186)
기술공, 준전문가	5.4	8.0	7.3	(142)
사무직	18.1	16.6	17.0	(333)
서비스 판매직	40.4	33.2	35.2	(689)
농림어업직	10.0	12.4	11.8	(230)
기능직	8.7	7.8	8.0	(157)
조립공, 조작용	0.9	0.6	0.7	(13)
단순노무직	12.4	9.5	10.3	(201)
업종				
농어업광업	11.2	13.3	12.7	(247)
제조업	19.0	13.9	15.3	(298)
전기가스수도업	0.2	0.4	0.4	(7)
건설업	1.3	1.7	1.6	(31)
도소매숙박업	39.4	30.8	33.1	(646)
운수창고통신업	2.6	2.6	2.6	(50)
금융보험부동산	4.6	4.7	4.7	(92)
개인사회서비스업	21.7	32.7	29.7	(578)
종사상지위				
고용주	0.0	0.3	0.2	(4)
자영업자	12.2	14.3	13.7	(268)
무급가족	18.3	19.6	19.2	(376)
상용고	44.5	52.7	50.4	(986)
임시고	16.4	9.2	11.2	(219)
일용고	8.7	4.0	5.3	(104)

취업을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변수에 관해 조사해 본 결과, 인간관계가 42.6%로 가장 높았으며, 입사시험이나 성적이 3.3%로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는 정규교육(23.7%), 기타(12%), 용모 및 재능(9.3%), 자격증(8.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자격증 시대임이 강조되는 현시점에서 자격증 소유여부가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저조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학력별로는 정규교육의 경우 대졸자(27.7%)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자격증은 고졸(41.5%), 입사시험이나 성적은 대졸(34.2%), 용모 및 재능은 고졸(33.0%), 인간관계는 초졸 미만의 학력을 가진 사람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낮아 주로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채용되는 사람들이 주로 아는 사람이나 주변의 소개 등으로 바로 바로 일자리를 구하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고학력자를 필요로 하는 안정된 직장일수록 정규교육이나 입사시험과 같은 정식과정을 거쳐 채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 표 Ⅲ-26 > 취업의 주요 결정요인

단위: %(명)

	정규 교육	자격증	입사시 험성적	용모 및 재능	인간 관계	기타	무응답	전체
교육정도별	100.0 (278)	100.0 (94)	100.0 (38)	100.0 (109)	100.0 (499)	100.0 (141)	100.0 (12)	100.0 (1,171)
초졸미만	25.9	21.3	21.1	25.7	42.7	39.0	50.0	34.3
중졸	7.6	10.6	7.9	16.5	13.8	11.3	33.3	12.0
고졸	18.0	41.5	18.4	33.0	23.0	26.2	8.3	24.3
초대졸	20.9	10.6	18.4	13.8	14.0	14.2	0.0	15.4
대졸이상	27.7	16.0	34.2	11.0	6.4	9.2	8.3	13.9

여성 취업자 1991명 중 31.0%인 617명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II-27 > 여성 취업자의 자격증 종류 분포

단위: %, 명

	전체	
주산/워드	45.7	282
전산/회계/금융/정보	5.5	34
미용사	8.8	54
교환원	1.1	7
기사	4.2	26
교사	20.3	125
간호조무/치과위생	5.7	35
학원강사	3.6	22
교양/취미	2.4	15
사회복지사	1.3	8
영양사/조리사	0.0	0
의사/약사	0.0	0
유통관련	0.2	1
통역/번역	0.6	4
사서	0.3	2
양재/한복	1.3	8
스포츠관련	0.6	4
기타	6.3	39
전체	100.0	617

주: 복수응답항목임.

자격증의 종류를 보면, 주산/워드 자격증소지자(45.7%)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교사(20.3%), 미용사(8.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3차 조사 때와 같이 주산/워드 자격증 소지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긴 하나 자격증 종류 역시 다양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격증 종류에 따라 취득시기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학교재학 중이나 졸업 후 취업 전에 자격증을 딴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강사, 교양/취미, 사회복지사, 의사/약사, 미용사, 교환원, 간호조무/치과위생과 관련된 자격증은 대부분 학교 졸업 후 취득하였다. 한편, 재학 중에 가장 많이 취득한 자격증으로는 영양사/조리사, 통역/관광, 양재/한복, 스포츠관련, 기타, 주산/워드, 전산/회계/금융, 기사, 교사 등이 있다.

나. 직업훈련 효과

직업훈련을 이수한 여성 취업자가 훈련한 기관을 살펴보면, 취업 전에 직업훈련을 이수한 여성 취업자 중 51.1%가 사설학원에서 훈련을 받았으며, 다음으로는 사업체(12.8%), 기타(12.8%), 공공기관(6.4%) 순으로 나타났다. 인력개발센터, 즉 구 '일하는 여성의 집'을 통해 직업훈련을 받은 여성은 불과 0.4%에 지나지 않았다.

취업 후에 직업훈련을 이수한 여성 취업자는 대부분 사업체(42.0)에서 훈련을 받았으며, 다음으로는 사설학원(29.0%), 기타(11.0%), 공공기관(10.0%)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취업 전에 직업훈련을 이수한 기관들과 비교해 보면, 사설학원의 비율이 월등히 떨어지는 반면, 사업체의 비율은 절대적으로 높아지며, 민간단체 및 공공단체의 비율 역시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자신들이 이수한 직업훈련교육이 현재 일하는데 있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취업 전에 직업훈련을 받았던 여성 취업자의 89.4%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취업 후에 훈련을 이수한 여성의 경우는 91.0%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으로써 직업훈련의 효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28> 교육시기별 훈련기관

단위: %(명)

	사설 학원	여성인 력개발 센터	공공 기관	지방자 치단체	민간 단체	사업체	기타	전체
취업전	51.1	4	6.4	4.3	1.1	20.2	12.8	100.0(94)
취업후	29.0	0.0	10.0	4.0	4.0	42.0	11.0	100.0(100)

여성 취업자가 이수한 직업훈련교육 효과를 취업 전 이수자와 취업 후 이수자에 따라 비교해보면, 취업 전 이수자의 경우 아주 도움이 된다는 62.8%, 취업 후 이수자는 55.0%로 취업 전 이수자의 비율이 더 높았으나 도움이 안된다는

비율 역시 취업 전 이수자의 비율이 43%로 취업 후 이수자의 1.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표 III-29 > 훈련시기별 훈련효과

단위: %(명)

	전혀 도움안됨	도움 안됨	그저 그렇다	조금 도움	아주 도움	전체
취업전	1.1	3.2	6.4	26.6	62.8	100(94)
취업후	0.0	1.0	8.0	36.0	55.0	100(100)

7. 취업만족도와 전직희망

가. 직장만족도와 취업지속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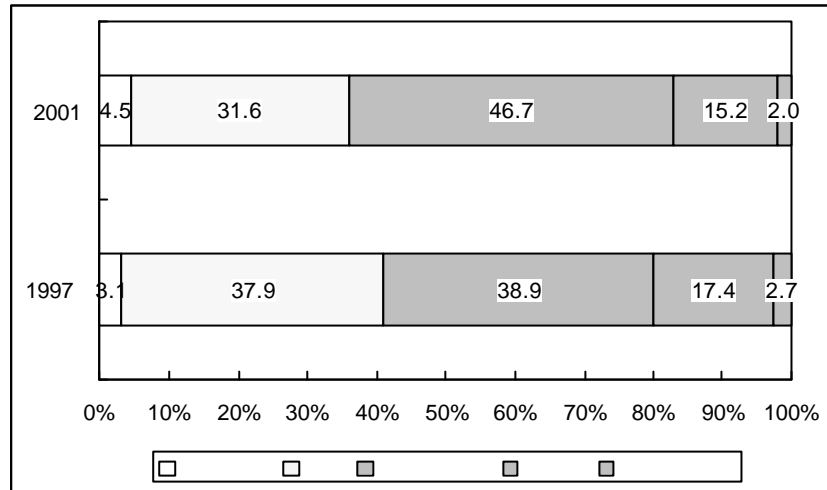
1) 여성 취업자의 직장만족도

여성 취업자의 직장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여성 취업자의 36.1%가 만족한다(4.5%는 매우만족)고 응답함으로써 3차의 41.0%보다 4.9%가 감소하였으나, 매우만족의 경우는 1.4%포인트 증가하였다. 불만족의 경우 역시 17.2%(20%는 매우 불만족)로 나타나 3차조사 보다 2.9%포인트 감소하였다. 또한 그저 그렇다가 46.7%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3차보다 7.8%포인트 증가한 비율이다.

결론적으로 3차 조사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졌지만, 그에 상응하게 불만족도 역시 감소하였고, 매우 만족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증가한 반면, 매우 불만족의 경우는 약간 감소함으로써 현 직장에 대해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여성 취업자의 취업만족도를 인적특성별로 살펴보면, 3차 조사 결과와 같이 동부에 거주하는 여성 취업자들이 읍면부 여성 취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재 일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계층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매우불만

<그림 III-18> 여성 취업자의 직장만족도 비교(3차 및 4차)
단위: %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1997)

족이나 불만족이 많았고, 매우만족의 경우는 전연령층에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으나 특히 55-59세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만족의 경우는 저연령층에 주로 분포해 있다. 혼인상태별로 기혼여성의 경우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매우 만족도 역시 높았다. 미혼여성은 기혼여성에 비해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더 높았고 매우불만족의 비율은 더 낮다. 결론적으로 미혼여성이 기혼여성에 비해 만족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학력별로는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하는 일에 만족도가 저학력자보다 더 높았고 매우만족의 경우 대졸이상의 학력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매우불만족의 경우 역시 작은 차이긴 하지만 대졸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

종사상지위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여성 취업자 중 자신의 일에 불만족하는 순위는 일용고(30.4%), 무급가족종사자(28.5%), 임시고(23.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이 불안정한 취업자들의 일에 대한 만족도 역시 낮을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만족도가 높은 종사상의 지위는 고용주(100%), 상용고(45.1%), 자영업자(34.4%) 순이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주목할만한 점은 여성 자영업자의 만족도가 3차 조사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3차 조사결과에서 자영업

자의 불만족도는 38.0%로 매우 높았으며, 매우불만족 비율 역시 7.5%로 가장 높았다(<부표 Ⅲ-13> 참고). 그러나 본 4차 조사에서는 만족도가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용고의 인원감축 등의 구조조정에 따른 창업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에 대한 만족도는 고용안정과 매우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표 Ⅲ-30 > 여성 취업자의 취업만족도

단위: %(명)

	매우 불만족	불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	매우 만족	전체
	2.0 (39)	15.2 (295)	46.7 (909)	31.6 (614)	4.5 (88)	100.0(1,945)
지역						
동 부	1.7	12.5	46.5	34	5.3	100.0(1,498)
읍면부	3.1	24.2	47.7	23	2.0	100.0(447)
연령						
15-24세	1.6	12.4	49.9	31.7	4.4	100.0(756)
25-29세	1.9	12.7	40.1	39.6	5.7	100.0(212)
30-34세	1.9	13.0	44.0	36.2	4.8	100.0(207)
35-39세	1.5	13.8	37.4	42.9	4.4	100.0(203)
40-54세	1.7	21.5	46.3	26.0	4.5	100.0(242)
55-59세	5.8	19.2	48.1	19.2	7.7	100.0(52)
60-64세	3.3	20.9	52.4	20.1	3.3	100.0(273)
혼인상태						
미혼	1.9	10.5	48.2	35.2	4.2	100.0(790)
기혼	2.1	18.4	45.7	29.1	4.8	100.0(1,155)
가구주여부						
가구주	3.5	15.5	52.8	23.6	4.6	100.0(284)
비가구주	1.7	15.1	45.7	32.9	4.5	100.0(1,661)
교육정도						
초졸미만	2.3	18.5	47.5	27.9	3.8	100.0(789)
중졸	1.2	16.5	50.0	27.8	4.4	100.0(248)
고졸	2.1	14.4	45.9	34.1	3.5	100.0(431)
초대졸	1.1	11.2	53.7	31.0	3.0	100.0(268)
대졸이상	2.9	7.7	32.5	45.5	11.5	100.0(209)

2) 여성 취업자의 희망취업지속기간

여성 취업자에게 언제까지 계속 일을 하고자 희망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이에 응답한 조사대상 여성 취업자의 33.2%가 늘어서 일을 할 수 없을 때까지 일을 계속 하겠다고 답하였다. 이는 3차 조사 때의 54.4% 보다 21.2%포인트가 적은 비율이다.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나타낸 항목은 쉬고 싶을 때까지로 28.6%를 차지하고 있다. 이 항목은 3차 조사 때는 없었던 항목이지만, 늘어서 할 수 없을 때까지와는 상반된 견해이므로 3차보다 줄어든 21.2%의 비율을 이 새로운 항목이 대체했으리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일을 할 수 없을 때까지 하고 싶다는 여성들이 확실히 줄어든 반면, 쉬고 싶을 때까지만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취업자들이 많아져 가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다른 모든 항목들은 3차조사 때보다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경제여건이 좋아지면 그만두겠다고 응답한 비율만은 28.5%로 1.3%포인트 증가하였다. 당장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응답한 여성 취업자는 1.4%에 지나지 않았으며 3차 조사보다 1.7%포인트가 감소 경향을 나타냈다. 이 조사결과를 가지고 자녀출산 및 결혼과 취업지속여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면, 자녀출산 및 결혼이 여성의 취업지속여부에 여전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서는 그 영향이 확실히 감소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즉, 여성들의 취업의지는 일시적이기보다는 지속적인 것으로 보인다.

여성 취업자의 희망 취업지속기간을 인적특성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읍면부 보다 동부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경제여건이 좋아지면 그만두겠다는 항목과 늘어서 할 수 없을 때까지 하겠다는 항목이 각각 0.7%포인트, 8.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읍면부 취업여성의 취업의지가 동부여성보다 조금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대체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당장 그만두겠다는 비율이 높았고, 저연령층일수록 결혼할 때까지나 자녀가 출산할 때까지 일을 하겠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또한 경제적 여건이 좋아지면 그만두겠다는 비율은 30대에서 50대의 중·장년층과 25세 미만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 25-29세와 55세 이상의 연령층은 오히려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취업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늦어서 할 수 없을 때까지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응답한 연령층은 55-59세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쉬고 싶을 때까지 일을 하겠다고 응답한 연령층은 25-29세가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다.

<표 III-31> 여성 취업자의 희망 취업지속기간 분포

단위: %(명)

	당장 그만 두다	결혼할 때까지	자녀 출산때 까지	경제여 건 좋아 지면	늦어서 할 수 없을 때	쉬고 싶을때 까지	기타	전 체
전 체	1.4 (27)	4.4 (86)	1.5 (30)	28.5 (557)	33.2 (650)	28.6 (560)	2.4 (47)	100.0 (1,957)
지역								
동 부	1.7	5	1.7	28.3	31.3	29.2	2.9	100.0(1,508)
읍면부	0.4	3	0.9	29.0	39.6	26.5	0.7	100.0(449)
연령								
15-24	1.4	6	0.7	31.5	28.5	28.7	2.9	100.0(762)
25-29	0.9	7.0	8.4	19.6	27.1	34.6	2.3	100.0(214)
30-34	2.4	1.9	1.4	31.9	30.9	28.5	2.9	100.0(207)
35-39	1.5	0.5	0.5	36.1	29.7	27.7	4.0	100.0(202)
40-54	1.2	0.4	0.0	32.0	39.3	25.8	1.2	100.0(244)
55-59	1.9	0.0	0.0	20.8	50.9	24.5	1.9	100.0(53)
60-64	0.7	6.2	1.1	17.1	46.5	27.6	0.7	100.0(275)
혼인상태								
미혼	1.3	10.1	1.6	25.5	27.3	31.3	2.9	100.0(795)
기혼	1.5	0.5	1.5	30.5	37.3	26.8	2.1	100.0(1,162)
가구주여부								
가구주	2.1	1.4	1.1	31.0	37.3	26.1	1.1	100.0(284)
비가구주	1.3	4.9	1.6	28.0	32.5	29.0	2.6	100.0(1,673)
교육정도								
초졸미만	1.8	0.9	0.1	32.1	37.8	25.1	2.3	100.0(792)
중졸	0.8	3.6	0.4	37.8	31.7	25.3	0.4	100.0(249)
고졸	0.2	8.8	3.2	30.3	27.5	27.7	2.3	100.0(433)
초대졸	3.3	7.0	1.5	19.4	29.7	36.6	2.6	100.0(273)
대졸이상	0.5	6.2	4.8	11.9	34.3	37.1	5.2	100.0(210)

혼인상태별로는 대체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결혼할 때까지만 일을 하겠다는 응답과 늙어서 할 수 없을 때까지 하겠다는 응답이 상당히 많은 편차를 나타내 미혼과 기혼이 각각 9.6%포인트, 10.0%포인트 더 높았으며, 이 문항들은 답변에 연령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론으로 보인다. 가구주 여부별로는 당장 그만두겠다와 경제여건이 좋아지면 그만두겠다, 늙어서 할 수 없을 때까지 하겠다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결혼할 때까지와 자녀출산할 때까지 취업을 계속하겠다는 비율이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학력이 높을수록 육아 및 가사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가족이데올로기(family ideology)가 지배하는 것²⁴⁾으로 나타났다. 경제여건이 좋아지면 그만두겠다는 저학력일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쉬고싶을 때까지 하겠다는 고학력일수록 높아, 학력이 낮을수록 경제적인 여건이 취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나. 전직성향

1) 여성 취업자의 전직의사

앞 선 조사 결과 여성 취업자들은 자신의 취업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비교적 지속적인 취업의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전직의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여성 취업자의 27.7%가 전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3차 조사결과(26.5%)에 비해 약간 증가한 추세이다.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전직희망비율을 살펴보면, 상용고, 임시/일용고,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순으로 3차 조사와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상용고의 전직희망율이 16.8%포인트나 늘었으나 상용고를 제외한 모든 취업자들의 전직희망 비율은 적지 않은 비율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주의 전직희망율은 22.2%에서 0.0%로 감소하는 놀라운 결과를

24) 이를 가설(Hypothese)로 전문직으로서 교사의 가정과 직장에서의 성별 분업실태를 분석하고 있는 글로는 Kim, Mi-Kyong (2000), *Frauenarbeit im Spannungsfeld zwischen Beruf und Familie - Die Arbeits- und Lebensrealitaet von Lehrerinnen und Lehrern in Suedkorea*, Leske+Budrich가 있다.

보이고 있다. 이는 조기퇴직 등과 같은 추세 속에서 고용안정에 대한 상용고의 불안이 창업 및 비임금노동자화로 이어지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고용이 불안한 상용고 보다는 자기사업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특징적인 것은 여성 무급가족종사자는 직장만족도(21.0%)가 낮은 것에 비해 전직희망비율(18.3%)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일용고의 경우 일에 대한 만족도(18.6%)가 낮은 만큼 전직희망비율(25.1%)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부표 Ⅲ-13> 참고).

위 결과를 1997년 3차 조사와 비교해 보면, 상용고를 제외한 모든 여성 취업자의 전직희망 의사가 대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고를 제외한 전직희망비율은 1997년 조사 때보다 전반적으로 낮아졌지만 상용고의 경우 전직희망자가 16.8%나 증가함에 따라 전체평균은 증가한 것으로 결과하였다.

<표 Ⅲ-32> 종사상 지위별 여성 취업자의 전직희망비율

단위: %

	기업주	자영업자	무급 가족종사자	상용고	임시/ 일용고	전체
1997	22.2	27.8	22.2	27.7	28.0	26.5
2001	0.0	12.2	18.3	44.5	25.1	27.7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1997)

직종별로는 전문가의 전직희망비율이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는 입법/행정관리직 순이었다. 전직을 가장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조립/조작공이었고 다음으로는 단순노무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위직종 종사자일수록 전직희망자 비율이 낮은 반면에 하위직일수록 전직희망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게 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종사자의 전직희망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도소매숙박업이었고, 전기가스수도업이 가장 낮았다.

< 표 Ⅲ-33 > 취업구조별 전직희망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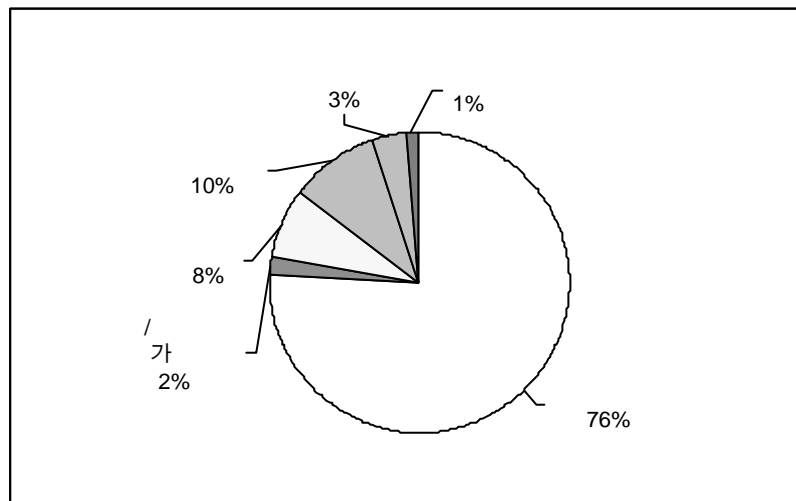
단위: %(명)

	예	아니오	전체	
직종	27.7 (542)	72.3 (1,414)	100.0 (1,956)	
입법, 행정 관리	20.0	80.0	100.0	(5)
전문가	11.8	88.2	100.0	(186)
기술공, 준전문가	20.4	79.6	100.0	(142)
사무직	29.4	70.6	100.0	(333)
서비스 판매직	31.8	68.2	100.0	(689)
농림어업직	23.5	76.5	100.0	(230)
기능직	29.9	70.1	100.0	(157)
조림공, 조작공	38.5	61.5	100.0	(13)
단순노무직	33.3	66.7	100.0	(201)
업종	27.6 (538)	72.4 (1,411)	100.0 (1,949)	
농어업광업	24.3	75.7	100.0	(247)
제조업	34.2	65.8	100.0	(298)
전기가스수도업	14.3	85.7	100.0	(7)
건설업	22.6	77.4	100.0	(31)
도소매 숙박업	32.8	67.2	100.0	(646)
운수창고통신업	28.0	72.0	100.0	(50)
금융보험부동산	27.2	72.8	100.0	(92)
개인사회서비스업	20.2	79.8	100.0	(578)
종사상지위	27.7 (542)	72.3 (1,415)	100.0 (1,957)	
고용주	0.0	100.0	100.0	(4)
자영업자	24.6	75.4	100.0	(268)
무급가족	26.3	73.7	100.0	(376)
상용고	24.4	75.6	100.0	(986)
임시고	40.6	59.4	100.0	(219)
일용고	45.2	54.8	100.0	(104)

2) 전직을 위한 노력²⁵⁾

전직희망자를 대상으로 전직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대다수가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것(75.9%)으로 나타났다. 노력을 하는 경우로는 정보를 수집중에 있다(9.8%)가 가장 높았고, 실제 구직 중에 있는 여성은 7.6%에 지나지 않았다. 이 밖에는 창업을 위한 자금마련 중(3.5%), 교육 참가 중(1.8%), 기타(1.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직을 원하는 취업 여성에게 전직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Ⅲ-19> 전직을 위한 노력내용



여성 취업자의 인적특성별 전직노력을 살펴보면, 읍면부보다는 동부의 여성들이 전직을 위한 노력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자보다는 저연령층,

25) 1997년의 3차 조사에서는 전직을 원하는 이유를 조사하였으나 본 조사에서는 전직사유를 따로 묻지 않았다. 이는 여성 취업자의 근로조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 직장 근무 시 애로사항에 대한 응답항목과 상당부분이 중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 조사의 현 직장 근무 시 애로사항의 응답과 3차 조사에서의 전직사유가 비교적 비슷하게 결과하였다(<그림 Ⅲ-15> 참고). 즉, 현 직장 근무 시의 애로사항이 전직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5-29세의 연령층이 전직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다. 또한 기혼보다는 미혼이, 비가구주보다는 가구주가 전직을 위해 더 노력하고 있었으며, 저학력보다는 고학력자들이 더 구체적인 전직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Ⅲ-15> 참고).

전직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구직 중에 있는 여성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조립/조작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사무직, 기술공/준전문가 순이었다. 산업별로는 금융보험부동산이 가장 높았으며, 건설업, 제조업 순으로 나타났다(<부표 Ⅲ-16> 참고).

IV

여성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자의 특성

-
- | | |
|-----------------------|-----|
| 1. 여성 실업자의 특성과 분포 | 123 |
| 2.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특성과 분포 | 139 |
-
-

본 장에서는 조사대상 여성의 3.9%에 해당하는 여성 실업자(185명)와 54.3%에 해당하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2,582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여성 실업자의 경우에는 인적특성별 여성의 실업률과 실업자 규모, 여성 실업자의 구직활동 현황과 특징, 희망취업유형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해서는 구직활동 경험, 취업희망의사와 희망 일자리의 특성 등을 분석하였다.

1. 여성 실업자의 특성과 분포

가. 여성 실업자의 현황

1) 여성 실업률 및 실업자 현황

본 조사에서는 실업률을 구직활동기간에 대한 참고기간(reference period)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즉, 지난 1주간 구직활동 여부와 지난 1개월간 구직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실업률을 조사하였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상태 구분과 같은 방법인 '지난 1주간의 구직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하면 본 조사의 여성 실업률은 7.1%이다. 그러나 OECD의 기준과 같이 '지난 1개월 동안의 구직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하면 여성 실업률은 8.5%이다.²⁶⁾

실업률 산정에서 구직활동의 참고기간을 OECD 방식으로 하면 통계청 방식으로 산정한 실업률 보다 1.4% 포인트 높았다. 본 조사에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구직을 단념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OECD 방식으로 실업률을 산정하고 실업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거주 지역별로 여성 실업률을 보면 동부에 거주하는 여성 실업률은 7.7%인데 비해서 읍면부는 5.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여성의 인적특성별로 실업률을 보

26) 우리 나라 통계청의 실업률 정의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것과 동일하다. 즉, 실업자는 '조사대상 주간 중에 수입이 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자로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여기서 참고가 되는 구직기간은 1주간이다. 이에 비해 OECD의 기준에서는 4주 동안에 구직활동을 하였는가를 기준으로 실업자를 판단한다.

면 연령이 낮을수록 실업률이 높았다. 특히 학교를 신규로 졸업하는 집단인 15-24세 여성의 실업률은 16.0%로 상당히 높았고, 25-29세 여성의 실업률도 12.5%로 높았다. 즉, 청년층 여성의 실업률이 상당히 높은 특징을 보였다.

<표 IV-1> 인적특성별 여성의 실업률

단위: %

	15-24	25-29	30-34	35-39	40-49	50+	전체
전 체	16.0 (13.1)	12.5 (10.2)	9.3 (8.2)	6.3 (4.9)	6.1 (5.3)	6.2 (5.5)	8.5 (7.1)
동 부	16.5	12.1	8.7	5.7	6.8	7.2	9.0 (7.7)
읍면부	13.5	15.6	12.2	9.8	3.6	4.6	6.8 (5.1)
가구주	-	10.2	9.8	8.1	7.4	6.0	7.4 (6.3)
비가구주	17.3	13.1	9.2	6.0	5.8	6.3	8.8 (7.3)
미혼	15.2	9.6	11.1	-	-	-	12.6 (10.3)
기혼	-	20.0	8.8	5.9	5.9	6.2	7.2 (6.1)
중졸이하	-	-	-	13.5	5.7	5.2	6.7 (5.3)
고졸	17.4	16.8	10.1	5.0	6.8	13.6	10.8 (9.2)
대졸이상	8.2	8.6	9.0	3.9	5.3	4.2	7.1 (6.0)

주: 1) ()는 지난 1주간을 기준으로 한 실업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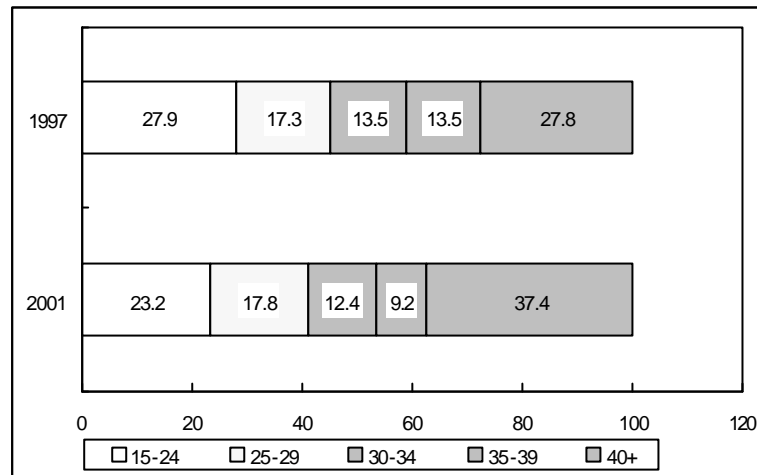
2) '-'은 표본수가 '0'이거나 아주 적은 것을 나타냄.

가구주 여부별로 보면 여성 가구주 실업률은 6.3%인데 비해서 여성 비가구주의 실업률은 7.3%이었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미혼 여성 실업률(10.3%)이 기혼보다 높았다. 학력수준별로 보면 고졸여성 실업률이 가장 높아서 10.8%이고, 그다음은 대졸이상 여성, 중졸이하 여성 순이었다. 학력별 연령계층별 실업률을 보면 고졸 청년층 여성 실업률이 17%내외로서 상당히 높아서, 고졸 여성신규졸업생의 실업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성 실업자의 연령별 분포를 1997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40세 이상 중장년여성 실업자의 구성비가 증가하였다(<그림 IV-1>). 여성 실업자 중에서 가구주 구성비는 16.8%이었고, 미혼여성 실업자의 구성비는 36.2%이었다.

<그림 IV-1> 여성 실업자의 연령계층별 분포

단위: %



또한 부문별로 보면 동부와 읍면부에 거주하는 여성 실업자의 구성비가 각각 82.0%, 18.0%이었다(<부표 IV-1>). 또한 전체 여성 실업자의 4.4%가 15-24세, 12.6%가 25-29세로서, 전체 실업자의 17.0%가 29세 이하이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전체 여성 실업자의 43.2%가 고졸이었고, 나머지 43.2%는 중졸이하 그리고 13.7%는 대졸이상이었다. 교육수준별 실업자의 특성을 보면 중졸이하 및 고졸 실업자의 대부분은 40대 이상인데 비해서, 대졸여성 실업자는 29세 이하가 40.0%로 대부분을 차지해 상대적으로 청년층집단이 많았다.

2) 여성 실업자의 유형별 분포

여성 실업자는 크게 전직실업자(the unemployed in search of a job losing one),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신규실업자(the unemployed in search of the first job), 그리고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다가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실업자(the unemployed in search of a job after a period of non-participation)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으로 여성 실업자를 분류하면 조사된 전체실업자의 51.2%는 비경제활동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이었다. 이러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여성 실업자 중에서 41.1%는 가사노동을 하

다가 그리고 9.2%는 건강이 나쁘거나 연로한 상태에 있다가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실업자이었다. 나머지 27.6%는 전직실업자, 그리고 22.2%는 신규실업자이었다.

여성 실업자의 유형별 특성을 보면, 동부에 거주하는 여성 실업자는 상대적으로 신규실업자의 구성비가 높았다. 이에 비해 읍·면부에 거주하는 여성 실업자 중에서는 전직실업자와 가사노동을 하다가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실업자의 구성비가 높았다.

< 표 IV-2> 지역별 여성 실업자의 유형별 분포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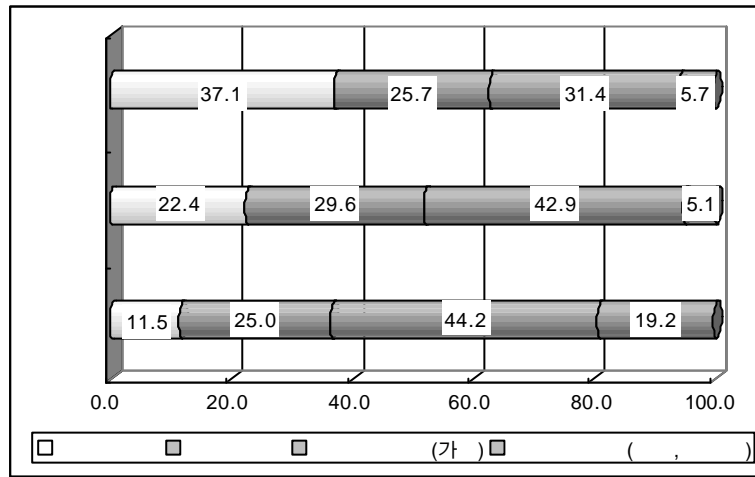
	신규실업자	비경제활동 전환 실업자		전직실업자	전체
		가사전환	질병, 노령전환		
동 부	23.0	40.1	9.9	27.0	100.0 (152)
읍면부	18.2	45.5	6.1	30.3	100.0 (33)
전 체	22.2	41.1	9.2	27.6	100.0 (185)

가구주 여부별로 보면 가구주 여성 실업자의 41.9%는 전직실업자이고, 25.8%는 건강이 나쁘거나 연로한 상태에 있다가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실업자이었다. 이에 비해 비가구주 여성 실업자는 44.2%가 가사노동을 하다가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실업자이고, 25.3%는 신규실업자이었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미혼여성 실업자의 52.2%는 신규실업자이고, 37.3%는 전직실업자이었다. 이에 비해 기혼여성 실업자의 64.4%는 가사노동상태에서 실업상태로 전환한 집단이었고, 22.0%는 전직실업자이었다.

교육수준별로 구분해서 보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신규실업자의 구성비가 높고, 비경제활동상태에서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한 실업자의 구성비는 낮은 특징을 보였다. 즉, 중졸이하 여성 실업자 중에서 신규실업자 비율은 11.5%인데 비해서 대졸이상은 37.1%이었다. 또한 가사활동을 하다가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여성 실업자 비율이 중졸이하는 44.2%인데 비해서, 대졸은 31.4%이었다(<

그림 IV-2).

<그림 IV-2> 교육수준별 여성 실업자의 유형별 분포
단위: %



3) 여성 전직실업자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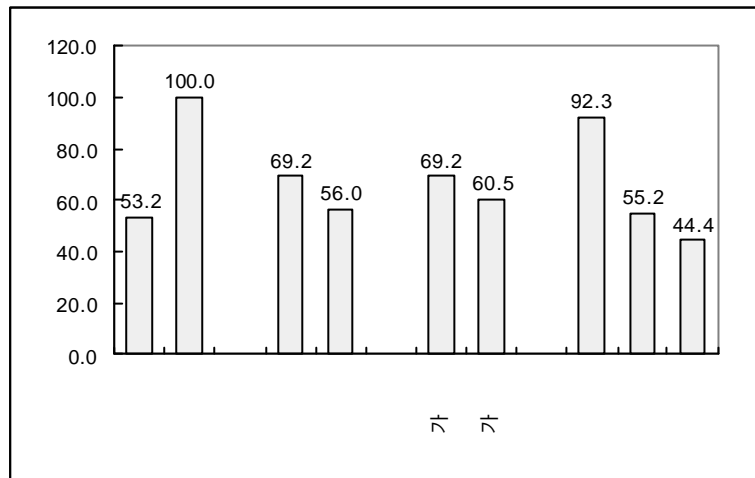
직장, 사업 혹은 농사일을 그만 둔 이후에 다시 구직활동을 하는 여성 전직실업자의 특성을 보면, 전체여성 전직실업자의 58.8%는 실직 직전에 전일제근로자로 일했었다. 그리고 21.6%는 시간제근로자, 15.7%는 자영업자, 3.9%는 무급가족종사자이었다.

여성 전직실업자가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그만 둔 것인지 아니면 비자발적으로 그만 둔 것인지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62.7%는 원하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37.3%는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부에 거주하는 여성 전직실업자는 53.7%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난 데 비해서, 읍·면부의 경우 거의 모든 여성 실업자가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 구분해서 보면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그만두는 비율이 미혼여성 전직실업자는 56.0% 임에 비해 기혼여성은 69.2%로 더 높았다. 또한 가구주 여성 실업자 중에서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그만 둔 전직실업자비율은 69.2%

인테 비해서, 비가구주의 경우는 60.5%로 약간 낮았다. 학력별로는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그만둔 실업자비율이 높아서, 중졸이하가 92.3%, 고졸 55.2%, 대졸이상 44.4%이었다.

<그림 IV-3>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그만둔 여성 실업자 비율
단위: %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그만 둔 여성 전직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직사유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일거리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아서 40.6%이었다. 그 다음은 '구조조정에 의한 해고', '회사가 도산 및 파산' (각각 12.5%)이었다. 이 외에도 계약완료(6.3%), '일을 하여도 수지가 맞지 않아서'(6.3%), '회사분위기가 일을 하기 힘들게 해서'(3.1%) 등이었다. 또한 일자리를 잃는 과정에서 남녀차별이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면, 50.1%가 남녀차별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28.1%는 남녀차별이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²⁷⁾

또한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그만 둔 여성 전직실업자의 경우 실직사유를 보면,

27) 과거 전일제근로자이었던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여성 전직실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보면, 일자리를 잃는데 남녀차별이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한 실업자비율은 29.4%인데 비해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1.2%이었다.

‘보수나 대우가 더 좋은 직장을 찾으려고’가 47.4%, ‘직장내의 갈등’이 15.8%, ‘가사 및 육아 문제’가 10.5%, 그리고 ‘자기 사업을 위해서’와 ‘건강상의 이유’, ‘가족의 반대 때문에’ 등으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 둔 실업자비율이 각각 5.3%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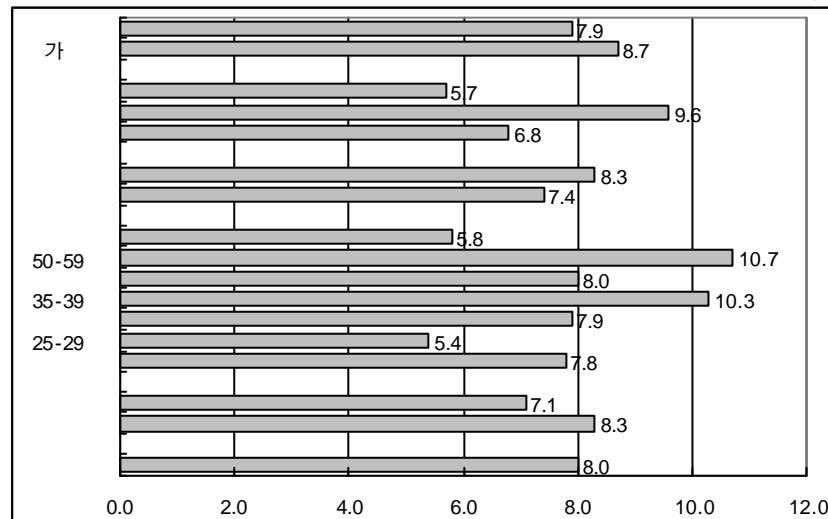
나. 여성 실업자의 구직활동

1) 구직기간

여성 실업자의 현재 구직활동을 계속한 기간은 평균 8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구직기간은 제3차 조사(1997년)의 3.6개월보다 훨씬 길어졌다.

<그림 IV-4> 인적특성별 여성 실업자의 평균 구직기간

단위: 개월



실업자의 인적특성별로 평균구직기간을 살펴보면, 동부에 거주하는 실업자의 구직기간이 읍·면부에 거주하는 실업자보다 약간 더 길었다. 연령계층별로는 30-39세, 50-59세 연령층 여성 실업자의 구직활동기간은 각각 10.3개월, 10.7개월로 다른 집단보다 길었고, 25-29세, 60세 이상 여성 실업자의 구직기간은 상

대적으로 짧아서 각각 5.4개월, 5.8개월이었다. 학력별로 보면 고졸여성 실업자의 구직계속기간이 가장 길어서 9.6개월이었고, 그 다음은 중졸이하 6.8개월, 대졸이 5.7개월이었다. 또한 혼인상태별로 보면 미혼여성 실업자의 구직활동기간이 기혼보다 길었고, 가구주여부별로 보면 가구주 여성 실업자의 구직계속기간이 비가구주보다 길었다.

또한 여성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을 계속할 기간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84.9%가 일이 구해질 때까지 구직활동을 계속할 계획이었다. 이에 비해 즉시 취업이 안되면 구직활동을 포기하겠다고 응답한 여성 실업자는 5.4%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비율을 1997년(9.6%)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취업이 안되면 즉시 구직을 포기하겠다는 실업자비율이 다소 감소하였다.

부문별로 구분해서 보면 동부가 읍·면부보다 일이 구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구직활동을 하겠다고 응답한 여성 실업자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가구주 여부별로 보면 일이 구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구직활동을 하겠다는 실업자 비율은 비가구주보다 가구주 여성 실업자집단이 그리고 미혼보다는 기혼여성 실업자집단이 더 높았다. 이러한 비율을 교육수준별로 보면 고졸여성 실업자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대졸, 중졸이하 순이었다. 그러나 취업이 안되면 즉시 구직활동을 단념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았다.

교육수준별 여성 실업자의 예상 구직활동기간별로 분포를 1997년과 비교하면, 중졸이하 저학력 여성 실업자는 구직활동 계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졌다. 즉, 1997년에는 중졸이하 여성 실업자 중에서 취업이 안되면 즉시 구직활동을 포기하겠다는 실업자비율이 9.1%이었다. 그리고 2001년에는 약간 증가하여 9.6%이었고, 일이 구해질 때까지 계속 구직활동을 하겠다는 실업자비율은 1997년에 81.8%에서 2001년에는 76.9%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대졸이상 고학력여성 실업자는 구직활동 계속기간이 길어졌다. 즉, 즉시 취업이 되지 않으면 구직활동을 그만하겠다는 대졸여성 실업자 비율이 1997년에는 15.0%이었으나, 2001년에는 2.9%로 크게 하락하였다. 고졸여성 실업자 또한 구직활동 계속기간이 1997년에 비해서 길어지는 특징을 보였다.²⁸⁾

< 표 IV-3> 여성 실업자의 예상 구직활동기간별 분포

단위: %(명)

	일이 구해질 때까지	6개월	2~ 3개월	1개월	취업 안되면 곧바로 단념	기타	전체
전 체	84.9	1.6	2.7	2.7	5.4	2.7	100.0 (185)
등부 음면부	86.8 75.8	1.3 3.0	2.6 3.0	3.3 -	4.6 9.1	1.3 9.1	100.0 (152) 100.0 (33)
가구주 비가가구주	90.3 83.8	0.0 1.9	3.2 2.6	0.0 3.2	0.0 6.5	6.5 1.9	100.0 (31) 100.0 (154)
미혼 기혼	82.1 86.4	0.0 2.5	3.0 2.5	6.0 0.8	9.0 3.4	0.0 4.2	100.0 (67) 100.0 (118)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76.9 89.8 82.9	3.8 0.0 2.9	3.8 0.0 8.6	0.0 5.1 0.0	9.6 4.1 2.9	5.8 1.0 2.9	100.0 (52) 100.0 (98) 100.0 (35)

2) 구직경로

여성 실업자의 구직경로를 보면 이웃이나 친구의 알선을 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비율이 가장 많아서 24.7%이었다. 그 다음은 신문광고를 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비율이 22.3%, 인터넷을 이용하여 해당 회사 및 취업정보 사이트 등을 검색하는 비율이 11.5%, 부모·형제·친척의 알선 11.0%, 벽보 7.3% 순이었다. 그러나 공공직업안정소 및 직업훈련소를 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여성 실업자 비율은 4.5%이고, 민간직업안정소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이용하는 실업자비율도 각각 1.8%, 1.0%로 극히 낮았다.

28) 1997년에 '일이 구해질 때까지 계속 구직활동을 하겠다', '6개월', '2-3개월', '1개월', '취업이 안되면 곧 바로 단념하겠다' 라고 응답한 여성 실업자 분포를 보면, 대졸이상의 경우 각각 75.0%, 0.0%, 0.0%, 0.0%, 15.0%이었다. 그리고 고졸은 각각 88.2%, 0.0%, 3.9%, 0.0%, 7.8%이었고, 중졸이하는 각각 81.8%, 0.0%, 3.0%, 3.0%, 9.1%이었다. 김태홍 외(1997), p. 93.

< 표 IV-4> 여성 실업자의 구직경로별 분포

단위: %

	전체	부문별		혼인상태별		학력별		
		동부	읍면부	미혼	기혼	중졸	고졸	대졸
부모·형제·친척알선	11.0	10.2	15.5	5.1	15.2	14.9	9.4	10.4
이웃·친구	24.7	23.2	32.8	16.5	30.5	32.7	23.0	17.9
공공직업소개소	4.5	4.6	3.4	3.8	4.9	4.0	5.2	3.0
민간직업소개소	1.8	2.2	0.0	1.3	2.2	19.8	2.3	0.0
여성인력개발센터	1.0	1.0	1.7	0.6	1.3	0.0	1.9	0.0
학교소개·추천	4.2	4.6	1.7	9.5	0.4	19.8	4.2	7.5
사회단체	1.3	1.5	0.0	1.9	9.0	1.0	1.4	1.5
자신이 직접	5.8	6.2	3.4	4.4	6.7	6.9	4.2	9.0
가족·집안일	2.4	2.5	1.7	1.3	3.1	3.0	2.8	0.0
신문광고	22.3	21.7	25.9	24.7	20.6	18.8	22.1	28.4
벽보	7.3	7.7	5.2	8.3	6.7	8.9	8.9	0.0
인터넷	11.5	12.7	5.2	22.2	4.0	3.0	12.2	22.3
기타	2.1	1.9	3.4	0.6	3.1	3.0	2.3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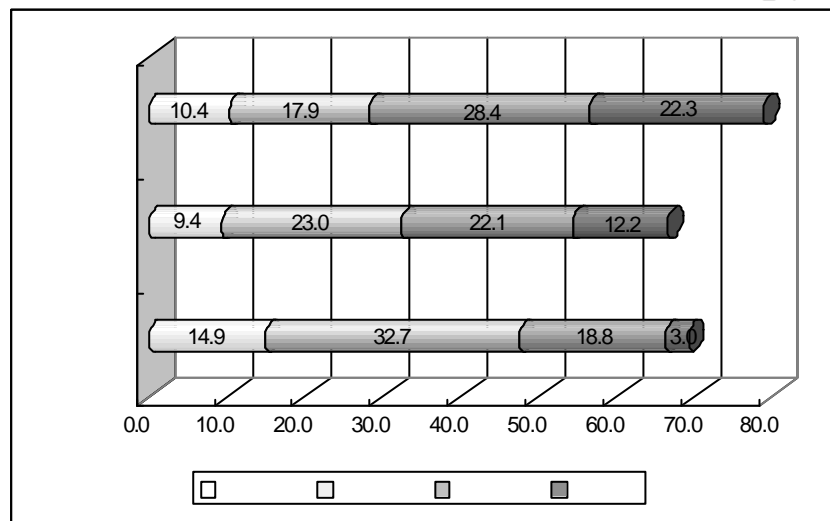
이러한 여성 실업자의 구직경로를 1997년과 비교하면, 이웃·친구, 신문광고를 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비율이 가장 많다는 점은 동일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와 같은 구직경로를 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여성 실업자 비율은 1997년(이웃·친구: 39.4%, 신문·광고: 32.7%)보다 줄어들었다. 이에 비해 인터넷 검색이나 부모·형제의 알선(1997년 2.9%) 등과 같은 방식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여성 실업자 비율은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부문별로 보면 동부는 읍·면부보다 상대적으로 부모·형제, 이웃·친구, 신문광고를 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여성 실업자 비율이 낮는데 비해서, 인터넷, 공공 및 민간직업안정소, 학교 소개 및 추천을 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비율은 높은 특징을 보였다. 여성 실업자의 인적특성별로 보면 기혼은 상대적으로 부모·형제, 이웃·친구를 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비율이 높는데 비해서,

미혼은 인터넷, 신문광고, 학교를 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가구주여부별로 구분하여 보면 전반적으로 가구주 여부에 관계없이 구직경로가 비슷하였으나, 가구주 여성 실업자는 상대적으로 이웃·친구를 통해서 구직하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형제, 이웃·친척을 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구성비는 낮은 반면에, 인터넷을 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구성비는 높았다. 그리고 신문광고를 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구성비는 40대 이후를 제외하면 대체로 25% 정도로 비슷하였다. 또한 학력수준별로 주요 구직경로를 보면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이웃·친구를 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에, 신문광고나 인터넷을 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비율은 낮았다.

<그림 IV-5> 학력별 주요 구직경로별 여성 실업자 분포
단위: %



3) 구직사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 실업자의 상당수는 가구주가 아니기 때문에, 구직하는 사유가 남성실업자와 다를 수 있다. 여성 실업자의 구직사유를 조사한 결

과에 의하면, 여성 실업자의 33.5%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직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비율은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가구주 실업자 비율이 전체 여성 실업자의 35.0%를 차지하는 것과 일관성 있다. 나머지 여성 실업자의 32.4%는 '가계소득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20.0%는 '자기 발전과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직장을 구했다.

여성 실업자의 특성별로 구분해서 구직사유를 살펴보면, 생계유지를 위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비율이 높은 집단은 동부에 거주하는 여성 실업자, 기혼 여성 실업자, 저학력 여성 실업자 집단이었다.

< 표 IV-5> 여성 실업자의 구직사유별 분포

단위: %(명)

	생계 유지	가계소득 지원	학비, 용돈	지식,기술 활용	자아발전 여가선용	전체
전 체	33.5	32.4	8.1	5.9	20.0	100.0 (185)
동 부	36.8	27.6	8.6	6.6	20.4	100.0 (152)
읍면부	18.2	54.5	6.1	3.0	18.2	100.0 (33)
가구주	80.6	12.9	0.0	0.0	6.5	100.0 (31)
비가구주	24.0	36.4	9.7	7.1	22.7	100.0 (154)
미혼	25.4	14.9	20.9	13.4	25.4	100.0 (67)
기혼	38.1	42.4	0.8	1.7	16.9	100.0 (118)
중졸이하	40.4	36.5	7.7	1.9	13.5	100.0 (52)
고졸	34.7	31.6	10.2	3.1	20.4	100.0 (98)
대졸이상	20.0	28.6	2.9	20.0	28.6	100.0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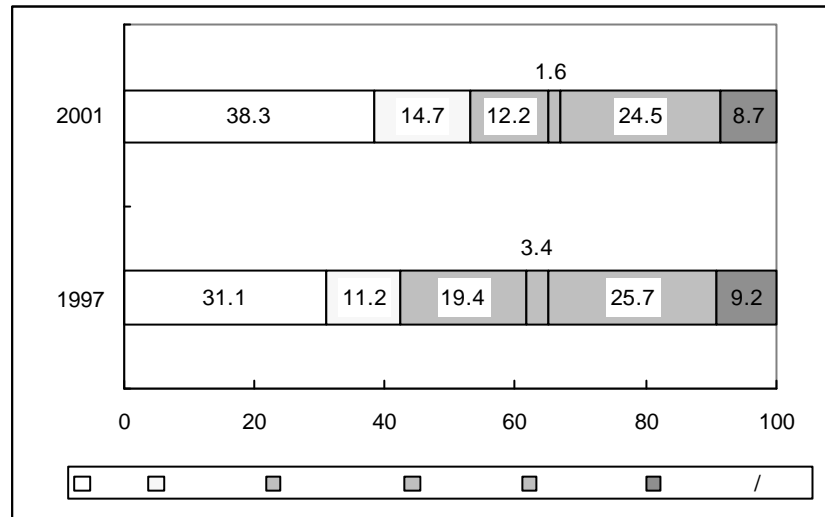
다. 여성 실업자의 취업유형

1) 주요 희망근로조건

여성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구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임금을 가장 중요시하는 실업자비율이 가장 높아서 38.3%이었다. 그 다음은

직종 및 일의 내용(24.5%), 노동시간(14.7%), 근로시간대(12.2%) 순이었다.

<그림 IV-6> 여성 실업자의 주요 희망근로조건의 변화
단위: %



여성 실업자의 희망근로조건을 지난 1997년과 비교하면 일자리를 구할 때에 임금과 노동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 실업자 비율이 증가한 반면에, 근로시간대, 통근시간, 일의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은 감소하였다.

거주지역별로 구분해서 보면 동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직종 및 일의 내용, 작업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 실업자 비율이 높은 반면에, 읍·면부에 거주하는 여성 실업자 중에서는 노동시간, 근로시간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업자 비율이 높았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미혼과 기혼에서 동일하나, 상대적으로 기혼여성 실업자는 노동시간과 작업시간대 그리고 미혼은 직종과 일의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업자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가구주 여성 실업자는 비가구주에 비해서 임금, 근로시간을 중요시하는 실업자 비율이 더 높는데 비해서, 작업시간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업자비율은 더 낮았다.

실업자의 학력별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저학력일수록 임금, 근로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업자비율이 높았다. 이에 비해 고학력일수록 직종 및 일의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업자비율이 더 높은 특징을 보였다.

<표 IV-6> 여성 실업자의 주요 희망근로조건

단위: %

	전체	부문별		혼인상태별		학력별		
		동부	읍면부	미혼	기혼	중졸	고졸	대졸
임금	38.3	37.6	41.5	37.3	38.9	41.2	39.3	31.4
노동시간	14.7	13.2	21.5	9.0	17.9	18.6	15.3	7.1
근무시간대	12.2	11.6	15.4	9.7	13.7	10.8	14.8	7.1
통근시간	1.6	1.7	1.5	0.7	2.1	2.9	1.0	1.4
직종, 일의 내용	24.5	26.4	15.4	32.1	20.1	21.6	20.9	38.6
근무장소	2.7	3.0	1.5	1.5	3.4	2.9	2.6	2.9
인터넷	6.0	6.6	3.1	9.7	3.8	2.0	6.1	11.4

2) 여성 실업자의 희망고용형태

여성 실업자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를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여성 실업자의 86.5%가 임금근로자로서 취업하기를 희망하였고, 나머지 11.9%는 자영업자 그리고 1.6%는 고용주로 일하기를 희망하였다. 이러한 희망 종사상지위를 1997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임금근로자로 일하는 여성 실업자 비율이 약간 증가한 반면에 자영업자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하락하였다.²⁹⁾

지역별로 보면 동부의 경우 임금근로자 이외에도 고용주, 자영업자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여성 실업자가 상당수 있는 반면에, 읍·면부의 경우 대부분이 임금근로자로 일하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가꾸주 여성 실업자의 90.3%가 주로 임금근로자로 일하기를 희망하였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기혼 여성 실업자의 17.8%가 자영업자로 일하기를 희망하였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중졸이하 여성

29) 1997년의 경우 여성 실업자의 82.7%가 임금근로자로 그리고 16.3%가 자영업자, 1.0%가 고용주로 일하기를 희망하였다.

실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근로자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에, 고졸과 대졸 이상 여성 실업자는 고용주나 자영업자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 표 IV-7> 여성 실업자의 희망 종사상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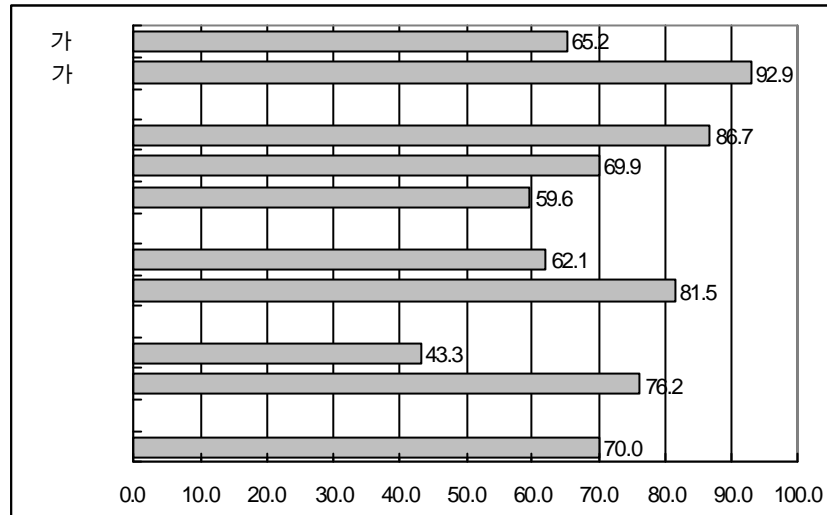
단위: %(명)

	고용주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전체
전 체	1.6	11.9	86.5	100.0 (185)
동 부	2.0	12.5	85.5	100.0 (152)
읍면부	0.0	9.1	90.9	100.0 (33)
가구주	0.0	9.7	90.3	100.0 (31)
비가구주	1.9	12.3	85.7	100.0 (154)
미혼	1.5	1.5	97.0	100.0 (67)
기혼	1.7	17.8	80.5	100.0 (118)
중졸이하	0.0	9.6	90.4	100.0 (52)
고졸	2.0	13.3	84.7	100.0 (98)
대졸	2.9	11.4	85.7	100.0 (35)

임금근로자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여성 실업자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근로시간 형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70.0%가 전일제(full-time) 근로를 희망하였다. 지역별로 구분해서 보면 동부에 거주하는 여성 실업자의 76.2%가 전일제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반면에, 읍·면부의 경우 43.3%에 불과하였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미혼 여성 실업자의 대부분은 상근제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기혼 여성 실업자의 37.9%는 시간제로 일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리고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전일제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여성 실업자 비율이 높았고, 가구주 여성 실업자는 거의 대부분이 전일제로 일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림 IV-7> 임금근로 희망 여성 실업자 중에서 전일제 희망자 비율
단위: %



라. 실업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

실업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여성 실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여성 실업자의 반 이상이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기술이나 직업적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26.5%나 되었다. 나머지 여성 실업자의 7.2%는 남녀채용차별 근절, 4.2%는 근로시간 단축 등이었다.

여성 실업자의 인적특성별로 구분해서 보면 인적특성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 실업자들이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과 능력개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가구주 여성 실업자는 비가구주보다 그리고 미혼여성 실업자는 기혼여성보다 남녀채용차별 근절이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또한 학력별로 구분해서 보면 고학력 여성 실업자일수록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반면에, 능력개발과 남녀차별 근절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 표 IV-8 > 실업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

단위: %

	능력개발	차별근절	일자리 창출	해고자제	근로시간 단축	기타	전체
전 체	26.5	7.2	59.6	1.2	4.2	1.2	100.0
동 부	26.5	8.1	59.6	1.5	4.4	0.0	100.0
읍면부	26.7	3.3	60.0	0.0	3.3	6.7	100.0
가구주	22.6	12.9	58.1	0.0	6.5	0.0	100.0
비가구주	27.4	5.9	60.0	1.5	3.7	1.5	100.0
미혼	27.1	16.7	52.1	0.0	4.2	0.0	100.0
기혼	26.3	3.4	62.7	1.7	4.2	1.7	100.0
중졸이하	17.0	4.3	74.5	0.0	2.1	2.1	100.0
고졸	28.2	8.2	55.3	1.2	5.9	1.2	100.0
대졸	35.3	8.8	50.0	2.9	2.9	0.0	100.0

2.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특성과 분포

가.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현황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54.3%인 2,582명이었다. 인적특별성별로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분포를 보면, 84.4%가 동부에 거주하고 15.6%는 읍·면부에 거주했다. 또한 이들의 93.9%가 비가구주이었고, 74.7%가 기혼이었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중졸이하와 고졸이 각각 약 40%이었고, 대졸이상이 17.3%이었다. 이와 같은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분포를 1997년 3차 취업실태조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읍·면부, 대졸이상의 구성비가 증가하였다. 연령계층별로 구분해서 보면 29세 이하가 31.4%, 30대가 24.7%, 40대 19.3%, 50대 15.5%, 그리고 60세 이상이 9.1%이었다. 이러한 연령별 구성비를 1997년과 비교하면 60세 이상(1997년 15.9%)과 29세 이하(31.4%)은 감소를 보인 반면에 40~

50대(21.8%)는 크게 증가하였다.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분포를 좀 더 세분하여 보면 가구주인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75.1%가 40세 이상이었고, 기혼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46.0%가 40~50대이었다. 학력별로 보면 중졸이하 여성비경제활동인구는 15-24세가 32.5%, 40대 이상이 61.6%이었다. 이에 비해 고졸은 34.7%가 29세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저연령층의 구성비가 높았고, 대졸이상은 70.4%가 30~40대이었다.

< 표 IV-9 > 인적특성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분포

단위: %(명)

	15-24	25-29	30-34	35-39	40-49	50-59	60+	전체 (분포)	
전 체	23.6 (609)	7.8 (201)	13.4 (345)	11.3 (293)	19.3 (498)	15.5 (400)	9.1 (236)	100.0 (2,582)	100.0
동부	24.2 (527)	7.3 (159)	13.1 (286)	11.5 (251)	19.8 (431)	15.8 (344)	8.3 (182)	100.0 (2,180)	84.4
음면부	20.4 (82)	10.4 (42)	14.7 (590)	10.4 (42)	16.7 (67)	13.9 (56)	13.4 (54)	100.0 (4,020)	15.6
가구주	6.4 (10)	4.5 (7)	6.4 (10)	7.6 (12)	19.7 (31)	26.1 (41)	29.3 (46)	100.0 (157)	6.1
비가구주	24.7 (599)	8.0 (1940)	13.8 (335)	11.6 (281)	19.3 (467)	14.8 (359)	7.8 (190)	100.0 (2,425)	93.9
미혼	89.4 (584)	6.1 (40)	2.0 (13)	0.3 (2)	1.1 (7)	0.8 (5)	0.3 (2)	100.0 (653)	25.3
기혼	1.3 (25)	8.3 (161)	17.2 (332)	15.1 (291)	25.5 (491)	20.5 (395)	12.1 (234)	100.0 (1,929)	74.7
중졸이하	32.5 (342)	0.5 (5)	1.9 (20)	3.4 (36)	17.2 (181)	25.1 (264)	19.3 (203)	100.0 (1,051)	40.7
고졸	23.1 (250)	11.6 (126)	18.9 (205)	14.9 (161)	20.1 (218)	9.0 (98)	2.4 (26)	100.0 (1,084)	42.0
대졸이상	3.8 (17)	15.7 (70)	26.8 (120)	21.5 (96)	22.1 (99)	8.5 (38)	1.6 (7)	100.0 (447)	17.3

나.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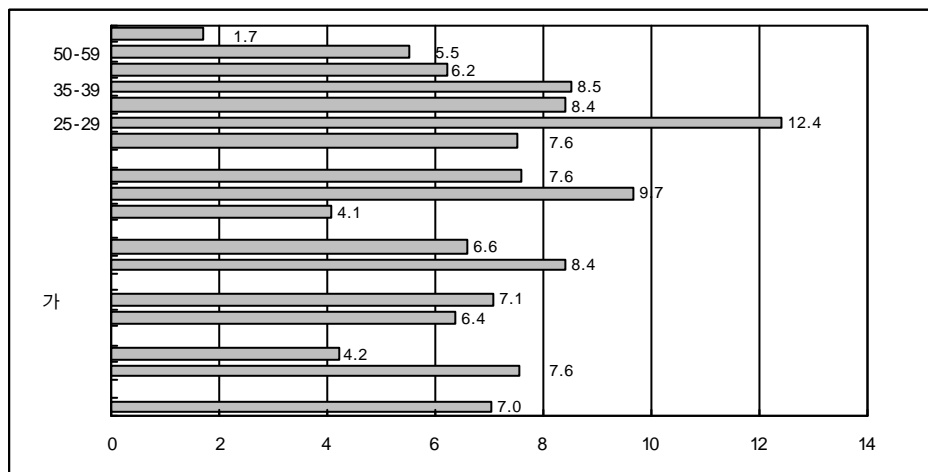
1) 구직 여부별 분포

지난 1년 동안에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7.0%이었다. 이러한 비율은 1997년의 7.4%와 유사한 수준이었다.³⁰⁾ 인적특성별로 보면 동부에 거주하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구직경험이 있는 여성 비율은 7.6%로서 읍·면부의 4.2%보다 높았다.

또한 비가구가 가구주보다, 그리고 미혼이 기혼보다 지난 1년 이내에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더 높았다. 학력별로 보면 지난 1년 동안에 구직활동을 한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고졸로서 9.7%이었고, 그 다음은 대졸이었다. 중졸이하의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1년 동안에 구직활동을 한 여성비율은 4.1%로서 상당히 낮았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지난 1년 동안 구직활동을 한 경

<그림 IV-8>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구직자 비율

단위: %



30) 1997년 자료는 12개월 미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7.4%보다는 약간 더 높을 것임. 참고로 1997년의 경우 이전 12~23개월 동안에 구직한 경험이 있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2.7%이었다.

인구의 12.4%가
비경제활동인구
다.

보면 56.1%가
다(<부표 IV-2>
제활동인구가 가
다. 이를 지역으
구직활동을 하였
구주보다, 기혼
구직활동을 더

단위: %

[illegible]

지난 1년 동안에 구직할 적이 있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경로를 보면, 34.1%가 이웃이나 친구의 소개로 구직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15.0%는 신문광고, 13.7%는 인터넷, 9.0%는 부모 및 친척을 통해서 구직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구직활동을 실업자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이웃이나 친구를 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았고,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비율도 실업자보다 약간 높았다. 이에 비해 신문광고를 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실업자보다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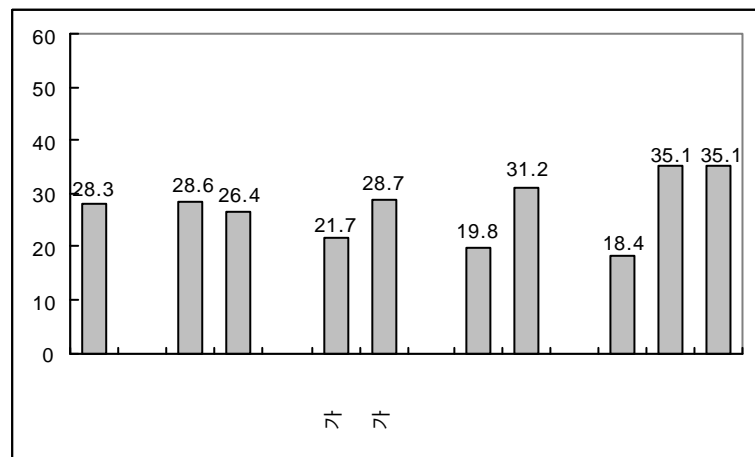
인적특성별 구직경로를 보면 읍·면부에 종사하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동부보다, 기혼은 미혼보다 그리고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이웃·친구, 부모·형제·친척을 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비율은 높은 반면에, 인터넷을 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비율은 낮은 특징을 보였다.

다. 취업희망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1) 취업희망 여부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지난 1년 동안 구직할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현재 일거리나 직장이 있으면 일할 의사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그림 IV-9> 취업희망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
단위: %



28.3%가 일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이를 인적특성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동부·음·면부보다 비가구주가 가구주보다 그리고 미혼보다 기혼이 더 일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여성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학력별로 보면 중졸이하보다 고졸이나 대졸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더 취업의사를 보인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일거리나 직장이 당장 있어도 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여성을 대상으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유를 조사한 결과는 <표 IV-11>과 같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진학을 위해서', '건강이 나빠서', '자녀양육', '가사 때문에' 등이었다. 그러나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여성의 특성을 보면, 미혼여성의 약 90%는 진학 혹은 통학 때문이었다. 이 외에 4.2%는 건강이 나빠서 일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기혼의 경우 건강, 자녀보육 및 교육, 가사 등으로 인해서 일하지 않겠다는 여성비율이 높았다.

<표 IV-11>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취업희망 사유

단위: %

	전체	동부	음면부	미혼	기혼	중졸	고졸	대졸
진학을 위해서	25.8	26.4	22.3	89.1	0.8	35.1	22.6	5.9
가사때문	13.3	13.3	13.2	0.0	18.5	12.5	14.5	12.8
자녀 양육	15.5	15.0	17.9	0.2	21.5	2.6	23.0	35.5
자녀교육문제	7.9	7.6	9.5	0.0	11.0	0.9	12.5	17.2
건강이 나빠	18.0	17.5	20.3	4.2	23.4	29.7	8.5	6.2
경제적인 불필요	2.3	2.6	0.3	0.6	2.9	2.1	2.1	3.1
노부모 부양때문	0.9	0.9	1.0	0.0	1.3	1.0	1.1	0.0
가족의 병간호	0.9	1.0	0.3	0.0	1.3	1.4	0.6	0.3
남편의 반대	3.2	2.8	5.1	0.0	4.4	2.4	3.6	4.5
쉬고 싶어	7.3	7.5	6.1	1.9	9.4	8.6	6.0	6.6
기타	5.0	5.2	4.1	4.0	5.5	3.6	5.6	7.9

연령계층별로 보면 15-24세 연령층은 92.7%가 진학 및 통학 때문에 취업을 희망하지 않았고, 25-29세, 30-34세는 약 60%가 자녀양육, 6~9%가 가사 때문

에 취업을 희망하지 않았다. 35-39세로 접어들면 자녀양육보다는 자녀교육으로 인해서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비율이 증가하여, 30-34세의 14.6%에서, 35-39세에는 33.5%가 되었다. 40대에는 다시 자녀교육으로 인해서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여성비율이 감소하여, 15.5%가 되었다. 건강을 이유로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여, 35-39세에 7.5%에서 40-49세 25.5%, 50-59세 38.6%, 60-69세에는 53.7%가 되었다.

2) 취업희망 일자리의 특성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희망 일자리를 보면, 전체 80.0%가 임금근로자로서 일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리고 16.3%는 자영업자, 3.7%는 고용주이었다. 또한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종사상지위가 비슷하였으나, 동부는 읍·면부에 비해서 고용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근로자보다는 고용주나 자영업자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여성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 표 IV-12 > 희망하는 일자리의 종사상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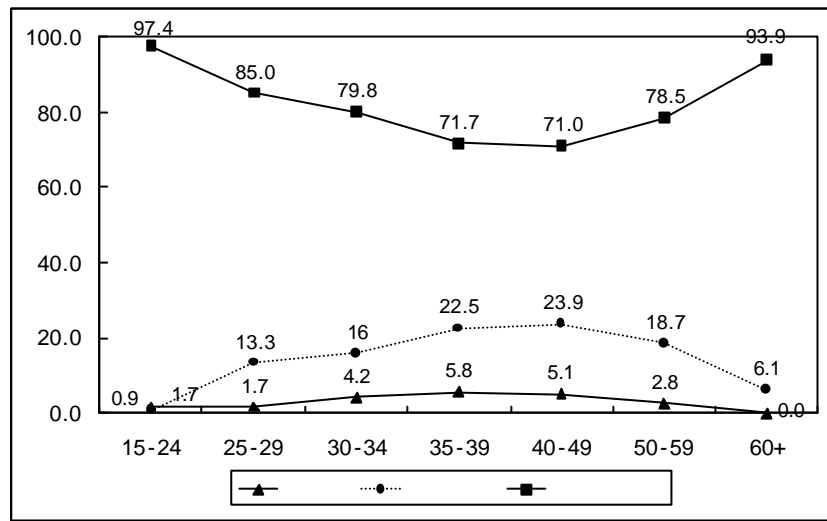
단위: %

	전체	동부	읍면부	미혼	기혼	중졸	고졸	대졸
고용주	3.7	4.2	0.9	1.6	4.2	1.6	3.2	7.6
자영업자	16.3	16.3	16.0	0.8	19.6	9.8	17.4	21.7
임금근로자	80.0	79.5	83.0	97.7	76.2	88.6	79.5	70.7

연령계층별로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금근로자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에 고용주나 자영업자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증가하였다. 즉, 15-24세 취업희망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97.4%는 임금근로자로 일하기를 희망하였으나, 40대 여성은 이러한 비율이 71.0%로 낮아졌다(<그림 IV-10>). 그러나 15-24세의 경우에 고용주와 자영업자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여성 비율이 각각 1.7%, 0.9%이었던 것이 40대에는 각각 5.1%, 23.9%로 증가하는 특

정을 보였다. 물론 50대로 접어들수록 고용주나 자영업자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여성비율은 다시 감소하고, 임금근로자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여성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IV-10> 연령별 희망하는 일자리의 종사상지위별 분포
단위: %



또한 임금근로자를 희망하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고용 형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61.1%가 시간제를 희망하였다. 시간제를 희망하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구성비를 보면 거주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미혼보다는 기혼이 그리고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높았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25-29세는 전일제를 희망하는 비율(68.6%)이 시간제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나머지 연령층은 시간제를 희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시간제 희망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60세 이상(80.6%)이었고 그 다음은 35-39세(70.9%), 40대(68.0%), 30-34세(60.0%) 순으로, 시간제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집단은 대체로 고령이거나 혹은 육아 및 자녀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집단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시간제 선택사유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나타나서 25-29세, 30-34세의 각각 50.0%, 61.4%가 육아문제로 인해서 시간제를 희망하였고, 30-34세, 35-39

세 연령층의 각각 28.1%, 44.3%는 자녀교육문제로 인해서 시간제를 희망했다. 또한 50대와 60세 이상의 각각 55.1%, 60.0%는 건강이나 노령으로 인해서 시간제를 희망했다.

< 표 IV-13 > 희망하는 일 자리의 고용형태

단위: %

	전체	등부	음면부	미혼	기혼	중졸	고졸	대졸
전일제 근로자	38.9	38.9	38.6	50.0	35.8	35.1	39.4	43.2
시간제 근로자	61.1	61.1	61.4	50.0	64.2	64.9	60.6	56.8

3) 취업희망 직종

여성 비경제활동인구가 희망하는 취업직종을 보면, 취업희망 여성의 26.7%가 서비스직, 22.3%가 사무직, 17.8%가 단순노무직, 그리고 15.3%는 판매직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기를 희망하였다. 취업희망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인적특성별 취업희망 직종을 보면, 미혼여성 중에서는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직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기혼보다 높은 특징을 보였다.

< 표 IV-14 > 희망하는 일 자리의 직종별 분포

단위: %

	전체	등부	음면부	미혼	기혼	중졸	고졸	대졸
전문가	11.8	13.1	3.8	17.8	10.5	2.1	7.6	33.8
기술공·준전문가	2.5	2.2	3.8	2.3	2.5	1.6	2.4	3.8
사무종사자	22.3	22.3	22.6	34.1	19.8	1.0	28.2	34.4
서비스 종사자	26.7	26.4	28.3	36.4	24.6	28.5	30.0	16.6
판매 종사자	15.3	15.9	12.3	7.8	17.0	15.0	17.9	9.6
농업, 임업, 어업	0.5	0.2	2.8	0.0	0.7	1.6	0.3	0.0
기계 조작·조립공	0.7	0.6	0.9	0.0	0.8	2.1	0.3	0.0
기능원	2.3	2.1	3.8	0.0	2.8	2.6	2.6	1.3
단순노무	17.8	17.1	21.7	1.6	21.3	45.6	10.8	0.6

학력별로 보면 중졸이하 취업희망여성의 45.6%, 28.5%는 각각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에서 일하기를 희망하였다. 고졸여성은 30.0%가 서비스직, 28.2%가 사무직, 17.9%가 판매직에서 일하기를 희망하였고, 대졸여성은 33.8%가 전문가, 34.4%가 사무직 그리고 16.6%는 서비스직에서 일하기를 희망하였다. 즉, 교육수준에 따라 취업희망여성이 일하고자 하는 직종은 상당히 다른 특징을 보였다.

4) 주요 희망 근로조건

취업희망 여성 비경제활동인구가 희망 일자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임금이 37.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직종 및 일의 내용(30.2%)이었다. 이 외에도 16.9%는 근무시간대, 9.1%는 노동시간을 가

< 표 IV-15 >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주요 희망근로조건

단위: %

	임금	노동 시간	근무 시간대	통근 시간	직종 일내용	근무 장소	기타	전체
전 체	37.4	9.1	16.9	2.1	30.2	3.7	0.8	100.0
동부	36.6	8.4	17.9	1.9	30.5	3.9	0.7	100.0
음면부	41.5	12.8	10.6	3.2	28.7	2.1	1.1	100.0
가구주	53.1	6.3	3.1	3.1	28.1	6.3	0.0	100.0
비가구주	36.5	9.2	17.6	2.0	30.3	3.5	0.8	100.0
미혼	36.7	6.7	6.7	0.0	46.7	0.0	3.3	100.0
기혼	37.4	9.2	17.4	2.2	29.4	3.8	0.7	100.0
15-24세	42.9	4.8	14.3	4.8	23.8	4.8	4.8	100.0
25-29세	40.7	9.3	16.7	0.0	33.3	0.0	0.0	100.0
30-34세	31.4	5.9	30.5	3.4	23.7	4.2	0.8	100.0
35-39세	35.8	10.0	20.0	0.0	32.5	0.8	0.8	100.0
40-49세	31.8	9.1	13.6	2.8	36.4	5.1	1.1	100.0
50-59세	44.9	10.3	6.5	2.8	30.8	4.7	0.0	100.0
60세이상	60.6	15.2	9.1	0.0	9.1	6.1	0.0	100.0
중졸이하	49.1	14.3	9.9	3.7	18.0	5.0	0.0	100.0
고졸	39.4	8.3	20.6	2.2	25.4	2.9	1.3	100.0
대졸이상	20.9	5.2	16.3	0.0	52.9	3.9	0.7	100.0

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희망 근로조건을 여성 실업자와 비교하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상대적으로 직종 및 일의 내용, 근무시간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더 많았다.

인적특성별로 구분해서 보면 가구주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임금과 근무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비가구주보다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여성 중에서 직종 및 일의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기혼보다 훨씬 높았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대체로 임금과 직종 및 일의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나, 30대는 근무시간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낮을수록 임금, 노동시간, 근무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비율이 높았고, 학력이 높을수록 직종 및 일의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여성의 가정영역과 경제활동

1. 여성취업과 가사 및 육아 부담	153
2. 여성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	164
3. 유보임금수준과 통근시간	170

일반적으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가사노동과 어린 자녀의 존재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사 및 자녀보육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사람의 존재 여부나 대체시설 및 사람에게 제공하는 질적 만족과 비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또한 기혼여성은 남편이나 가족의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기혼여성의 유보임금수준이나 희망일자리가 이러한 가계내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장에서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을 감안하여, 여성의 가사 및 육아 부담, 여성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 여성 취업자의 시장임금과 여성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유보임금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1. 여성취업과 가사 및 육아 부담

가. 가사 및 육아부담

기혼여성 취업자(1,160명)를 대상으로 일을 하면서 가사를 돌보거나 혹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2.0%만이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0.0%는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40.7%는 대체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1997년과 비교하면 일을 하면서 가사 및 자녀양육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비율은 큰 변화 없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³¹⁾

여성 취업자의 인적특성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읍·면부보다 동부에 거주하는 여성 취업자 중에서 '가사를 돌보거나 혹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비가구주 여성 취업자가 가구주 여성 취업자보다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출산 및 육아를 담당하는 연령대인 30-34세 여성 취업자의 72.2%가 '가사 및 육아 수행이 힘들다'라고 하

31) 1997년에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3%, '어렵다'가 51.6%, '그저 그렇다' 25.2%, '문제없다'가 23.1%이었다.

였다. 35-39세 여성 취업자도 60.7%가 어렵다고 하였다. 학력별로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사 및 육아 수행이 힘들다'라고 응답한 여성비율이 더 높았다.

<표 V-1> 기혼여성 취업자의 가사 및 자녀양육 부담

단위: %

	전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그저 그렇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전체
전 체	4.6	17.4	27.4	40.7	10.0	100.0
동부	4.0	16.8	26.4	42.6	10.2	100.0
음면부	6.3	18.8	30.1	35.3	9.4	100.0
가구주	7.9	20.2	26.2	36.3	9.4	100.0
비가가구주	3.9	16.7	27.6	41.7	10.1	100.0
25-29세	1.7	24.1	24.1	37.9	12.1	100.0
30-34세	1.1	10.2	16.5	50.6	21.6	100.0
35-39세	1.7	12.1	25.5	48.1	12.6	100.0
40-49세	4.5	18.4	29.3	39.6	8.2	100.0
50-59세	9.4	20.6	29.1	35.9	5.0	100.0
60세이상	4.7	21.1	33.6	32.8	7.8	100.0
중졸이하	6.5	19.0	30.7	36.6	7.3	100.0
고졸	2.6	16.2	25.0	43.9	12.2	100.0
대졸이상	3.4	15.1	22.8	45.7	12.9	100.0

여성 취업자의 취업특성별로 보면 일을 하면서 가사 및 육아를 수행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적은 집단은 가내근로자로서 '28.6%만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부표 V-1> 참고). 그 다음은 자영업자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비율이 46.6%이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시간제로 일하는 기혼여성도 53.5%가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직종별로는 농어업관련 근로자, 기계조작공 및 조립공, 단순노무직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 취업자의 상당수는 가사 및 육아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가사·육아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 둘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23.1%는 직장을 그만 둘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인적특성별로 보면 읍·면부에 거주하는 여성 취업자 중에서는 가사·육아로 인해서 일자리를 그만 둘 가능성이 있는 여성비율이 13.6%로 상대적으로 낮은데 비해서, 동부는 25.3%로 높았다. 연령계층별로 가사·육아로 인해서 일자리를 그만 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은 출산 및 육아 부담이 큰 30-34세 연령층의 기혼여성이었다. 교육수준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V-2> 가사 및 자녀양육 부담과 일을 그만둘 가능성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28.2	33.3	15.4	20.5	2.6	100.0
동부	27.4	31.6	15.8	22.1	3.2	100.0
읍면부	31.8	40.9	13.6	13.6	0.0	100.0
25-29세	29.4	41.2	5.9	17.6	5.9	100.0
30-34세	17.9	35.8	17.9	25.4	3.0	100.0
35-39세	50.0	16.7	16.7	16.7	0.0	100.0
고졸	25.6	34.1	15.9	20.7	3.7	100.0
대졸이상	34.5	37.9	6.9	20.7	0.0	100.0

주: 표본 수가 적은 집단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나. 가사담당자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현재 가사담당자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본인 즉, 기혼여성이 가사의 주된 담당자인 가구가 전체의 93.5%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이나 기혼여성 의 인적특성에 관계없이 동일하였다(<표 V-3> 참고).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상태별로 구분해서 보면 여성 취업자의 89.3%가 본인이 가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나머지 3.9%는 시부모, 2.0%는 친정 부모가 가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었다. 즉, 취업여성의 대부분은 직장 일과 가사

일을 병행하고 있었다. 기혼여성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를 보면, 각각 98.3%, 96.6%가 가사 일을 본인이 담당하고 있었다.

<표 V-3> 경제활동상태별 기혼여성의 가사전담자 분포

단위: %

	시 부모	친정 부모	형제, 자매	가정부 파출부	본인	남편	다른 자녀	기타	전체
전 체	1.8	1.1	0.2	0.4	93.5	0.7	0.3	2.0	100.0
취업자	3.9	2.0	0.4	0.7	89.3	0.9	0.3	2.6	100.0
실업자	0.0	0.8	0.0	0.0	98.3	0.0	0.0	0.8	100.0
비경제활동자	0.2	0.4	0.0	0.3	96.6	0.7	0.4	1.5	100.0
자영업자	2.4	0.7	0.3	0.3	91.9	1.4	0.7	2.4	100.0
무급가족종사자	3.5	0.0	0.2	0.0	93.2	0.2	0.2	2.6	100.0
가내근로자	0.0	0.0	0.0	0.0	96.4	0.0	0.0	3.6	100.0
전일제	5.5	3.9	0.7	1.4	83.7	1.1	0.4	3.2	100.0
시간제	2.5	2.5	0.0	0.0	92.6	1.0	0.0	1.5	100.0
관리자·전문가	9.8	9.8	0.9	5.4	74.1	0.0	0.0	0.0	100.0
준전문가	6.8	5.5	0.0	0.0	86.3	1.4	0.0	0.0	100.0
사무직	7.7	5.1	1.3	1.3	78.8	0.6	0.0	5.1	100.0
서비스직	4.1	0.9	0.3	0.3	89.3	1.2	0.9	3.0	100.0
판매직	3.5	0.4	0.8	0.0	91.5	1.6	0.4	1.9	100.0
농어업직	1.7	0.0	0.0	0.0	95.2	0.0	0.0	3.0	100.0
기능공	1.4	2.0	0.0	0.7	92.6	0.0	0.7	2.7	100.0
기계조립공	0.0	0.0	0.0	0.0	100.0	0.0	0.0	0.0	100.0
단순노무직	1.0	0.0	0.0	0.0	94.4	1.5	0.0	3.1	100.0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본인이 직접 가사 일을 전담하고 있었으나,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경우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가사 일을 전담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내근로자의 경우는 96.4%가 본인이 전담하는 등 거의 모두가 가사를 전담하면서, 일을 수행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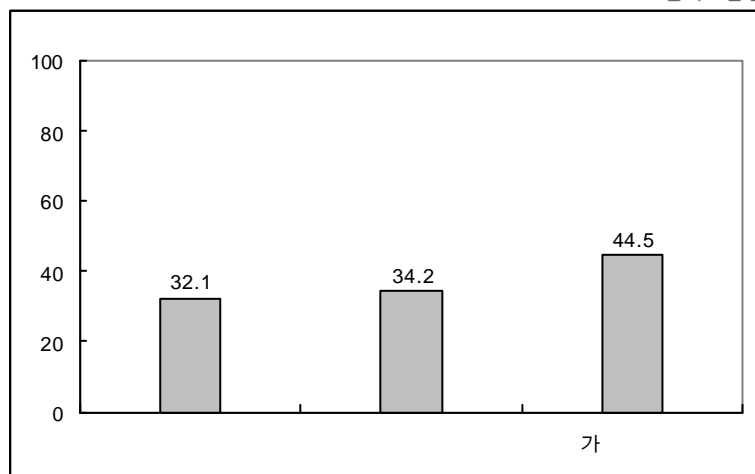
직종별로 보면 전문, 관리직의 경우 본인이 가사를 전담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 다음은 사무직원, 준전문직 순으로 본인이 가사를 담당하고 있는

비율이 낮았다. 특히 전문직 기혼여성은 다른 직종종사자에 비해서 시부모, 친정부모, 가정부·파출부가 가사를 담당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무직과 준전문직도 시부모 및 친정부모가 가사를 담당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나, 가정부 및 파출부의 전담비율은 낮은 특징을 보였다. 기계조립공과 조작공, 단순노무직의 경우 거의 대부분 본인이 가사를 전담하였다.

가사를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경우에 지불하는 비용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시부모에게 가사를 맡긴 기혼여성의 22.2%가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 그리고 친정부모에게 가사를 맡긴 기혼여성의 34.2%도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에게 가사비용을 지불하는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월평균 가사비용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시부모나 친정부모에게 가사를 맡기고 있는 기혼여성의 경우 각각 월평균 32.1만원, 34.2만원을 시부모나 친정부모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파출부 및 가정부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월평균 44.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연령별로 파출부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보면, 35-39세는 33만원, 40대는 50만원, 50대는 63만원으로 연령과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V-1> 가사노동자 유형별 월평균 비용
단위: 만원



다. 여성취업과 육아담당자

여성 경제활동참가는 6세 미만의 자녀 존재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6세 미만 자녀를 가진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57.4%가 기혼여성 자신이 돌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39.2%는 보육시설을 통해서 자녀를 돌보고 있으며, 4.4%는 친정부모, 3.5%는 친정부모가 돌보고 4.2%는 자녀를 집에 그대로 둔다고 했다.

< 표 V-4> 경제활동상태별 기혼여성의 6세 미만 자녀 보육자

단위: %

	보육 시설	시 부모	친정 부모	형제 자매	본인	남편	다른 자녀	방치	파출부 가정부	기타	전체
전체	39.2	3.5	4.4	1.0	57.4	0.3	0.1	4.2	0.1	0.4	100.0
실업자	34.6	0.0	3.8	0.0	65.4	0.0	0.0	3.8	0.0	0.0	100.0
비경제활동자	32.9	0.6	0.4	0.0	71.0	0.0	0.0	5.0	0.2	0.7	100.0
취업자	56.4	11.6	15.3	3.7	20.1	1.1	0.5	2.1	1.6	1.6	100.0
전체취업자	56.4	11.6	15.3	3.7	20.1	1.1	0.5	2.1	0.0	1.6	100.0
자영업자	45.8	16.7	12.5	0.0	0.0	0.0	0.0	4.2	0.0	0.0	100.0
무급가족종사자	56.4	10.3	2.6	2.6	35.9	0.0	0.0	5.1	0.0	0.0	100.0
전일제	56.8	13.6	22.7	6.8	5.7	1.1	1.1	0.0	3.4	3.4	100.0
시간제	66.7	3.0	15.2	0.0	18.2	3.0	0.0	3.0	0.0	0.0	100.0
관리직,전문직	46.4	17.9	32.1	3.6	10.7	0.0	0.0	0.0	3.6	3.6	100.0
준전문가	42.9	14.3	33.3	0.0	19.0	0.0	0.0	0.0	9.5	9.5	100.0
사무직원	59.0	10.3	15.4	15.4	5.1	2.6	0.0	0.0	0.0	0.0	100.0
서비스직	51.5	12.1	12.1	0.0	24.2	0.0	0.0	9.1	0.0	0.0	100.0
판매직	65.7	14.3	0.0	0.0	34.3	2.9	0.0	0.0	0.0	0.0	100.0
기능직	73.3	6.7	13.3	0.0	6.7	0.0	6.7	0.0	0.0	0.0	100.0
단순노무직	58.3	0.0	8.3	0.0	41.7	0.0	0.0	8.3	0.0	0.0	100.0

주: 분류되지 않은 종사상지위나, 직종은 표 본수가 적어서 표에 나타내지 않았음.

기혼여성의 인적특성별로 보면 대졸이상 여성의 53.5%는 본인이 직접 돌보고, 37.9%는 보육시설 그리고 8.2%는 친정부모, 4.9%는 시부모가 돌보고 있었다. 이에 비해 고졸과 중졸이하 여성은 상대적으로 본인이 자녀를 돌보고 있는 비율이 더욱 높은 반면에 친정부모나 시부모가 돌보고 있는 비율은 낮은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보육시설을 통해서 자녀를 돌보는 비율은 37~40%로 비슷하였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본인이 직접 6세 미만 자녀를 돌보는 비율이 높았고, 연령이 많을수록 보육시설을 통해서 자녀를 돌보는 여성비율이 높았다. 특히 친정부모나 시부모가 6세 미만 자녀를 돌보는 비율이 높은 연령집단은 25-29세(각각 6.1%, 3.0%), 30-34세(4.1%, 5.2%)이었다.

경제활동상태별 6세 미만 자녀보육담당자를 보면 취업여성 중에서 본인이 6세 미만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비율은 20.0%에 불과하고, 56.3%가 보육시설을 통해서 자녀를 돌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15.3%는 친정부모, 11.6%는 시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있었다.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은 기혼여성이 직접 돌보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보육시설을 통해서 돌보고 있는 비율은 33% 내외이었으며 친정부모나 시부모가 돌보고 있는 비율은 극히 낮았다.

기혼여성 취업자를 종사상지위별로 구분해서 보면 자영업자와 전일제 임금근로자 중에서 본인이 직접 6세 미만 자녀를 돌보고 있는 여성은 거의 없었다. 이들 여성 취업자의 50%는 보육시설에 자녀의 보육을 맡기고 있으며, 시부모와 친정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있는 비율은 35~40%로 상당히 높았다. 이에 비해 무급가족종사자는 본인이 돌보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친정부모나 시부모가 돌보고 있는 비율은 상당히 낮았다. 시간제근로자는 약 18%만이 본인이 직접 6세 미만 아동을 돌보고 있고, 15% 정도는 친정부모가 돌보고 있었다. 그러나 무급가족종사자나 시간제 여성근로자 모두 보육시설을 통해서 6세 미만 아동을 돌보고 있는 비율은 자영업자나 전일제근로자와 비슷한 특징을 보였다.

취업여성의 직종별 보육담당자를 보면 직종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통해서 6세 미만 아동을 돌보고 있는 여성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기혼여성의 비율을 보면 관리직 및 전문직, 준전문직이 가장 낮았다.

이들 관리직 및 전문직, 준전문직 기혼여성의 33% 내외는 친정부모, 15% 내외는 시부모가 6세 미만 자녀를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직과 준전문직 여성 취업자의 경우 친정부모나 시부모들이 6세 미만 자녀를 돌보아 주고 있는 비율이 대략 50% 정도이었다. 이에 비해 단순노무직, 판매직,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여성 취업자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6세 미만 자녀를 돌보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기능직의 경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비율이 73.3%로 취업자 중에서 가장 높은 특징을 보였다.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기혼여성이 활용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유형을 보면 80.1% 여성이 사립 보육시설, 12.4% 여성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 외에 가정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기혼여성이 7.1%이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 또한 읍·면부에 거주하는 여성은 동부에 비해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제활동상태별로 보면 취업여성은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보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가구주 여성은 비가구주 여성에 비해서 국·공립 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사립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1인당 보육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월평균 206천원을 지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지역별로 구분해서 보면 동부에 거주하는 여성이 214천원으로 읍·면부(168천원)보다 약간 높았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상태별로 구분해서 보면 여성 취업자는 210천원, 비경제활동인구는 204천원을 지출할 수 있다고 각각 응답한 반면에, 여성 실업자는 178천원으로 약간 낮았다. 학력별로 보면 대졸이상 여성은 231천원을 지출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고졸은 197천원, 중졸이하는 143천원이라고 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지출 가능한 보육비용도 높았다.

<표 Ⅴ-5> 기혼여성이 이용하고 있는 보육시설 유형

단위: %

	국/공립시설	가정보육시설	사립보육시설	기타	전체
전 체	12.4	7.1	80.1	0.4	100.0
동부	10.4	7.8	81.4	0.4	100.0
음면부	21.6	3.9	74.5	0.0	100.0
취업자	15.0	6.5	77.6	0.9	100.0
실업자	11.1	0.0	88.9	0.0	100.0
비경제활동자	10.8	7.8	81.3	0.0	100.0
가주주	37.5	12.5	50.0	0.0	100.0
비가주주	11.7	6.9	81.0	0.4	100.0
중졸이하	18.7	25.0	56.3	0.0	100.0
고졸	13.8	4.0	82.2	0.0	100.0
대졸이상	8.7	9.8	80.4	1.1	100.0
25-29세	14.0	2.3	83.7	0.0	100.0
30-34세	11.5	8.5	79.4	0.6	100.0
35-39세	14.3	5.4	80.4	0.0	100.0
40-49세	12.5	6.3	81.2	0.0	100.0

현재 보육시설을 통해서 6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향후 보육시설 이용 의향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의향이 있는 기혼여성 비율이 63.0%(대체로 있다: 40.6%, 매우 있다: 22.4%)로 상당히 높았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상태별로 구분해서 보면 취업여성은 53.0%가 의향이 있는 반면에,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각각 65.0%, 65.4%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업여성은 보육시설을 이용할 의향이 '매우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0.0%로서 수요가 상당히 높았다. 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낮을수록 보육시설을 이용할 의사가 더욱 높은 특징을 보였다.

향후 보육시설을 사용할 의향이 없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56.8%가 '아이는 부모나 가족이 키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나머지 14.9%는 '시설을 믿을 수가 없어서', 13.5%는 단순히 '돌볼 사

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9.5%는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등이었다. 지역별로 구분해서 보면 읍·면부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의 대부분은 '아이는 부모나 가족이 키워야 하기 때문에'이었고, 나머지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이었다.

< 표 V-6 > 기혼여성의 향후 보육시설 이용 의향

단위: %

	전혀 없다	대체로 없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있다	매우 있다	전체
전 체	8.9	8.0	20.1	40.6	22.4	100.0
동부	9.4	7.4	19.6	41.2	22.4	100.0
읍면부	7.0	10.5	22.1	38.4	22.1	100.0
취업자	16.9	3.6	26.5	33.7	19.3	100.0
실업자	0.0	15.0	20.0	35.0	30.0	100.0
비경제활동자	7.5	8.7	18.5	42.7	22.7	100.0
가구주	16.7	16.7	16.7	33.3	16.7	100.0
비가구주	8.8	7.7	20.2	40.8	22.5	100.0
중졸이하	3.7	3.7	37.0	51.9	3.7	100.0
고졸	7.3	10.0	19.2	38.1	25.4	100.0
대졸이상	12.6	5.3	18.5	43.0	20.5	100.0

경제활동상태별로 구분해서 보면 취업여성은 상대적으로 '시설에 대한 불신'과 '말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9.4%, 23.5%로 상당히 많았다. 이에 비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68.5%가 '아이는 부모나 가족이 키워야 하기 때문에'이라고 응답하였다.

< 표 V-7 > 향후 보육시설을 이용할 의향이 없는 사유

단위: %

	부모,가 족이 양육	경제적 어려움	탁아소 시설 부족	시설의 불신	돌봄 사람 있음	기타	전체
전 체	56.8	9.5	2.7	14.9	13.5	2.7	100.0
등부 음면부	52.5 73.3	5.1 26.7	3.4 0.0	18.6 0.0	16.9 0.0	3.4 0.0	100.0 100.0
취업자 비경제활동자	23.5 68.5	5.9 9.3	5.9 1.9	29.4 11.1	23.5 9.3	11.8 0.0	100.0 100.0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100.0 57.8 51.9	0.0 15.6 0.0	0.0 0.0 7.4	0.0 6.7 29.6	0.0 17.8 7.4	0.0 2.2 3.7	100.0 100.0 100.0

또한 보육시설에 맡길 의향이 있는 기혼여성에 대해서는 맡기기를 희망하는 보육시설의 유형을 조사하였는데, 이들의 46.0%가 사립보육시설이라고 했다. 그 다음은 37.0%가 국·공립보육시설이었고, 9.8%는 가정보육시설, 그리고 5.1%는 직장보육시설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상태별로 구분해서 보면 여성 취업자의 52.3%는 국·공립보육시설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여성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각각 46.2%, 48.9%가 사립보육시설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외에도 실업자는 15.4%가 직장보육시설이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0.0%가 가정보육시설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사립보육시설에 그리고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국·공립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고 싶다는 여성비율이 높았다.

< 표 V-8 > 바람직한 보육시설의 유형

단위: %

	직장내 보육시설	국·공립 보육시설	가정보육 시설	사립보육 시설	기타	전체
전 체	5.1	37.0	9.8	46.0	2.2	100.0
동부	5.4	35.7	8.5	47.8	2.7	100.0
음면부	3.8	42.3	15.4	38.5	0.0	100.0
취업자	4.5	52.3	9.1	31.8	2.3	100.0
실업자	15.4	30.8	7.7	46.2	0.0	100.0
비경제활동자	4.6	34.2	10.0	48.9	2.3	100.0
가구주	33.3	33.3	0.0	33.3	0.0	100.0
비가구주	4.8	37.0	9.9	46.2	2.2	100.0
중졸이하	0.0	53.3	13.3	26.7	6.7	100.0
고졸	5.5	37.6	9.7	45.5	1.8	100.0
대졸이상	5.2	33.3	9.4	50.0	2.1	100.0

2. 여성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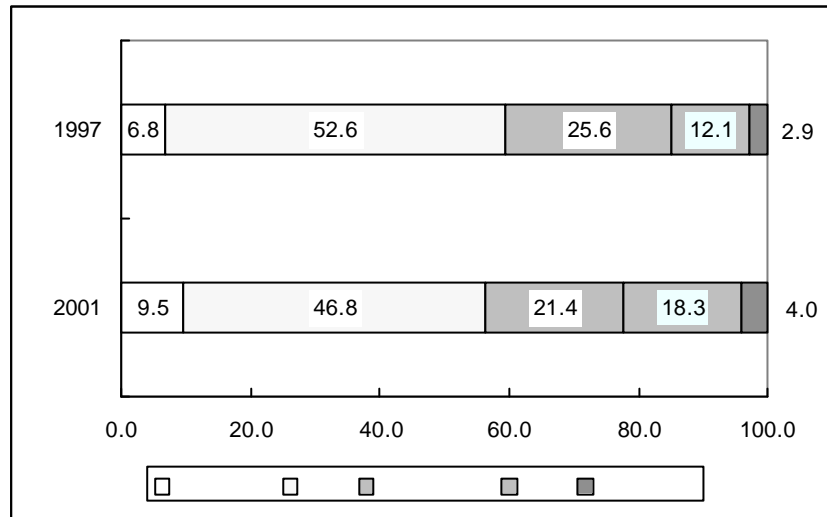
가. 여성취업과 남편태도

전체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56.3%가 여성의 취업을 찬성한다(매우 찬성 포함)고 응답하였고, 22.3%는 반대(매우 반대 포함)하였다. 이와 같은 남편의 태도를 지난 1997년과 비교하면 매우 찬성하는 비율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여성취업을 반대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의 인적특성별로 구분해서 보면 여성가구주의 남편은 대부분(75.4%) 여성취업을 찬성하였다(<부표 V-3> 참고). 학력별로 보면 학력수준이 높은 여성의 남편일수록 여성취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여성취업을 매우 찬성하는 남편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으나,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남편비율은 연령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림 V-2> 여성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 변화

단위: %



경제활동상태를 구분해서 보면, 취업여성의 남편 중에서 여성취업을 찬성하는 남편비율은 1997년에 67.2%에서 2001년에는 79.4%로 크게 증가하였다(<표 V-9>). 여성 실업자의 남편의 경우도 지난 1997년(51.7%)에 비해서 2001년(60.6%)에는 여성취업을 찬성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여성의 남편태도를 보면, 여성취업을 찬성했던 남편비율이 1997년에 45.8%이었던데 비해서, 2001년에는 39.0%로 감소하였다. 즉, 취업 혹은 실업상태에 있는 기혼여성의 남편은 여성취업에 대해서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에,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기혼여성의 남편 중에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와 기혼여성 경제활동상태간의 관계가 지난 1997년에 비해서 더욱 긴밀해졌음을 나타낸다.

< 표 V-9 >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상태별 남편태도 변화

단위: %

		매우 찬성	찬성	그저 그렇다	반대	매우 반대	전체
2001	취업자	14.2	65.2	14.4	5.3	0.9	100.0
	실업자	9.1	51.5	25.3	11.1	3.0	100.0
	비경제활동	6.1	32.9	26.3	28.3	6.3	100.0
1997	취업자	7.7	59.5	26.3	5.6	0.9	100.0
	실업자	5.0	46.7	21.7	23.3	3.3	100.0
	비경제활동	5.3	40.5	24.7	22.8	6.7	100.0

여성 취업자를 종사상지위별로 구분하여 남편태도를 살펴보면, 자영업자인 여성의 남편이 여성취업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서, 82.6%가 여성취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 다음은 여성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남편(81.4%), 여성 무급가족종사자의 남편(78.9%), 여성 시간제근로자의 남편(74.3%) 순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남편들의 찬성비율은 1997년에 전체적으로 65~74%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하였다.

여성 취업자의 직종별로 보면 전문직 여성의 남편은 91.4%가 여성취업에 대해서 찬성하였다. 그리고 준전문직 여성의 남편도 85.7%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서비스직, 판매직 여성의 남편도 각각 81.8%, 80.7%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남편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은 기계조작공 및 조립공으로 일하고 있는 기혼여성으로서 69.2%의 남편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7.7%의 남편은 여성취업에 대해서 매우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즉, 상대적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이 좋은 직종에 근무하는 여성의 남편일수록 여성취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남편의 학력별로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를 보면 남편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취업을 매우 찬성하는 남편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비율(매우 찬성 및 찬성하는 비율)은 중졸이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대졸, 고졸 순이었다.

<표 V-10> 여성취업에 대한 남편의 확률별 태도

단위: %

	매우 찬성	찬성	그저 그렇다	반대	매우 반대	전체
중졸이하	6.9	52.1	20.0	18.1	3.0	100.0
고졸	8.7	46.0	20.9	19.6	4.8	100.0
대졸이상	12.6	43.4	23.2	17.0	3.9	100.0

나. 남편의 찬성 이유

남편이 여성취업을 찬성한다고 응답한 여성을 대상으로 남편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유를 조사한 결과는 <표 V-11>과 같았다. 즉, 남편의 64.8%는

<표 V-11> 여성취업에 대한 남편의 찬성이유

단위: %

	가계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됨	여가시간을 적절히 활용	아내의 의사를 존중	아내의 자질개발을 희망	기타	전체
전 체	64.8	12.5	13.1	9.2	0.3	100.0
동부	61.5	13.5	15.1	9.5	0.4	100.0
음면부	76.3	9.2	6.1	8.4	0.0	100.0
가구주	83.6	5.5	5.5	5.5	0.0	100.0
비가구주	64.2	12.7	13.4	9.4	0.3	100.0
15-24세	55.0	10.0	25.0	10.0	0.0	100.0
25-29세	47.1	19.1	20.6	13.2	0.0	100.0
30-34세	48.1	15.5	23.0	13.1	0.3	100.0
35-39세	59.9	11.0	17.0	11.7	0.4	100.0
40-49세	70.0	11.7	9.8	8.2	0.3	100.0
50-59세	75.8	10.3	7.0	6.4	0.6	100.0
60세이상	84.3	11.8	2.0	2.0	0.0	100.0
중졸이하	86.2	8.1	3.3	2.2	0.1	100.0
고졸	63.8	14.4	13.6	7.7	0.4	100.0
대졸이상	30.0	16.5	29.0	23.9	0.5	100.0

‘여성취업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므로’ 여성취업을 찬성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13.1%는 ‘아내의 취업의사를 존중하므로’, 12.5%는 ‘아내가 여가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므로’, 9.2%는 ‘아내의 자질개발을 원하므로’ 여성취업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읍·면부는 동부에 비해서 그리고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는 비가구주인 경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계경제에 도움되기 때문에 여성취업을 찬성하는 남편비율이 높았다. 또한 연령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성취업을 찬성하는 남편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15-24세 연령층은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아내의 취업의사를 존중해서’ 여성취업을 찬성하는 남편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25세부터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아내가 여가시간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므로’, ‘아내의 자질개발을 희망하기 때문에’, ‘아내의 의사를 존중하여서’와 같은 이유 때문에 여성취업을 찬성하는 남편비율이 하락하는 특징을 보였다.

< 표 V-12 > 여성의 경제활동상태별 남편의 찬성이유

단위: %

		가계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됨	여가시간 을 적절히 활용	아내의 의사를 존중	아내의 자질개발 을 희망	기타	전체
2001	취업자	71.7	15.0	5.0	8.3	0.0	100.0
	실업자	52.6	18.3	16.1	12.6	0.3	100.0
	비경제활동	64.8	12.5	13.1	9.2	0.3	100.0
1997	취업자	71.9	9.2	17.6	-	1.3	100.0
	실업자	53.3	13.3	33.3	-	0.0	100.0
	비경제활동	53.9	26.2	19.9	-	0.0	100.0

다. 남편의 반대이유

남편들이 여성취업을 반대하는 사유를 보면 ‘가사 및 육아의 소홀’(전체 37.9%)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부인의 건강 및 연령을 이유로’(24.1%), ‘보수

적인 태도 때문에'(17.0%), '자녀교육'(12.6%) 등의 순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을 1997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가사 및 육아 때문에 반대하는 비율(1997년 40.3%)이나 자녀교육 때문에 반대하는 비율(1997년 19.9%)은 감소한 반면에, 부인의 건강이나 연령 때문에 반대하는 비율(1997년 14.5%), 남편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비율(14.0%)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인적특성별로 보면 연령이 적을수록 가사 및 육아 때문에 여성취업을 반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그리고 여성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교육 때문에 여성취업을 반대하는 남편비율도 증가하여, 30-34세의 경우 25.9%나 되었다. 학력별로 보면 중졸이하 저학력 여성의 남편은 주로 부인의 건강이나 연령을 이유로 취업을 반대하였고, 고졸과 대졸은 가사·육아·자녀교육 때문에 취업을 반대하는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표 V-13> 인적특성별 여성취업에 대한 남편의 반대이유

단위: %

	가사 및 육아의 소홀	자녀 교육	노인 부양 간호	남편이 보수적	저수입 일이 힘듦	부인의 건강 및 연령이유	기타	전체
전 체	37.9	12.6	1.4	17.0	6.1	24.1	0.7	100.0
동부 음면부	37.7	13.0	1.6	17.1	5.8	24.0	0.9	100.0
가구주 비가구주	38.9	11.4	0.7	16.8	7.4	24.8	0.0	100.0
가구주	20.0	20.0	0.0	20.0	20.0	20.0	0.0	100.0
비가구주	38.1	12.6	1.4	17.0	6.0	24.2	0.7	100.0
15-24세	70.0	10.0	0.0	20.0	0.0	0.0	0.0	100.0
25-29세	63.5	17.3	0.0	13.5	5.8	0.0	0.0	100.0
30-34세	56.9	25.9	0.0	15.5	1.7	0.0	0.0	100.0
35-39세	54.8	21.2	1.9	13.5	3.8	3.8	1.0	100.0
40-49세	35.7	13.5	1.6	23.2	6.5	17.3	2.2	100.0
50-59세	17.7	1.4	2.7	17.7	12.9	47.6	0.0	100.0
60세이상	13.3	0.0	1.1	11.1	3.3	71.1	0.0	100.0
중졸이하	27.0	3.7	1.9	14.1	8.5	44.8	0.0	100.0
고졸	46.2	14.8	1.5	19.7	4.9	11.4	1.5	100.0
대졸이상	40.4	28.4	0.0	16.5	3.7	11.0	0.0	100.0

남편의 학력별로 여성취업 반대 사유를 보면 학력이 높은 남편집단일수록 가사·육아·자녀교육 때문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고, 부인의 건강 및 연령을 이유로 반대하는 남편비율은 낮았다. 뿐만 아니라 보수적이어서 여성취업을 반대하는 남편비율도 학력이 높을수록 약간 높은 특징을 보였다.

<표 V-14> 여성취업에 대한 남편의 학력별 반대이유

단위: %

	가사 및 육아의 소홀	자녀 교육	노인 부양 간호	남편이 보수적	저수입 일이 힘듦	부인의 건강 및 연령이유	기타	전체
중졸이하	25.5	2.2	2.2	13.6	10.3	46.2	0.0	100.0
고졸	45.2	12.7	1.6	18.2	4.8	16.6	1.0	100.0
대졸이상	37.7	21.6	0.5	18.6	4.4	16.2	1.0	100.0

3. 유보임금수준과 통근시간

가. 여성의 시장임금과 유보임금수준

여성 취업자의 시장임금과 비취업상태에 있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유보임금을 비교하면 <표 V-15>와 같다. 먼저 여성 취업자의 시장임금은 월평균 971천원이었다. 이에 비해서 여성 실업자와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유보임금은 각각 904천원, 937천원으로, 시장임금보다 약간 낮았다. 부문별로 보면 동부에 거주하는 여성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유보임금수준은 시장임금수준보다 낮는데 비해서, 읍·면부에 거주하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유보임금수준은 시장임금수준보다 높았다.

< 표 V-15 > 여성의 시장임금과 유보임금수준 비교

단위: 천원

	여성 취업자의 시장임금	여성 실업자의 유보임금	여성 비경제활동 인구의 유보임금
전 체	971	904	937
동부	1,011	946	952
음면부	769	712	854
미혼	961	892	792
기혼	975	910	969
가구주	999	1,023	809
비가구주	962	879	944
중졸이하	730	688	662
고졸	897	908	918
대졸이상	1,349	1,199	1,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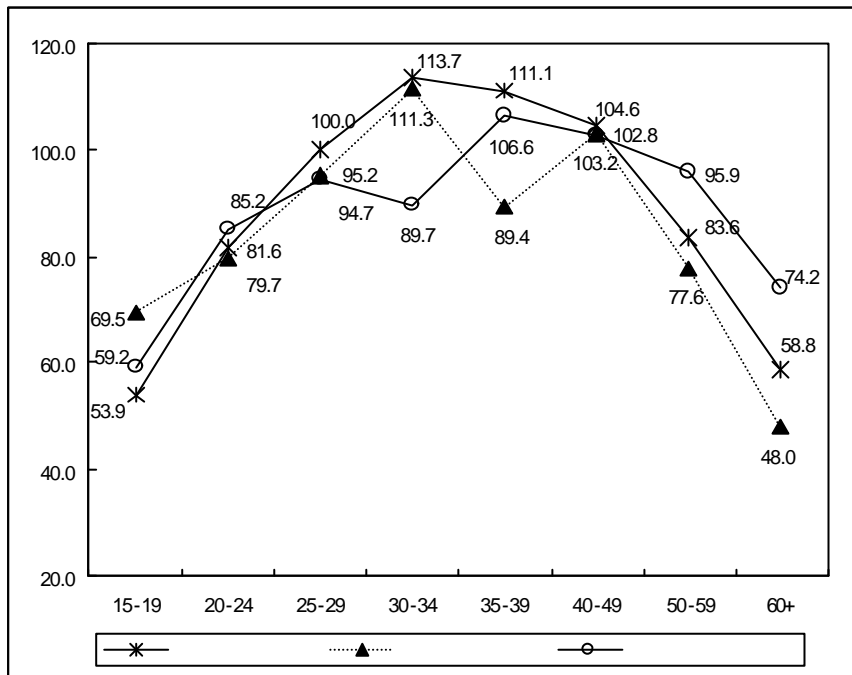
경제활동상태별로 여성집단의 인적특성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적특성별로 구분하여 시장임금과 유보임금을 살펴보면, 먼저 미혼여성의 경우 취업자의 시장임금은 961천원인데 비해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유보임금수준은 각각 892천원, 792천원으로 시장임금보다 낮았다. 특히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미혼여성의 유보임금수준은 시장임금보다 훨씬 낮아서, 유보임금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기혼여성의 경우 취업자의 시장임금과 비경제활동인구의 유보임금수준은 비슷하였고, 실업자는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학력별 여성 취업자의 시장임금과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유보임금을 비교하여 보면, 중졸이하하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유보임금수준이 취업자의 시장임금수준보다 약간 낮았다. 이에 비해 고졸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유보임금이 시장임금보다 약간 높은 특징을 보였다. 대졸여성은 취업자의 시장임금수준이 비경제활동인구와 비슷하고, 실업자보다 높았다.

연령별 시장임금과 유보임금의 변화를 보면 여성 취업자의 연령별 임금곡선

은 30-34세를 정점하는 하는 전형적인 U자 곡선을 나타내었다. 즉, 여성 취업자의 임금수준을 보면 15-19세때 월평균 539천원에서 30-34세때에 1,137천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60세 이상은 588천원이 되었다.

<그림 V-3> 연령계층별 여성의 시장임금과 유보임금수준
단위: %



이에 비해 여성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연령별 유보임금곡선은 전반적으로 30대를 정점으로 하는 U자 곡선의 형태를 보이나, 연령계층에 따라서 증감을 보였다. 또한 시장임금곡선과 유보임금곡선을 비교하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유보임금은 50세 이전까지는 취업자의 임금수준보다 낮았으나, 50세 이후부터는 더 높았다. 즉, 50세 이상인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참가는 유보임금보다 낮은 시장임금수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의 유보임금수준은 15-19세에서는 시장임금보다 높으나, 20세 이후부터는 시장

임금보다 낮았다. 즉, 15-19세를 제외한 나머지 여성 실업자는 유보임금수준 이외의 요인 때문에 취업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나. 여성 경제활동과 통근시간

1) 여성 취업자의 통근시간

여성 취업자의 출근소요시간을 보면 39.7%가 집이나 집 근처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28.1%는 30분 미만, 25.0%는 30~1시간 미만이였다. 즉, 67.8%가 출근소요시간이 30분 미만인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러한 비율은 1997년의 67.9%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구분해서 보면 상대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비율이 높은 읍·면부에 거주하는 여성의 63.4%가 집이나 집 근처에서 일하고 있었다.

혼인상태별로 구분해서 보면 미혼여성 취업자의 44.8%가 30~1시간 정도 출근시간이 소요되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13.3%는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기혼여성 취업자는 75.7%가 출근시간이 30분 미만인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학력별로 보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출근소요시간이 짧은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표 V-16> 여성 취업자의 출근소요시간별 분포

단위: %

	집이나 집근처	30분 미만	30분- 1시간 미만	1시간-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전체
전 체	39.7	28.1	25.0	6.4	0.8	100.0
동부	32.7	29.4	29.2	7.9	0.9	100.0
읍면부	63.4	23.9	10.9	1.3	0.4	100.0
미혼	11.9	30.0	44.8	11.4	1.9	100.0
기혼	48.1	27.6	19.0	4.8	0.5	100.0
중졸이하	57.7	23.2	15.1	3.4	0.5	100.0
고졸	34.4	32.3	26.7	5.8	0.9	100.0
대졸이상	20.2	28.7	37.9	12.1	1.1	100.0

종사상지위별로 구분해서 보면 전일제 여성임금근로자의 출근소요시간이 가장 길었고, 그 다음은 시간제 여성근로자이었다. 가내근로자는 100%가 집이나 집 근처에서 일하고 있었고, 무급가족종사자 중에서 집이나 집 근처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비율도 72.7%나 되었다. 여성 취업자의 직종별 출근소요시간을 보면 상대적으로 출근소요시간이 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비율이 높은 직종은 기계조작공 및 조립공, 준전문가, 관리직·전문직이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출근소요시간이 짧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비율이 높은 직종은 농어업 관련 근로자, 서비스직, 판매직, 단순노무직으로, 이들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의 각각 74.8%, 51.4%, 48.1%, 43.3%가 집이나 집 근처에서 일하고 있었다.

< 표 V-17 > 여성 취업자의 직종별 출근소요시간별 분포

단위: %

	집이나 집근처	30분 미만	30분 1시간 미만	1시간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전체
자영업자	61.8	22.6	11.6	3.7	0.3	100.0
무급가족종사자	72.7	14.8	10.2	2.1	0.2	100.0
가내노동자	100.0	0.0	0.0	0.0	0.0	100.0
전일제 근로자	17.4	35.7	37.3	9.0	0.6	100.0
시간제 근로자	32.4	33.2	23.8	8.6	2.0	100.0
관리자/전문가	14.5	32.1	38.9	11.4	3.1	100.0
준전문가	29.1	27.2	30.5	12.6	0.7	100.0
사무직원	13.9	36.6	40.1	8.6	0.9	100.0
서비스직	51.4	28.6	15.5	4.2	0.3	100.0
판매직	48.1	21.8	24.7	4.9	0.6	100.0
농어업관련직	74.8	16.1	8.3	0.9	0.0	100.0
기능직	39.5	32.5	21.0	6.4	0.6	100.0
기계조작공	30.8	15.4	30.8	23.1	0.0	100.0
단순노무직	43.3	29.4	21.9	5.0	0.5	100.0

2)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희망통근시간

여성 실업자의 희망 출근소요시간별 분포를 보면 집이나 집 근처, 30분 미만인 일자리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여성 실업자비율이 각각 36.7%이었다. 즉, 여성 실업자의 73.4%가 출근소요시간이 30분 미만인 일자리를 희망하였다. 이러한 비율은 1997년의 70.2%보다 약간 높아졌다. 지역별로 보면 집이나 집 근처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여성비율이 동부보다 읍·면부가 훨씬 높았다.

여성 실업자의 인적특성별로 구분해서 보면, 기혼여성 실업자의 49.2%는 집이나 집 근처, 34.7%는 출근시간이 30분 미만이 소요되는 일자리에 취업하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비해 미혼여성 실업자는 출근소요시간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서, 43.8%는 출근소요시간이 30~1시간 미만인 일자리를 희망하였다. 연령집단별로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체로 출근소요시간이 짧은 일자리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여성비율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학력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근소요시간에 덜 영향을 받았다.

< 표 V-18 > 여성 실업자의 희망출근소요기간

단위: %

	집이나 집근처	30분 미만	30분- 1시간미만	1시간- 2시간미만	2시간 이상	전체
전 체	36.7	36.7	22.4	1.8	2.4	100.0
동부	31.6	39.0	24.3	2.2	2.9	100.0
읍면부	60.0	26.7	13.3	0.0	0.0	100.0
가구주	25.8	32.3	32.3	9.7	0.0	100.0
비가구주	39.3	37.8	20.0	0.0	3.0	100.0
미혼	6.3	41.7	43.8	6.3	2.1	100.0
기혼	49.2	34.7	13.6	0.0	2.5	100.0
15-24	11.5	50.0	26.9	3.8	7.7	100.0
25-29	22.6	35.5	35.5	3.2	3.2	100.0
30-34	34.8	39.1	26.1	0.0	0.0	100.0
35-39	52.9	29.4	17.6	0.0	0.0	100.0
40-49	41.0	43.6	12.8	2.6	0.0	100.0
50세이상	60.0	20.0	16.7	0.0	3.3	100.0
중졸이하	59.6	25.5	12.8	0.0	2.1	100.0
고졸	34.1	42.4	21.2	1.2	1.2	100.0
대졸이상	11.8	38.2	38.2	5.9	5.9	100.0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희망 출근소요시간별 분포를 보면 집이나 집 근처에서, 출근소요시간이 30분 미만인 직장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여성비율이 각각 41.9%, 34.9%로 상당히 높았다. 취업희망 여성비경제활동인구에서 출근시간이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직장에서 일하겠다는 비율은 1.3%에 불과했다. 취업희망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에는 실업자와는 달리 거주지역별로 희망출근소요시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표 V-19 >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희망출근소요기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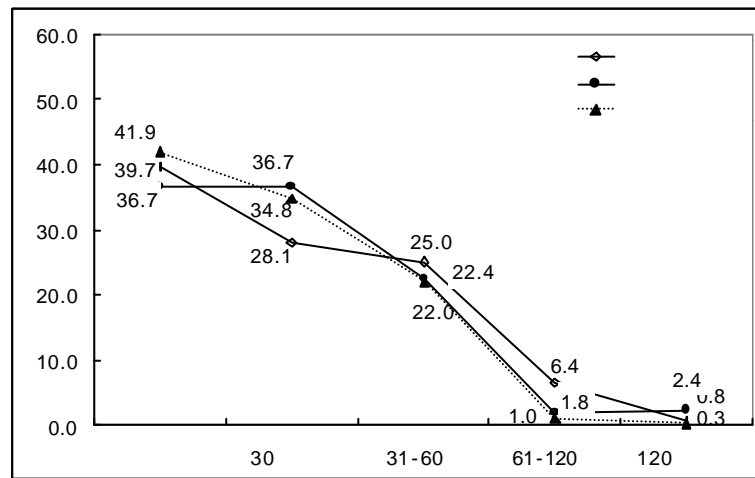
	집이나 집근처	30분 미만	30분- 1시간미만	1시간- 2시간미만	2시간 이상	전체
전 체	41.9	34.9	22.0	1.0	0.3	100.0
동부	41.8	34.2	22.7	1.1	0.2	100.0
음면부	42.5	38.7	17.9	0.0	0.9	100.0
가구주	44.1	35.3	20.6	0.0	0.0	100.0
비가구주	41.8	34.9	22.0	1.0	0.3	100.0
미혼	29.7	35.2	32.8	1.6	0.8	100.0
기혼	44.5	34.8	19.7	0.8	0.2	100.0
15-24	35.0	35.1	28.1	0.9	0.9	100.0
25-29	31.7	28.3	38.3	1.7	0.0	100.0
30-34	35.6	39.8	22.9	1.7	0.0	100.0
35-39	43.3	43.3	12.5	0.8	0.0	100.0
40-49	43.2	33.5	22.2	0.6	0.6	100.0
50-59	49.5	29.0	20.6	0.9	0.0	100.0
60세이상	69.7	24.2	6.1	0.0	0.0	100.0
중졸이하	56.5	29.5	13.5	0.5	0.0	100.0
고졸	41.3	31.7	25.1	1.3	0.5	100.0
대졸이상	25.5	49.0	24.8	0.6	0.0	100.0

혼인상태별로 보면 미혼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기혼보다 출근소요시간이 긴 직장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출근소요시간이 짧은 일자리에 취업하고자 하는 여성비율이 증가하나, 연령별 편차가 실업자집단과 같이 크지는 않았다. 그러나 학력별로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근소요시간이 긴 일자리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여성비율은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경제활동상태별로 구분해서 현재 및 희망 출근소요기간별 여성 분포를 보면 <그림 V-4>와 같다. 즉, 취업자는 집이나 집 근처에서 일하거나 일하기를 희망하는 여성비율은 실업자보다 약간 높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출근소요기간이 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비율이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집단보다 높았다. 그리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출근소요시간이 짧은 직장에서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여성비율은 비경제활동인구가 더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V-4> 경제활동상태별 여성의 출근시간 분포
단위: %



VI

취업력 및 생활사

1. 가족생활사	181
2. 취업력	187

경제활동에 대한 횡단면적인(cross section)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 고용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는 노동력에 대한 종단면(longitudinal data)을 생산하여 활용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횡단면적인 노동력 자료가 가진 한계를 인식하고, 노동력에 대한 패널 자료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패널자료에는 여성취업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가 조사되지 않음으로써, 여성의 취업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여성 취업실태조사는 1985년부터 5년 주기로 실시하여 왔으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추적조사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다만 동일한 표본추출방법과 상당수 동일한 조사항목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과거 조사결과와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횡단면 자료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2차 조사부터 회상법(retrospective method)을 사용하여 취업력을 조사하여 왔다.

본 장에서는 여성의 취업력(work history)의 자료를 이용하여, 횡단면 자료로서 분석이 불가능한 가족생활사, 생애단계별 경제활동유형과 특징, 세대별 경제활동유형과 특징 등을 분석하였다.

1. 가족생활사

가. 여성의 가족생활사

본 조사는 15세 이후의 생활사와 취업경력을 조사하므로 조사대상여성의 연령에 따라 최대 50년간의 생활사와 경제활동상태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조사대상인 학생이 아닌 여성의 과거연령별 표본수를 보면, 모든 응답자는 과거 15세 연령에서 관찰되므로 15세 연령에서의 표본수는 총 4,136명이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해당 연령보다 어린 응답자는 표본에서 제외됨에 따라, 생활사와 취업경력에 대한 표본수도 감소하여 64세(만 63세)의 표본수는 116명이었다.

< 표 VI-1> 과거 연령별 표본수

단위: 명

과거연령	표본수	과거연령	표본수	과거연령	표본수
15세	4,136	32세	3,248	49세	1,274
16세	4,136	33세	3,141	50세	1,183
17세	4,136	34세	3,020	51세	1,090
18세	4,136	35세	2,889	52세	1,028
19세	4,135	36세	2,780	53세	947
20세	4,124	37세	2,661	54세	864
21세	4,097	38세	2,567	55세	773
22세	4,072	39세	2,457	56세	697
23세	4,034	40세	2,345	57세	627
24세	3,976	41세	2,219	58세	557
25세	3,906	42세	2,083	59세	484
26세	3,834	43세	1,953	60세	424
27세	3,739	44세	1,837	61세	333
28세	3,648	45세	1,721	62세	263
29세	3,565	46세	1,590	63세	190
30세	3,482	47세	1,472	64세	116
31세	3,357	48세	1,376		

이와 같이 본 조사는 1937년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1937년 이후를 5년 간격으로 나누면 총 10개의 연령세대(cohort)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25세 미만인 여성 중에는 재학 중이거나 또는 결혼이나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여성이 많아서 생활사와 취업력 분석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조사당시 학생이 아닌 25세 이상인 여성 총 3,906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대상자를 출생연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8개 연령세대로 나누었다.

- 1972-76년 출생 연령세대 : 조사시점 연령 25-29세층
- 1967-71년 출생 연령세대 : 조사시점 연령 30-34세층
- 1962-66년 출생 연령세대 : 조사시점 연령 35-39세층
- 1957-61년 출생 연령세대 : 조사시점 연령 40-44세층
- 1952-56년 출생 연령세대 : 조사시점 연령 45-49세층
- 1947-51년 출생 연령세대 : 조사시점 연령 50-54세층

- 1942-46년 출생 연령세대 : 조사시점 연령 55-59세층
- 1937-41년 출생 연령세대 : 조사시점 연령 60-64세층

세대별 여성의 교육분포를 보면 1937-41년생 여성의 88.4%는 중졸이고, 고졸이 9.0% 그리고 대졸이상이 2.6%이었다. 그러나 최근 세대로 올수록 고학력집단의 구성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40-44세인 1957-61년생은 고졸이 48.6%이고 대졸이상이 23.1%이었다.

<표 VI-2> 세대별 학력별 여성 분포

단위: %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전체
1972-76	1.9	51.7	46.5	100.0
1967-71	4.4	60.0	35.6	100.0
1962-66	15.1	53.3	31.6	100.0
1957-61	28.4	48.6	23.1	100.0
1952-56	51.9	38.1	10.0	100.0
1947-51	64.1	27.1	8.8	100.0
1942-46	77.7	15.2	7.2	100.0
1937-41	88.4	9.0	2.6	100.0
전 체	37.9	40.3	21.8	100.0

현재 25-29세인 1972-76년생 여성은 중졸이하가 1.9%이고, 나머지 51.7%는 고졸, 46.5%는 대졸이상이었다. 즉, 1972-76년생의 경우 고등학교 진학률이 거의 100%에 도달하여, 중졸이하 여성은 거의 없었다.

또한 제4차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여성의 가족생활사를 보면, 25세 이상 학생이 아닌 여성의 90.7%가 기혼여성이었다. 이러한 기혼비율은 2차 조사가 이루어진 199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는데, 이것은 여성들의 만혼화(晩婚化)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사대상 여성의 평균 학교수로 연령은 17.7세³²⁾이었는데, 이러한 학교수로연령은 고학력화 현상으로 인해서 199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표 VI-3> 과거조사와 4차 조사결과의 비교

		2차 조사 (1992년)	3차 조사 (1997년)	4차 조사 (2001년)
표본수	전체	2,701명	2,830명	3,906명
	동부	2,027명	2,477명	3,132명
	음면부	674명	353명	774명
주요 가족생활사 특징	학교수료연령	15.0세	16.1세	17.7세
	초혼연령	21.7세	22.3세	24.5세
	첫자녀출산연령	23.9세	23.6세	25.8세
	막내자녀출산연령	30.2세	28.5세	29.7세
	기혼여성비율	96.9%	93.7%	90.7%
	(기혼여성) 평균자녀수	2.8명	2.6명	2.2명

조사된 여성의 초혼연령은 24.5세이었고 막내자녀 출산연령은 29.7세이었으며³³⁾, 기혼여성 평균자녀수는 2.2명이었다.³⁴⁾이러한 가족생활사를 1992년, 1997년과 비교하면, 초혼연령은 늦어지는 반면 결혼 후 첫 자녀 출산과 막내출산이 빨라지고 있으며, 특히 단산이 빨라지고 있다. 또한 소자녀화 추세를 반영하여, 평균자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나. 세대별 여성의 생애사건

여성 생애사건의 변화를 보기 위해 <그림 VI-4>와 같이 5세 단위의 연령세대별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여성의 주요 생애사건(life events)은 학교졸업, 결혼(초혼), 배우자사망, 첫 자녀의 출산, 막내자녀의 출산, 육아의 종료(막내자

32) 무학인 경우 최종학교 수료연령을 6세로 하였다.

33) 막내자녀 출산연령은 출산을 완료한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하여야 하는데 이에 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앞으로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여성을 출산완료집단으로 간주하여 이들 여성을 대상으로 막내자녀 출산연령을 분석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조사시점에서 자녀가 2인 이상인 여성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방법으로 산정하였다.

34) 자녀가 2인 이상인 여성을 대상으로 산출하였다.

녀가 만 6세에 도달) 등이다. 이에 따라 세대별 여성의 생애사건 발생연령을 보면 <표 VI-4>와 같다. <표 V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세대로 올수록 최종학교 수료연령과 초혼연령, 첫 자녀 출산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비해 막내자녀의 출산연령은 1952-56년생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지다가, 1952-56년생을 기점으로 최근 세대로 올수록 다시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1937-41년생부터 1952-56년생까지는 평균자녀수의 감소로 인해서 출산완료연령이 낮아지는 폭이 최종학교 졸업연령이나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폭보다 크고, 그 이후 세대에서는 평균자녀 수의 감소폭은 둔화되는 반면에 최종학교 졸업연령이나 결혼연령은 계속 늦어지는데 기인한다.

이에 따라 여성의 생애사건별 기간 변화를 세대별로 보면 먼저 출생이후부터 최종학교 졸업시점까지의 기간을 보면, 최근 세대로 올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즉, 2001년 현재 60-64세인 1937-41년생의 최종학교 수료 연령이 12.4세인데 비해서, 25-29세인 1972-76년생은 20.2세로 높아졌다.

<표 VI-4> 세대별 여성의 생애사건 발생 연령

단위: 세,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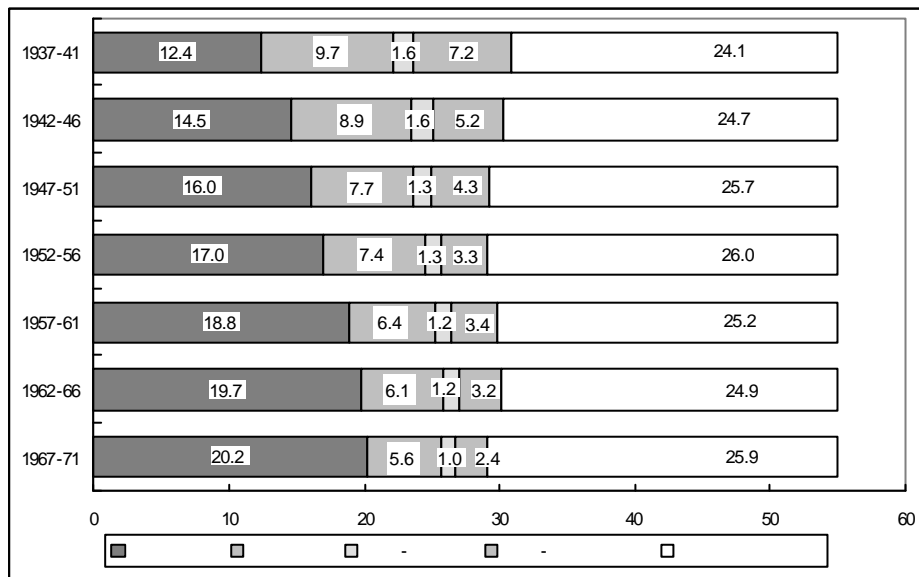
	최종학교 수료연령	초혼 연령	첫 자녀 출산연령	막내자녀출 산연령	평균 자녀수	표본수
1972-76	20.6	24.9	25.4	-	1.0	424
1967-71	20.2	25.8	26.8	29.1	1.6	593
1962-66	19.7	25.8	27.0	30.1	1.9	544
1957-61	18.8	25.2	26.4	29.8	1.9	624
1952-56	17.0	24.5	25.8	29.0	2.1	538
1947-51	16.0	23.7	25.0	29.3	2.5	410
1942-46	14.5	23.5	25.1	30.3	2.8	349
1937-41	12.4	22.1	23.7	30.9	3.4	424
전 체	17.7	24.5	25.8	29.7	2.2	3,906

최종학교 졸업 이후에서 초혼 직전까지의 기간을 보면, 과거 세대부터 현재

세대로 올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초혼이 지속적으로 늦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최종학교 졸업이후부터 초혼직 전까지의 기간이 줄어드는 현상은 고학력화 현상에 기인한다. 초혼이후 첫 자녀 출산까지의 기간, 첫 자녀 출산에서 막내자녀 출산까지의 기간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막내자녀 출산이후 취업가능기간을 보면 최근 세대로 올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평균자녀수가 감소하고 막내자녀를 예전보다 일찍 출산하는데 기인한다.

<그림 VI-1> 여성의 연령세대별 생활사의 변화추이

단위 : %



이와 같이 세대별 여성의 생활사 변화를 보면 취업가능시기인 최종학교 졸업이후부터 결혼 혹은 첫 자녀 출산 전까지의 기간은 짧아지는데 비해서, 막내자녀 출산 이후의 기간은 길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여성의 이러한 생애주기의 변화는 여성 경제활동상태에 여러 가지 형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저 막내자녀 출산 이후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여성의 생애에서 경제활동을 비롯한 사회활동참여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또한 여성의 결혼 전

은 첫 자녀 출산 전 취업가능기간이 짧아지는 상황에서 신규로 학교를 졸업한 여성인력의 구직기간이 길어지면 취업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 집단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뚜렷이 구분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집단은 구직활동이 길어지더라도 취업을 함에 따라 결혼 및 출산연령이 더욱 늦추는 집단이다. 두 번째 집단은 구직기간이 길어지면 취업을 하더라도 결혼 혹은 첫 자녀 출산 이전의 취업기간이 상당히 짧아지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는 집단일 것이다.

2. 취업력

가. 과거연령별 유업률

여성의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하는 방법은 크게 노동력접근법과 유업자접근법이 있다. 노동력접근법은 지난 1주간의 노동력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생산가능인구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는데, 5장까지는 이러한 방법으로 경제활동상태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유업자접근법은 지난 1년 동안 활동상태를 기준으로 일한 주(周) 혹은 일(日)이 많으면 유업자로 그렇지 않으면 무업자로 구분하는 방법이다.³⁵⁾ 취업력 조사는 과거 수 년 혹은 수십 년의 경제활동상태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참고기간을 1주일로 하는 노동력접근법보다는 1년으로 하는 유업자접근법이 적절하다. 이에 따라 취업력 분석은 과거 연령을 기준으로 1년 동안 6개월 이상 취업여부를 기준으로 유업자와 무업자를 구분하였다.³⁶⁾

35) 노동력접근법(labor force approach)과 유업자접근법(gainful worker approach)에 대해서는 한상진, 권태환(1986)을 참조.

36) 이와 같은 조사방식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노동력 상태를 분류하는 방법과 유사하다. 1990년 센서스에서는 조사대상일을 기준으로 '지난 1년중 30일 이상 수입이 있는 일', 1995년 센서스에서는 '지난 1개월 중 15일 이상 수입있는 일'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유업자와 무업자로 구분하였다. 또한 1997년 「고용구조조사」에서도 일시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편의상 지난 1년간 30일 이상 일을 하였고, 앞으로도 그러한 형태로 일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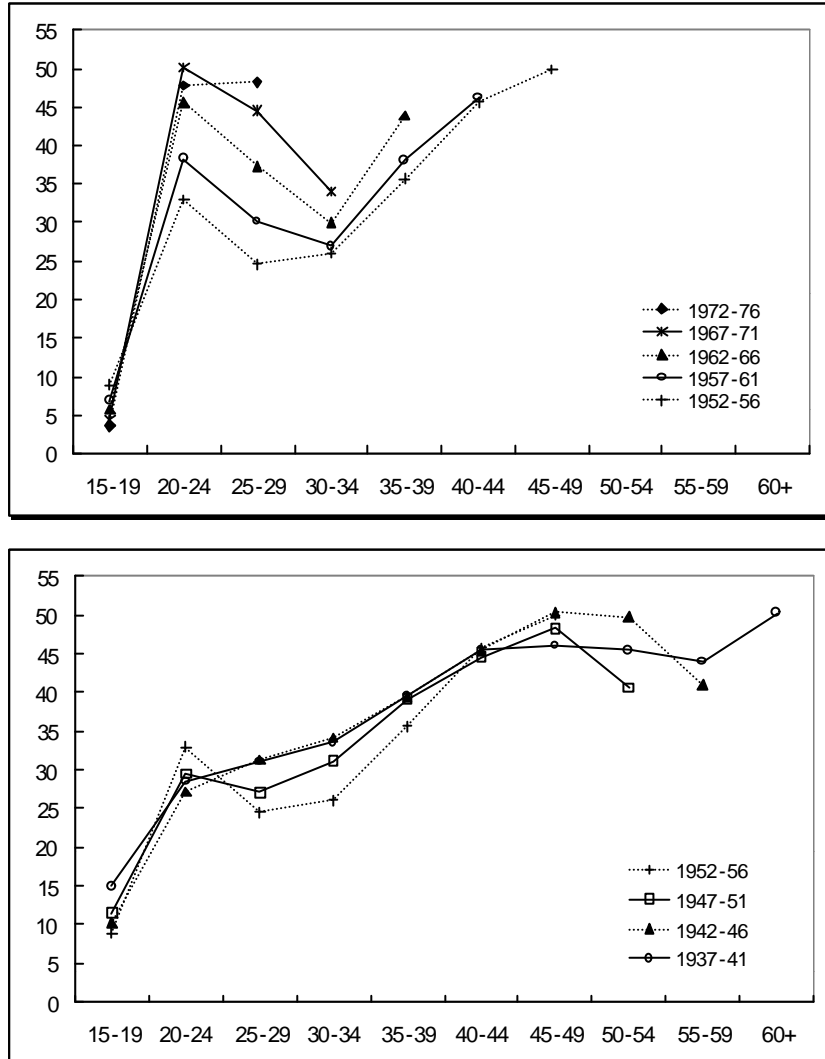
그리고 유업자의 경우 그 해 가장 오래한 일의 종사상지위, 직종, 산업 등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본 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업률'이란 연령별 해당 인구 중에서 유업자의 비율을 말한다. 횡단면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곡선은 M자형이다. 그러나 횡단면 자료는 연령계층별 세대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횡단면 자료만으로 특정 세대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곡선이 M자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이에 따라 세대별로 구분하여 연령계층별 유업률 곡선을 분석하였다.

먼저 1952-56년생부터 1972-76년생까지 여성의 연령계층별 유업률 곡선의 변화를 보면, 유업자 곡선은 최근 세대로 올수록 15-19세 연령층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에서 전반적으로 상향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곡선의 형태는 다소 변화를 보였다. 특히 현재 45-49세인 1952-56년생은 M자 곡선의 저점(低點)이 25-29세이었으나, 그 이후의 세대에서는 저점이 25-29세에서 30-34세로 늦어졌다. 또한 최근 세대로 올수록 결혼·출산으로 인한 퇴출이 줄어들어 따라 유업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4세, 25-29세 연령층의 유업률 증가폭보다는 낮다. 그 결과 최근 세대로 올수록 20-24세 연령층과 30-34세 연령층의 유업률 격차가 더욱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³⁷⁾

1937-41년생에서 1952-56년생을 비교해보면 1937-41년생은 15-19세 이후 유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물론 출산·육아부담이 있는 시기인 25-29세, 30-34세 연령층에서는 유업률 증가폭이 둔화되었고, 45-59세 연령층에서는 유업률이 소폭 하락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연령과 함께 여성의 유업률이 증가하였다. 1937-41년생 이후의 세대를 보면 최근 세대로 올수록 여성의 연령별 유업률 곡선이 연령과 함께 증가하는 곡선에서 점차 M자형 곡선으로 전환하였다. 즉, 현재 50-54세인 1947-51년생부터는 결혼 및 출산과 함께 노동시장에서 퇴출하는 여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1952-56년생의 경우 2차 정점이 1차 정점보다 훨씬 높기는 하나 M자형을 띄기 시작하였다.

37) 세대별로 20-24세, 30-34세 연령층의 유업률 격차를 보면, 1952-56년생은 7.0% 포인트인데 비해서, 1957-61년생은 11.5% 포인트, 1962-66년생은 15.7% 포인트, 그리고 1967-71년생은 16.1% 포인트이었다.

<그림 VI-2> 세대별 과거연령계층별 유업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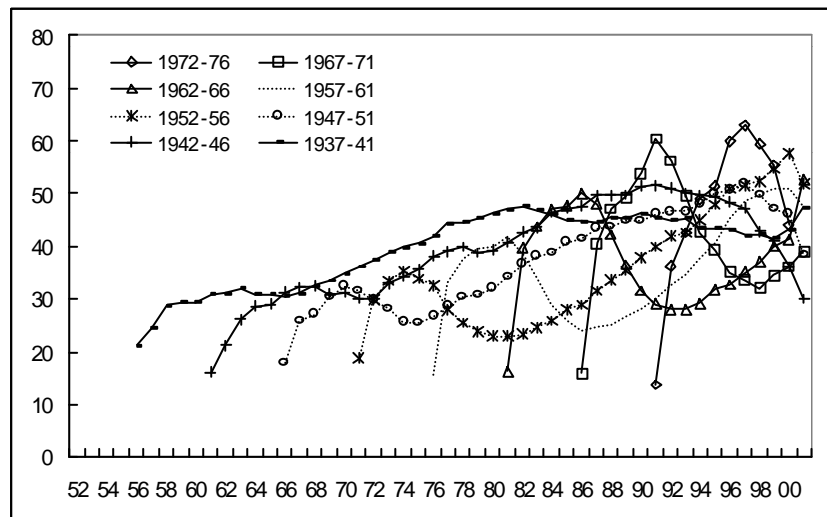
이와 같은 양상은 여성의 경제활동유형과 깊은 연관이 있다. 즉, 과거 농업중심의 산업구조에서는 여성들이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함으로써 가정과 직장의 병존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산업화와 함께 제조업의 구성비가 증가함에 따라 임금근로자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구성비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여성근로자의 직장과 가정 일의 병존이 힘들게 되었다. 그 결과 1970년대 초반에 25세가 되는 1947-51년생 취업여성에서부터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퇴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연령별 유업률 곡선을 연도별로 보면 잘 알 수 있다. 1937-41년생의 연령별 유업률 곡선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980년대 초를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1942-46년생도 연령과 함께 유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990년을 전후로 하락하였다. 1947-51년생과 그 이전 세대의 유업률 곡선을 비교하면 20세를 전후로 한 유업률은 그 이전 세대와 비슷하나, 앞의 <그림 VI-2>에서 본 바와 같이 25세 전후의 유업률은 이전 세대와는 달리 하락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25세 전후에 이렇게 유업률이 하락한 시기는 1970년대 전반이었다.

1947-51년생의 유업률 곡선은 30세 이후의 유업률이 그 이전 세대의 유업률보다 훨씬 낮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산업정책이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업체가 주로 남성근로자 중심으로 인력을 활용하고 여성인력의 경우 미혼중심으로 활용한데 기인한다. 1947-51년생 이후

<그림 VI-3> 연도별 세대별 여성의 연령별 유업률 곡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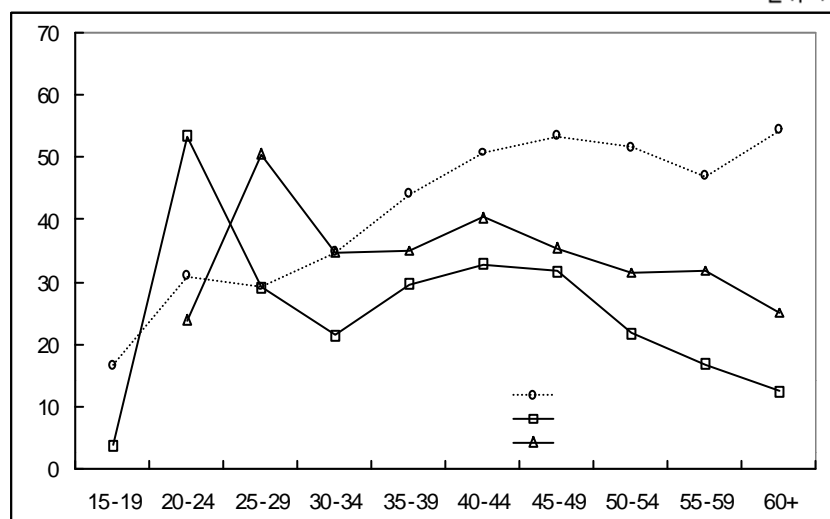
의 세대를 보면 최근 세대로 올수록 미혼시기의 유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에, 30세 이후의 기혼시기의 유업률은 소폭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최근 세대로 올수록 연령별 유업률 곡선의 1차 정점과 2차 정점의 격차는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유업률 곡선에서 저점에 해당되는 25-29세 연령층의 유업률을 보면 1952-56년생 세대까지는 하락을 보였다. 그러나 그 이후 세대(혹은 1980년)부터는 점차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는데, 특히 1992-96년생(혹은 1990년) 이후부터는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력별로 구분하여 여성의 연령계층별 유업률 곡선을 보면 <그림 VI-4>와 같다. 먼저 중졸이하 여성의 유업률 곡선을 보면 15-19세부터 20-24세까지 증가하였다가 결혼·출산 연령대인 25-29세에서 약간 하락한 이후에, 45-49세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에 비해 고졸여성의 연령별 유업률 곡선은 1차 정점이 2차 정점보다 훨씬 높은 M자형을 나타내었다. 또한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퇴출률이 59.9%로서, 결혼전에 취업상태에 있었던 고졸여성 취업자의 약 60%는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해서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4> 학력별 과거연령계층별 유업률 추이

단위: %



대졸여성의 연령별 유업률 곡선은 고졸과 비슷한 1차 정점이 2차 정점보다 훨씬 높은 M자형이었다. 다만 고졸과는 달리 20-24세가 아니라 25-29세에서 1차 정점을 나타내었고, 결혼 및 출산으로 하는 30-34세대에 취업여성의 31.3%가 퇴출하였다. 이러한 퇴출율은 고졸의 약 60%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다. 즉, 대졸여성 취업자는 고졸보다 결혼·출산시기에도 계속 취업하는 여성비율이 높았다. 그 결과 대졸여성의 연령별 유업률 곡선을 고졸과 비교하면 1차 정점은 낮으나, 2차 정점은 고졸보다 높은 특징을 보였다.

나. 과거연령별 취업구조

조사된 여성집단을 5세 단위로 구분하여 세대별 임금근로자 비율(혹은 피용자 비율)을 보면 <그림 VI-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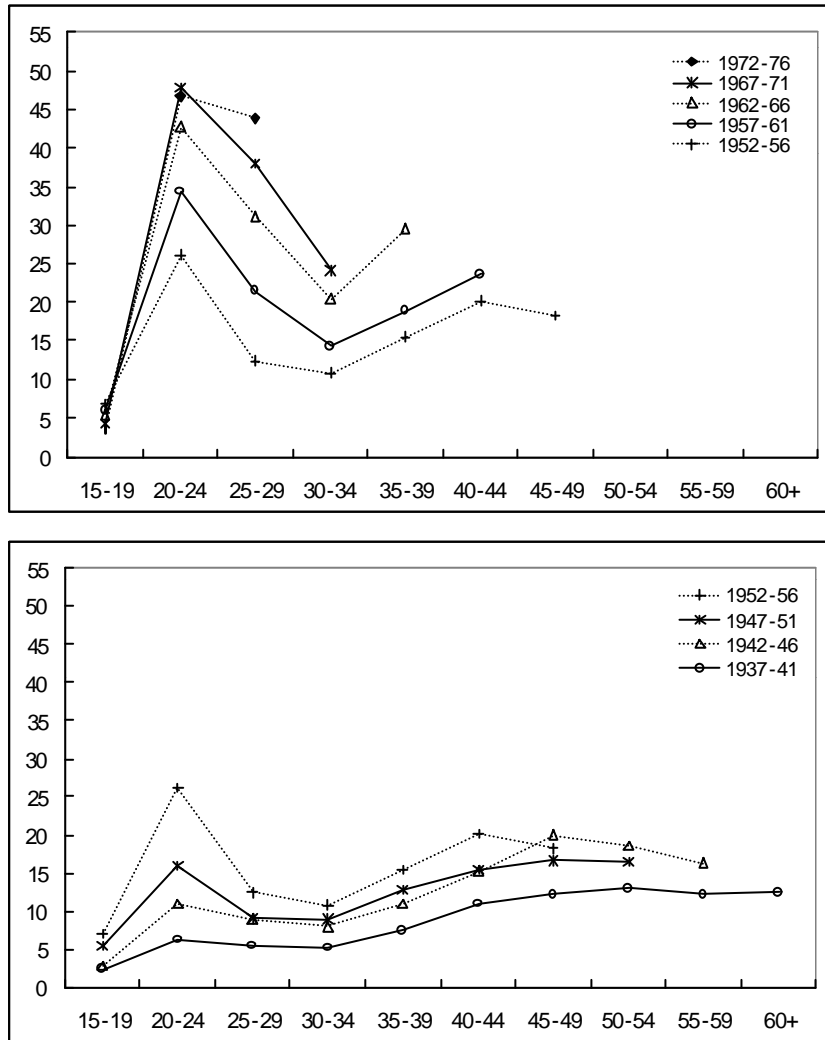
먼저 1952-56년생부터 1972-76년생의 연령계층별 피고용율(즉, 해당 연령인구에 대한 임금근로자비율)의 변화를 보면, 최근 세대로 올수록 피고용율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즉, 1952-56년생의 경우 20-24세 여성의 26.2%가 임금근로자이었으나, 1972-76년생은 이러한 비율이 46.6%로 증가하였다. 또한 여성 임금근로자의 상당수는 결혼·출산·육아를 하는 30-34세에 노동시장을 퇴출함에 따라, 30-34세의 피고용율은 급격히 하락한다. 그리고 최근 세대로 올수록 연령별 피고용율이 상향 이동함에도 불구하고, 30-34세의 피고용율의 증가폭은 다른 연령대의 피고용율 증가폭보다 훨씬 낮은 특징을 보였다.

1937-41년생부터 1952-56년까지의 연령별 피고용율 곡선의 변화를 보면 1952-56년생의 경우 피고용율 비율이 모든 연령층에서 13%를 넘지 않았다. 즉, 이들 연령층 여성집단은 임금근로자로서 경제활동을 한 여성비율이 극히 적었다. 1937-41년생부터 최근 세대로 올수록 피용자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25-29세 연령층에서 노동시장을 퇴출하는 여성비율도 계속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그러나 피용자비율의 증가는 주로 20-24세 연령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40대~50대 초반의 연령의 여성에서도 다소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1937-41년생부터 1972-76년생으로 올수록 여성의 연령별 피용자비

올 곡선은 연령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곡선에서 1차 정점이 2차 정점보다 훨씬 높은 M자형 곡선으로 급격히 변화되었다.

세대별 여성의 연령별 피용자비율의 변화는 산업화과정에서 급격히 변화된 산업구조 및 기업의 여성인력활용정책과 많은 연관이 있다. 이에 따라 연도별로 여성의 연령별 피용자비율 곡선을 분석하였다.

<그림 VI-5> 세대별 과거연령계층별 피고용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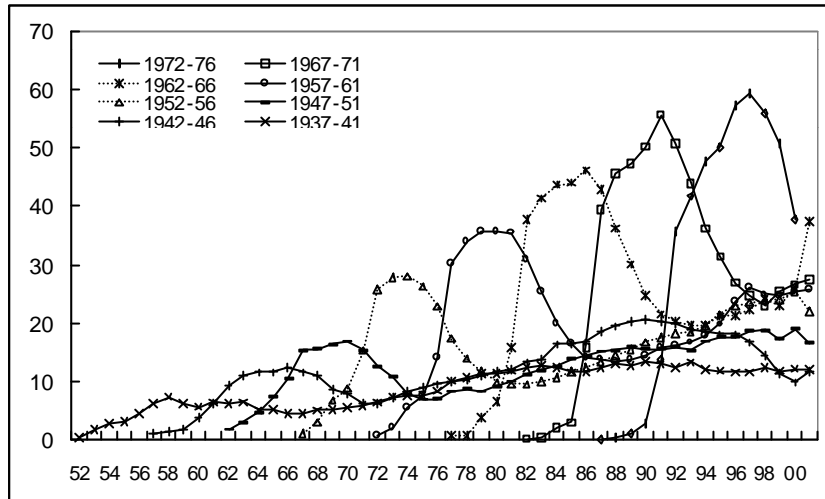
먼저 각 세대의 연령별 피용자비율 곡선에서 피용자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대략 25세 전후)의 피용자비율 변화를 보면, 1965~75년 사이에 약 15% 포인트 정도 증가하였다.³⁸⁾ 그러나 1975년 이후부터는 대략 5년 단위로 약 8~10% 포인트씩 증가하기 시작하여, 25세 전후로 한 여성의 피용자비율이 1974년 28.1%에서 1991년에는 55.8%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1990~97년에는 약 4% 포인트가 증가하여, 25세 여성 피용자 비율이 1997년에 59.4%가 되었다.

1960년 이후 25세를 전후로 한 여성의 피용자 비율이 이와 같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임금근로자, 특히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미혼 여성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데 기인한다. 여성 피용자비율은 25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30세 경에 최저점에 도달한다. 30세 정도에 나타나는 이러한 저점도 1960년대초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이 25세를 전후로 한 피용자비율보다는 훨씬 낮았다. 즉, 30세(저점)의 피용자비율은 1966년에 4.2%에서 1981년에 9.5%이었고, 1993년에 19.7%, 1998년에 23.1%를 기록하였다.

연령계층별 피용자비율 곡선을 교육수준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중졸이하 여성은 전반적으로 피용자 비율이 낮았다(<그림 VI-7>). 그리고 이들 여성집단의 경우 피용자비율이 미혼시기보다는 40-54세의 중·장년에서 약간 더 높은 특징을 보였다. 이에 비해 고졸여성의 연령별 피용자비율 곡선을 보면 20-24세에 50.3%를 보였다가, 그 이후부터 급격히 하락하여 30-34세에는 10.8%가 되었다. 이와 같이 하락된 피용자 비율은 그 이후 약간 상승한 이후에 다시 하락하였다. 즉, 중졸이하 여성집단은 미혼시기에 임금근로자로 경제활동을 하다가 결혼 및 출산과 더불어 퇴직하고, 기혼시기에는 거의 임금근로자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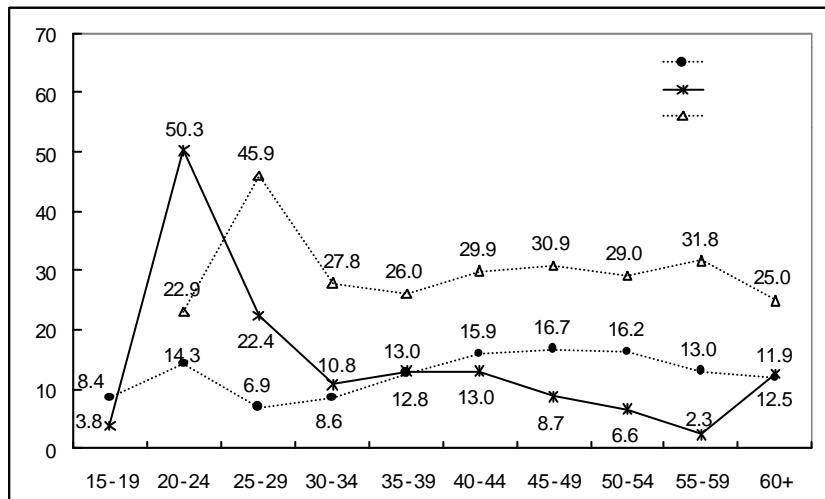
38) 여성의 피용자비율이 정점에 도달한 연령은 세대별로 다소 차이를 보여, 1937-44년생은 21세, 1942-46년생은 24세, 1947-51년생은 23세, 1952-56년생은 22세, 1957-61년생은 23세, 1962-66년생은 24세, 1967-71년생은 24세, 1972-76년생은 25세이었다.

<그림 VI-6> 연도별 세대별 여성의 연령별 피용자 비율
단위: %



대졸여성의 경우 25-29세에 45.9%로 피용자비율이 정점에 도달한 이후, 그 이후에는 피용자비율이 하락한다. 그러나 하락하는 폭이 25-29세의 45.9%에서 35-39세에 26.0%로 고졸집단보다 훨씬 적다. 뿐만 아니라 40세 이후부터는 피

<그림 VI-7> 학력별 과거연령계층별 피고용률 추이
단위: %



용자비율이 약간 상승하여 30% 내외 수준으로 59세까지 지속되었다. 즉, 대졸 이상 여성임금근로자는 결혼·출산시기에 직장을 그만 두는 비율이 다른 학력 집단보다 훨씬 낮고, 또한 30대 초반의 피용자비율이 59세까지 지속되는 특징을 나타냈다.

다. 생애단계별 노동시장 참가 현황

1) 생애단계별 유업률과 피고용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결혼, 첫자녀 출산, 막내자녀의 출산 및 취학여부 등과 같은 생애사건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생애단계별로 여성의 유업률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생애사건을 전후로 한 유업률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1년 직전 혹은 직후의 경제활동상태를 기준으로 하였다.

조사된 여성의 최종학교 졸업 직후의 유업률은 34.8%이었다.³⁹⁾ 이러한 유업률은 첫 결혼 직전에는 43.7%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결혼 직후에는 유업률이 22.6%로 급격히 하락하여, 결혼과 더불어 취업여성의 절반 이상이 노동시장을 퇴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자녀 출산 직전의 유업률은 29.5%로서 결혼 직후보다 약간 상승하는데, 이것은 자영업을 하는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에는 남편을 돕기 위해서 무급가족종사자로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등 결혼과 더불어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여성이 약간 증가한데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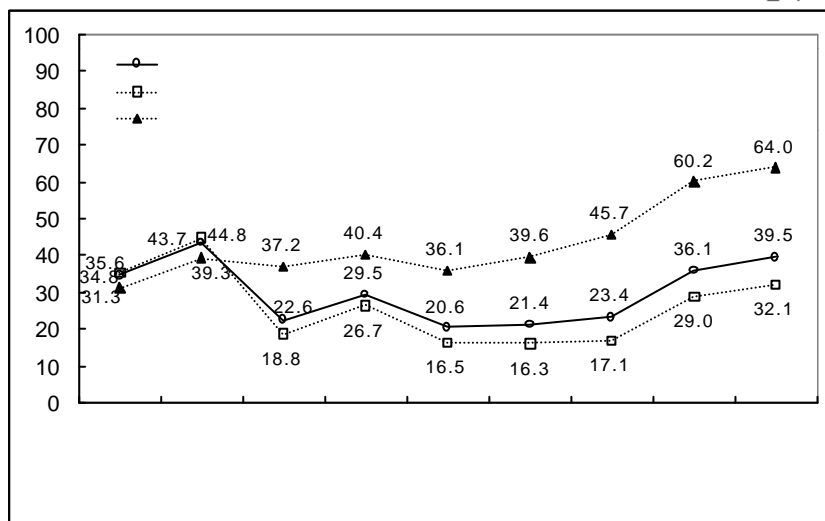
첫 자녀 출산 직후의 유업률은 20.6%로 주요 생애단계에서 가장 낮은 취업률을 나타낸다. 그 후 유업률은 증가세로 반전하지만 막내자녀 출산 후까지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막내자녀의 출산 후부터 초등 입학 직전까지의 기간 사이에 유업률이 12.7%포인트나 증가하여 막내자녀 초등학교 직전의 유업률은 36.1%이었다. 이러한 유업률은 막내자녀 입학과 함께 약간 더 증가하여, 막내자녀 초등학교 입학 직후의 유업률은 39.5%가 되었다.

39) 최종학교 졸업 연령이 15세 이하인 경우에는, 15세의 경제활동상태를 최종학교 졸업 직후의 경제활동상태로 하였다.

또한 생애단계별 유업률 곡선의 변화는 부문별로 상당한 대조를 이루었다. 먼저 읍·면부의 생애단계별 여성 유업률 곡선은 생애사건에 의해서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즉, 최종학교 졸업직후 31.3%이었던 유업률은 결혼직후, 첫 자녀 직후에 약간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동부의 여성 유업률 곡선은 생애단계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즉, 결혼과 더불어 동부에 거주하는 여성 취업자의 약 70%가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첫 자녀 출산과 함께 다시 일부 여성 취업자가 직장을 그만 두었다. 그 결과 첫 자녀 출산직후의 유업률은 16.5%가 되었고, 이러한 유업률 수준은 막내자녀 출산직후 까지 지속되었다.

<그림 VI-8> 학력별 과거연령계층별 유업률 추이

단위: %



생애단계별 여성의 고용구조를 보면 최종학교 졸업직후에는 여성 취업자의 84.1%가 상용근로자이다. 그러나 결혼직후에는 여성 취업자의 41.4%만이 상용근로자이고, 39.1%는 무급가족종사자, 12.5%는 고용주 및 자영업자이다. 결혼을 전후로 여성 취업자 수의 변화를 보면, 먼저 전체 여성 취업자 수는 1,522명에서 783명으로 급격히 하락하였다(<표 VI-5> 참고). 이를 종사상지위별로 보

면 여성 상용근로자 수가 결혼과 함께 1,207명에서 324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여성 무급가족종사자 수는 139명에서 306명으로, 자영업자는 75명에서 98명으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결혼과 함께 여성 상용근로자의 상당수는 직장을 그만 두는 반면에, 남편과의 결혼한 이후에 여성의 상당수는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영업자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기인한다.

<표 VI-5> 생애단계별 여성의 취업상태 변화

단위: %(명)

	최종학교 졸업직후	결혼 직전	결혼 직후	첫출산 직전	첫출산 직후	막내 출산전	막내 출산후	막내 입학전	막내 입학후
	전 체								
취업자수	100.0 (1,356)	100.0 (1,522)	100.0 (783)	100.0 (986)	100.0 (677)	100.0 (577)	100.0 (615)	100.0 (810)	100.0 (820)
자영업자	1.9	4.9	12.5	7.5	13.7	14.0	14.3	17.9	17.0
무급가족	8.6	9.1	39.1	26.8	45.5	51.1	56.1	47.8	46.0
상용고	84.1	79.3	41.4	58.6	34.0	27.9	22.3	22.3	23.4
임시일고	5.4	6.6	7.0	7.1	6.8	6.9	7.3	12.0	13.7
	동 부								
취업자수	100.0 (1,114)	100.0 (1,239)	100.0 (517)	100.0 (705)	100.0 (431)	100.0 (343)	100.0 (351)	100.0 (505)	100.0 (512)
자영업자	1.7	4.7	12.8	6.8	15.3	15.2	16.2	20.4	19.1
무급가족	4.8	5.6	21.3	12.6	26.2	31.2	36.2	32.7	31.4
상용고	88.0	83.1	57.4	73.3	50.3	44.6	37.6	31.7	32.0
임시일고	5.5	6.5	8.5	7.2	8.1	9.0	10.0	15.2	17.4
	음 연 부								
취업자수	100.0 (242)	100.0 (283)	100.0 (266)	100.0 (281)	100.0 (246)	100.0 (234)	100.0 (264)	100.0 (73)	100.0 (308)
자영업자	2.9	6.0	12.0	9.3	11.0	12.4	11.7	13.8	13.3
무급가족	26.0	24.4	73.7	62.3	79.3	80.3	82.6	72.8	70.1
상용고	66.1	62.5	10.2	21.7	5.3	3.4	1.9	6.9	9.1
임시일고	5.0	7.1	4.1	6.8	4.5	3.8	3.8	6.6	7.5

여성 취업자 중에서 상용고가 차지하는 구성비는 첫 자녀 출산직전에 약간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 생애단계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이에 비해 무급가족종사자의 구성비는 결혼직후부터 막내자녀 출산직후까지 계속 증가되다가, 그 이후부터 하락하였다. 자영업자의 구성비는 결혼직후부터 생애단계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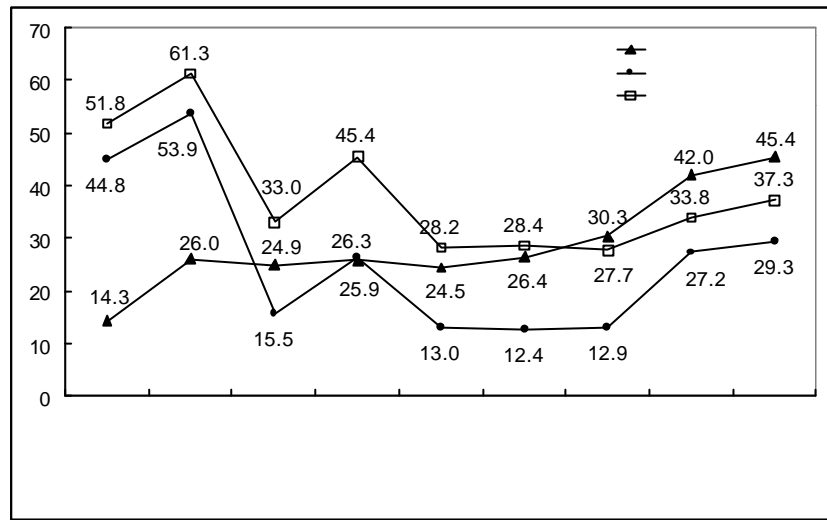
지역별로 구분하여 생애단계별 여성의 고용구조를 보면, 먼저 동부의 경우 최종학교 졸업직후에 여성 취업자의 88.0%가 상용고이었다. 그러나 결혼과 함께 상용고의 구성비는 급격히 하락한 반면에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영업자의 구성비는 증가하였다. 상용고 구성비는 첫 자녀출산직전에 약간 증가하나, 첫 자녀 출산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구성비는 첫 자녀 출산직전에 약간 하락하나, 전반적으로 결혼 이후에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읍·면부를 보면 최종학교 졸업직후 여성 취업자의 66.1%가 상용고이고 26.0%는 무급가족종사자이었다. 결혼과 함께 상용고의 구성비는 10.2%로 급격히 하락하고, 무급가족종사자의 구성비는 73.7%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결혼과 함께 읍·면부에 종사하는 여성의 상당수가 농어업부문에 무급가족종사자로서 새롭게 경제활동에 참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성 무급가족종사자의 구성비는 첫 출산직전에 약간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결혼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막내자녀 출산직후에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 취업자의 82.6%가 무급가족종사자이었다.

여성집단을 학력별로 구분해서 생애단계별 유업률 변화를 보면 <그림 VI-9>와 같다. 고졸과 대졸이상 여성의 생애단계별 유업률 변화는 유업률의 높이를 제외하면 상당히 유사하다. 즉, 결혼과 더불어 유업률이 급격히 하락하였다가 첫 자녀 출산직전에 약간 증가한 이후에 출산과 함께 더욱 하락한다. 첫 자녀 출산이후에 하락된 유업률 수준은 막내자녀 출산직후까지 지속되다가, 막내자녀 출산직후부터 점차 유업률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다만 대졸여성의 경우 결혼이나 첫 자녀출산에 따른 퇴직률이 고졸보다 낮았다. 그리고 대졸의 막내자녀 출산이후 재취업율은 고졸보다 낮았다.

중졸이하 여성은 고졸이나 대졸과는 상당히 다른 패턴을 보였다. 즉, 중졸여성은 결혼 직전의 유업률 수준이 막내자녀 출산직전까지 유지되었다가, 막내자녀 출산 이후부터 다시 증가하였다.

<그림 VI-9> 학력별 생애단계별 여성의 유업률 변화
단위: %



학력별 여성의 생애단계별 종사상지위를 보면 대졸이상 고학력 여성 취업자 집단은 결혼이나 출산이후에 상용고로 일하는 비율이 다소 하락했으나, 모든 생애단계에서 상용고 비율이 68%~90%를 유지하였다.

고졸 여성 취업자는 결혼직전에 상용고의 비율이 약 90% 수준이었으나, 결혼 직후에는 60% 그리고 첫 자녀 출산직후에는 46%로 하락하였다. 그리고 첫 자녀 출산이후부터는 이러한 상용고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이에 비해 결혼직후, 출산직후부터 무급가족종사자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막내자녀 출산직후에는 43.8%에 달했다. 이 외에 고졸여성은 결혼 및 출산이후에 고용주나 자영업자로 일하는 여성비율도 늘어나서 첫 자녀출산 이후 18.8%를 유지하였다.

< 표 VI-6 > 학력별 여성의 생애단계별 고용구조

단위: %(명)

	최종학교 졸업직후	결혼 직전	결혼 직후	첫출산 직전	첫출산 직후	막내 출산전	막내 출산후	막내 입학전	막내 입학후
	중졸 이하								
취업자수	100.0 (212)	100.0 (375)	100.0 (360)	100.0 (365)	100.0 (346)	100.0 (333)	100.0 (381)	100.0 (515)	100.0 (548)
자영업자	2.8	5.3	13.3	9.6	13.3	14.1	13.1	16.1	15.5
무급가족	47.2	30.9	71.1	63.3	72.8	73.9	74.5	61.0	57.7
상용고	41.5	51.5	8.3	19.2	6.4	4.5	4.5	12.0	13.7
임시일고	8.5	12.3	7.2	7.9	7.5	7.5	7.9	10.9	13.1
	고 졸								
취업자수	100.0 (706)	100.0 (757)	100.0 (216)	100.0 (352)	100.0 (170)	100.0 (128)	100.0 (128)	100.0 (206)	100.0 (190)
자영업자	1.4	4.8	14.4	6.5	18.8	18.8	18.8	24.3	23.2
무급가족	2.0	2.4	19.0	8.2	28.2	35.2	43.8	31.1	27.9
상용고	92.9	88.2	59.7	78.7	46.5	40.6	29.7	28.2	32.1
임시일고	3.7	4.6	6.9	6.5	6.5	5.5	7.8	16.5	16.8
	대졸 이상								
취업자수	100.0 (438)	100.0 (390)	100.0 (207)	100.0 (269)	100.0 (161)	100.0 (116)	100.0 (106)	100.0 (89)	100.0 (82)
자영업자	2.3	4.9	9.2	5.9	9.3	8.6	13.2	13.5	12.2
무급가족	0.7	1.3	4.3	1.5	5.0	3.4	4.7	10.1	9.8
상용고	90.4	88.7	79.7	85.9	80.1	81.0	77.4	68.5	68.3
임시일고	6.6	5.1	6.8	6.7	5.6	6.9	4.7	7.9	9.8

중졸이하 저학력 여성 취업자는 결혼직전에 51.5%가 상용고, 30.9%가 무급가족종사자, 12.3%가 임시·일용고이었다. 그러나 결혼과 더불어 상용고의 비율은 8.3%로 급감한 반면에,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은 71.1%로 증가하였다. 중졸여성의 경우 결혼과 함께 여성 취업자의 절대적인 숫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무급가족종사자 숫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자영업자 숫자도 증가하였다.

2) 여성의 신규 노동시장 참가 현황

여성이 학교를 졸업하고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취업되었을 때의 종사상지위를 보면 <표 VI-7>과 같다. 나이가 60~64세인 1937-41년생 여성은 59.0%가 비임금근로자 그리고 41.0%가 임금근로자로 처음 취업되었다. 이를 좀 더 세분해서 보면 45.1%는 무급가족종사자, 13.9%는 고용주나 자영업자, 21.9%는 상용고, 19.1%는 임시 및 일용고로 취업했었다. 이러한 초직(初職)의 종사상지위별 분포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937-41년생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의 농어업중심의 산업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1937-41년생 이후 점차 최근 세대로 올수록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하락하고 임금근로자 비율은 증가하였다. 특히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은 급감하여 1957-61년생 여성의 초직 중에서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은 9.7%에 불과하였다. 이와 함께 고용주나 자영업자, 임시 및 일용고로 처음 직장을 갖는 여성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초직을 상용고의 신분으로 취업한 여성비율은 최근 세대로 올수록 증가하여, 이러한 비율은 1937-41년생의 21.9%에서 1972-76년생은 89.1%에 달했다.

<표 VI-7> 세대별 취업여성의 초직의 종사상지위

단위: %

	비임금 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임금 근로자	상용고	임시/ 일고	전체
1972-76	2.5	1.0	1.5	97.5	89.1	8.4	100.0
1967-71	7.3	4.0	3.3	92.7	84.4	8.3	100.0
1962-66	10.6	5.8	4.8	89.4	81.8	7.7	100.0
1957-61	18.2	8.5	9.7	81.8	69.5	12.3	100.0
1952-56	29.7	11.7	17.9	70.3	57.5	12.9	100.0
1947-51	43.7	13.9	29.8	56.3	43.4	12.9	100.0
1942-46	51.3	15.2	36.1	48.7	34.9	13.8	100.0
1937-41	59.0	13.9	45.1	41.0	21.9	19.1	100.0

세대별로 여성 취업자의 초직을 업종별로 구분해보면, 1937-41년생의 여성의

초직은 50.0%가 농어업에 속했다. 그리고 나머지 15.7%는 제조업, 14.7%는 공공 및 사회, 개인서비스업, 8.7%는 도소매업, 7.0%는 음식숙박업에 처음 취업되었다. 이러한 여성 초직의 업종별 분포는 세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여서, 최근 세대로 올수록 처음 일자리가 농어업부문에 속하는 여성비율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초직이 공공 및 사회, 개인서비스업에 속했던 여성비율은 최근 세대로 올수록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고, 금융보험업에 속했던 여성비율도 증가하였다. 초직이 전통적으로 남성이 많이 진출한 건설업, 운수통신업에 속했던 여성비율은 미미하게 증가하였으나 연령이 30-34세이었던 1967-71년생 여성부터는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그 이전 세대인 1937-41생부터 1962-66년생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962-66년생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과 다른 양상이다. 초직이 음식·숙박업에 속했던 여성 취업자 비율도 1952-56년생을 기점으로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제조업과 음식·숙박업에 속했던 초직비율이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증가에서 감소세로 전환한 것은 여성의 고학력화 현상과 1990년을 전후로 한 제조업의 위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VI-8> 세대별 취업여성의 초직의 업종

단위: %

	농 어업	광업	제조 업	전기 가스	건설 업	도소 매	음식 숙박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서비 스	전체
1972-76	0.0	0.0	21.3	1.0	4.9	15.6	3.3	4.4	14.4	35.1	100.0
1967-71	0.9	0.0	34.1	0.4	5.2	14.1	3.9	4.3	8.9	28.3	100.0
1962-66	1.9	0.2	35.1	0.6	1.7	13.6	4.4	4.4	10.0	28.2	100.0
1957-61	4.1	0.0	33.5	0.6	2.2	15.0	9.7	3.0	7.7	24.2	100.0
1952-56	12.0	0.0	32.9	0.2	0.9	14.7	12.4	3.2	5.5	18.0	100.0
1947-51	23.3	0.0	25.9	0.0	1.0	15.5	9.7	1.9	5.2	17.5	100.0
1942-46	32.3	0.4	21.6	0.0	1.5	16.0	6.7	2.6	3.0	16.0	100.0
1937-41	50.0	0.0	15.7	0.0	1.4	8.7	7.0	1.7	0.7	14.7	100.0
전 체	12.0	0.1	29.0	0.4	2.5	14.3	7.1	3.4	7.5	23.8	100.0

세대별로 여성 취업자의 초직을 직종별로 구분해보면, 1937-41년생의 여성 초직의 직종분포의 경우 48.1%가 농어업 숙련근로자, 18.5%가 단순노무직, 그리고 10.1%, 9.1%, 8.0%가 각각 기능공, 서비스직, 판매직이었다. 이러한 초직의 직종별 구성은 세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즉, 최근 세대로 올수록 농어업 숙련근로자와 단순노무직의 구성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사무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였고, 관리자/전문가, 준전문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진적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초직에서 서비스직과 판매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1937-41년생에서 1952-56년생까지는 증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는데, 그 이후 세대에서 최근 세대로 올수록 서비스직과 판매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초직의 직종이 기능공, 기계조작공 및 조립공인 여성비율도 각각 1952-56년생, 1957-61년생을 기점으로 증가에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초직의 직종별 구성비 변화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성의 고학력화 현상과 산업구조의 변화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표 VI-9> 세대별 취업여성의 초직의 직종

단위: %

	관리자/ 전문가	준 전문가	사무 직원	서비 스직	판매직	농 어업직	기능공	기계 조작공	단순 노무직	전체
1972-76	14.3	11.0	48.0	6.4	10.2	0.0	9.2	0.0	1.0	100.0
1967-71	12.3	11.4	42.6	6.8	8.3	0.9	13.2	0.4	4.0	100.0
1962-66	13.9	8.3	37.7	7.0	9.1	1.7	17.4	0.2	4.8	100.0
1957-61	8.9	5.6	30.5	12.3	11.5	3.5	16.4	1.3	10.0	100.0
1952-56	6.2	3.0	21.2	13.8	12.2	10.8	20.5	1.2	11.1	100.0
1947-51	5.5	2.6	15.9	13.9	12.0	23.0	16.2	0.6	10.4	100.0
1942-46	6.7	2.2	6.7	9.7	12.6	32.0	12.3	1.1	16.7	100.0
1937-41	2.4	0.3	3.5	9.1	8.0	48.1	10.1	0.0	18.5	100.0
전 체	9.4	6.2	28.7	9.7	10.4	11.5	14.8	0.6	8.6	100.0

라. 결혼과 고용구조 변화

1) 결혼과 경제활동상태 변화

우리 나라 여성의 생애사건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를 보면, 우리 나라 여성의 경우 결혼과 더불어 경제활동인구의 절반 정도가 노동시장을 퇴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결혼이 우리 나라 여성고용구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침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결혼을 전후로 한 여성의 경제활동상태 및 고용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먼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결혼을 전후로 하여 결혼 1년 전과 결혼 1년 후에 모두 취업상태에 있었던 '계속취업자' 비율은 14.2%이었다. 그리고 결혼직전에는 비취업상태에 있다가 결혼 직후에 취업한 '결혼후 신규취업자' 비율이 8.4%, 결혼직후 직장을 그만둔 '결혼후 퇴직자' 비율이 29.2% 그리고 결혼과 관계없이 계속 비취업상태에 있었던 여성비율이 48.2%이었다. 즉,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 여성 중에서는 결혼과 함께 직장을 그만 두는 여성비율이 상당히 높고, 또한 결혼과 함께 새롭게 일을 하게 되는 여성비율도 8.4%나 되었다.

<표 VI-10> 결혼 전후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단위: %

	계속 취업자	결혼후 신규취업	재취업자	결혼후 퇴직	계속 무업자	전체
결혼 1년후	14.2	8.4	0.0	29.2	48.2	100.0
2년후	11.9	9.7	2.9	28.1	47.4	100.0
3년후	10.9	10.6	4.6	26.5	47.4	100.0
4년후	10.2	11.9	5.8	25.4	46.7	100.0
5년후	9.6	12.9	6.7	24.3	46.4	100.0
6년후	9.3	14.2	7.8	22.9	45.9	100.0
7년후	9.0	15.7	8.1	21.8	45.5	100.0
8년후	8.4	17.0	8.9	20.4	45.3	100.0
9년후	8.3	18.8	9.5	18.8	44.6	100.0
10년후	8.2	20.8	9.9	17.4	43.7	100.0
15년후	7.9	29.1	11.0	11.8	40.3	100.0

결혼 이후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여성 집단의 구성비는 변화를 보였는데, 계속취업자 비율은 결혼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결혼후 5년차에는 9.6%로 감소하고 그리고 10년 차에는 8.2%로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결혼 2년차부터 재취업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재취업자 비율은 해당 여성의 2.9%정도이었다.⁴⁰⁾ 이러한 재취업 여성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결혼 5년차에는 6.7%, 결혼 10년차에는 약 10%에 해당하였다. 결혼 전에 비취업상태에서 결혼이후에 취업상태로 전환한 여성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결혼직후에는 8.4% 정도가 새롭게 취업자로 전환되었으나, 5년차에는 12.9% 그리고 10년차에는 20.8%나 되었다.

이에 비해 결혼 이후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결혼 이후 퇴직자 비율과 계속해서 비취업상태에 있는 여성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즉, 결혼직후에 일자리를 그만둔 여성비율이 29.2%에 달했다가, 점차 그 규모가 감소하여 결혼 10년차에는 17.4%가 되었다. 그리고 결혼전 뿐만 아니라 결혼 이후에도 계속 비취업상태에 있는 여성 비율도 계속 감소하였으나, 감소 폭이 상당히 적어서 결혼 1년차에 48.2%, 5년차에 46.4% 그리고 10년차에 43.7%이었다.

2) 계속취업자의 특성

결혼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취업상태에 있는 여성 집단의 특성을 보면, 먼저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결혼 이전에 취업상태에 있다가 결혼 이후에 비취업상태로 전환한 여성 취업자 비율(이하 '퇴출율'이라고 함)의 경우⁴¹⁾, 여성 상용근로자가 가장 퇴출율이 커서 76.6%이었다. 즉, 여성 상용직근로자의 76.6%가 결혼과 함께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퇴출율이 높은 집단은 여성 임시·일용고로 70.3%이었다. 그러나 결혼 전에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했던

40) 재취업자는 결혼전에 취업상태에 있다가 결혼이후에 퇴직을 하였다가, 다시 취업한 집단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재취업집단에는 한번 재취업했다가 다시 직장을 그만둔 집단도 포함시켰다.

41) 퇴출율 = (결혼 이전에 취업상태에 있다가 결혼 이후에 비취업상태로 전환한 취업자 수 / 결혼전 취업자 수) × 100. 숫자가 클수록 결혼과 함께 퇴직한 여성 취업자가 많음을 의미함.

여성 취업자는 퇴출율이 10.1%에 불과하였고, 고용주 및 자영업자도 21.0%로 상당히 낮았다. 즉, 결혼과 함께 일자리를 그만 두는 여성 취업자의 대부분은 직장과 가정 일의 병존이 힘든 임금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VI-11 > 결혼 전후의 여성 계속취업자의 종사상지위

단위: %(명)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상용고	임시일고	전체
결혼전	4.9 (75)	9.1 (139)	79.3 (1,207)	6.6 (101)	100.0 (1,522)
결혼 1년후	11.0 (54)	25.4 (125)	57.5 (283)	6.1 (30)	100.0 (492)
2년후	11.1	30.4	52.5	5.9	100.0
3년후	11.6	32.8	50.1	5.5	100.0
4년후	11.4	35.8	47.3	5.4	100.0
5년후	11.7	38.8	44.0	5.5	100.0
6년후	11.1	41.0	42.4	5.6	100.0
7년후	10.7	43.3	40.0	5.9	100.0
8년후	11.4	45.3	36.7	6.5	100.0
9년후	11.2	47.4	35.3	6.0	100.0
10년후	11.7	48.0	34.1	6.3	100.0
15년후	13.9	55.5	26.6	4.0	100.0

이러한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결혼 퇴출율의 차이로 인해서, 계속취업자의 결혼직전과 직후의 종사상지위별 구조는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즉, 결혼 이후에는 상용고의 구성비는 급격히 감소된 반면에 무급가족종사자와 고용주 및 자영업자의 구성비는 크게 증가되었다.

결혼 이후의 기간이 증가할수록 여성 상용근로자 중에서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은 더욱 증가함에 따라, 여성 계속취업자 중에서 상용고의 구성비는 계속 하락하였다. 이에 비해 여성 임시·일용고의 상당수는 결혼과 함께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그 이후에 직장을 그만두는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고용주 및 자영업자의 구성비 또한 결혼직후의 수준과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비해

무급가족종사자는 결혼 이후의 기간이 증가할수록 구성비가 계속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또한 계속취업자의 직종별 특성별을 살펴 보았다. 먼저 직종별 퇴출율의 경우 여성 생산직근로자가 가장 퇴출율이 높아서 83.5%이었고, 그 다음은 단순노무직 78.5%, 사무직 77.9%이었다.⁴²⁾ 이 외에 판매직 67.0%, 서비스직 59.5%, 그리고 전문직 및 준전문직이 54.8%이었다. 즉, 다른 직종보다도 결혼직전에 전문직과 판매직, 서비스직으로 일했던 여성 취업자들은 결혼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 생산직, 단순노무직, 사무직은 결혼과 함께 대부분이 직장을 그만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 취업자의 결혼직전과 직후의 직종구조는 상당히 다르다. 즉, 결혼 이후에 상대적으로 퇴출율이 낮은 전문직 및 준전문직의 구성비는 크게 증가하고, 서비스직과 판매직의 구성비도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생산직, 단순노무직 그리고 사무직의 구성비는 크게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결혼 이후 기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직종별 구성도 변화를 보였다. 즉, 여성 사무직근로자와 생산직근로자는 결혼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결혼 5년차에는 구성비가 각각 14.1%, 8.5%, 결혼 10년차에는 7.2%, 5.9%로 하락하였다. 그리고 전문직과 준전문직, 서비스직도 결혼 이후의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구성비가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결혼과 함께 높은 퇴출율을 보였던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결혼기간의 경과와 함께 구성비가 오히려 약간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노무직으로 일했던 여성근로자는 결혼과 함께 상당수가 일자리를 그만 두었으나, 결혼과 함께 일자리를 그만두지 않았던 집단은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일할 확률이 상당히 높음을 의미한다.⁴³⁾

42) 동 분석에서만 단순노무직에는 농어업 숙련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음.

43) 이 부분의 분석에서 단순노무직 직종에 농어업 숙련근로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농어업종사자가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일하는 것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 표 VI-12 > 결혼 전후의 여성 계속취업자의 직종별 구조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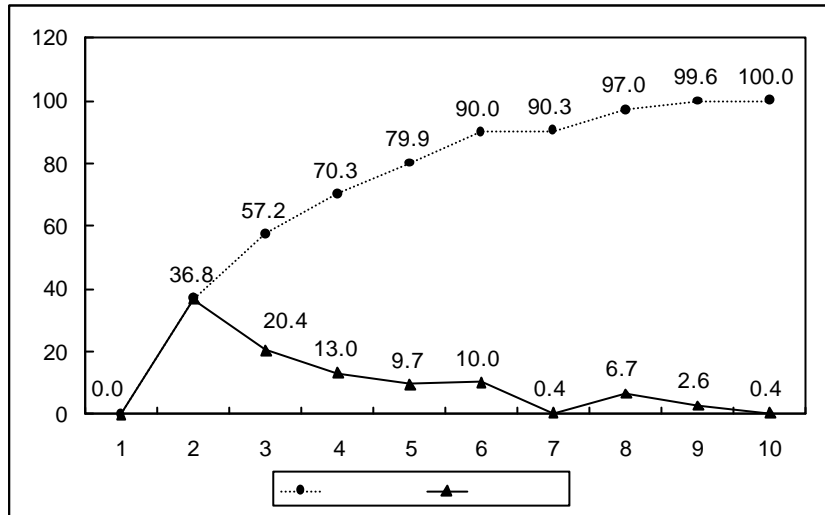
	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생산직	단순 노무직	전체
결혼 전	18.7 (283)	38.2 (579)	5.2 (79)	7.4 (112)	17.6 (267)	12.9 (196)	100.0 (1,516)
결혼 1년후	26.1 (128)	26.1 (128)	6.5 (32)	7.6 (37)	9.0 (44)	24.7 (121)	100.0 (490)
2년후	25.6	22.3	6.7	7.2	9.2	29.0	100.0
3년후	26.2	19.6	6.1	7.7	9.1	31.2	100.0
4년후	26.9	17.5	6.0	6.9	8.8	33.8	100.0
5년후	26.8	14.1	6.2	8.2	8.5	36.3	100.0
6년후	26.8	11.5	5.6	9.1	8.4	38.7	100.0
7년후	24.5	11.5	5.2	9.7	8.2	40.9	100.0
8년후	24.6	9.4	5.7	8.6	7.8	43.9	100.0
9년후	23.8	8.2	6.5	9.1	7.4	45.0	100.0
10년후	23.9	7.2	5.9	9.0	7.2	46.8	100.0
15년후	19.7	2.3	5.8	11.0	5.2	56.1	100.0

3) 재취업자의 특성

결혼 전에 취업상태에 있다가 결혼과 함께 직장을 그만 둔 이후에 다시 재취업하는 여성의 재취업시기별 분포를 보면 <그림 VI-10>과 같다. 결혼 이후 10년 이내에 재취업하는 여성 중에서 36.8%는 결혼직후 2년차에 재취업하였다. 그리고 3년차에 20.4%, 4년차에 13.0%가 재취업하여, 2~4년차 동안에 70.3%가 재취업하였다. 즉, 재취업하는 여성은 결혼과 함께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그만 두었다가, 1~3년 이내에 대부분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결혼 이후에 장기간 비취업상태에 놓인 여성은 재취업할 확률이 상당히 낮음을 의미한다.

<그림 VI-10> 여성 재취업자의 재취업시기별 분포

단위: %



재취업하는 여성들의 종사상지위별 분포를 보면 결혼 2년차에 재취업하는 여성의 상당수는 상용고이었고, 나머지 고용주 및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임시 및 일용고로 재취업하는 여성도 일부 있었다. 그리고 결혼 이후의 기간이 경과할수록 상용고의 구성비는 감소하는 반면에, 나머지 고용주 및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임시 및 일용고의 구성비는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재취업자의 취업직종을 보면, 결혼 3차에서 재취업한 여성의 31.7%는 전문직 및 준전문직에 취업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판매직, 사무직, 서비스직, 생산직에 각각 14~17%가 재취업되었고, 단순노무직에 9.8%가 재취업되었다. 결혼 이후의 기간별 재취업자의 취업직종을 보면 기간이 경과할수록, 전문직 및 준전문직, 사무직으로 재취업되는 여성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결혼 이후의 기간이 경과될수록 생산직, 판매직, 서비스직으로 재취업되는 구성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결혼 이후 비취업상태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전문직과 준전문직, 사무직에 재취업될 가능성은 줄어드는 반면에, 생산직, 판매직, 서비스직으로 재취업될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VI-13> 결혼 전후의 여성 재취업자의 종사상지위 분포

단위: %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상용고	임시일고	전체
결혼전	-	-	-	-	-
결혼 1년후	-	-	-	-	-
2년후	17.6	17.6	52.9	11.8	100.0
3년후	22.0	14.6	53.7	9.8	100.0
4년후	20.7	25.9	39.7	13.8	100.0
5년후	24.3	21.6	41.9	12.2	100.0
6년후	26.0	19.2	40.4	14.4	100.0
7년후	25.6	20.5	35.9	17.9	100.0
8년후	18.9	24.4	37.8	18.9	100.0
9년후	20.0	25.7	36.4	17.9	100.0
10년후	22.9	26.1	34.6	16.3	100.0
15년후	24.7	24.7	35.3	15.3	100.0

< 표 VI-14> 결혼 전후의 여성 재취업자의 직종별 구조

단위: %

	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생산직	단순 노무직	전체
결혼 1년후	-	-	-	-	-	-	-
2년후	35.3	17.6	0.0	41.2	0.0	5.9	100.0
3년후	31.7	14.6	14.6	17.1	12.2	9.8	100.0
4년후	19.0	19.0	19.0	22.4	6.9	13.8	100.0
5년후	18.9	20.3	20.3	20.3	8.1	12.2	100.0
6년후	21.4	18.4	23.3	18.4	8.7	9.7	100.0
7년후	16.4	17.2	23.3	22.4	10.3	10.3	100.0
8년후	11.8	16.5	24.4	23.6	13.4	10.2	100.0
9년후	10.0	15.7	23.6	24.3	15.7	10.7	100.0
10년후	11.1	15.7	21.6	24.8	15.0	11.8	100.0
15년후	7.3	12.0	22.7	24.0	20.7	13.3	100.0

VII

요약 및 결론

1985년 이후 여성취업실태조사가 4차에 걸쳐서 조사되었는데, 조사실시와 함께 여성노동시장 상황도 많은 변화를 보였다. 즉,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여성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나 가족의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도 많은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1997년 IMF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여성 취업자의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성고용구조는 상당히 악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1997년에는 여성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특히 학교를 졸업하고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고졸 및 대졸 여성실업문제가 심각해졌다. 제 4차 조사에서는 여성취업과 관련한 이와 같은 변화를 감안하여 조사항목을 다소 변화시켰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여성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을 실태 조사함으로써, 여성노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개발과 여성노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의 생산이라는데 의의를 갖는다.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주요한 연구결과들을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가구의 특성

본 조사의 표본가구는 동부 3,576가구, 읍면부 1,070가구로 77:23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5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은 단독가족, 부부가족, 직계가족 순 이었다. 동부는 핵가족, 확대가족이 높은 반면, 읍면부는 부부가족, 직계가족, 단독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3차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부부가족, 확대가족, 단독가구는 증가한 반면, 핵가족, 직계가족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한 가구 당 가구원수는 평균 2.98명으로 2차 조사의 3.26명보다 약간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본가구의 총소득 평균은 202만원 수준이었으며 동부의 경우는 약 212만원, 읍면부는 약 159만원으로 읍면부의 소득은 동부의 75%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3차 조사의 평균 총소득이 155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평균임금 수준이 상당히 향상된 것이다. 생활비의 주 조달방법은 봉급 및 임금이었으며, 다음

은 판매, 제조, 기타 자영업 소득, 농림·어·축산업에 의한 자영업 소득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66.2%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2) 가구원의 특성

본 표본가구의 가구원의 남녀 구성비는 49.9:50.1로 여성비율이 남성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동부와 읍면부의 인구분포도는 79.3:20.7였다. 저연령층은 남성이 많은 반면, 60세 이상의 고연령층에는 여자가 많이 나타났으며, 최근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듯 고연령층이 3차 조사와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63.8%, 이혼 및 별거가 2.7%로, 3차 조사결과에 비해 유배우율이 약간 감소한 반면, 이혼 및 별거비율은 1.5%포인트 증가하였다. 교육수준별로는 3차 때보다도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특히 대졸 이상의 학력이 증가되었으며 여성대졸자의 증가현상이 두드러진다. 가구원 중 돌봄이 필요한 피부양가구원의 비율은 13.2%였으며, 부양자 비율은 9.9%를 나타냈다. 특히 피부양자는 77.4%가 여성이었다.

가구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6.4%로, 남자는 70.5%, 여자는 43.3%였다. 지역별로는 읍면부의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동부보다 높으며 그 차이는 남성들간의 차이보다 훨씬 높다. 실업률은 3.2%로 남성은 3.5%, 여성은 2.9%이다. 가구주의 성별분포는 남자가 80.9%, 여자가 19.1%로 제 3차 조사에 비해 여자가구주의 수가 5.0%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동부보다 읍면부의 여성가구주 비율이 3.8%포인트 더 높았다.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1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은 4,758명으로, 이 중 동부에 거주하는 여성이 3,872명(81.4%), 읍면부에 거주하는 여성이 886명(18.6%)이었다. 조사 대상자 중 미혼비율은 24.9%였으며, 이혼여성의 비율이 3차 조사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다. 98.5%의 가구원은 가구주와 함께 살고 있었다. 연령분포는 30대가 24.3%로 가장 많고 다음은 40대, 20대, 50대, 20세 미만, 60세 이

상 순이었다. 3차 조사 때보다 20대가 4.1%포인트 줄고, 40대가 1.6%포인트 늘어 순위 바꿈을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교육정도는 고졸이 41.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초대졸 이상으로, 초대졸은 3차 조사보다 8.7%포인트나 증가하여 여성의 고학력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조사대상자 중 취업자는 41.8%, 실업자는 3.9%, 비경제활동자는 54.3%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남녀역할에 대한 태도 변화를 알아본 결과 지역별, 혼인상태별 남녀역할에 대한 태도는 의외로 커다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혼여성의 경우는 대체로 기혼여성에 비해 평등지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맞벌이 여부에 따른 남녀역할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혼인여부보다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맞벌이 여성의 경우에도 남녀역할에 대한 태도에 있어 남편외벌이 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조사대상 부부 상호간 경제활동상태 분포를 보면 전체 응답부부 3,033쌍 중 남편 혼자 취업한 부부가 47.3%로 가장 많으며, 맞벌이부부는 36.6%를 차지하고 있다. 부인만 취업한 가구는 3.6%에 지나지 않으며, 부인이 취업자이고 남편이 실업자인 부부는 1.2%로 나타났다. 남편, 부인 모두 비경제활동상태인 가구는 7.9%이었다. 조사대상자에 대해 여성취업과 결혼만족도에 대한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여성의 취업이 결혼생활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51.6%)고 응답하였다.

나. 여성 취업자의 고용구조와 특성

1) 여성경제활동 인구의 특성

4,758명의 조사대상 여성의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41.8%인 1,991명이 취업자이고, 3.9%(185명)가 실업자, 그리고 54.3%인 2,582명이 비경제활동인구이다. 우리 나라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아직까지 전형적인 M자형 곡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4차 조사에 나타난 M자형 곡선은 3차 때보다 비교적 기울기가 완만해졌다. 즉, 결혼, 출산, 육아, 자녀교육 시기에도 여성의

경제활동이 약간씩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변수들이 여성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들이 완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대상여성의 경제활동의 특징을 살펴보면, 초콜 미만의 경제활동 인구가 가장 많이 그리고 비교적 모든 연령대에 고루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고학력 여성 취업자일수록 대부분 임금근로자로서 취업하여 결혼이나 출산과 함께 퇴직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저학력 여성들은 무급가족종사자나 자영업자로 결혼이나 출산 이후에도 계속 취업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학력이 높을수록 35세 이상 59세 이하의 여성경제활동인구가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 나라 여성의 가족 내에서의 역할을 반영하고 있다. 즉, 여기에는 남성들이 한참 일할 나이인 이 연령대에 여성들은 가정에서 그들의 내조자로서, 또는 대학을 준비해야하는 자녀들을 돌보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더 충실해야 하는 중산층 가족관계가 반영되어 있다.

2) 여성 취업자의 고용구조

조사대상 여성 취업자는 산업별로 도소매숙박업(33.2%)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개인사회서비스업(30.1%)에 종사하였다. 반면, 제조업(15.0%) 종사자는 3차 조사보다 5.3%포인트 감소하였으며, 건설업(1.6%) 역시 1.1%포인트 감소하였다. 여성의 취업이 가장 저조한 산업은 전기·가스수도업이었다. 지역별로는 농어업광업 및 전기·가스수도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 걸쳐 동부 여성 취업자의 비율이 훨씬 높았으며, 동부여성의 취업이 가장 높은 산업은 도소매숙박업(35.1%) 및 개인사회서비스업(34.2%)이었다. 전기·가스수도업의 경우는 동부뿐만 아니라 읍면부의 여성 취업자가 상당히 증가한데 비해, 건설업의 경우 동부, 읍면부 모두 3차 조사 때보다 낮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본 조사결과 무엇보다도 최근 여성 취업자의 학력, 혼인상태(혹은 연령계층)별 구분이 많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각 업종마다 혼인상태별, 연령별, 학력별 차이가 많이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농어업광업은 기혼여성이, 개인사회서비스업은 미혼이 주로 종사하는 경향은 아직까지 의미있는 수준으로 존재한다. 여성취업업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역차이라고 할 수

있다. 농어업광업 및 전기가스수도업을 제외한 전 업종은 동부에 치중되어 있었다. 업종별 연령분포의 차이 역시 많이 줄었으나 농어업의 고연령화 및 개인사회서비스업의 저연령화 현상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여성 취업자의 인적특성별 가장 큰 특징은 농어업광업 종사자의 읍면부, 기혼, 고연령, 저학력화 현상과 개인사회서비스업의 동부, 미혼, 저연령, 고학력화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여성의 고용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연령 및 혼인상태에 따른 직종분리현상으로 요약되어진다. 즉, 노동시장에서의 저연령층의 미혼여성에 대한 선호도가 기혼여성을 고용구조가 열악하고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또다른 특징은 직종별 학력차이가 많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전문가의 경우는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이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단순노무직은 고졸이하 출신들이 주로 종사하고 있다. 사무직의 경우는 고졸과 초대졸의 출신들이 주로 분포하고 있었다. 학력별로 비교적 가장 고른 분포도를 보이고 있는 직종은 서비스판매직으로 3차 조사 때만해도 주로 고졸이하가 분포하고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학력별 차이를 많이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이상의 고학력자의 진출이 가장 저조한 직종은 조립/조작공이었다. 조사대상 여성 취업자들은 여전히 4인이하의 영세사업장에 과반수(51.5%)가 넘게 종사하고 있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전체 여성 취업자의 49.8%가 상용고였으며, 임시고 및 일용고는 17.6%이었다.

3) 여성 취업자의 근로조건

조사 대상 여성 취업자에게 현 직장 근무 시 어려운 점을 물어본 결과 노력에 비해 수입이 적다가 46.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일 자체가 많고 힘들다(20.0%), 일과 가사, 육아를 병행하기가 힘들다(10.0%),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진다(4.0%), 대인관계가 어렵다(4.0%), 작업환경이 너무 열악하다(4.0%), 자아발전이 어렵다(4.0%), 전문지식이 부족하다(2.0%), 기타(2.0%)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 한 것은 남녀차별에 부딪친다로 1.0%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취업자들에게는 노동운동의 가장 고전적인 문제인 임금과 노동시간이 근로조건에 있어 아직까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보면, 평균 주당근로시간은 46.1시간으로 3차 조사의 45.5시간보다 약간 증가하였다. 여성 취업자의 월 평균 소득은 970,858원이었다.

4) 비정규직 여성 취업자의 특성

IMF 외환위기 이후 추진되어 온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노동자가 급증하였으며, 비정규직의 여성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비정규직노동자라 할 수 있는 임시직 및 일용고의 비율은 전체 여성 취업자 중 17.6%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15-24세의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55-59세 비율이 가장 낮았다. 교육정도별로는 초졸미만이 가장 높고, 대졸 이상이 가장 낮았으며,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소득별로는 50-79만원 사이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80만원 이하의 소득자가 전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중 78.5%를 차지하고 있다. 상용직의 경우 37.6%만이 80만원 이하의 소득자인 점과 비교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짐작할 수 있다.

5) 여성의 직업훈련현황 및 효과

조사대상 여성 취업자의 직업훈련이수 현황을 보면, 조사대상 여성 취업자의 12.5%만이 직업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 직업훈련 이수율이 3차 조사의 13.8%보다 1.3%포인트 낮았다. 이렇듯 낮은 비율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확대정책의 효율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직업훈련을 이수한 여성 취업자 분포를 살펴보면, 직업훈련을 취업 전·후 모두 받은 여성이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3차 조사에서 보다 2.5%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반면, 취업 전과 후에만 받은 비율은 각 각 4.7%, 2.8%로 3차 조사에 비해 각각 1.5%포인트, 2.2%포인트 감소하였다.

직종별로는 서비스판매직의 직업훈련 이수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 사무직, 단순노무직, 기능직 순이었다. 취업이수율이 가장 낮은 직종은 전

문가, 입법행정관리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숙박업과 제조업의 이수율이 높았으며, 개인사회서비스업 및 농어업광업의 이수율은 낮았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임시고, 일용고의 직업훈련 이수비율이 높은 반면, 상용고, 자영업자는 낮았다.

직업훈련을 이수한 여성 취업자가 훈련한 기관을 살펴보면, 취업 전에 직업훈련을 이수한 여성 취업자 중 51.1%가 사설학원에서 훈련을 받았으며, 다음으로는 사업체(12.8%), 기타(12.8%), 공공기관(6.4%)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 후에 직업훈련을 이수한 여성 취업자는 대부분 사업체(42.0)에서 훈련을 받았으며, 다음으로는 사설학원(29.0%), 기타(11.0%), 공공기관(10.0%) 순으로 나타났다. 자신들이 이수한 직업훈련교육이 현재 일하는데 있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취업 전에 직업훈련을 받았던 여성 취업자의 89.4%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취업 후에 훈련을 이수한 여성의 경우는 91.1%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으로써 직업훈련의 효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직업훈련 이수율이 매우 낮은 것에 비해 그 효과는 높았다고 할 수 있다.

6) 여성의 취업만족도와 전직희망

여성 취업자의 현 직장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여성 취업자의 36.1%가 만족한다(4.5% 매우만족 포함)고 응답함으로써 3차의 41.0%보다 4.9%포인트가 감소하였으나, 매우만족의 경우는 1.4%포인트 증가하였다. 불만족의 경우 역시 17.2%(2.0%는 매우 불만족)로 나타나 3차조사 보다 2.9%포인트 감소하였다. 또한 그저 그렇다가 46.7%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3차보다 7.8% 증가한 비율이다. 결론적으로 3차 조사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졌지만, 그에 상응하게 불만족도 역시 감소하였고, 매우 만족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증가한 반면, 매우 불만족의 경우는 약간 감소함으로써 현 직장에 대해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언제까지 계속 일을 하겠냐는 질문에 여성 취업자의 33.2%가 늙어서 일을 할 수 없을 때까지 일을 계속하겠다고 답하였다.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나타낸 항

목은 쉬고 싶을 때까지로 28.6%를 차지하고 있다. 3차조사에 비해 일을 할 수 없을 때까지 하고 싶다는 여성들은 줄어든 반면, 쉬고 싶을 때까지만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취업자들이 많아져 가는 추세에 있었다. 이 밖에 다른 모든 항목들은 3차조사 때보다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경제여건이 좋아지면 그만두겠다고 응답한 비율만은 28.5%로 1.3%포인트 증가하였다. 당장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응답한 여성 취업자는 1.4%에 지나지 않았으며 3차 조사보다 1.7%포인트가 감소 경향을 나타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녀출산과 결혼과 같은 변수들이 여성 취업자의 취업지속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 확실히 감소해가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으며, 여성들의 취업의지가 일시적이기보다는 지속적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여성 취업자들이 자신의 취업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비교적 지속적인 취업의사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전직의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여성 취업자의 27.7%가 전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3차 조사결과(26.5%)에 비해 약간 증가한 추세이다.

다. 여성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자의 특징

1) 여성 실업자의 특성

실업률이 가장 높은 여성 집단은 29세 미만 미혼여성이었다. 특히 고졸 청년층 여성 실업률은 17.4%이었다. 그리고 여성 실업자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보면 여성 실업자의 41.9%가 가사활동을 하다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실업자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27.6%는 전직 여성 실업자, 22.2%는 신규실업자 그리고 9.2%는 질병 및 연로한 상태에 있다가 노동시장에 진입한 실업자이었다. 즉, 실업률은 고졸 여성신규졸업자가 가장 높아서 이들 집단의 실업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실업자의 규모 면에서는 가사활동을 하다가 실업상태로 전환한 집단이 가장 많았다.

2) 여성 실업자의 구직 특성

여성 실업자의 구직 특성을 3차 조사 때와 비교하면 평균 구직기간이 8개월로서 3차보다 3.6개월 길어졌고 취업이 즉시 되지 않으면 구직을 포기하겠다는 실업자 비율은 감소하였다. 구직경로를 보면 1997년과 동일하게 이웃·친구, 신문광고를 통해서 구직하는 여성 실업자가 가장 많았으나, 상대적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직을 하는 실업자 구성비는 줄어들었다.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은 여성 실업자를 중심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구직하는 실업자비율이 크게 늘었다.

3)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특성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성비를 보면 29세 이하가 31.4%이고, 30대가 24.7% 그리고 40대가 19.3%, 50세 이상이 24.6%이었다. 이러한 연령별 구성비를 1997년과 비교하면 29세 이하, 60세 이상은 감소한 반면에, 40~50대의 구성비는 크게 증가했다.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약 30%는 일자리만 있으면 취업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취업의사가 있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80%는 임금근로자로 일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자영업자나 고용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여성비율은 높았고,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30~40대 여성 중에서 자영업이나 고용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여성비율은 높았다. 또한 임금근로자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61.1%는 시간제로 일하기를 희망하였다.

라. 취업과 가정 영역의 일

1) 가사 및 육아문제

여성 취업자의 상당수가 가사 및 육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용고 이외에 여성 기업주를 비롯한 비임금근로자도 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취업자의 대부분은 본인이 가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성

취업자의 직종별로 구분해서 보면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가사를 주로 담당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은 관리자 및 전문직, 준전문직 등이었다. 이에 비해 기능공, 기계조립공 및 조작용,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 중에서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가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는 거의 없었다. 또한 보육에서도 관리자 및 전문직, 준전문직의 경우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친정부모나 시부모가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 비율은 상당히 높은 특징을 보였다.

2) 희망 보육방식

현재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맡길 의향이 있는 기혼 여성의 46.0%는 사립보육시설을 이용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나머지 37%는 국·공립보육시설, 9.8%는 가정보육시설, 5.1%는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지출 가능한 보육비용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월 206천원을 지불할 수 있다고 했다. 지출가능한 보육비용 규모는 학력이 높을 수록 높아서, 중졸이하는 143천원인데 비해 대졸이상은 231천원이었다.

3) 여성취업에 대한 남편태도

여성취업에 대한 남편태도는 1997년에 비해서 매우 찬성하는 비율이 증가하였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태도를 보인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상태별로 구분해서 보면, 취업 혹은 실업상태에 있는 기혼여성의 남편은 여성취업에 대해서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에,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기혼여성의 남편 중에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남편 비율이 더욱 증가하였다.

4) 시장임금과 유보임금

여성 취업자의 평균임금은 월 974천원인데 비해서 여성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유보임금수준은 각각 904천원, 937천원으로 시장임금보다 낮았다. 시장

임금곡선과 유보임금곡선을 비교하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유보임금은 50세 이전까지는 취업자의 임금수준보다 낮았으나, 50세 이후부터는 더 높았다. 즉, 50세 이상인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참가는 유보임금보다 낮은 시장임금수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의 유보임금수준은 15-19세에서는 시장임금보다 높으나, 20세 이후부터는 시장임금보다 낮았다. 즉, 15-19세를 제외한 나머지 여성 실업자는 유보임금수준 이외의 요인 때문에 취업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마. 여성의 취업력

1) 여성의 생활사 변화

여성의 생애사건별 기간 변화를 세대별로 보면 먼저 출생이후부터 최종학교 졸업시점까지의 기간의 경우에 최근 세대로 올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최종학교 졸업 이후에서 결혼 전까지의 기간을 보면, 과거 세대부터 현재 세대로 올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초혼이 지속적으로 늦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최종학교 졸업이후부터 초혼직전까지의 기간이 줄어드는 현상은 고학력화 현상에 기인한다. 초혼이후 첫 자녀 출산까지의 기간, 첫 자녀 출산에서 막내자녀 출산까지의 기간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막내자녀 출산이후 취업가능기간을 보면 최근 세대로 올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2) 과거 연령별 유업률

여성의 연령계층별 유업률 곡선의 변화를 보면, 최근 세대로 올수록 15-19세 연령층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은 전반적으로 상향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곡선의 형태는 다소 변화를 보였다. 1937-41년생 이후의 세대를 보면 최근 세대로 올수록 여성의 연령별 유업률곡선이 연령과 함께 증가하는 곡선에서 점차 M자형 곡선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현재 45-49세인 1952-56년생은 M자 곡선의 저점(低點)이 25-29세이었으나, 그 이후의 세대에서는 저점이 25-29세에서

30-34세로 늦어졌다. 또한 최근 세대로 올수록 결혼·출산으로 인한 퇴출이 줄어들어 따라 유업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4세, 25-29세 연령층의 유업률 증가폭보다는 낮다. 그 결과 최근 세대로 올수록 20-24세 연령층과 30-34세 연령층의 유업률 격차가 더욱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3) 세대별 여성 피고용률

1937-41년생부터 1952-56년까지의 연령별 피고용율 곡선의 변화를 보면 1952-56년생의 경우 피고용율 비율이 모든 연령층에서 13%를 넘지 않았다. 즉, 이들 연령층 여성집단은 임금근로자로서 경제활동을 한 여성비율이 극히 적었다. 1937-41년생부터 최근 세대로 올수록 피용자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25-29세 연령층에서 노동시장을 퇴출하는 여성비율도 계속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4) 생애단계별 유업률

생애단계별 여성의 유업률 변화를 보면 여성의 최종학교 졸업 직후의 유업률은 34.8%이었다. 이러한 유업률은 첫 결혼직전에는 43.7%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결혼직후에는 유업률이 22.6%로 급격히 하락하여, 결혼과 더불어 취업여성의 절반 이상이 노동시장을 퇴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자녀 출산직전의 유업률은 29.5%로서 결혼직후보다 약간 상승하는데, 이것은 자영업에 하는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에는 남편을 돕기 위해서 무급가족종사자로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등 결혼과 더불어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여성이 약간 증가한데 기인한다. 첫 자녀 출산 직후의 유업률은 20.6%로 주요 생애단계에서 가장 낮은 취업률을 나타낸다. 그 후 유업률은 증가세로 반전하지만 막내자녀 출산 후까지는 큰 차이가 없었다.

5) 신규노동시장 진입 현황

1937-41년생 이후 점차 최근 세대로 올수록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하락하고

임금근로자 비율은 증가하였다. 특히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은 급감하여 1957-61년생 여성의 초직 중에서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은 9.7%에 불과하였다. 이와 함께 고용주나 자영업자, 임시 및 일용고로 처음 직장을 갖는 여성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초직을 상용고의 신분으로 취업한 여성비율은 최근 세대로 올수록 증가하여, 이러한 비율은 1937-41년생의 21.9%에서 1992-96년생은 89.1%에 달했다.

6) 결혼과 경제활동상태변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결혼을 전후로 한 결혼 1년 전과 결혼 1년 후에 모두 취업상태에 있었던 '계속취업자' 비율은 14.2%이었다. 그리고 결혼 직전에는 비취업상태에 있다가 결혼 직후에 취업한 '결혼후 신규취업자' 비율은 8.4%, 결혼 직후 직장을 그만둔 '결혼후 퇴직자' 비율은 29.2% 그리고 결혼과 관계없이 계속 비취업상태에 있었던 여성비율은 48.2%이었다. 즉,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 여성 중에서는 결혼과 함께 직장을 그만 두는 여성비율이 상당히 높고, 또한 결혼과 함께 새롭게 일을 하게 되는 여성비율도 8.4%나 되었다.



부 록

부록 1. 부표	231
부록 2. 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의 주요변수	271
부록 3. 조사표	279

부록 1. <부표>

<부표 Ⅱ-1>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분포 - 본조사

단위: %(천명)

	전 국			동 부			읍 면 부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0-4세	6.0	4.9	5.5	6.0	5.2	5.6	5.8	3.9	4.8
5-9세	8.1	6.8	7.5	8.1	7.1	7.6	8.1	5.5	6.8
10-14세	7.9	7.2	7.6	8.3	7.2	7.8	6.2	7.4	6.8
15-19세	7.0	6.3	6.6	7.4	6.7	7.1	5.1	4.8	5.0
20-24세	5.4	6.3	5.8	5.6	7.1	6.4	4.4	3.2	3.8
25-29세	7.7	6.6	7.1	8.1	7.1	7.6	6.0	5.0	5.5
30-34세	8.1	8.5	8.3	8.4	9.0	8.7	6.8	6.8	6.8
35-39세	8.7	8.1	8.4	9.2	8.7	8.9	7.0	5.7	6.3
40-44세	9.0	9.0	9.0	9.2	9.4	9.3	8.2	7.5	7.8
45-49세	7.6	7.3	7.5	7.8	7.6	7.7	6.6	6.4	6.5
50-54세	5.6	5.8	5.7	5.7	5.8	5.7	5.4	5.9	5.7
55-59세	4.8	5.0	4.9	4.7	4.8	4.7	5.5	5.7	5.6
60-64세	4.9	5.4	5.1	4.1	4.4	4.2	8.2	8.9	8.6
65-69세	4.0	5.2	4.6	3.3	4.0	3.6	7.0	10.0	8.5
70세이상	5.1	7.5	6.3	4.0	5.9	4.9	9.6	13.3	11.5
계	100.0 (6,953)	100.0 (6,981)	100.0 (13,934)	100.0 (5,548)	100.0 (5,500)	100.0 (11,048)	100.0 (1,405)	100.0 (1,481)	100.0 (2,886)

<부표 Ⅱ-2> 지역별 생활비 출처 - 두 번째 출처

단위: %(명)

	두 번째 출처		
	전체	동부	음면부
봉급 및 임금	24.8	25.7	23.1
판매,제조,기타 자영업 소득	11.2	13.5	6.3
농림어,축산업 자영업 소득	11.4	5.8	23.4
이자 및 배당금	10.5	12.8	5.7
임대수입	13.5	16.2	7.5
송금	18.1	15.8	23.1
연금/국가보조금	7.7	7.2	8.7
기타	2.8	3.1	2.4
계	100.0 (1,055)	100.0 (721)	100.0 (334)

<부표 Ⅱ-3> 지역별 생활정도의 주관적 평가

단위: %(명)

	동 부	음면부	계
이주 못사는 편이다	6.5	8.9	7.1
못사는 편이다	23.5	32.2	25.5
그저 그렇다	60.5	53.4	58.9
잘 사는 편이다	9.1	5.1	8.2
이주 잘 사는 편이다	0.4	0.4	0.4
계	100.0 (3,552)	100.0 (1,068)	100.0 (4,620)

*무응답 제외.

<부표 Ⅱ-4> 성별 혼인상태별 인구분포 - 통계청 조사와 3차 취업실태조사
단위: %

	4차조사			통계청 2000			3차조사		
	남	녀	계	남	녀	계	남	녀	계
유배우	65.5	62.2	63.8	61.2	60.0	60.6	66.9	62.1	64.4
이혼 및 별거	2.5	2.8	2.7	1.8	2.1	1.9	1.1	1.3	1.2
사별	2.4	14.0	8.3	1.8	12.8	7.4	3.2	13.4	8.5
미혼	29.6	21.0	25.2	35.1	25.1	30.1	28.7	23.3	25.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01).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의 취업실태조사』(1997).

<부표 Ⅱ-5> 성별 교육수준별 인구분포 - 통계청 조사와 3차 취업실태조사
단위: %

	4차조사			통계청 2000			3차조사		
	남	녀	계	남	녀	계	남	녀	계
중졸미만	24.1	34.3	29.3	25.8	35.3	30.5	19.3	34.6	27.4
중졸	13.3	14.5	13.9	13.8	15.0	14.4	14.3	14.5	14.4
고졸	34.1	31.6	32.8	38.9	34.6	36.7	41.2	36.6	38.8
초대졸이상	28.4	19.6	24.0	21.5	15.1	18.3	25.2	14.2	19.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01).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의 취업실태조사』(1997).

<부표 Ⅱ-6> 육아 및 보호대상자 특성

단위: %(명)

	취학전 아동	신체쇠 약자	질병 중인 가족	장애 가족	취학전 아동/ 질병중 인 가족	취학 전 아동/ 장애 가족	신체쇠 약자/ 질병중 인 가족	신체 쇠약 자/장애 가족	질병 중인 가족/ 장애 가족	전 체	
연령											
0-4세	64.5	0.0	0.0	1.8	0.0	50.0	0.0	0.0	0.0	38.6	(713)
5-9세	34.8	0.4	0.0	2.6	0.0	0.0	0.0	0.0	0.0	21.0	(387)
10-14세	0.4	0.0	0.7	4.4	0.0	0.0	0.0	0.0	1.2	0.6	(11)
15-19세	0.0	0.0	0.0	0.9	50.0	0.0	0.0	7.7	1.2	0.2	(4)
20-24세	0.0	1.4	1.5	2.6	0.0	0.0	0.0	0.0	2.5	0.6	(11)
25-29세	0.0	0.0	1.5	6.1	0.0	0.0	0.0	0.0	1.2	0.5	(10)
30-34세	0.1	1.1	3.7	5.3	0.0	0.0	0.0	0.0	2.5	0.9	(17)
35-39세	0.1	0.0	4.4	7.9	0.0	0.0	0.9	15.4	0.0	1.0	(19)
40-44세	0.0	0.7	8.1	14.9	0.0	0.0	1.7	0.0	3.7	1.9	(35)
45-49세	0.0	1.1	7.4	4.4	50.0	0.0	5.1	23.1	4.9	1.7	(32)
50-54세	0.0	3.2	6.7	12.3	0.0	0.0	5.1	0.0	2.5	2.2	(40)
55-59세	0.0	6.1	8.1	7.0	0.0	50.0	3.4	7.7	11.1	2.8	(51)
60-64세	0.0	9.6	14.8	10.5	0.0	0.0	7.7	7.7	22.2	4.7	(87)
65-69세	0.0	18.6	16.3	11.4	0.0	0.0	20.5	7.7	14.8	6.7	(124)
70이상	0.2	57.9	26.7	7.9	0.0	0.0	55.6	30.8	32.1	16.5	(304)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0.1	54.3	45.2	55.3	0.0	50.0	43.6	53.8	61.7	20.9	(386)
배우자	0.1	17.9	34.1	13.2	50.0	0.0	27.4	15.4	21.0	8.9	(164)
미혼자녀	92.8	0.7	5.9	20.2	50.0	50.0	0.9	15.4	6.2	57.7	(1,065)
미혼형제, 자매	0.0	0.7	1.5	4.4	0.0	0.0	0.0	0.0	0.0	0.5	(9)
기혼자녀	0.3	0.0	1.5	2.6	0.0	0.0	0.0	0.0	1.2	0.5	(9)
며느리	0.0	0.0	0.0	0.9	0.0	0.0	0.0	0.0	0.0	0.1	(1)
손자녀	6.4	0.0	0.0	0.0	0.0	0.0	0.0	0.0	0.0	3.8	(70)
부모	0.2	24.3	10.4	2.6	0.0	0.0	25.6	15.4	8.6	6.8	(126)
배우자의 부모	0.1	2.1	1.5	0.9	0.0	0.0	2.6	0.0	0.0	0.7	(13)
기타	0.1	0.0	0.0	0.0	0.0	0.0	0.0	0.0	1.2	0.1	(2)

<부표 II-7> 육아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부양자 특성

단위: %(명)

[illegible]

<부표 Ⅱ-8> 경제활동상태별 고등학교 계열 및 대학전공분포

단위: 명, %

	전 체		경제활동자		비경제활동자	
고등학교	3,201	100.0	1,410	100.0	1,791	100.0
일반계	2,050	64.0	836	59.3	1,214	67.8
상업계	1,031	32.2	523	37.1	508	28.4
기타실업계	120	3.7	51	3.6	69	3.9
대학전공	1,228	100.0	554	100.0	674	100.0
인문어문계	368	30.0	153	27.6	215	31.9
예체능계	177	14.4	84	15.2	93	13.8
사회과학계	114	9.3	50	9.0	64	9.5
이학계	162	13.2	70	12.6	92	13.6
공학계	94	7.7	47	8.5	47	7.0
의학계	80	6.5	40	7.2	40	5.9
농림수산해양계	11	0.9	4	0.7	7	1.0
사범계	123	10.0	61	11.0	62	9.2
경상계	68	5.5	32	5.8	36	5.3
기타	31	2.5	13	2.3	18	2.7

*무응답 제외.

<부표 Ⅱ-9> 조사대상자의 경제활동상태별 건강상태

단위: 명, %

	전체		경제활동자		비경제활동자	
전체						
일상생활을 돌볼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	84	1.8	11	0.5	73	2.8
일상생활을 돌볼 수 있으나 직업을 갖기는 어렵다	492	10.3	57	2.6	435	16.9
직업을 가질 수 있으나 힘든일 많은일은 못한다	566	11.9	263	12.1	303	11.7
일상생활 또는 직업활동에 제한받지 않는다	3,613	76.0	1,844	84.8	1,769	68.6
계	4,755	100.0	2,175	100.0	2,580	100.0
동부						
일상생활을 돌볼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	62	1.6	7	0.4	55	2.5
일상생활을 돌볼 수 있으나 직업을 갖기는 어렵다	416	10.7	39	2.3	377	17.3
직업을 가질 수 있으나 힘든일 많은일은 못한다	461	11.9	197	11.6	264	12.1
일상생활 또는 직업활동에 제한받지 않는다	2,931	75.7	1,449	85.6	1,482	68.0
계	3,870	100.0	1,692	100.0	2,178	100.0

*무응답 제외.

<부표 Ⅱ-10> 조사대상자의 혼인상태별 남녀역할에 대한 태도

단위: 명, %

	동부					
	전체		미혼		기혼	
여성도 결혼후 계속 취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868	100.0	1,672	100.0	2,196	100.0
매우 그렇지 않다	54	1.4	23	1.4	31	1.4
대체로 그렇지 않다	178	4.6	75	4.5	103	4.7
그저 그렇다	457	11.8	170	10.2	287	13.1
대체로 그렇다	1,940	50.2	795	47.5	1,145	52.1
매우 그렇다	1,239	32.0	609	36.4	630	28.7
여성은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남성처럼 성공하려 애쓸 필요 없음	3,863	100.0	1,671	100.0	2,192	100.0
매우 그렇지 않다	1,045	27.1	534	32.0	511	23.3
대체로 그렇지 않다	1,614	41.8	690	41.3	924	42.2
그저 그렇다	633	16.4	253	15.1	380	17.3
대체로 그렇다	465	12.0	155	9.3	310	14.1
매우 그렇다	106	2.7	39	2.3	67	3.1
능력이 같다면 여자보다 남자를 취직시켜야 한다	3,864	100.0	1,671	100.0	2,193	100.0
매우 그렇지 않다	634	16.4	339	21.5	275	12.5
대체로 그렇지 않다	906	23.4	454	27.2	452	20.6
그저 그렇다	754	19.5	328	19.6	426	19.4
대체로 그렇다	1,058	27.4	358	21.4	700	31.9
매우 그렇다	512	13.3	172	10.3	340	15.5
정리해고를 해야 된다면 맞벌이의 경우 여자가 퇴사하는게 낫다	3,865	100.0	1,672	100.0	2,193	100.0
매우 그렇지 않다	433	11.2	248	14.8	185	8.4
대체로 그렇지 않다	799	20.7	422	25.2	377	17.2
그저 그렇다	796	20.6	392	23.4	404	18.4
대체로 그렇다	1,303	33.7	445	26.6	858	39.1
매우 그렇다	534	13.8	165	9.9	369	16.8
여성의 취업률이 남성보다 낮은 것은 가사 및 육아부담 때문이다	3,863	100.0	1,669	100.0	2,194	100.0
매우 그렇지 않다	96	2.5	43	2.6	53	2.4
대체로 그렇지 않다	314	8.1	139	9.5	155	7.1
그저 그렇다	990	15.3	312	18.7	278	12.7
대체로 그렇다	1,881	48.7	782	46.9	1,099	50.1
매우 그렇다	982	25.4	373	22.3	609	27.8

<부표 Ⅱ-10> 조사대상자의 혼인상태별 남녀역할에 대한 태도(계속)

단위: 명, %

	동부					
	전체		미혼		기혼	
여성은 취업을 해도 집안일과 자녀 양육은 여성책임이다	3,861	100.0	1,670	100.0	2,191	100.0
매우 그렇지 않다	741	19.2	383	22.9	358	16.3
대체로 그렇지 않다	1,041	27.0	465	27.8	576	26.3
그저 그렇다	801	20.7	382	22.9	419	19.1
대체로 그렇다	1,034	26.8	363	21.7	671	30.6
매우 그렇다	244	6.3	77	4.6	167	7.6
여성이 잘되는 길은 자신의 성공보다 남편을 잘 섬겨야 한다	3,858	100.0	1,668	100.0	2,190	100.0
매우 그렇지 않다	588	15.2	336	20.1	252	11.5
대체로 그렇지 않다	921	23.9	440	26.4	481	22.0
그저 그렇다	875	22.7	371	22.2	504	23.0
대체로 그렇다	1,108	28.7	404	24.2	704	32.1
매우 그렇다	366	9.5	117	7.0	249	11.4
여성의 취업률이 남성보다 낮은 것은 여성의 직업적 능력부족때문이다	3,864	100.0	1,671	100.0	2,193	100.0
매우 그렇지 않다	851	22.0	432	25.9	419	19.1
대체로 그렇지 않다	1,587	41.1	700	41.9	887	40.4
그저 그렇다	777	20.1	305	18.3	472	21.5
대체로 그렇다	565	14.6	202	12.1	363	16.6
매우 그렇다	84	2.2	32	1.9	52	2.4
여성의 취업은 남편수입의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다	3,865	100.0	1,671	100.0	2,194	100.0
매우 그렇지 않다	752	19.5	392	23.5	360	16.4
대체로 그렇지 않다	1,177	30.5	566	33.9	611	27.8
그저 그렇다	944	24.4	395	23.6	549	25.0
대체로 그렇다	846	21.9	271	16.2	575	26.2
매우 그렇다	146	3.8	47	2.8	99	4.5

<부표 Ⅱ-11> 조사대상자의 맞벌이 유무별 남녀역할에 대한 태도

단위: 명, %

	전체		동부					
			전체		남편 외벌이		맞벌이	
여성도 결혼후 계속 취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754	100.0	2,121	100.0	1,278	100.0	843	100.0
매우 그렇지 않다	64	1.3	26	1.2	18	1.4	8	0.9
대체로 그렇지 않다	220	4.6	98	4.6	70	5.5	28	3.3
그저 그렇다	585	12.3	264	12.4	187	14.6	77	9.1
대체로 그렇다	2387	50.2	1,103	52.0	654	51.2	449	53.3
매우 그렇다	1,498	31.5	630	29.7	349	27.3	281	33.3
여성은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남성처럼 성공하려 애쓸 필요 없음	4,747	100.0	2,118	100.0	1,276	100.0	842	100.0
매우 그렇지 않다	1,189	25.0	511	24.1	327	25.6	184	21.9
대체로 그렇지 않다	1,970	41.5	902	42.6	523	41.0	379	45.0
그저 그렇다	803	16.9	368	17.4	222	17.4	146	17.3
대체로 그렇다	644	13.6	283	13.4	172	13.5	111	13.2
매우 그렇다	141	3.0	54	2.5	32	2.5	22	2.6
능력이 같다면 여자보다 남자를 취직시켜야 한다	4,749	100.0	2,118	100.0	1,275	100.0	843	100.0
매우 그렇지 않다	690	14.5	273	12.9	173	13.6	100	11.9
대체로 그렇지 않다	1,078	22.7	436	20.6	246	19.3	190	22.5
그저 그렇다	966	20.3	418	19.7	247	19.4	171	20.3
대체로 그렇다	1,370	28.8	662	31.3	397	31.1	265	31.4
매우 그렇다	645	13.6	329	15.5	212	16.6	117	13.9
여성은 취업을 해도 집안일과 자녀 양육은 여성책임이다	4,745	100.0	2,116	100.0	1,275	100.0	841	100.0
매우 그렇지 않다	803	16.9	382	18.1	243	19.1	139	16.5
대체로 그렇지 않다	1,233	26.0	548	25.9	339	26.6	209	24.9
그저 그렇다	1,000	21.1	420	19.8	236	18.5	184	21.9
대체로 그렇다	1,358	28.6	632	29.9	373	29.3	259	30.8
매우 그렇다	351	7.4	134	6.3	84	6.6	50	5.9
여성이 잘되는 길은 자신의 성공보다 남편을 잘 섬겨야 한다	4,743	100.0	2,112	100.0	1,272	100.0	840	100.0
매우 그렇지 않다	629	13.3	259	12.3	169	13.3	90	10.7
대체로 그렇지 않다	1,087	22.9	449	21.3	268	21.1	181	21.5
그저 그렇다	1,078	22.7	477	22.6	288	22.6	189	22.5
대체로 그렇다	1,450	30.6	690	32.7	401	31.5	289	34.4
매우 그렇다	499	10.5	237	11.2	146	11.5	91	10.8

<부표 Ⅱ-11> 조사대상자의 맞벌이 유무별 남녀역할에 대한 태도 (계속)
단위: 명, %

	전 체		동 부					
			전체		남편 외벌이		맞벌이	
정리해 고를 해야된다면 맞벌이의 경우 여자가 특사하는게 낫다	4,751	100.0	2,118	100.0	1,276	100.0	842	100.0
매우그렇지 않다	473	10.0	186	8.8	119	9.3	67	8.0
대체로 그렇지 않다	922	19.4	361	17.0	202	15.8	159	18.9
그저 그렇다	993	20.9	390	18.4	223	17.5	167	19.8
대체로 그렇다	1,683	35.4	840	39.7	511	40.0	329	39.1
매우그렇다	680	14.3	341	16.1	221	17.3	120	14.3
여성의 취업률이 남성보다 낮은 것은 가사 및 육아부담때문이다	4,749	100.0	2,116	100.0	1,274	100.0	842	100.0
매우그렇지 않다	103	2.2	57	2.7	39	3.1	18	2.1
대체로 그렇지 않다	362	7.6	148	7.0	87	6.8	61	7.2
그저 그렇다	795	16.7	258	12.2	147	11.5	111	13.2
대체로 그렇다	2,293	48.3	1,033	48.8	588	46.2	445	52.9
매우그렇다	1,196	25.2	620	29.3	413	32.4	207	24.6
여성의 취업률이 남성보다 낮은 것은 여성의 직업적 능력부족때문이다	4,750	100.0	2,117	100.0	1,276	100.0	841	100.0
매우그렇지 않다	937	19.7	436	20.6	293	23.0	143	17.0
대체로 그렇지 않다	1,904	40.1	858	40.5	500	39.2	358	42.6
그저 그렇다	1,032	21.7	427	20.2	247	19.4	180	21.4
대체로 그렇다	760	16.0	349	16.5	207	16.2	142	16.9
매우그렇다	117	2.5	47	2.2	29	2.3	18	2.1
여성의 취업은 남편수입의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다	4,750	100.0	2,118	100.0	1,276	100.0	842	100.0
매우그렇지 않다	819	17.2	355	16.8	226	17.7	129	15.3
대체로 그렇지 않다	1,440	30.3	596	28.1	358	28.1	238	28.3
그저 그렇다	1,211	25.5	510	24.1	301	23.6	209	24.8
대체로 그렇다	1,101	23.2	555	26.2	338	26.5	217	25.8
매우그렇다	179	3.8	102	4.8	53	4.2	49	5.8

<부표 Ⅱ-12> 조사대상자의 경제활동상태 별 남녀역할 관련태도

단위: 명, %

	전 체		경제활동자		비경제활동자	
여성도 결혼후 계속 취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754	100.0	2,176	100.0	2,578	100.0
매우그렇지 않다	64	1.3	24	1.1	40	1.6
대체로 그렇지 않다	220	4.6	82	3.8	138	5.4
그저 그렇다	585	12.3	221	10.2	364	14.1
대체로 그렇다	2,387	50.2	1,089	50.0	1,298	50.3
매우그렇다	1,498	31.5	760	34.9	738	28.6
여성은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남성처럼 성공하려 애쓸 필요 없음	4,747	100.0	2,172	100.0	2,575	100.0
매우그렇지 않다	1,189	25.0	499	23.0	690	26.8
대체로 그렇지 않다	1,970	41.5	929	42.8	1,041	40.4
그저 그렇다	803	16.9	373	17.2	430	16.7
대체로 그렇다	644	13.6	300	13.8	344	13.4
매우그렇다	141	3.0	71	3.3	70	2.7
능력이 같다면 여자보다 남자를 취직시켜야 한다	4,749	100.0	2,173	100.0	2,576	100.0
매우그렇지 않다	690	14.5	291	13.4	399	15.5
대체로 그렇지 않다	1,078	22.7	505	23.2	573	22.2
그저 그렇다	966	20.3	428	19.7	538	20.9
대체로 그렇다	1,370	28.8	659	30.3	711	27.6
매우그렇다	645	13.6	290	13.3	355	13.8
여성은 취업을 해도 집안일과 자녀 양육은 여성책임이다	4,745	100.0	2,171	100.0	2,574	100.0
매우그렇지 않다	803	16.9	338	15.6	465	18.1
대체로 그렇지 않다	1,233	26.0	548	25.2	685	26.6
그저 그렇다	1,000	21.1	471	21.7	529	20.6
대체로 그렇다	1,358	28.6	646	29.8	712	27.7
매우그렇다	351	7.4	168	7.7	183	7.1
정리해 고를 해야 된다면 맞벌이의 경우 여자가 복사하는게 낫다	4,751	100.0	2,175	100.0	2,576	100.0
매우그렇지 않다	473	10.0	201	9.2	272	10.6
대체로 그렇지 않다	922	19.4	420	19.3	502	19.5
그저 그렇다	993	20.9	475	21.8	518	20.1
대체로 그렇다	1,683	35.4	773	35.5	910	35.3
매우그렇다	680	14.3	306	14.1	374	14.5

<부표 Ⅱ-12> 조사대상자의 경제활동상태 별 남녀역할 관련태도 (계속)
단위: 명, %

	전 체		경제활동자		비경제활동자	
여성의 취업률이 남성보다 낮은 것은 가사 및 육아부담때문이다	4,749	100.0	2,175	100.0	2,574	100.0
매우그렇지 않다	103	2.2	48	2.2	55	2.1
대체로 그렇지 않다	362	7.6	154	7.1	208	8.1
그저 그렇다	795	16.7	364	16.7	431	16.7
대체로 그렇다	2,293	48.3	1,116	51.3	1,177	45.7
매우그렇다	1,196	25.2	493	22.7	703	27.3
여성의 취업률이 남성보다 낮은 것은 여성의 직업적 능력부족때문이다	4,750	100.0	2,174	100.0	2,576	100.0
매우그렇지 않다	937	19.7	372	17.1	565	21.9
대체로 그렇지 않다	1,904	40.1	872	40.1	1,032	40.1
그저 그렇다	1,032	21.7	485	22.3	547	21.2
대체로 그렇다	760	16.0	391	18.0	369	14.3
매우그렇다	117	2.5	54	2.5	63	2.4
여성의 취업은 남편수입의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다	4,750	100.0	2,174	100.0	2,576	100.0
매우그렇지 않다	819	17.2	345	15.9	474	18.4
대체로 그렇지 않다	1,440	30.3	642	29.5	798	31.0
그저 그렇다	1,211	25.5	549	25.3	662	25.7
대체로 그렇다	1,101	23.2	549	25.3	552	21.4
매우그렇다	179	3.8	89	4.1	90	3.5
여성이 잘되는 길은 자신의 성공 보다 남편을 잘 섬겨야 한다	4,743	100.0	2,172	100.0	2,571	100.0
매우그렇지 않다	629	13.3	265	12.2	364	14.2
대체로 그렇지 않다	1,087	22.9	488	22.5	599	23.3
그저 그렇다	1,078	22.7	492	22.7	586	22.8
대체로 그렇다	1,450	30.6	706	32.5	744	28.9
매우그렇다	499	10.5	221	10.2	278	10.8

*무응답 제외.

<부표 Ⅱ-13> 조사대상자의 만 15세때 가족형태

단위: 명, %

	전 체		동 부		읍면부	
양친과 함께	4,154	87.3	3,383	87.4	771	87.0
편부와 함께	95	2.0	70	1.8	25	2.8
편모와 함께	379	8.0	318	8.2	61	6.9
기타	130	2.7	101	2.6	29	3.3
계	4,758	100.0	3,872	100.0	886	100.0

<부표 Ⅱ-14> 조상대상자의 만 15세때 아버지의 직업

단위: 명, %

	전 체		동 부		읍면부	
의회의원, 고위임원직 및 관리자	77	1.8	74	2.1	3	0.4
전문가	140	3.3	132	3.8	8	1.0
기술공 및 준전문가	251	5.9	234	6.8	17	2.1
사무종사자(일반사무 및 고객센터 서비스 사무종사자)	604	14.2	547	15.8	57	7.2
서비스종사자	268	6.3	238	6.9	30	3.8
판매종사자	424	10.0	368	10.7	56	7.0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1,906	44.9	1,384	40.1	522	65.7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87	2.0	72	2.1	15	1.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77	4.2	139	4.0	38	4.8
단순노무 종사자	202	4.8	181	5.2	21	2.6
군인	39	0.9	29	0.8	10	1.3
무직(직업이 없었다)	73	1.7	55	1.6	18	2.3
계	4,248	100.0	3,453	100.0	795	100.0

*무응답 제외.

<부표 Ⅱ-15> 조사대상자의 아버지의 학력

단위: 명, %

	전체		동부		음면부	
무학	751	17.7	498	14.5	253	31.9
초등학교 졸업	1,319	31.1	1,028	29.8	291	36.6
중학교 졸업	719	17.0	603	17.5	116	14.6
고등학교 졸업	946	22.3	851	24.7	95	12.0
전문대 졸업	50	1.2	45	1.3	5	0.6
대졸이상	453	10.7	419	12.2	34	4.3
계	4,238	100.0	3,444	100.0	794	100.0

*무응답 제외.

<부표 Ⅱ-16> 조사대상자의 만 15세때 어머니의 직업

단위: 명, %

	전체		동부		음면부	
의회의원, 고위임원직 및 관리자	5	0.1	5	0.1	0	0.0
전문가	42	0.9	42	1.1	0	0.0
기술공 및 준전문가	29	0.6	27	0.7	2	0.2
사무종사자(일반사무 및 고객센터 서비스 사무종사자)	53	1.2	49	1.3	4	0.5
서비스종사자	182	4.0	161	4.4	21	2.5
판매종사자	287	6.3	259	7.0	28	3.4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1,622	35.8	1,132	30.6	490	59.0
장차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31	0.7	28	0.8	3	0.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8	0.8	23	0.6	15	1.8
단순노무 종사자	171	3.8	140	3.8	31	3.7
무직	2,069	45.7	1,832	49.5	237	28.5
계	4,529	100.0	3,698	100.0	831	100.0

*무응답 제외.

<부표 Ⅱ-17> 조상대상자의 어머니의 학력

단위: 명, %

	전체		동부		읍면부	
무학	1,205	26.7	843	22.8	362	43.7
초등학교 졸업	1,691	37.4	1,400	37.9	291	35.1
중학교 졸업	746	16.5	647	17.5	99	11.9
고등학교 졸업	703	15.5	637	17.3	66	8.0
전문대 졸업	34	0.8	32	0.9	2	0.2
대졸이상	142	3.1	133	3.6	9	1.1
계	4,521	100.0	3,692	100.0	829	100.0

*무응답 제외.

<부표 Ⅲ-1> 여성 임금근로자의 혼인상태별 직종분포

단위: 명, %

	미혼		기혼		계
입법, 행정관리	2	40.0	3	60.0	5
전문가	97	51.6	91	48.4	188
기술공, 준전문가	90	59.6	61	40.4	151
사무직	203	59.9	136	40.1	339
서비스 판매직	269	38.4	431	61.6	700
농림어업직	32	13.9	198	86.1	230
기능직	64	40.8	93	59.2	157
조립공,조작공	3	23.1	10	76.9	13
단순노무직	68	33.2	137	66.8	205
합계	828	41.6	1160	58.4	1988

<부표 Ⅲ-2> 조사대상 여성비 임금근로자의 특징

단위: 명, %

	고용주		자영업자		계	
연령 계	15	100.0	312	100.0	327	100.0
15-24세	5	33.3	109	34.9	114	34.9
25-29세	1	6.7	23	7.4	24	7.3
30-34세	1	6.7	30	9.6	31	9.5
35-39세	4	26.7	28	9.0	32	9.8
40-54세	3	20.0	54	17.3	57	17.4
55-59세	0	0	17	5.4	17	5.2
60-64세	1	6.7	51	16.3	52	15.9
혼인상태 계	15	100.0	312	100.0	327	100.0
미혼	6	40.0	95	30.4	101	30.9
기혼	9	60.0	217	69.6	226	69.1
교육정도 계	15	100.0	312	100.0	327	100.0
초졸미만	6	40.0	131	42.0	137	41.9
중졸	3	20.0	42	13.5	45	13.8
고졸	1	6.7	74	23.7	75	22.9
초대졸	1	6.7	40	12.8	41	12.5
대졸이상	4	26.7	25	8.0	29	8.9
자본금 계	14	100.0	280	100.0	294	100.0
1000만원미만	0	0.0	83	29.6	83	28.2
1000-2999	2	14.3	88	31.4	90	30.6
3000-4999	2	14.3	36	12.9	38	12.9
5000-9999	2	14.3	41	14.6	43	14.6
1억이상	8	57.1	32	11.4	40	13.6

<부표 Ⅲ-3> 여성 무급가족종사자의 특징

단위: 명, %

	무급가족종사자	
연령 계	432	100.0
15-24	149	34.5
25-29	28	6.5
30-34	28	6.5
35-39	42	9.7
40-54	84	19.4
55-59	15	3.5
60-64	86	19.9
혼인상태 계	432	100.0
미혼	101	23.4
기혼	331	76.6
교육정도 계	432	100.0
초졸미만	234	54.2
중졸	60	13.9
고졸	69	16.0
초대졸	51	11.8
대졸이상	18	4.2
업종 계	432	100.0
농어업광업	183	42.4
제조업	30	6.9
전기가스수도업	1	0.2
건설업	3	0.7
도소매 숙박업	189	43.8
운수창고통신업	1	0.2
금융보험부동산	3	0.7
개인서비스업	22	5.1

< 부표 Ⅲ-4 > 조사대상 여성 임금근로자의 특징

단위: %(명)

	상용고	임시고	일용고	전체
지역	100.0 (990)	100.0 (241)	100.0 (109)	100.0 (1,340)
동부	85.4	89.2	67.0	84.6
읍면부	14.6	10.8	33.0	15.4
혼인상태	100.0 (990)	100.0 (241)	100.0 (109)	100.0 (1,340)
미혼	54.2	45.6	33.9	51.0
기혼	45.8	54.4	66.1	49.0
가구주여부	100.0 (990)	100.0 (241)	100.0 (109)	100.0 (1,340)
가구주	13.3	17.0	22.0	14.7
비가구주	86.7	83.0	78.0	85.3
연령	100.0 (990)	100.0 (241)	100.0 (109)	100.0 (1,340)
15-24세	44.4	44.4	40.4	44.1
25-29세	15.2	9.5	5.5	13.4
30-34세	11.5	11.6	13.8	11.7
35-39세	8.9	14.1	6.4	9.6
40-54세	7.1	9.5	8.3	7.6
55-59세	1.4	1.2	3.7	1.6
60-64세	11.5	9.5	22.0	12.0
교육정도	100.0 (990)	100.0 (241)	100.0 (109)	100.0 (1,340)
초졸미만	28.7	45.6	48.6	33.4
중졸	11.7	10.0	17.4	11.9
고졸	26.5	18.7	17.4	24.3
초대졸	17.7	17.0	12.8	17.2
대졸이상	15.5	8.7	3.7	13.3

<부표 Ⅲ-5> 조사대상 여성의 경제활동상태별 분포

단위: %(명)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전체	
	취업자	실업자	전체			
전체	41.8 (1,991)	3.9 (185)	45.7 (2,176)	54.3 (2,582)	100.0 (4,758)	
지역						
동부	39.8	3.9	43.7	56.3	100.0	(3,872)
읍면부	50.9	3.7	54.6	45.4	100.0	(886)
연령						
15-24세	42.0	3.8	45.7	54.3	100.0	(1,883)
25-29세	40.1	6.1	46.3	53.7	100.0	(538)
30-34세	37.0	3.2	40.2	59.8	100.0	(560)
35-39세	42.2	2.9	45.1	54.9	100.0	(481)
40-54세	50.5	5.4	55.9	44.1	100.0	(483)
55-59세	49.5	4.7	54.2	45.8	100.0	(107)
60-64세	39.4	2.5	41.9	58.1	100.0	(706)
혼인상태						
미혼	42.9	4.2	47.2	52.8	100.0	(1,930)
기혼	41.1	3.6	44.8	55.2	100.0	(2,828)
가구주여부						
가구주	64.3	5.8	70.1	29.9	100.0	(451)
비가구주	39.5	3.7	43.2	56.8	100.0	(4,307)
교육정도						
초졸미만	41.6	3.4	45.0	55.0	100.0	(1,925)
중졸	36.4	3.9	40.3	59.7	100.0	(709)
고졸	43.6	4.8	48.4	51.6	100.0	(998)
초대졸	45.8	4.6	50.4	49.6	100.0	(625)
대졸이상	42.1	3.0	45.1	54.9	100.0	(501)

<부표 Ⅲ-6> 취업특성별 여성 취업자의 기업규모별 분포

단위: %(명)

	4인 이하	5- 9인	10- 49인	50- 99인	100- 299인	300- 999인	1000인 이상	전체
전체	51.5 (1,022)	13.9 (277)	19.6 (389)	6.4 (128)	4.0 (79)	2.1 (42)	2.5 (49)	100.0 (1,986)
직종								
입법, 행정관리	60.0	20.0	20.0	0.0	0.0	0.0	0.0	100.0 (5)
전문가	16.5	16.5	35.6	17.6	3.2	4.8	5.9	100.0 (188)
기술공, 준전문가	35.8	16.6	29.8	8.6	3.3	2.6	3.3	100.0 (151)
사무직	15.0	19.8	35.4	10.9	8.3	5.9	4.7	100.0 (339)
서비스 판매직	75.4	10.0	8.6	2.0	1.7	0.6	1.7	100.0 (698)
농림어업직	96.1	2.6	0.4	0.9	0.0	0.0	0.0	100.0 (229)
기능직	36.3	15.3	26.1	9.6	10.2	0.6	1.9	100.0 (157)
조립공, 조작공	7.7	30.8	38.5	7.7	7.7	0.0	7.7	100.0 (13)
단순노무직	38.9	23.6	23.6	6.4	5.4	1.5	0.5	100.0 (203)
산업								
농어업광업	93.5	3.7	2.0	0.8	0.0	0.0	0.0	100.0 (246)
제조업	28.2	16.8	28.2	10.1	10.7	3.0	3.0	100.0 (298)
전기가스수도업	14.3	57.1	0.0	14.3	14.3	0.0	0.0	100.0 (7)
건설업	23.3	23.3	43.3	10.0	0.0	0.0	0.0	100.0 (30)
도소매숙박업	74.9	11.1	7.4	2.4	2.3	0.9	0.9	100.0 (658)
운수창고통신업	7.8	23.5	27.5	15.7	9.8	3.9	11.8	100.0 (51)
금융보험부동산	9.7	6.5	30.5	10.8	4.3	7.5	10.8	100.0 (93)
개인사회서비스업	32.4	18.9	29.5	9.6	3.7	2.9	3.0	100.0 (593)
종사상지위								
고용주	25.0	25.0	30.0	0.0	0.0	0.0	0.0	100.0 (4)
자영업자	94.4	2.6	1.1	1.5	0.4	0.0	0.0	100.0 (266)
무급가족	93.6	2.9	1.1	1.3	0.3	0.0	0.8	100.0 (376)
상용고	26.3	17.9	32.1	10.3	5.8	3.6	4.0	100.0 (989)
임시고	41.5	20.3	19.9	6.6	7.1	2.5	2.1	100.0 (241)
일용고	52.8	29.6	13.0	0.9	2.8	0.0	0.9	100.0 (108)

<부표 Ⅲ-7> 취업특성별 여성근로자의 입직경로

단위: %(명)

	부모 형제	이웃 친구	직업 소개소	신문 광고	학교 추천	자신 직접	사회단체/ 여성센터	인터넷 공채	기타	전체
직종	12.6 (147)	38.6 (452)	4.2 (49)	12.4 (145)	12.5 (146)	5.1 (60)	1.4 (16)	7.3 (86)	6.0 (70)	100.0 (1,171)
전문가	7.6	17.4	2.3	8.7	32.6	7.6	0.0	16.3	7.6	100.0 (172)
기술공, 준전문가	12.6	32.8	2.5	12.6	16.8	7.6	2.5	8.4	4.2	100.0 (119)
사무직	16.6	24.8	3.3	11.9	19.5	6.0	1.3	12.3	4.3	100.0 (302)
서비스 판매직	12.2	49.6	2.8	16.9	3.1	4.7	1.6	3.9	5.1	100.0 (254)
농림어업직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3)
기능직	16.5	50.4	5.8	14.9	0.8	4.1	0.0	0.0	7.4	100.0 (121)
조립공, 조작공	16.7	50.0	0.0	8.3	0.0	8.3	8.3	0.0	8.3	100.0 (12)
단순노무직	8.6	57.7	10.3	9.7	1.1	1.1	2.3	0.0	9.1	100.0 (175)
산업										
농어업광업	3.4	93.1	0.0	0.0	0.0	0.0	0.0	3.4	0.0	100.0 (29)
제조업	12.4	43.6	5.6	14.1	6.0	6.0	0.9	2.6	9.0	100.0 (234)
전기가스수도업	30.0	16.7	0.0	0.0	0.0	16.7	0.0	0.0	16.7	100.0 (6)
건설업	28.6	35.7	10.7	7.1	10.7	3.6	0.0	3.6	0.0	100.0 (28)
도소매숙박업	12.7	43.3	4.8	18.3	5.6	3.2	1.6	5.6	5.2	100.0 (252)
운수창고통신업	4.2	27.1	4.2	18.8	22.9	6.3	2.1	8.3	6.3	100.0 (48)
금융보험부동산	11.5	47.1	1.1	8.0	10.3	5.7	0.0	12.6	3.4	100.0 (87)
개인사회서비스업	12.8	30.3	3.8	9.8	19.7	5.9	1.9	9.8	6.1	100.0 (478)

<부표 Ⅲ-8> 여성 취업자의 평균 노동시간

단위: %(명)

	35시간미만	35-48시간	49-99시간	100시간이상	전체
교육정도	100.0 (225)	100.0 (762)	100.0 (979)	100.0 (25)	100.0 (1,991)
초졸미만	51.1	36.9	40.2	44.0	40.2
중졸	12.0	12.1	13.6	24.0	13.0
고졸	12.0	22.8	23.6	12.0	21.8
초대졸	15.1	14.4	14.1	16.0	14.4
대졸이상	9.8	13.8	8.5	4.0	10.6
소득	100.0 (165)	100.0 (653)	100.0 (700)	100.0 (14)	100.0 (1,532)
1-29	15.8	2.9	2.9	0.0	4.2
30-49	22.4	6.7	5.6	7.1	7.9
50-79	23.6	35.1	34.0	21.4	33.2
80-99	7.3	13.8	14.1	14.3	13.3
100-149	17.0	21.9	24.7	21.4	22.7
150-199	6.1	9.8	9.0	28.6	9.2
200-299	5.5	7.7	7.4	7.1	7.3
300만원이상	2.4	2.1	2.3	0.0	2.2
혼인상태	100.0 (225)	100.0 (762)	100.0 (979)	100.0 (25)	100.0 (1,991)
미혼	31.1	46.7	40.4	24.0	41.6
기혼	68.9	53.3	59.6	76.0	58.4
직종	100.0 (225)	100.0 (759)	100.0 (979)	100.0 (25)	100.0 (1,988)
입법, 행정관리	0.0	0.3	0.3	0.0	0.3
전문가	11.1	14.2	5.6	0.0	9.5
기술공, 준전문가	13.8	9.2	5.1	0.0	7.6
사무직	8.0	25.0	13.4	0.0	17.1
서비스 판매직	26.2	21.2	46.8	88.0	35.2
농림어업직	22.7	8.4	11.6	4.0	11.6
기능직	3.6	7.8	9.0	8.0	7.9
기능직	0.9	1.2	0.2	0.0	0.7
단순노무직	13.8	12.6	8.0	0.0	10.3
산업	100.0 (224)	100.0 (757)	100.0 (975)	100.0 (25)	100.0 (1,981)
농어업광업	23.7	9.0	12.8	4.0	12.5
제조업	9.8	18.0	14.2	8.0	15.0
전기가스수도업	0.4	0.0	0.6	0.0	0.4
건설업	1.3	2.1	1.2	0.0	1.6
도소매숙박업	21.4	22.2	43.2	84.0	33.2
운수창고통신업	1.8	3.4	2.2	0.0	2.6
금융보험부동산	2.7	6.7	3.7	0.0	4.7
개인사회서비스업	38.8	38.6	22.2	4.0	30.1

<부표 Ⅲ-9> 여성 취업자의 평균 소득

단위: 원, 명

	평균소득	N
전체	970,858	1,537
학력		
계	970,858	1,537
초졸미만	908,176	561
중졸	877,245	196
고졸	925,018	361
초대졸	1,030,474	232
대졸이상	1,271,551	187
연령		
계	970,858	1,537
15-24세	938,840	635
25-29세	983,593	180
30-34세	1,061,592	178
35-39세	1,145,169	158
40-54세	1,067,405	158
55-59세	726,447	38
60-64세	804,439	190
직종		
계	968,865	1,535
입법·행정관리	2,041,667	4
전문가	1,504,475	181
기술공, 준전문가	1,175,905	140
사무직	999,855	311
서비스·판매직	982,403	505
농림어업직	605,208	48
기능직	675,429	140
조립공, 조작공	674,615	13
단순노무직	531,900	193
업종		
계	968,690	1,528
농어업광업	578,571	63
제조업	726,579	265
전기가스수도업	833,333	6
건설업	802,381	28
도소매숙박업	916,616	460
운수창고통신업	1,112,333	50
금융보험부동산	1,200,556	90
개인사회서비스업	1,127,895	566

<부표 Ⅲ-10> 종사상의 지위별 임금지급 형태

단위: %(명)

	시간급	일당	주급	월급	갯수급	기타	전체
전체	6.7 (78)	9.2 (108)	0.1 (1)	76.3 (894)	7.4 (87)	0.3 (3)	100.0(1,171)
종사상 지위	2.6	3.4	0.1	87.9	5.6	0.3	100.0(188)
상용고	23.4	11.7	0.0	49.5	15.4	0.0	100.0(86)
일용고	12.8	60.5	0.0	18.6	8.1	0.0	100.0(1,169)

<부표 Ⅲ-11> 취업특성별 차별유무와 유형

단위: %(명)

	없다	차별이 있음										전체
		임금 차별	승진 차별	부당한 능력 평가	보조적 업무	강제 퇴직	장년 차별	교육 연수	유직후 불이익	기타		
전체	68.0 (946)	28.5 (127)	19.3 (86)	14.8 (66)	13.5 (60)	4.0 (18)	3.1 (14)	8.1 (36)	7.4 (33)	1.3 (6)	100.0 (446)	
산업												
농어업광업	93.1	50.0	0.0	0.0	0.0	0.0	0.0	0.0	0.0	50.0	100.0 (2)	
제조업	71.8	34.8	13.6	15.2	13.6	5.3	4.5	5.3	7.6	0.0	100.0 (66)	
전기·가스·수도업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건설업	64.3	50.0	18.8	6.3	18.8	0.0	0.0	0.0	6.3	0.0	100.0 (10)	
도소매·숙박업	86.5	32.5	10.4	15.6	15.6	3.9	2.6	14.3	2.6	2.6	100.0 (37)	
운수·창고·통신업	77.1	29.4	23.5	17.6	5.9	5.9	5.9	5.9	5.9	0.0	100.0 (11)	
금융·보험·부동산	81.6	23.4	21.3	14.9	10.6	4.3	6.4	4.3	12.8	2.1	100.0 (17)	
개인·사회서비스업	82.2	20.3	27.5	14.4	13.7	3.3	1.3	9.8	8.5	1.3	100.0 (86)	
종사상지위												
상용고	79.3	25.8	22.0	13.9	14.7	4.3	3.3	8.2	6.8	1.1	100.0 (183)	
임시고	83.5	35.0	8.3	21.7	8.3	3.3	1.7	10.0	8.3	3.3	100.0 (33)	
일용고	87.2	76.9	0.0	7.7	7.7	0.0	0.0	0.0	7.7	0.0	100.0 (11)	

<부표 Ⅲ-12> 취업특성별 여성 취업자의 교육훈련 이수유무

단위: %(명)

	받지 않음	취업전후	취업전	취업후	전체
전체	87.5 (1,738)	5.0 (100)	4.7 (94)	2.8 (55)	100.0 (1,987)
직종					
입법, 행정 관리	100.0	0.0	0.0	0.0	100.0 (5)
전문가	78.2	11.7	4.8	5.3	100.0 (188)
기술공, 준전문가	68.9	13.9	11.3	6.0	100.0 (151)
사무직	84.1	7.1	3.8	5.0	100.0 (339)
서비스 판매직	88.0	3.7	6.6	1.7	100.0 (698)
농림어업직	99.1	0.9	0.0	0.0	100.0 (229)
기능직	91.7	1.9	3.8	2.5	100.0 (157)
조립공, 조작공	100.0	0.0	0.0	0.0	100.0 (13)
단순노무직	96.1	1.0	1.5	1.5	100.0 (204)
산업					
농어업광업	99.2	0.8	0.0	0.0	100.0 (245)
제조업	90.6	3.0	3.7	2.7	100.0 (298)
전기가스수도업	100.0	0.0	0.0	0.0	100.0 (7)
건설업	90.3	0.0	6.5	3.2	100.0 (31)
도소매 숙박업	94.8	1.2	2.4	1.5	100.0 (656)
운수창고통신평업	76.5	9.8	5.9	7.8	100.0 (51)
금융보험부동산	66.7	18.3	6.5	8.6	100.0 (93)
개인사회서비스업	76.8	9.9	9.2	4.0	100.0 (596)
종사상지위					
고용주	100.0	0.0	0.0	0.0	100.0 (4)
자영업자	87.7	4.1	6.7	1.5	100.0 (268)
무급가족	97.1	1.1	1.1	0.8	100.0 (376)
상용고	82.4	7.5	5.8	4.3	100.0 (989)
임시고	89.6	3.8	5.0	1.7	100.0 (240)
일용고	94.4	1.9	2.8	0.9	100.0 (108)

<부표 Ⅲ-13> 여성 취업자의 일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매우 불만족	불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	매우 만족	전체
전체	2.0 39	15.2 295	46.7 909	31.6 614	4.5 88	100.0 (1,945)
직종						
입법, 행정관리	0.0	0.0	20.0	60.0	20.0	100.0 (5)
전문가	0.0	3.3	21.7	58.2	16.8	100.0 (184)
기술공, 준전문가	3.5	5.0	23.4	55.3	12.8	100.0 (141)
사무직	1.5	8.5	46.4	40.0	3.6	100.0 (330)
서비스 판매직	2.0	16.0	50.5	28.7	2.8	100.0 (687)
농림어업직	4.4	29.3	57.6	8.3	0.4	100.0 (229)
기능직	0.0	22.4	51.9	23.7	1.9	100.0 (156)
조립공, 조작공	0.0	16.7	41.7	41.7	0.0	100.0 (12)
단순노무직	2.5	20.2	58.6	17.7	1.0	100.0 (198)
산업						
농어업광업	4.1	27.3	58.8	9.4	0.4	100.0 (245)
제조업	1.7	19.5	51.5	24.2	3.0	100.0 (297)
전기가스수도업	0.0	0.0	71.4	28.6	0.0	100.0 (7)
건설업	0.0	22.6	58.1	16.1	3.2	100.0 (31)
도소매숙박업	2.0	17.4	53.5	25.2	1.9	100.0 (643)
운수창고통신업	0.0	4.2	41.7	47.9	6.3	100.0 (48)
금융보험부동산	1.1	11.2	33.7	51.7	2.2	100.0 (89)
개인사회서비스업	1.7	6.6	33.0	48.3	10.3	100.0 (575)
종사상지위						
고용주	0.0	0.0	0.0	100.0	0.0	100.0 (4)
자영업자	2.2	16.8	46.6	29.5	4.9	100.0 (268)
무급가족	2.4	26.1	50.5	19.4	1.6	100.0 (372)
상용고	1.3	8.3	45.3	38.5	6.6	100.0 (980)
임시고	2.8	20.7	46.1	28.6	1.8	100.0 (217)
일용고	4.9	25.5	51.0	18.6	0.0	100.0 (102)

<부표 Ⅲ-14> 취업특성별 여성 취업자의 희망취업 지속시간

단위: %(명)

	당장그 만두다	결혼할 때까지	자녀출산 때까지	경제여건 좋아지면	늙어서할 수없을때	쉬고싶 을때	기타	전체
전체	1.4 (27)	4.4 (86)	1.5 (30)	28.5 (557)	33.2 (650)	28.6 (560)	2.4 (47)	100.0 (1,957)
직종								
입법, 행정관리	0.0	0.0	0.0	0.0	20.0	80.0	0.0	100.0 (5)
전문가	1.6	8.6	4.3	4.8	43.0	33.3	4.3	100.0 (186)
기술공, 준전문가	1.4	4.2	4.2	15.5	32.4	38.7	3.5	100.0 (142)
사무직	2.7	12.9	2.7	18.6	28.8	30.9	3.3	100.0 (333)
서비스 판매직	1.3	2.8	0.7	37.1	25.4	30.5	2.2	100.0 (688)
농림어업직	0.4	0.0	0.0	19.6	60.9	18.7	0.4	100.0 (230)
기능직	0.6	0.6	0.0	45.2	30.6	22.3	0.6	100.0 (157)
조립공, 조작공	0.0	0.0	0.0	38.5	30.8	23.1	7.7	100.0 (13)
단순노무직	1.0	0.5	1.0	44.0	29.5	21.5	2.5	100.0 (200)
산업								
농어업광업	0.4	0.0	0.4	19.8	58.3	20.6	0.4	100.0 (247)
제조업	2.7	4.0	0.7	38.0	26.6	25.9	2.0	100.0 (297)
전기가스수도업	0.0	42.9	0.0	14.3	28.6	14.3	0.0	100.0 (7)
건설업	0.0	12.9	6.5	25.8	29.0	22.6	3.2	100.0 (31)
도소매숙박업	1.1	4.3	1.6	36.7	25.9	28.2	2.2	100.0 (645)
운수창고통신업	0.0	14.0	0.0	20.0	28.0	34.0	4.0	100.0 (50)
금융보험부동산	2.2	2.2	1.1	23.9	20.7	46.7	3.3	100.0 (92)
개인사회서비스업	1.6	4.8	2.4	19.9	37.0	30.8	3.5	100.0 (578)
종사상지위								
고용주	0.0	0.0	0.0	0.0	100.0	0.0	0.0	100.0 (4)
자영업자	0.4	0.7	0.7	28.0	33.6	34.3	2.2	100.0 (268)
무급가족	1.1	0.8	0.3	35.5	39.7	21.3	1.3	100.0 (375)
상용고	2.0	7.4	2.3	22.1	32.4	31.1	2.6	100.0 (986)
임시고	0.9	3.7	0.9	39.0	26.1	26.1	3.2	100.0 (218)
일용고	0.0	0.0	1.9	43.3	28.8	23.1	2.9	100.0 (104)

<부표 Ⅲ-15> 취업특성별 여성 취업자의 전직노력 I

단위: %(명)

	그냥 생각만	훈련 및 교육참가중	구직중	정 보 수집 중	자 금 마련중	기타	전체
전체	75.9 (412)	1.8 (10)	7.6 (41)	9.8 (53)	3.5 (19)	1.5 (8)	100.0 (543)
지역							
동부	72.0	2.1	8.5	11.1	4.5	1.7	100.0 (422)
읍면부	89.3	0.8	4.1	5.0	0.0	0.8	100.0 (121)
연령							
15-24세	78.0	1.4	6.4	9.2	2.3	2.8	100.0 (218)
25-29세	65.3	2.0	12.2	12.2	6.1	2.0	100.0 (49)
30-34세	77.1	2.9	2.9	12.9	2.9	1.4	100.0 (70)
35-39세	71.9	0.0	8.8	12.3	7.0	0.0	100.0 (57)
40-54세	78.8	3.8	5.0	7.5	5.0	0.0	100.0 (80)
55-59세	83.3	0.0	8.3	0.0	8.3	0.0	100.0 (12)
60-64세	73.7	1.8	15.8	8.8	0.0	0.0	100.0 (57)
혼인상태							
미혼	71.7	1.3	10.4	11.7	2.2	2.6	100.0 (230)
기혼	78.9	2.2	5.4	8.3	4.5	0.6	100.0 (313)
가구주여부							
가구주	68.8	3.1	8.3	10.4	9.4	0.0	100.0 (96)
비가구주	77.4	1.6	7.4	9.6	2.2	1.8	100.0 (447)
교육정도							
초졸미만	77.2	1.4	6.0	10.2	4.7	0.5	100.0 (215)
중졸	87.7	2.7	2.7	2.7	4.1	0.0	100.0 (73)
고졸	77.5	0.8	8.3	10.0	2.5	0.8	100.0 (120)
초대졸	76.3	2.6	7.9	7.9	1.3	3.9	100.0 (76)
대졸이상	52.5	3.4	16.9	18.6	3.4	5.1	100.0 (59)

<부표 Ⅲ-16> 취업특성별 여성 취업자의 전직노력Ⅱ

단위: %(명)

	그냥 생각만	훈련 및 교육참가중	구직 중	정 보 수집 중	자 금 마련중	기타	전체
전체	75.9 (412)	1.8 (10)	7.6 (41)	9.8 (53)	3.5 (19)	1.5 (8)	100.0 (543)
직종							
입법, 행정관리	100.0	0.0	0.0	0.0	0.0	0.0	100.0(1)
전문가	40.9	9.1	9.1	18.2	18.2	4.5	100.0(22)
기술공, 준전문가	62.1	6.9	10.3	13.8	6.9	0.0	100.0(29)
사무직	65.3	1.0	14.3	12.2	2.0	5.1	100.0(98)
서비스 판매직	77.6	1.4	4.6	11.9	4.1	0.5	100.0(219)
농림어업직	94.4	0.0	5.6	0.0	0.0	0.0	100.0(54)
기능직	80.9	0.0	6.4	6.4	4.3	2.1	100.0(47)
조립공, 조작공	60.0	0.0	20.0	20.0	0.0	0.0	100.0(5)
단순노무직	85.1	3.0	7.5	4.5	0.0	0.0	100.0(67)
산업							
농어업광업	93.3	0.0	5.0	1.7	0.0	0.0	100.0(60)
제조업	76.5	0.0	10.8	5.9	3.9	2.9	100.0(102)
전기가스수도업	100.0	0.0	0.0	0.0	0.0	0.0	100.0(1)
건설업	71.4	0.0	14.3	14.3	0.0	0.0	100.0(7)
도소매숙박업	75.9	1.4	5.7	12.7	3.8	0.5	100.0(212)
운수창고통신업	85.7	0.0	7.1	0.0	7.1	0.0	100.0(14)
금융보험부동산	64.0	0.0	16.0	8.0	8.0	4.0	100.0(25)
개인사회서비스업	66.7	6.0	7.7	13.7	3.4	2.6	100.0(117)
종사상지위							
자영업자	78.8	0.0	3.0	16.7	1.5	0.0	100.0(66)
무급가족	90.9	0.0	1.0	6.1	2.0	0.0	100.0(99)
상용고	70.1	3.3	9.1	9.1	5.4	2.9	100.0(241)
임시고	69.7	1.1	12.4	12.4	3.4	1.1	100.0(89)
일용고	80.9	2.1	10.6	6.4	0.0	0.0	100.0(47)

<부표 Ⅲ-17> 인적특성별 여성 취업자 소득계층별 분포

단위: %(명)

	1-29만원	30-49만원	50-79만원	80-99만원	100-149만원	150만원 이상	전체
전체	4.2 (65)	7.9 (121)	33.2 (509)	13.3 (203)	22.7 (347)	18.7 (287)	100.0 (1,532)
지역							
동부	3.2	6.4	33.0	13.3	23.6	20.4	100.0 (1,277)
읍면부	9.4	15.3	34.5	12.9	17.6	10.2	100.0 (255)
연령							
15-24	2.8	7.7	36.9	15.6	21.9	15.1	100.0 (635)
25-29	3.4	6.1	30.2	14.0	29.6	16.8	100.0 (179)
30-34	5.6	6.7	24.7	10.7	26.4	25.8	100.0 (178)
35-39	5.1	4.4	22.2	12.7	24.7	31.0	100.0 (158)
40-54	0.6	5.1	37.2	10.3	22.4	24.4	100.0 (156)
55-59	5.4	18.9	48.6	5.4	10.8	10.8	100.0 (37)
60-64	10.6	14.3	34.9	11.6	15.9	12.7	100.0 (189)
혼인상태							
미혼	2.7	6.4	33.1	16.1	27.0	14.7	100.0 (715)
기혼	5.6	9.2	33.3	10.8	18.8	22.3	100.0 (817)
가구주여부							
가구주	6.8	10.0	28.3	9.3	23.7	21.9	100.0 (279)
비가구주	3.7	7.4	34.3	14.1	22.4	18.0	100.0 (1,253)
교육정도							
초졸미만	6.6	10.7	34.3	10.9	18.9	18.6	100.0 (560)
중졸	4.1	9.7	37.2	15.8	17.9	15.3	100.0 (196)
고졸	3.1	5.9	37.3	16.8	23.8	13.2	100.0 (357)
초대졸	1.7	8.2	31.9	15.9	25.0	17.2	100.0 (232)
대졸이상	2.7	1.1	19.8	7.5	33.7	35.3	100.0 (187)

<부표 Ⅲ-18> 여성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별 분포

단위: %(명)

	일시적 휴직자	1-17시간	18-35시간	36-53시간	54시간이상	전체
전체	0.8 (16)	2.7 (54)	12.2 (242)	46.0 (915)	38.4 (764)	(100.0) (1,991)
지역						
동부	0.8	3.1	10.1	46.2	39.9	100.0 (1,540)
읍면부	0.9	1.6	19.3	45.0	33.3	100.0 (451)
연령						
15-24세	0.9	2.3	9.1	47.0	40.8	100.0 (790)
25-29세	0.9	2.8	7.4	49.5	39.4	100.0 (216)
30-34세	1.4	3.9	9.2	50.2	35.3	100.0 (207)
35-39세	1.0	4.4	11.8	43.3	39.4	100.0 (203)
40-54세	0.0	0.0	14.3	39.8	45.9	100.0 (244)
55-59세	0.0	5.7	32.1	35.8	26.4	100.0 (53)
60-64세	0.7	3.6	21.2	46.4	28.1	100.0 (278)
혼인상태						
미혼	0.8	2.4	7.9	51.2	37.7	100.0 (828)
기혼	0.8	2.9	15.2	42.2	38.9	100.0 (1,163)
가구주여부						
가구주	1.7	2.1	13.1	41.0	42.1	100.0 (290)
비가구주	0.6	2.8	12.0	46.8	37.7	100.0 (1,701)
교육정도						
초졸미만	0.9	3.1	15.9	41.2	39.0	100.0 (801)
중졸	0.8	1.9	11.6	42.6	43.0	100.0 (258)
고졸	0.9	0.2	8.5	50.1	40.2	100.0 (435)
초대졸	0.3	4.2	11.5	46.2	37.8	100.0 (286)
대졸이상	0.9	5.2	7.1	59.2	27.5	100.0 (211)
직종						
입법, 행정관리	0.0	0.0	0.0	40.0	60.0	100.0 (5)
전문가	1.1	4.8	8.0	69.1	17.0	100.0 (188)
기술공, 준전문가	1.3	9.3	14.6	51.7	23.2	100.0 (151)
사무직	0.0	1.5	5.0	69.3	24.2	100.0 (339)
서비스 판매직	0.9	1.9	9.1	28.9	59.3	100.0 (700)
농림어업직	0.9	1.7	37.0	35.7	24.8	100.0 (230)
기능직	1.3	1.9	5.1	45.2	46.5	100.0 (157)
조립공, 조작공	0.0	7.7	7.7	76.9	7.7	100.0 (13)
단순노무직	1.0	2.4	14.6	49.8	32.2	100.0 (205)

< 부표 IV-1 > 인적특성별 여성 실업자 분포

단위: %(명)

	15-24	25-29	30-34	35-39	40-49	50+	전체 (분포)	
전체	4.4 (8)	12.6 (23)	11.5 (21)	7.1 (13)	34.4 (63)	30.1 (55)	100.0 (183)	100.0
동부	5.3 (8)	12.7 (19)	10.7 (16)	6.7 (10)	36.0 (54)	28.7 (43)	100.0 (150)	82.0
읍면부	0.0 (0)	12.1 (4)	15.2 (5)	9.1 (3)	27.3 (9)	36.4 (12)	100.0 (33)	18.0
가구주	3.1 (2)	7.8 (5)	7.8 (5)	6.3 (4)	34.4 (22)	40.6 (26)	100.0 (64)	35.0
비가구주	5.0 (6)	15.1 (18)	13.4 (16)	7.6 (9)	34.5 (41)	24.4 (29)	100.0 (119)	65.0
미혼	26.1 (6)	43.5 (10)	17.4 (4)	4.3 (1)	8.7 (2)	0.0 (0)	100.0 (23)	12.6
기혼	1.3 (2)	8.1 (13)	10.6 (17)	7.5 (12)	38.1 (61)	34.4 (55)	100.0 (160)	87.4
중졸이하	1.3 (1)	1.3 (1)	0.0 (0)	7.6 (6)	40.5 (32)	49.4 (39)	100.0 (79)	43.2
고졸	6.3 (5)	17.7 (14)	19.0 (15)	5.1 (4)	34.2 (27)	17.7 (14)	100.0 (79)	43.2
대졸이상	8.0 (2)	32.0 (8)	24.0 (6)	12.0 (3)	16.0 (4)	8.0 (2)	100.0 (25)	13.7

<부표 IV-2> 구직을 그만 둔 시기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분포

단위: %

	구직을 가장 최근에 한 기간(개월 전)							전체	평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12개월		
전체	18.7	13.7	23.7	5.8	3.6	18.0	16.5	100.0	4.3
동부	17.5	13.5	23.0	6.3	4.0	19.0	16.7	100.0	4.4
읍면부	18.7	13.7	23.7	5.8	3.6	18.0	15.4	100.0	3.8
가구주	0.0	11.1	33.3	11.1	11.1	11.1	22.2	100.0	5.2
비가구주	20.0	13.8	23.1	5.4	3.1	18.5	16.2	100.0	4.3
미혼	33.3	0.0	33.3	16.7	0.0	8.3	8.3	100.0	3.5
기혼	17.3	15.0	22.8	4.7	3.9	18.9	17.3	100.0	4.4
15-24세	20.0	0.0	40.0	20.0	0.0	0.0	20.0	100.0	4.6
25-29세	13.0	4.3	52.2	4.3	4.3	13.0	8.7	100.0	3.7
30-34세	34.5	17.2	17.2	3.4	0.0	13.8	13.8	100.0	3.7
35-39세	16.0	28.0	12.0	8.0	0.0	20.0	16.0	100.0	4.2
40-49세	12.9	9.7	16.1	6.5	6.5	32.3	16.1	100.0	4.8
50-59세	13.6	13.6	13.6	4.5	9.1	13.6	31.8	100.0	5.5
60세 이상	25.0	0.0	75.0	0.0	0.0	0.0	0.0	100.0	2.5
중졸이하	11.8	11.8	29.4	5.9	11.8	14.7	14.7	100.0	4.4
고졸	22.2	12.5	25.0	2.8	0.0	19.4	18.1	100.0	4.4
대졸이상	18.2	18.2	15.2	12.1	3.0	18.2	15.2	100.0	4.2

<부표 IV-3> 1년간의 구직활동 경험

단위: %

구직활동 경험	전체	동부	읍면부	미혼	기혼	중졸	고졸	대졸
없다	92.9	92.4	95.8	91.7	93.4	95.9	90.3	92.4
있다	7.1	7.6	4.2	8.4	6.6	4.1	9.7	7.6

<부표 IV-4> 일거리 있다면 취업 의향

단위: %

취업 의향	전체	동부	읍면부	미혼	기혼	중졸	고졸	대졸
하겠다	28.3	28.6	26.4	19.8	31.2	18.4	35.1	35.1
하지 않겠다	71.7	71.4	73.6	80.2	68.8	81.6	64.9	64.9

<부표 IV-5> 희망하는 통근시간

단위: %

희망 통근시간	전체	동부	읍면부	미혼	기혼	중졸	고졸	대졸
집이나 집근처	41.9	41.8	42.5	29.7	44.5	56.5	41.3	25.5
30분 미만	34.9	34.2	38.7	35.2	34.8	29.5	31.7	49.0
30분-1시간	22.0	22.7	17.9	32.8	19.7	13.5	25.1	24.8
1-2시간 미만	1.0	1.1	0.0	1.6	0.8	0.5	1.3	0.6
2시간이상도 무관	0.3	0.2	0.9	0.8	0.2	0.0	0.5	0.0

<부표 IV-6> 취업의향이 있음에도 구직 못한 이유

단위: %

구직 못한 이유	전체	동부	읍면부	미혼	기혼	중졸	고졸	대졸
일거리 없어	17.9	16.6	25.5	18.8	17.7	26.4	15.9	12.2
취업기회 없어	13.2	13.0	14.2	24.2	10.9	10.4	13.2	16.7
취업정보 없어	6.7	6.8	6.6	8.6	6.3	7.8	6.6	5.8
자격·학력이 맞지 않아	2.1	2.1	1.9	10.2	0.3	2.6	2.6	0.0
남녀 차별 때문	0.1	0.2	0.0	0.0	0.2	0.0	0.0	0.6
나이가 많아	8.4	9.0	4.7	0.8	10.0	16.1	5.6	5.8
좋지 않은 보수와 작업환경	2.3	2.6	0.9	3.1	2.2	1.0	2.6	3.2
좋지 않은 사업여건	3.9	3.1	8.5	0.8	4.5	0.5	4.0	7.7
가사 및 집안일때문	32.2	33.0	27.4	1.6	38.7	19.2	36.0	39.1
기타	10.3	10.6	8.5	15.6	9.2	13.0	9.8	8.3
무응답	2.9	3.1	1.9	16.4	0.0	3.1	3.7	0.6

<부표 IV-7> 마지막 직장 종사상의 지위

단위: %

종사상의 지위	전체	동부	읍면부	미혼	기혼	중졸	고졸	대졸
고용주	0.8	0.8	0.8	0.0	0.8	0.5	0.9	0.9
자영업자	9.3	9.2	9.7	3.9	9.5	12.8	7.3	9.0
무급가족 종사자	7.2	4.6	19.4	2.0	7.4	20.5	2.4	0.9
전일제 근로자	72.4	74.3	62.9	78.4	72.1	47.9	82.0	81.9
시간제 근로자	10.4	11.1	7.2	15.7	10.2	18.2	7.4	7.2

<부표 IV-8> 마지막 직장 퇴직 사유

단위: %

직장 퇴직 사유	전체	동부	읍면부	미혼	기혼	중졸	고졸	대졸
명예퇴직	0.9	1.0	0.0	2.0	0.8	0.3	0.6	2.1
정년퇴직	0.2	0.3	0.0	0.0	0.2	0.5	0.0	0.3
구조조정으로 해고	1.2	1.3	0.4	7.8	0.9	0.8	1.2	1.5
계약완료	0.4	0.5	0.0	2.0	0.4	0.3	0.5	0.6
일거리가 없어	4.7	3.8	9.3	0.0	4.9	13.3	1.7	0.6
도산, 파산 또는 수지가 맞지 않아	4.3	4.8	2.1	7.8	4.2	6.4	3.9	2.7
가사, 육아문제로	40.4	41.6	34.6	3.9	41.8	19.2	47.0	52.1
노인투양, 가족간호	0.8	0.7	1.3	2.0	0.7	2.3	0.2	0.3
남편(가족)의 반대	3.1	3.1	3.4	0.0	3.2	2.6	3.9	2.1
건강상의 이유	14.6	13.9	18.1	21.6	14.4	37.9	6.2	3.9
직장내 갈등	1.4	1.3	1.7	9.8	1.1	1.3	1.7	0.9
기타	7.7	7.9	7.2	37.3	6.6	6.4	6.8	11.1
결혼때문에	20.2	19.9	21.5	5.9	20.7	8.7	26.2	21.7
무응답	0.1	0.0	0.4	0.0	0.1	0.0	0.2	0.0

<부표 V-1> 기혼여성 취업자의 가사 및 자녀양육 부담

단위: %

	전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그저 그렇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전체
자영업자	6.8	19.2	27.4	37.7	8.9	100.0
무급가족	3.8	17.9	28.2	39.5	10.6	100.0
가내노동	7.1	42.9	21.4	25.0	3.6	100.0
전일제	3.8	16.3	26.4	43.9	9.6	100.0
시간제	5.0	13.5	28.0	41.0	12.5	100.0
관리자/전문가	2.7	14.4	23.4	48.6	10.8	100.0
준전문가	5.5	15.1	26.0	38.4	15.1	100.0
사무직원	3.9	17.4	23.2	43.2	12.3	100.0
서비스직	5.1	16.8	27.6	39.6	10.8	100.0
판매직	4.3	20.8	24.7	42.7	7.5	100.0
농어업관련직	5.2	14.4	30.6	38.9	10.9	100.0
기능직	2.0	18.2	28.4	43.9	7.4	100.0
기계조작공	0.0	15.4	46.2	30.8	7.7	100.0
단순노무직	6.8	19.4	30.4	34.6	8.9	100.0

<부표 V-2> 인적특성별 기혼여성의 가사전담자

단위: %

	시부모	친정 부모	형제 자매	가정부 파출부	본인	남편	다른 자녀	기타	전체
전체	1.8	1.1	0.2	0.4	93.5	0.7	0.3	2.0	100.0
동부	1.7	1.2	0.1	0.5	93.1	0.9	0.4	2.0	100.0
읍면부	1.9	0.4	0.3	0.1	95.2	0.1	0.1	1.8	100.0
가구주	0.0	0.9	0.2	0.0	97.4	0.5	0.0	0.9	100.0
비가구	2.0	1.1	0.2	0.5	93.0	0.8	0.4	2.1	100.0
15-24세	0.0	0.0	0.0	0.0	97.1	2.9	0.0	0.0	100.0
25-29세	3.4	2.6	0.9	0.0	91.4	0.4	0.0	1.3	100.0
30-34세	3.8	2.1	0.0	0.4	91.8	1.0	0.2	0.8	100.0
35-39세	1.5	2.2	0.6	0.7	93.9	0.2	0.0	0.9	100.0
40-49세	2.1	0.7	0.1	0.6	93.7	0.5	0.6	1.5	100.0
중졸이하	0.8	0.5	0.1	0.1	93.9	0.8	0.5	3.3	100.0
고졸	2.1	0.8	0.2	0.2	94.4	0.8	0.2	1.3	100.0
대졸이상	3.3	2.9	0.3	1.7	90.7	0.5	0.2	0.5	100.0

<부표 V-3> 여성의 인적특성별 남편의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

단위: %

	매우 찬성	찬성	그저 그렇다	반대	매우 반대	전체
전체	9.5	46.8	21.4	18.3	4.0	100.0
동부	9.7	45.4	22.7	17.7	4.5	100.0
읍면부	8.7	52.0	16.3	20.9	2.2	100.0
가구주	19.2	56.2	17.8	5.5	1.4	100.0
비가구주	9.3	46.6	21.4	18.6	4.1	100.0
15-24세	14.3	42.9	14.3	25.7	2.9	100.0
25-29세	11.3	47.8	18.3	17.4	5.2	100.0
30-34세	9.9	47.7	19.4	19.2	3.8	100.0
35-39세	9.2	46.2	24.2	16.7	3.7	100.0
40-49세	11.3	49.1	21.4	15.4	2.9	100.0
50-59세	7.0	47.0	21.8	20.2	3.9	100.0
60세이상	5.6	35.5	22.6	27.4	8.9	100.0
중졸이하	7.6	49.1	20.4	19.2	3.7	100.0
고졸	8.3	45.0	22.5	19.3	5.0	100.0
대졸이상	15.6	46.3	20.9	14.8	2.4	100.0
취업자	38.8	11.3	2.5	12.5	11.3	22.5
실업자	35.7	14.3	0.0	14.3	21.4	14.3
비경제활동인구	37.9	12.8	1.3	17.7	5.1	24.6

< 부표 V-4 > 여성의 종사상지위별 남편 태도

단위: %

	매우 찬성	찬성	그저 그렇다	반대	매우 반대	전체
자영업자	12.9	69.6	14.7	2.8	0.0	100.0
무급가족	14.7	64.2	15.2	5.5	0.5	100.0
가내노동	17.4	39.1	13.0	21.7	8.7	100.0
전일제	15.0	66.4	13.5	4.1	1.1	100.0
시간제	11.7	62.6	14.7	9.2	1.8	100.0
관리자/전문가	9.4	80.6	0.5	2.1	7.3	100.0
준전문가	16.9	66.9	0.0	5.6	10.6	100.0
사무직원	5.4	85.3	0.0	7.5	1.8	100.0
서비스직	11.8	29.7	0.3	19.2	39.1	100.0
판매직	9.4	21.8	0.0	37.0	31.8	100.0
농어업관련직	3.5	2.2	1.3	78.7	14.4	100.0
기능직	16.6	60.5	7.6	9.6	5.7	100.0
기계조작공	15.4	76.9	7.7	0.0	0.0	100.0
단순노무직	36.8	50.3	5.5	6.0	1.5	100.0

< 부표 V-5 > 출근시간별 분포

단위: %

	집이나 집근처	30분 미만	30분- 1시간 미만	1시간-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전체
전체	39.7	28.1	25.0	6.4	0.8	100.0
동부	32.7	29.4	29.2	7.9	0.9	100.0
읍면부	63.4	23.9	10.9	1.3	0.4	100.0
가구주	35.0	34.5	23.8	5.4	1.3	100.0
비가구	40.8	26.6	25.3	6.6	0.7	100.0
미혼	11.9	30.0	44.8	11.4	1.9	100.0
기혼	48.1	27.6	19.0	4.8	0.5	100.0
15-24세	11.1	31.1	47.1	8.9	1.8	100.0
25-29세	17.0	29.6	37.0	14.8	1.7	100.0
30-34세	34.4	32.6	25.4	6.7	0.9	100.0
35-39세	38.1	31.0	24.2	6.3	0.4	100.0
40-49세	45.9	30.2	20.1	3.2	0.7	100.0
50-59세	58.3	19.6	15.3	6.4	0.3	100.0
60세 이상	65.6	19.1	13.7	1.5	0.0	100.0
중졸이하	57.7	23.2	15.1	3.4	0.5	100.0
고졸	34.4	32.3	26.7	5.8	0.9	100.0
대졸이상	20.2	28.7	37.9	12.1	1.1	100.0

<부표 VI-1> 생애단계별 지역별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분포

단위: 명

	최종학교 졸업직후	결혼 직전	결혼 직후	첫출산 직전	첫출산 직후	막내 출산전	막내 출산후	막내 입학전	막내 입학후
	전 체								
취업자수	1356	1522	783	986	677	577	615	810	820
자영업자	26	75	98	74	93	81	88	145	139
무급가족	117	139	306	264	308	295	345	387	377
상용고	1140	1207	324	578	230	161	137	181	192
일시일고	73	101	55	70	46	40	45	97	112
	동 부								
취업자수	1114	1239	517	705	431	343	351	505	512
자영업자	19	58	66	48	66	52	57	103	98
무급가족	54	70	110	89	113	107	127	165	161
상용고	980	1030	297	517	217	153	132	160	164
일시일고	61	81	44	51	35	31	35	77	89
	읍 면 부								
취업자수	242	283	266	281	246	234	264	73	308
자영업자	7	17	32	26	27	29	31	10	41
무급가족	63	69	196	175	195	188	218	53	216
상용고	160	177	27	61	13	8	5	5	28
일시일고	12	20	11	19	11	9	10	5	23

<부표 VI-2> 생애단계별 학력별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분포

단위: 명

	최종 학교 졸업 직후	결혼 직전	결혼 직후	첫출산 직전	첫출산직 후	막내 출산전	막내 출산후	막내 입학전	막내 입학후
	중졸 이하								
취업자수	212	375	360	365	346	333	381	515	548
자영업자	6	20	48	35	46	47	50	83	85
무급가족	100	116	256	231	252	246	284	314	316
상용고	88	193	30	70	22	15	17	62	75
일시일고	18	46	26	29	26	25	30	56	72
	고 졸								
취업자수	706	757	216	352	170	128	128	206	190
자영업자	10	36	31	23	32	24	24	50	44
무급가족	14	18	41	29	48	45	56	64	53
상용고	656	668	129	277	79	52	38	58	61
일시일고	26	35	15	23	11	7	10	34	32
	대졸 이상								
취업자수	438	390	207	269	161	116	106	89	82
자영업자	10	19	19	16	15	10	14	12	10
무급가족	3	5	9	4	8	4	5	9	8
상용고	396	346	165	231	129	94	82	61	56
일시일고	29	20	14	18	9	8	5	7	8

부록 2. 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의 주요변수

목 차	변 수 내 용	조사표 문항
1장. 가구질문표	가구원 이름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교육수준 육아 및 보호대상자 보호(돌보는)자 혼인상태 경제활동상태 취업여부 일시적 휴직여부 일시적 휴직사유 종사상의 지위 취업시간 구직활동 취업가능성여부 주택 소유형태 및 소유주 주택 소유자 및 계약 명의자 가구주와의 동거여부 가구주와의 비동거 이유 농업종사자 유무 농업종사자 및 명수	4A101-1 A101-2 A101-3 A101-4 A101-5 A101-6 A101-7 A101-8 A101-9 A101-10 A101-11 A101-12 A101-13 A101-14 A101-15 A101-16 A102 A103 A104 A104-1 A105 A105-1
가. 비농가사항	수입원 가구주 가구주 직종 가구주 업종 가구주 한달 수입 가구원 한달 수입 가구의 기타수입 포함한 한달 총수입 생활정도	A106 A107 A108 A108-1 A109 A110 A111 A112

(계속)

목 차	변 수 내 용	조사표 문항
나. 농가사항	소유자: 논, 밭, 과수원, 기타 경작자: 논, 밭, 과수원, 기타 수입원 가구주 가구주 직종 가구주 업종 가구주 한달 수입 1년간 농사수입: 곡류, 채소, 과수, 기타 1년간 가축 수입 1년간 품삯 수입 가구의 1년간 농사 총수입 농사 이외의 수입 여부와 한달 수입액 기타수입포함한 한달 총수입액 생활정도	A113 A114 A115 A116 A117 A117-1 A118 A119 A120 A121 A122 A123 A124 A125
2장.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응)	성장시 동거가족 성장시 아버지의 직업 아버지 학력 성장시 어머니의 직업 어머니 학력 건강상태 최종학교 졸업 연령 고등학교 계열 고등학교 계열 선택이유 대학 전공계열 대학 전공 계열 선택 이유 대학 전공 계열 만족도 진학 및 취업시 영향받은 사람 영향받은 시기 직장생활에 미치는 학업정도 소유하고 있는 자격증 자격증 취득시기 취득 자격증의 취업에의 도움여부 9개의 여성취업 의견에 대한 생각	B201 B202 B203 B204 B205 B206 B207 B208 B208-1 B209 B209-1 B209-2 B210 B210-1 B211 B212 B212-1 B213 B214

(계속)

목 차	변 수 내 용	조사표 문항
	취업여부가 결혼생활 만족도 미치는 정도 일하는 것에 대한 남편의 찬성여부 찬성이유 반대이유 가사를 돌보는 사람 대리 가사노동 지급 비용 보육을 맡는 사람 이용하는 자녀 보육시설 자녀 1인당 보육비용 보육시설에 맡길 의향여부 맡길 의향이 없는 이유 맡길 의향이 있는 이유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사항 사교육비 지출액수 취업결정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의 영향여부 남편의 성함 남편의 연령 남편의 학력 일주일 간 남편이 한 일 일주일 간의 남편 유급노동유무 일주일 간 남편의 무노동 이유 남편의 지난 주(달)의 구직경험 남편의 지난 주(달)의 일한 의사 남편의 종사상의 지위 남편의 직종 남편의 업종 남편의 한달 총 수입	B214-1 B215 B215-1 B215-2 B216 B216-1 B217 B217-1 B218 B219 B219-1 B219-2 B220 B221 B221-1 B222 B223 B224 B225 B226 B227 B227-1 B227-1 B228 B229 B230 B231
(학생용)	성장시 동거가족 성장시 아버지의 직업 아버지 학력 성장시 어머니의 직업 어머니 학력 건강상태 고등학교 계열	C201 C202 C203 C204 C205 C206 C207

(계속)

목 차	변 수 내 용	조사표 문항
	고등학교 계열 선택 이유	C207-1
	대학 전공 계열	C208
	대학 전공 계열 선택 이유	C208-1
	대학 전공 계열 만족도	C208-2
	전학 및 취업시 타인으로부터의 영향 유무	C209
	영향받은 사람	C209-1
	영향받은 시기	C209-2
	직장생활에 미치는 학업정도	C210
	취득 자격증	C211
	자격증 취득시기	C211-1
	취득 자격증의 취업에의 도움여부	C212
	학업중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C213
	아르바이트 경험 이유	C213-1
	아르바이트 비경험 이유	C214
	현재의 학업성적	C215
	향후 진로	C216
	취업희망 직장	C217
	취업의 대안으로서의 결혼	C218
	9개의 여성취업 의견에 대한 생각	C219
3장. 경제활동상태		
가. 취업자(일반층)	경제활동 상태	B301
	평소 주당근로시간	B302
	지난주의 실제 근로시간	B302-1
	35시간 이상 취업희망 여부	B303
	35시간 미만 취업의 이유	B303-1
	35시간 이상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B303-2
	직종	B304
	업종	B305
	종업원규모	B306
	출근시간	B307
	직업훈련여부	B308
	취업전 직업훈련 이수기관	B308-1
	직업훈련의 유용성(취업전)	B308-2
	취업후 직업훈련 이수기관	B308-3
	직업훈련의 유용성(취업후)	B308-4

(계속)

목 차	변 수 내 용	조사표 문항
	종사상의 지위 사업자 등록 유무 자본금 근무 기간 서류상의 고용계약 유무 계약기간 임금지급형태 구직경로 취업시 주요한 역할 요인 노조유무 노조가입 여부 남녀 차별유형 취업시 차별 경험 유무 직장에서의 성희롱 경험 유무 월수입 업무시 어려운 점 남편의 가사 및 육아 참여정도 일의 만족도 근무조건의 만족도 전직의사 이직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계속취업기간 자녀양육의 어려움 보육시설 이용이 직장생활에 미치는 충분성 가사 및 탁아문제로 사직할 가능성	B309 B310 B311 B312 B313 B313-1 B314 B315 B316 B317 B317-1 B318 B319 B320 B321 B322 B322-1 B323 B324 B325 B325-1 B326 B327 B328 B329
(학생용)	경제활동상태 평소 주당근로시간 지난주의 실제 근로시간 35시간 이상 취업희망 여부 35시간 미만 취업의 이유 35시간 이상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직종 업종 종업원규모 출근시간	C301 C302 C302-1 C303 C303-1 C303-2 C304 C305 C306 C307

(계속)

목 차	변 수 내 용	조사표 문항
	직업훈련여부 취업전 직업훈련 이수기관 직업훈련의 유용성(취업전) 취업후 직업훈련 이수기관 직업훈련의 유용성(취업후) 월 수입	C308 C308-1 C308-2 C308-3 C308-4 C309
나. 실업자(일반용)	취업 직전 상태 퇴직 직전 종사상의 지위 퇴직 사유 실직 사유 실직에 영향을 미친 여성차별 여부 사직 사유 구직경로 구직기간 희망구직 계속기간 구직 이유 구직시 고려되는 주요 근로조건 희망 종사상의 지위 희망 고용형태 희망 근로시간대 시간제의 희망이유 구직 직종 희망 임금수준 희망 통근시간 지난주 비취업사유 현재 경제적 문제 해결 방법 실업문제 해결방법 여성 실업자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 실업자를 위해 시행된 정부의 정책	B401 B402 B403 B404 B405 B406 B407 B408 B409 B410 B411 B412 B412-1 B412-2 B412-3 B413 B414 B415 B416 B417 B418 B419 B420
(학생용)	구직 직전 상태 이전의 종사상의 지위 퇴직 사유	C401 C402 C403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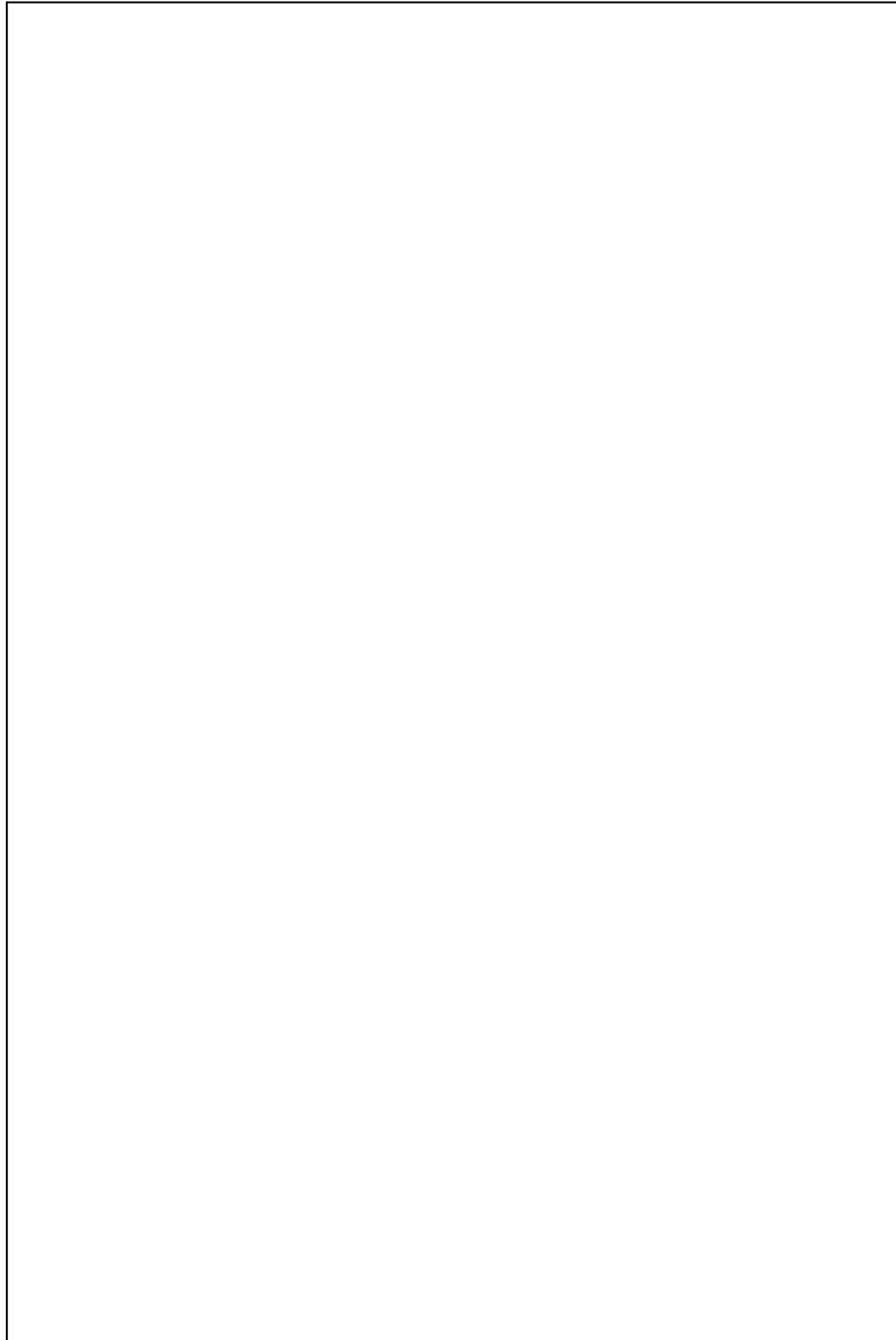
목 차	변 수 내 용	조사표 문항
	실직 사유 실직에 영향을 미친 여성차별 여부 사직 사유 구직경로 구직기간 희망구직계속기간 구직 이유 구직시 고려되는 주요 근무조건 희망 종사상의 지위 희망 고용형태 희망 임금	C404 C405 C406 C407 C408 C409 C410 C411 C412 C412-1 C413
다. 비경제활동자 (일반용)	지난 1년간의 구직경험 유무 최근의 구직활동경험 구직경로 취업의사 비취업이유 희망 종사상의 지위 희망 고용형태 희망 근로시간대 시간제 희망이유 구직 직종 희망 월급 희망 통근시간 근로조건중의 중요도 지난주 비구직 사유 현재 경제적문제 해결방법 취업경험 퇴직 직전의 종사상의 지위 퇴직 사유	B501 B501-1 B501-2 B502 B502-1 B503 B503-1 B503-2 B503-3 B504 B505 B506 B507 B508 B509 B510 B511 B512
(학생용)	지난 1년간의 구직경험 유무 최근의 구직활동경험 구직경로	C501 C501-1 C5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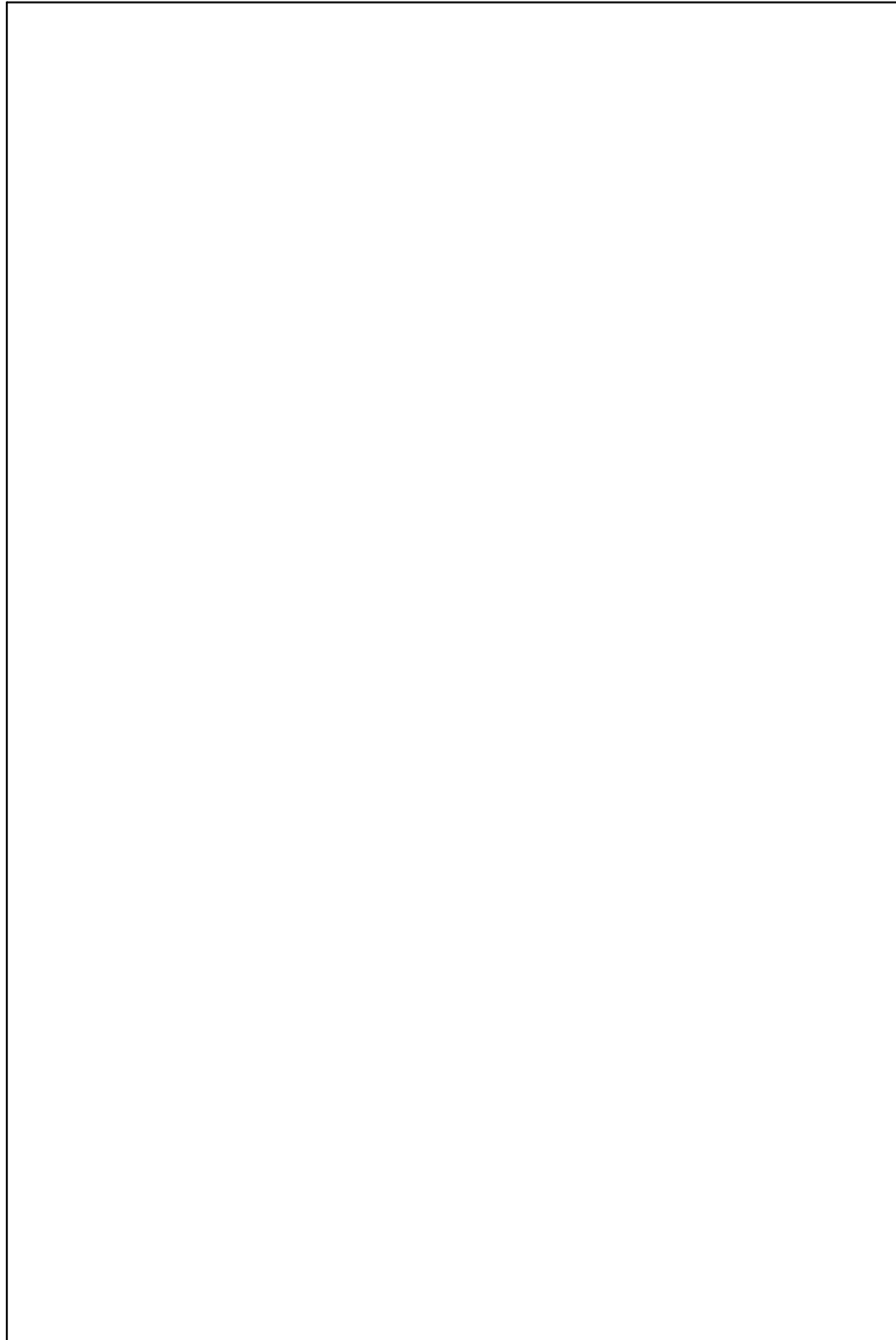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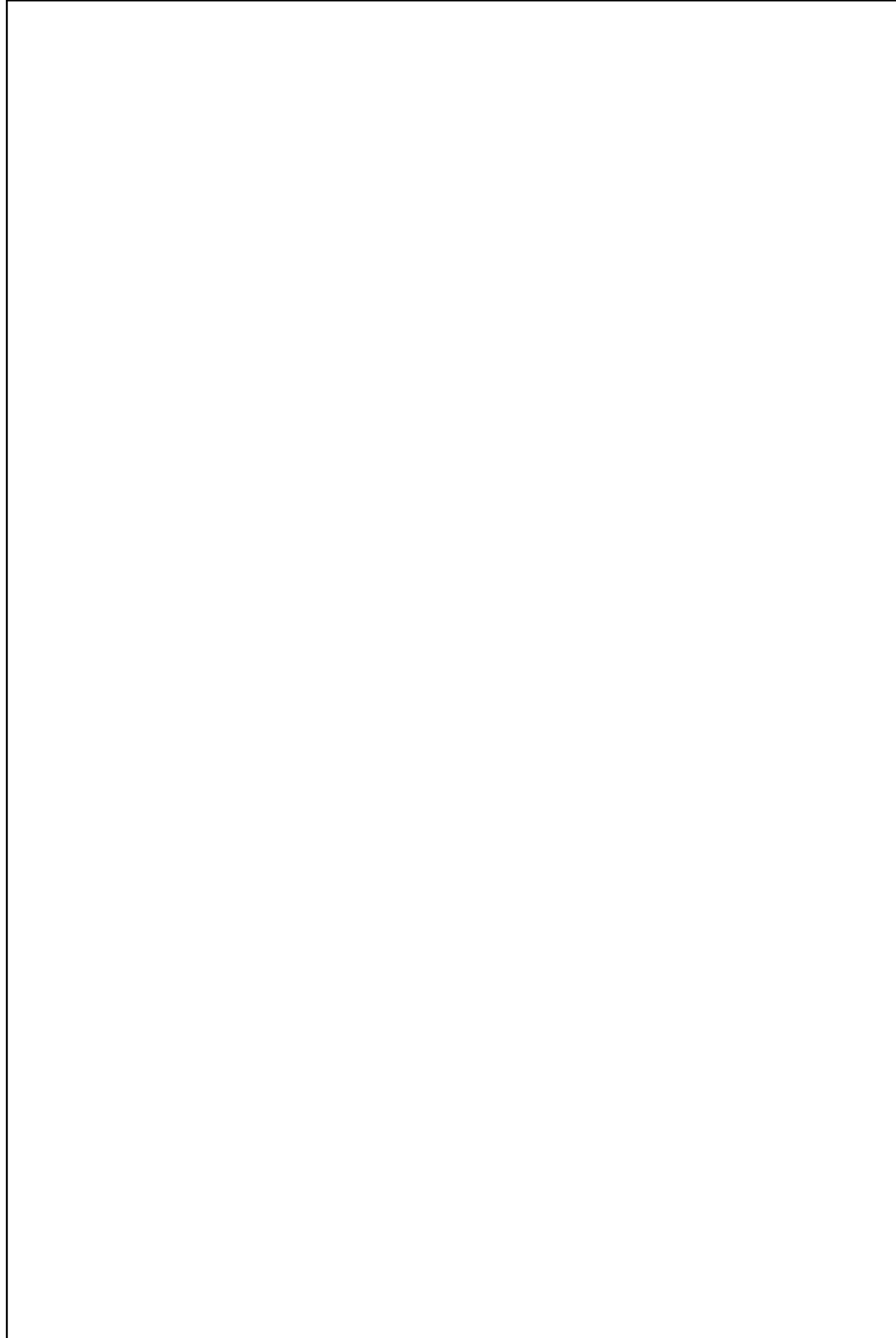
목 차	변 수 내 용	조사표 문항
	취업의사 비취업이유 희망 증사상의 지위 희망 고용형태 희망 근로시간대 시간제 희망이유 구직 직종 희망 월급 희망 통근시간 근로조건의 중요도 지난주 비구직 사유	C502 C502-1 C503 C503-1 C503-2 C503-3 C504 C505 C506 C507 C508
4장. 가족생활사 및 취업력 (30세 이하 조사대상자)	연령 교육사항 본인의 결혼력 본인의 출산력 노동력상태 1년간 가장 오래한 취업일 그해 총 취업개월수 취업종단 및 변경사유 구직현황	D601A-1 D601A-2 D601A-3 D601A-4 D601A-5 D601A-6 D601A-7 D601A-8 D601A-9
(31세 이상 조사대상자)	연령 교육사항 본인의 결혼력 본인의 출산력 노동력상태 1년간 가장 오래한 취업일 그해 총 취업개월수	D601B-1 D601B-2 D601B-3 D601B-4 D601B-5 D601B-6 D601B-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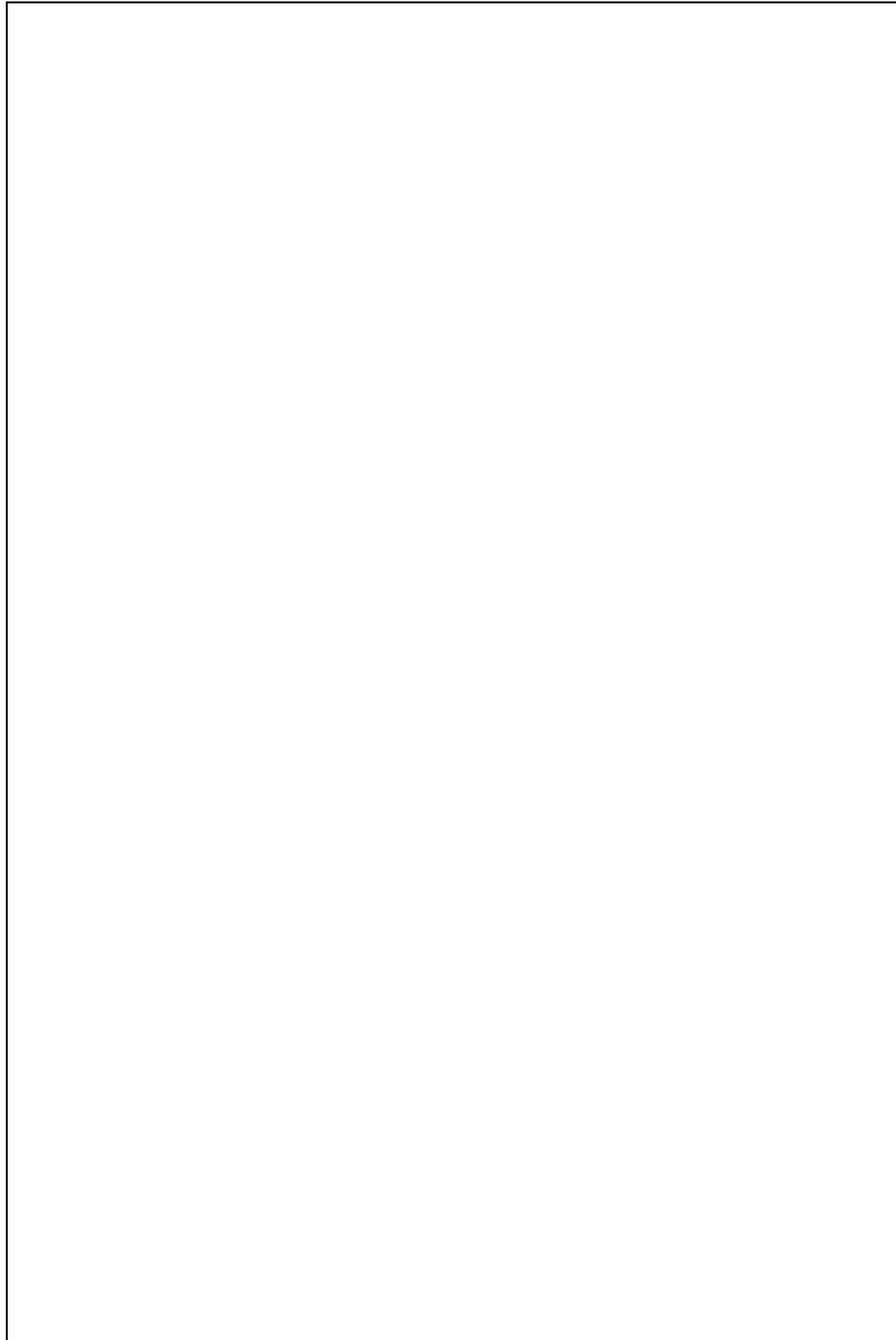
부록 3. 조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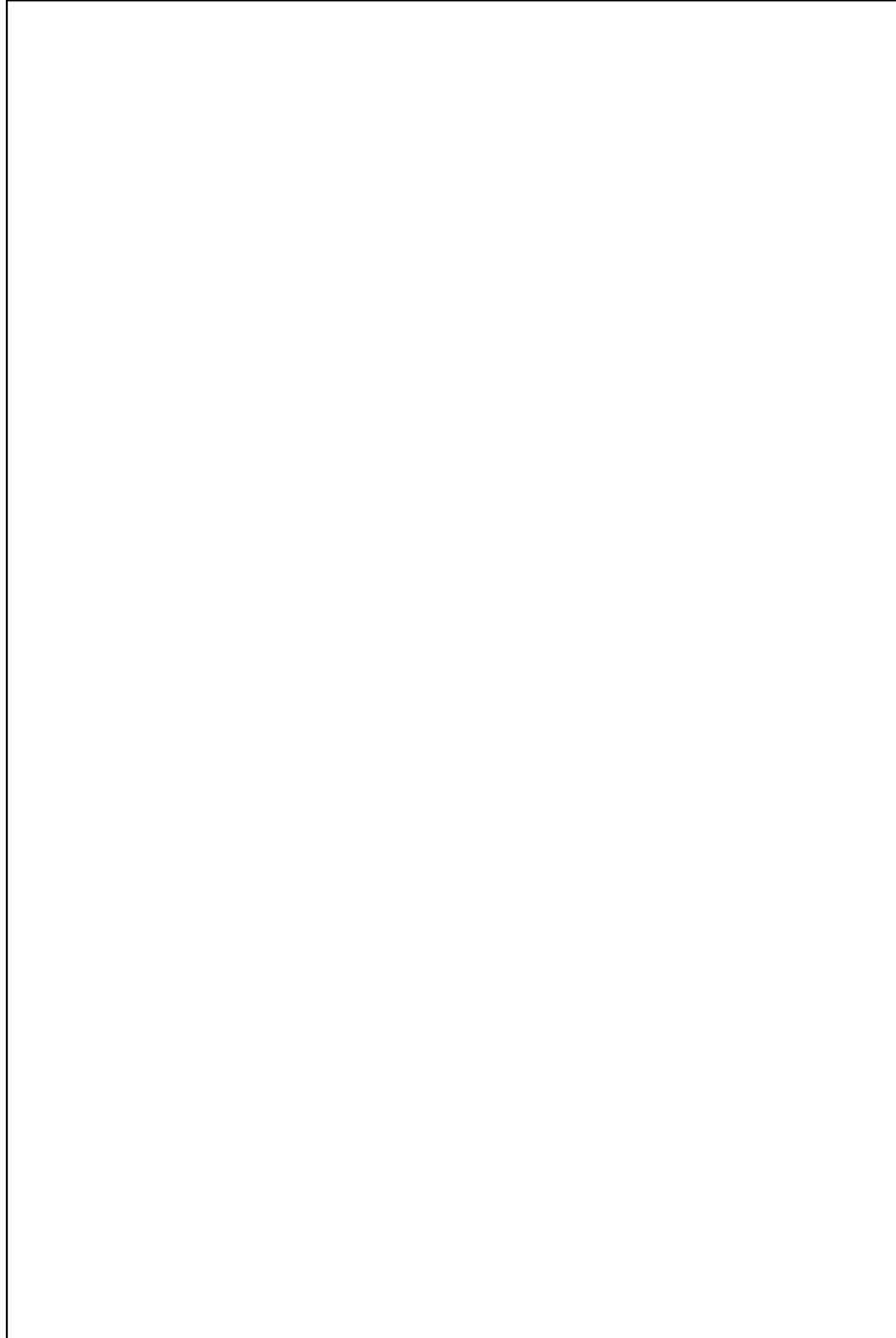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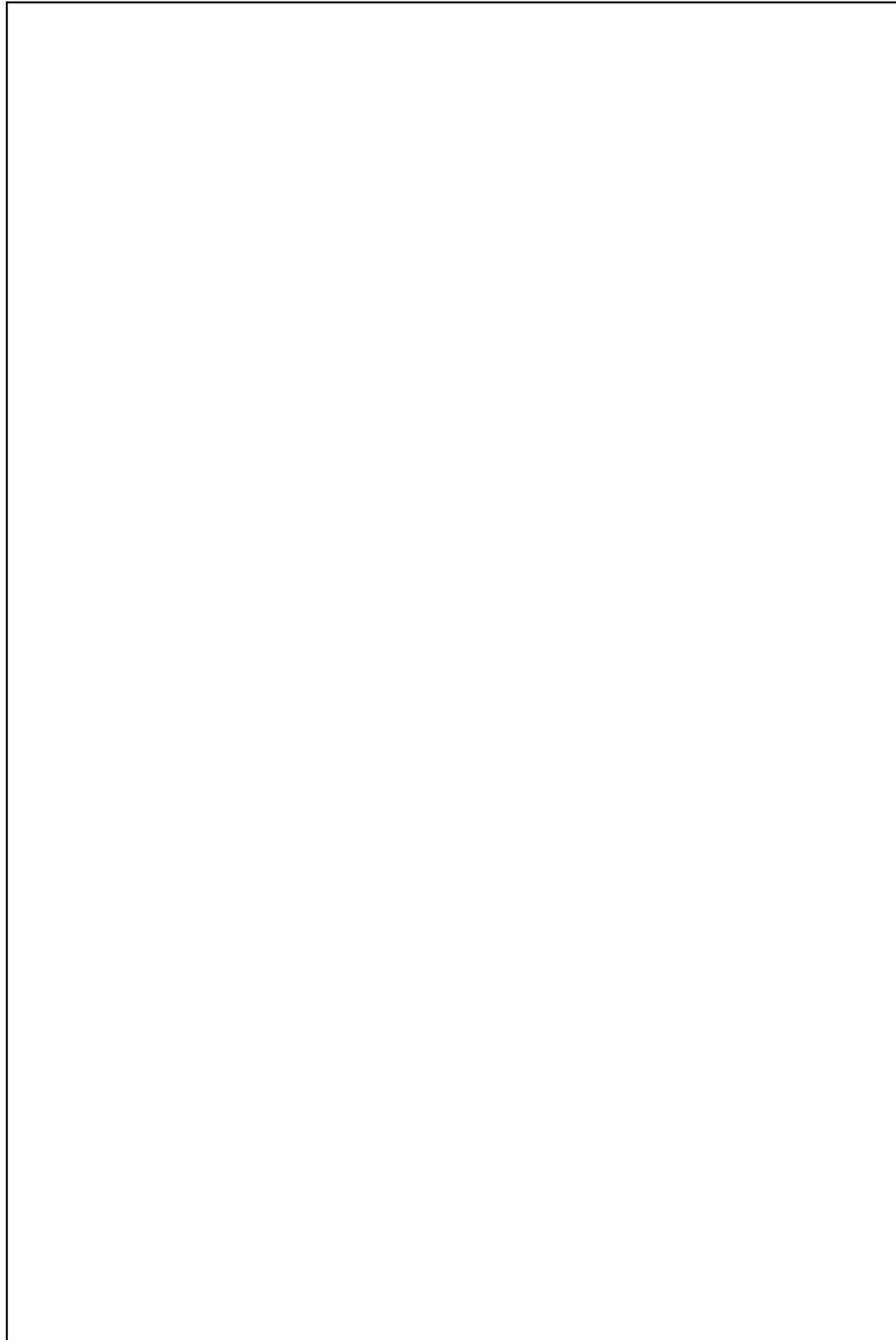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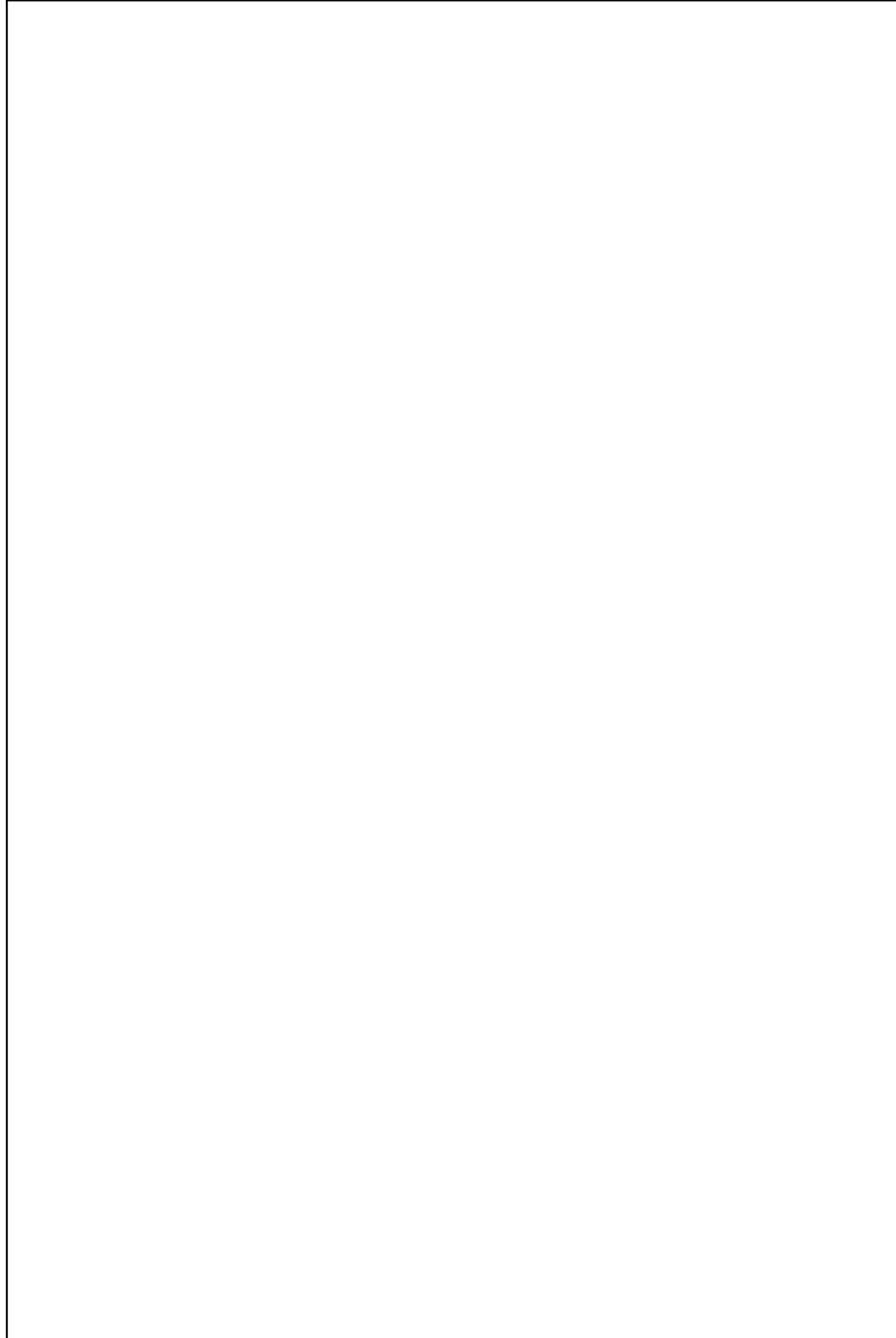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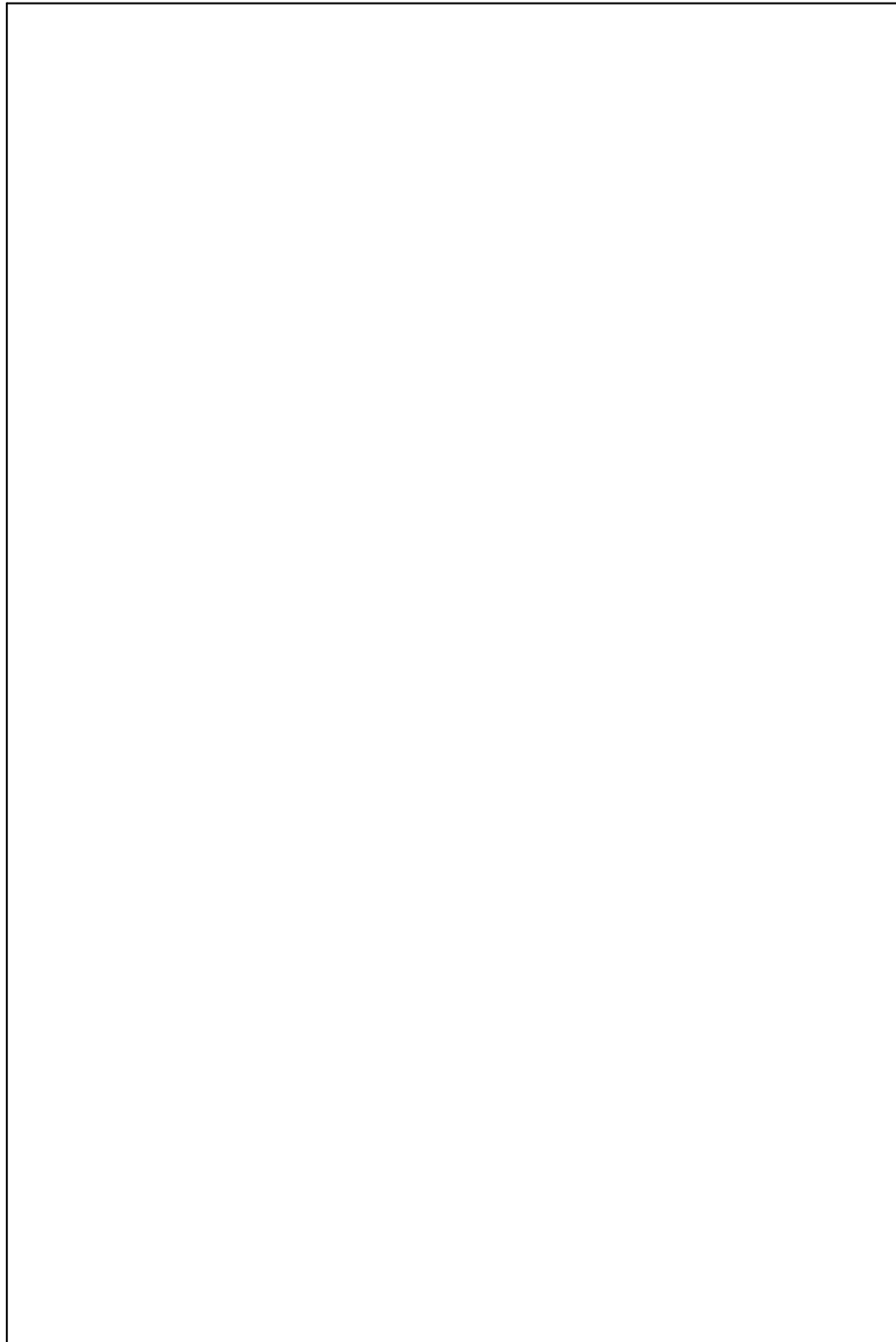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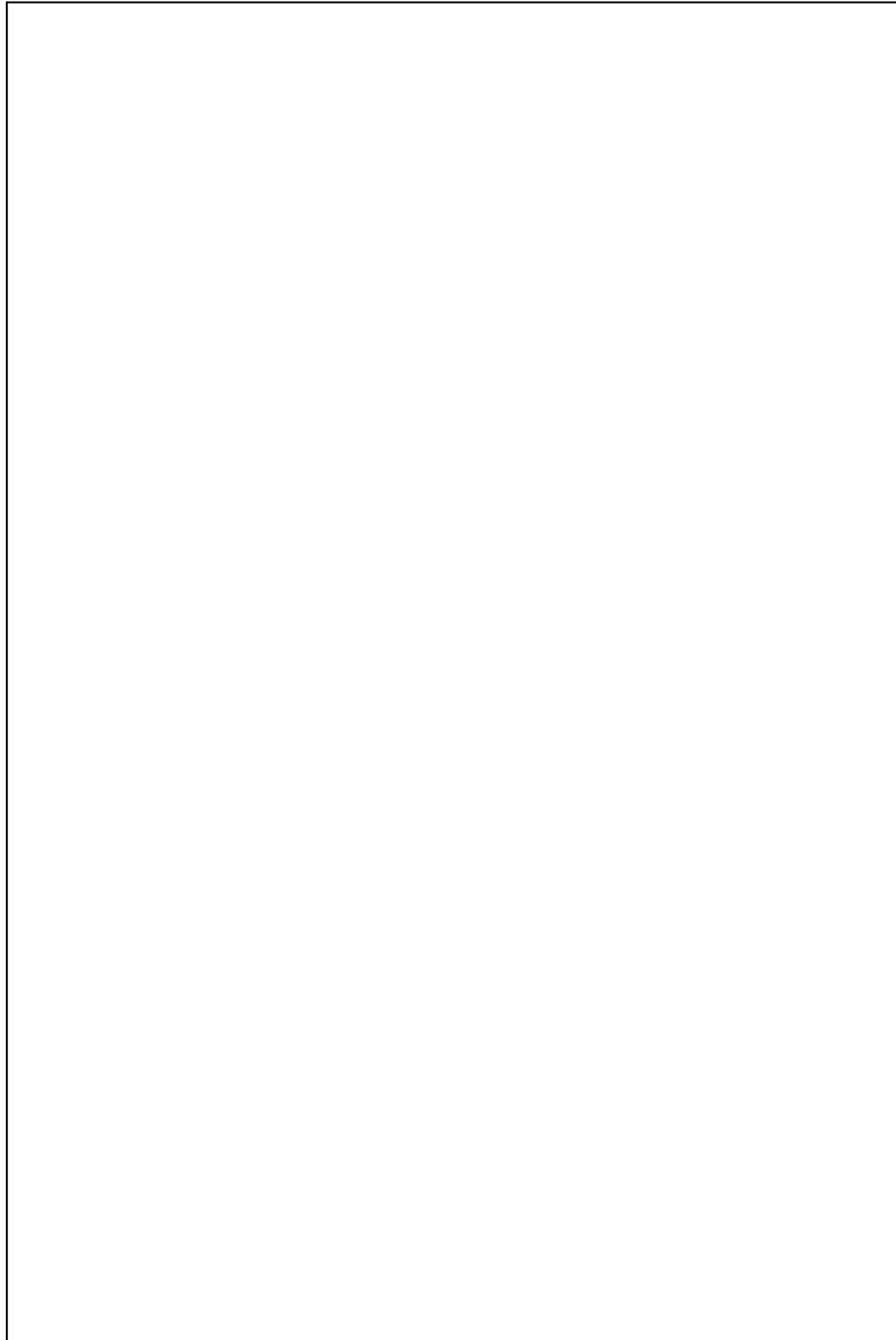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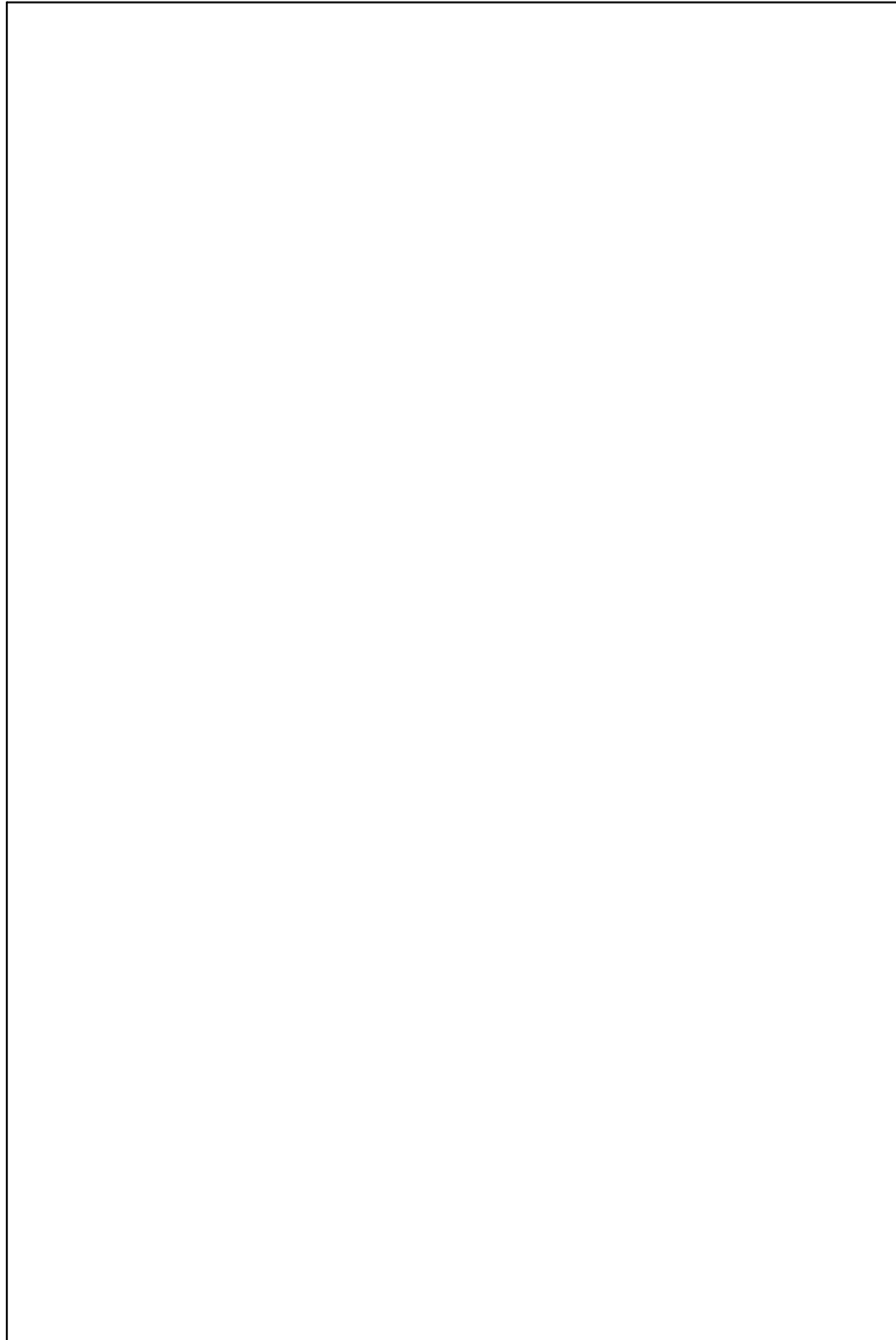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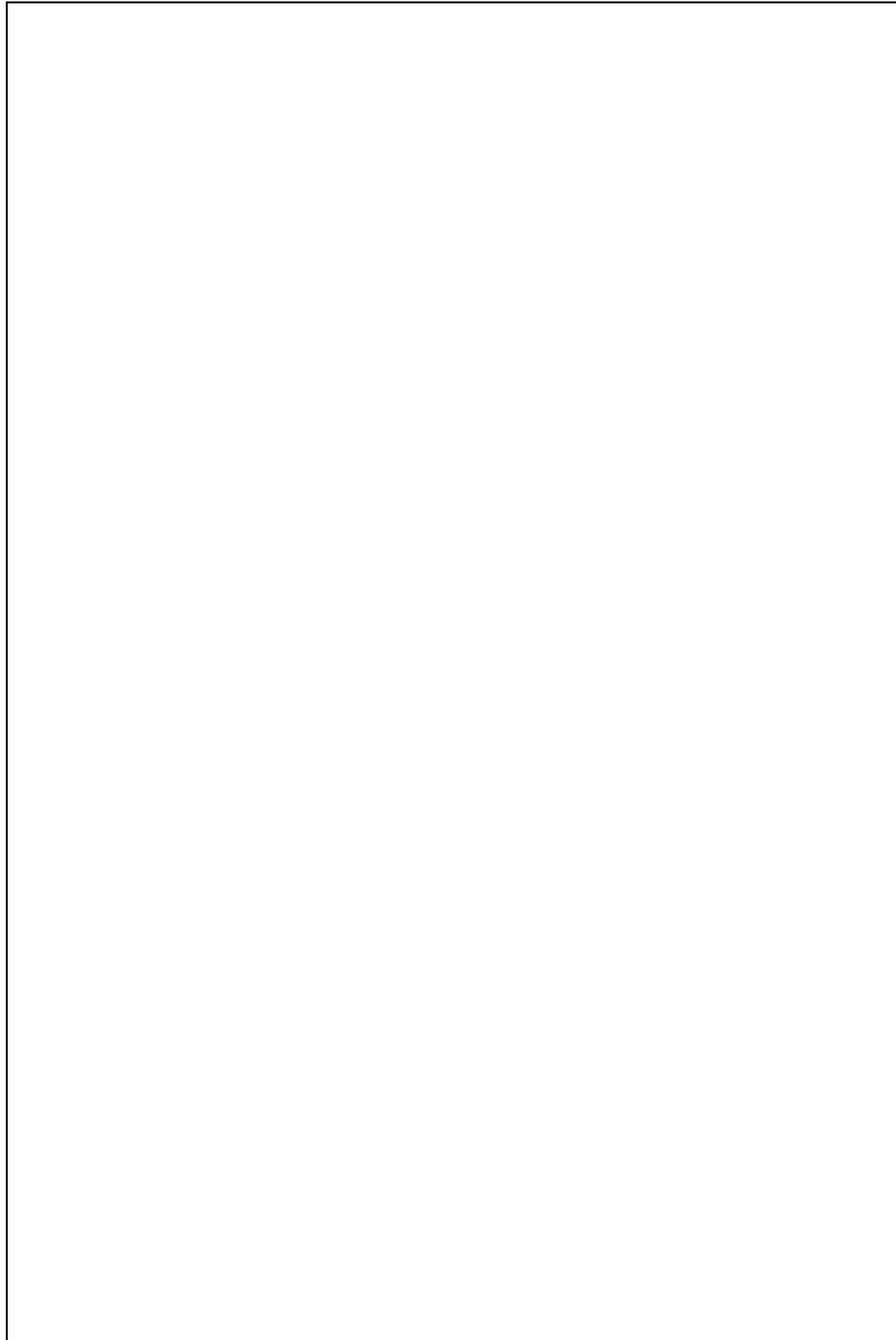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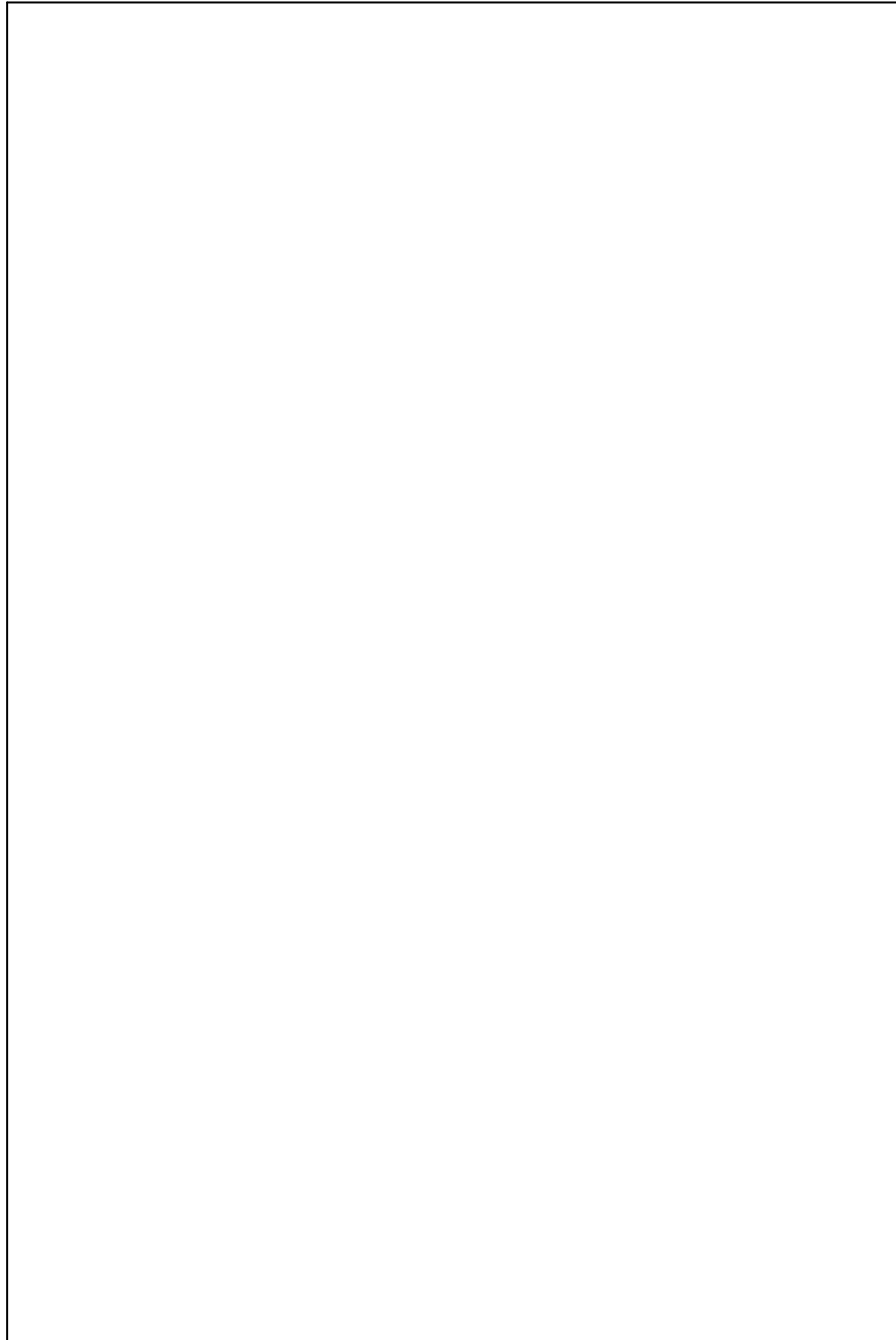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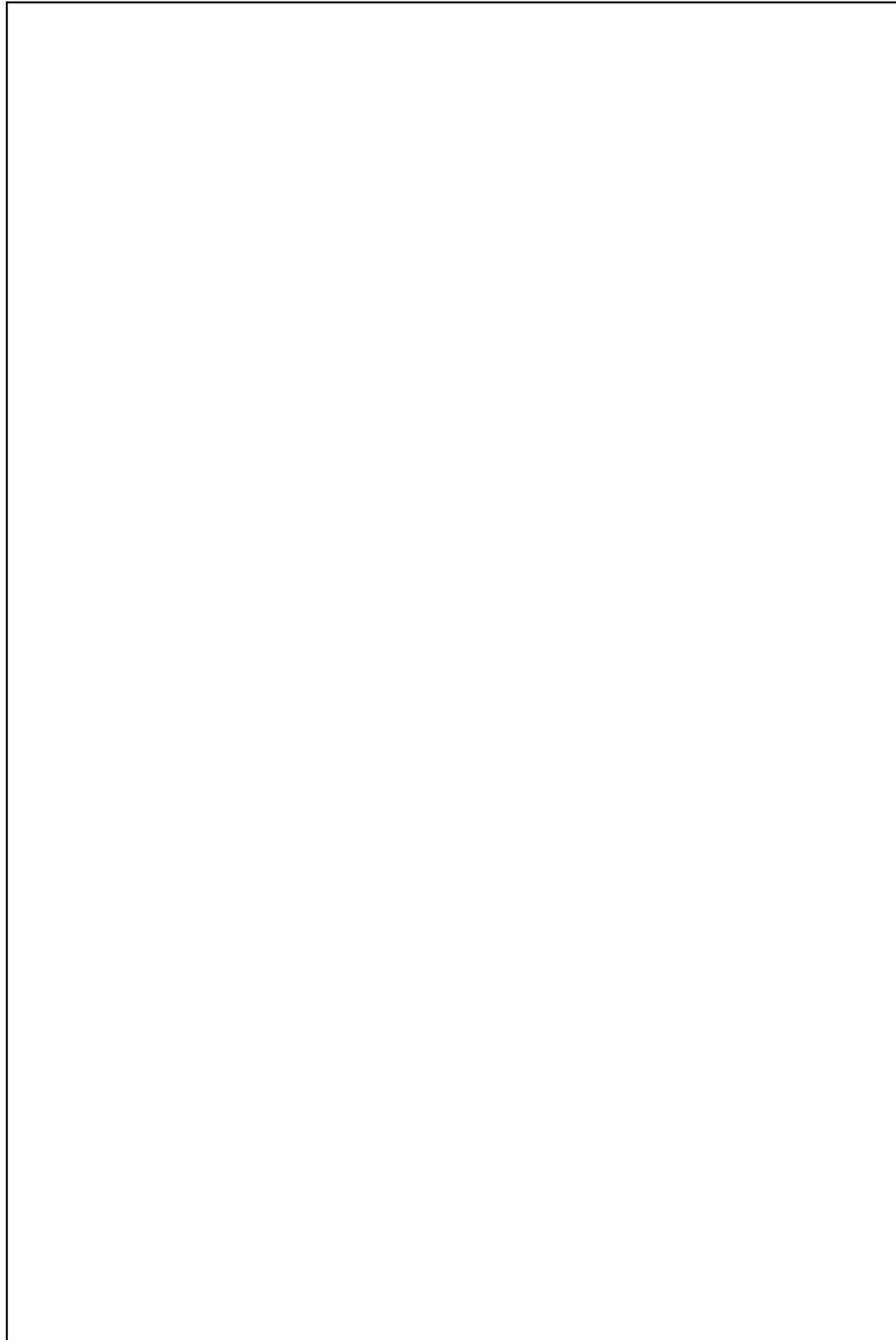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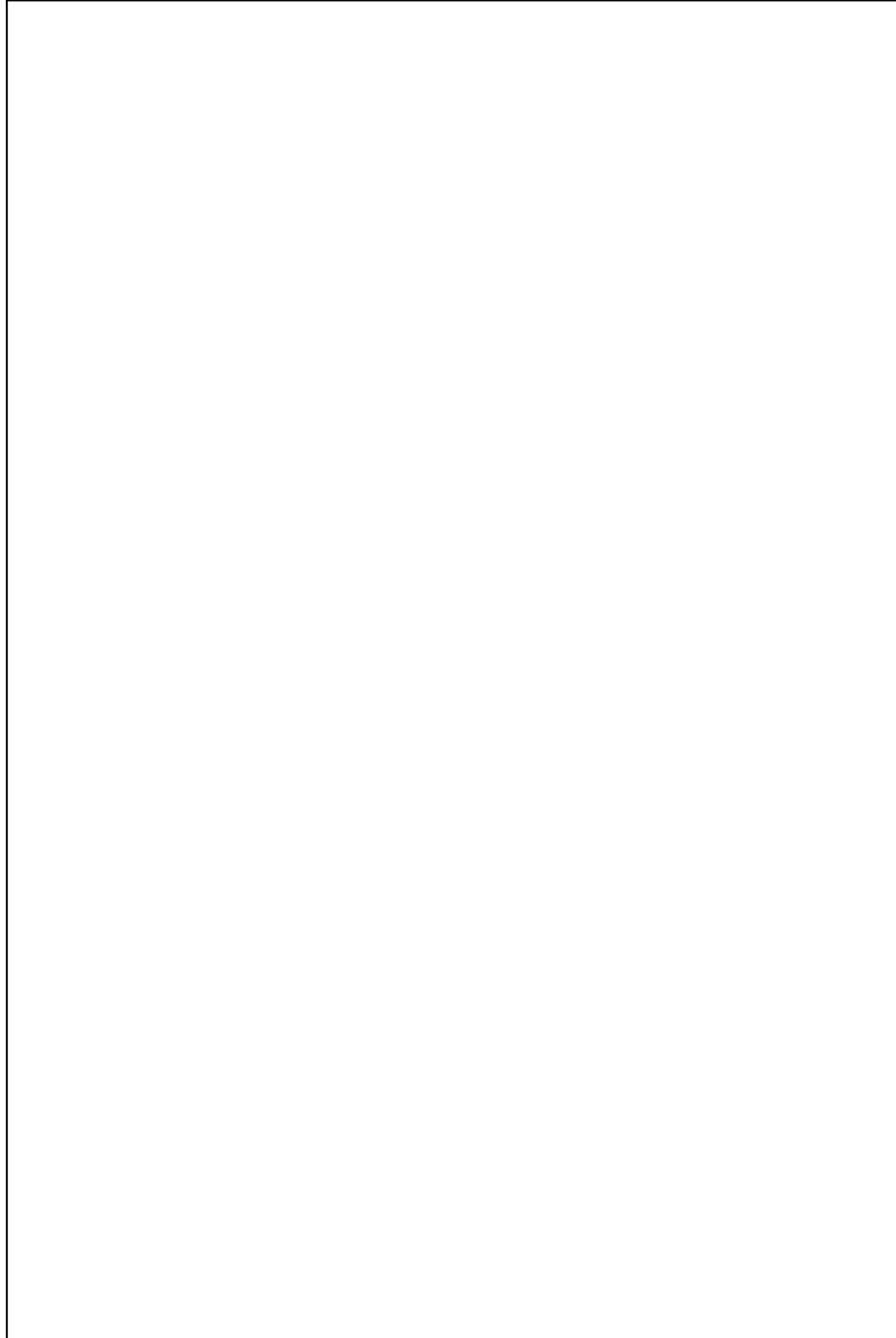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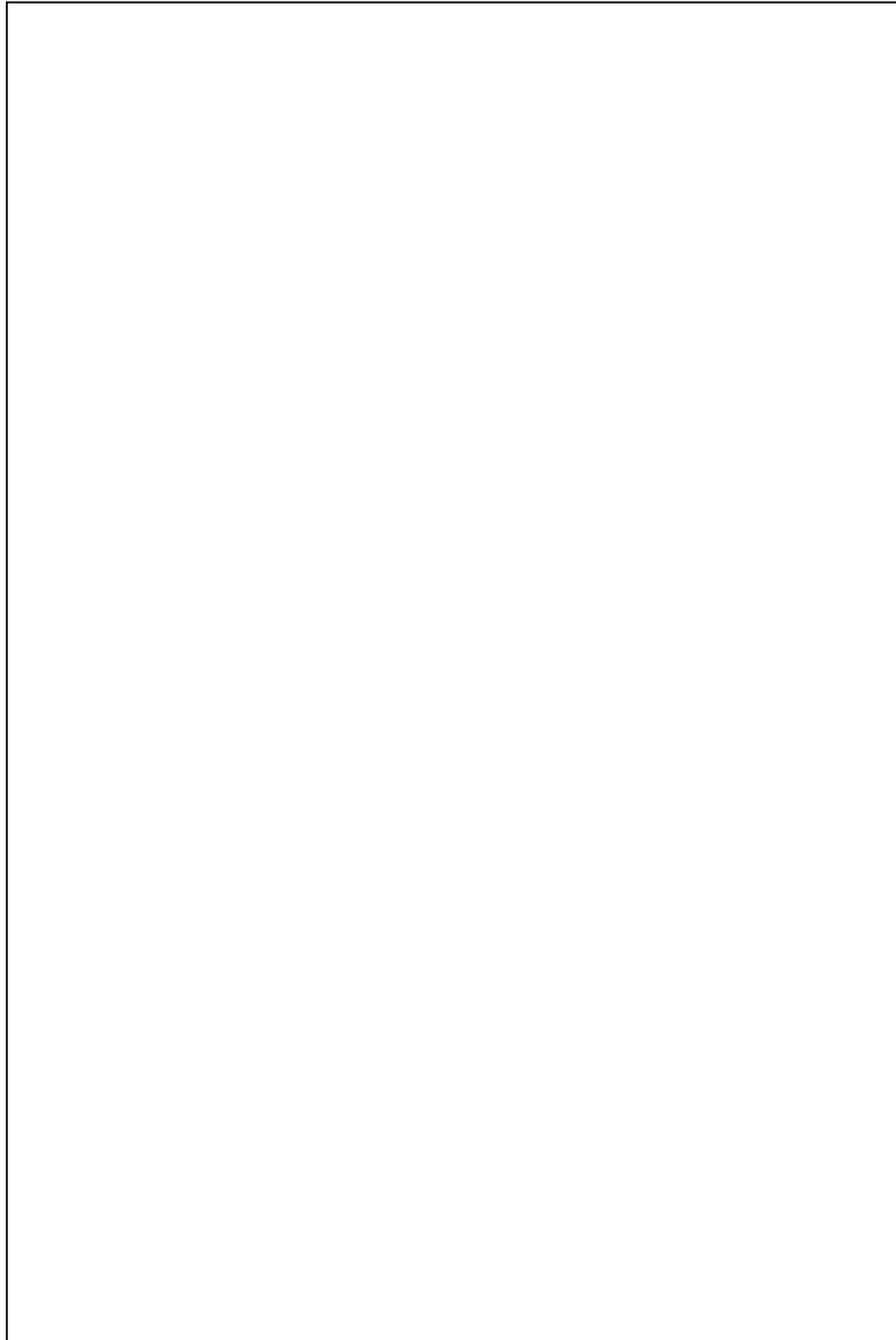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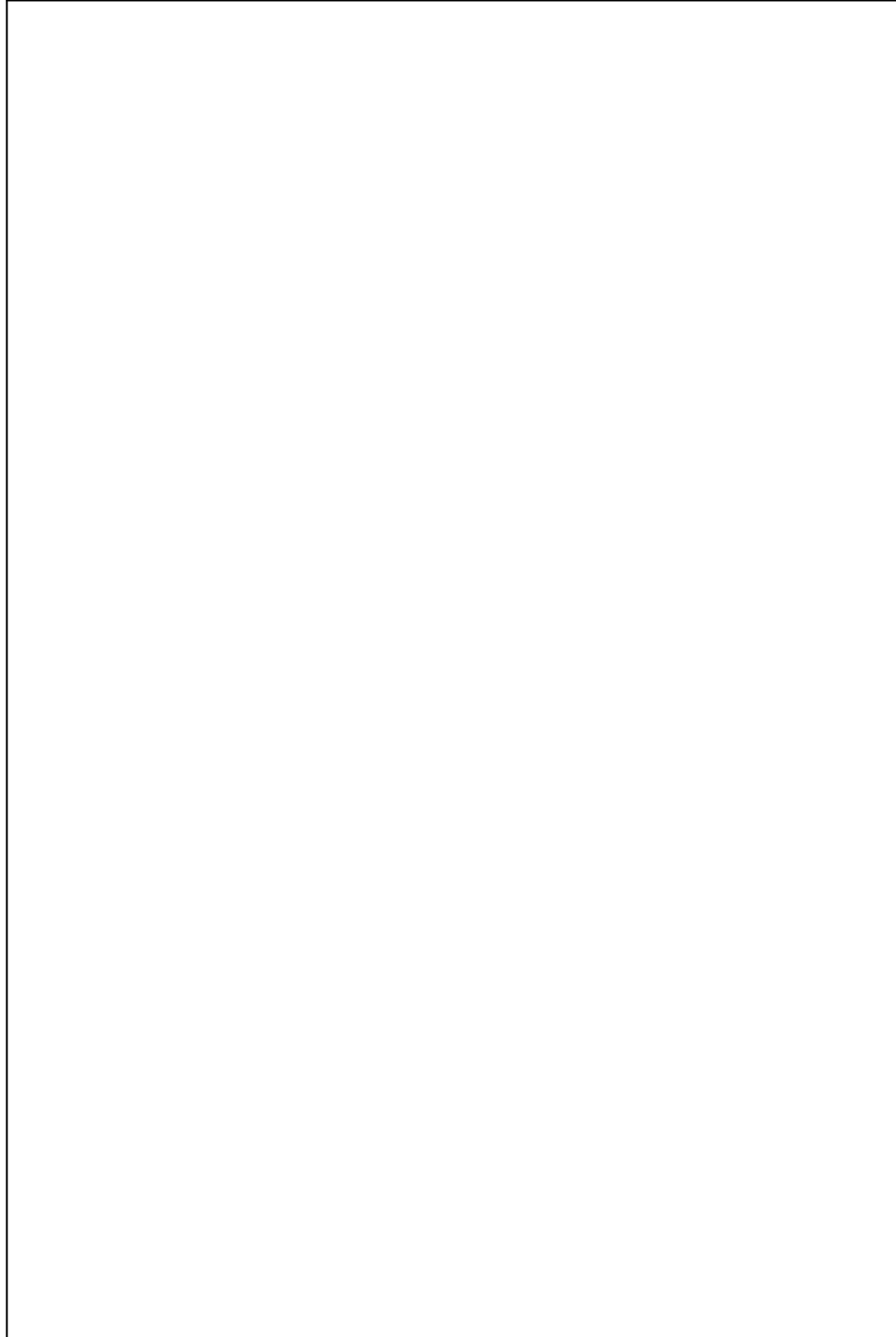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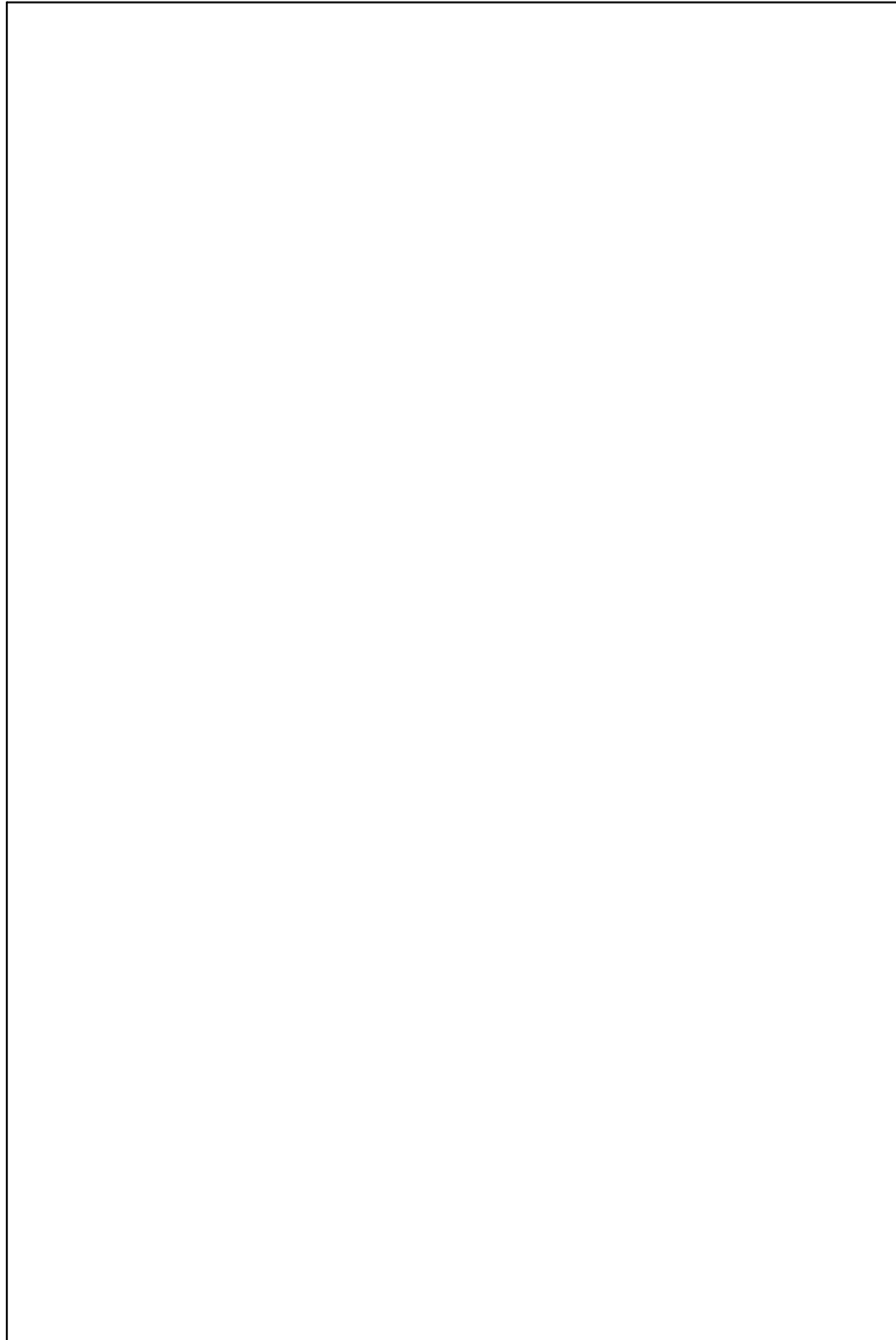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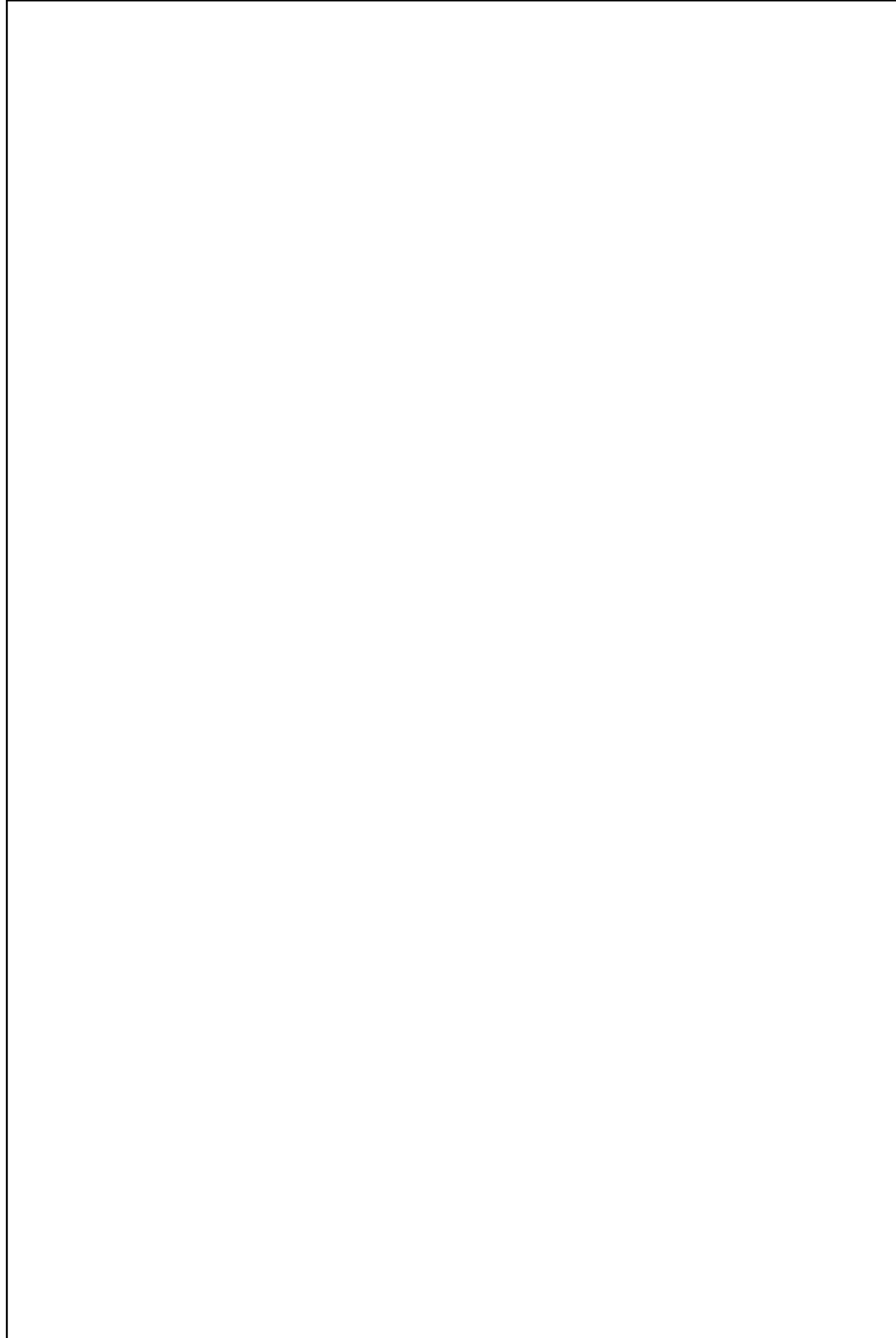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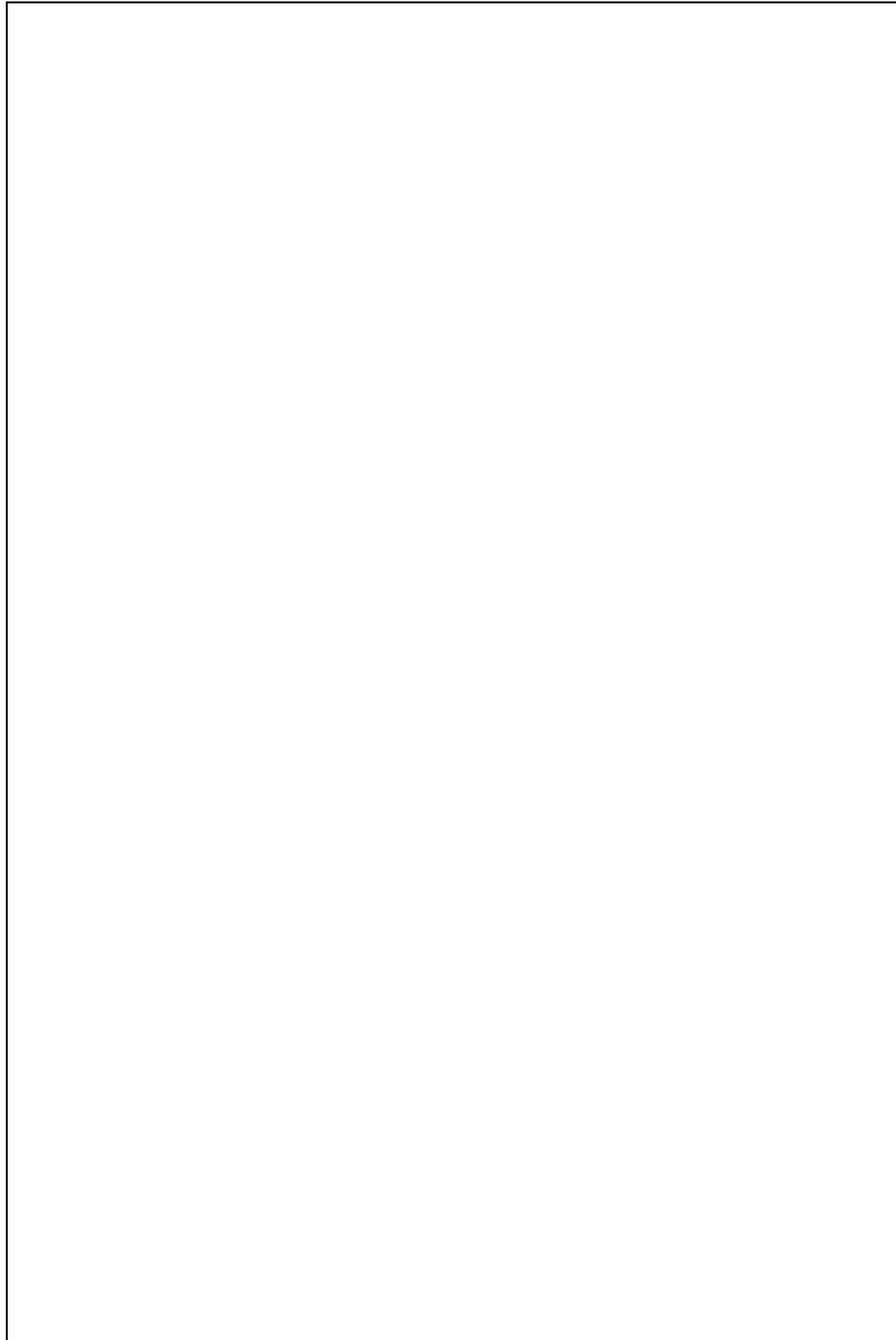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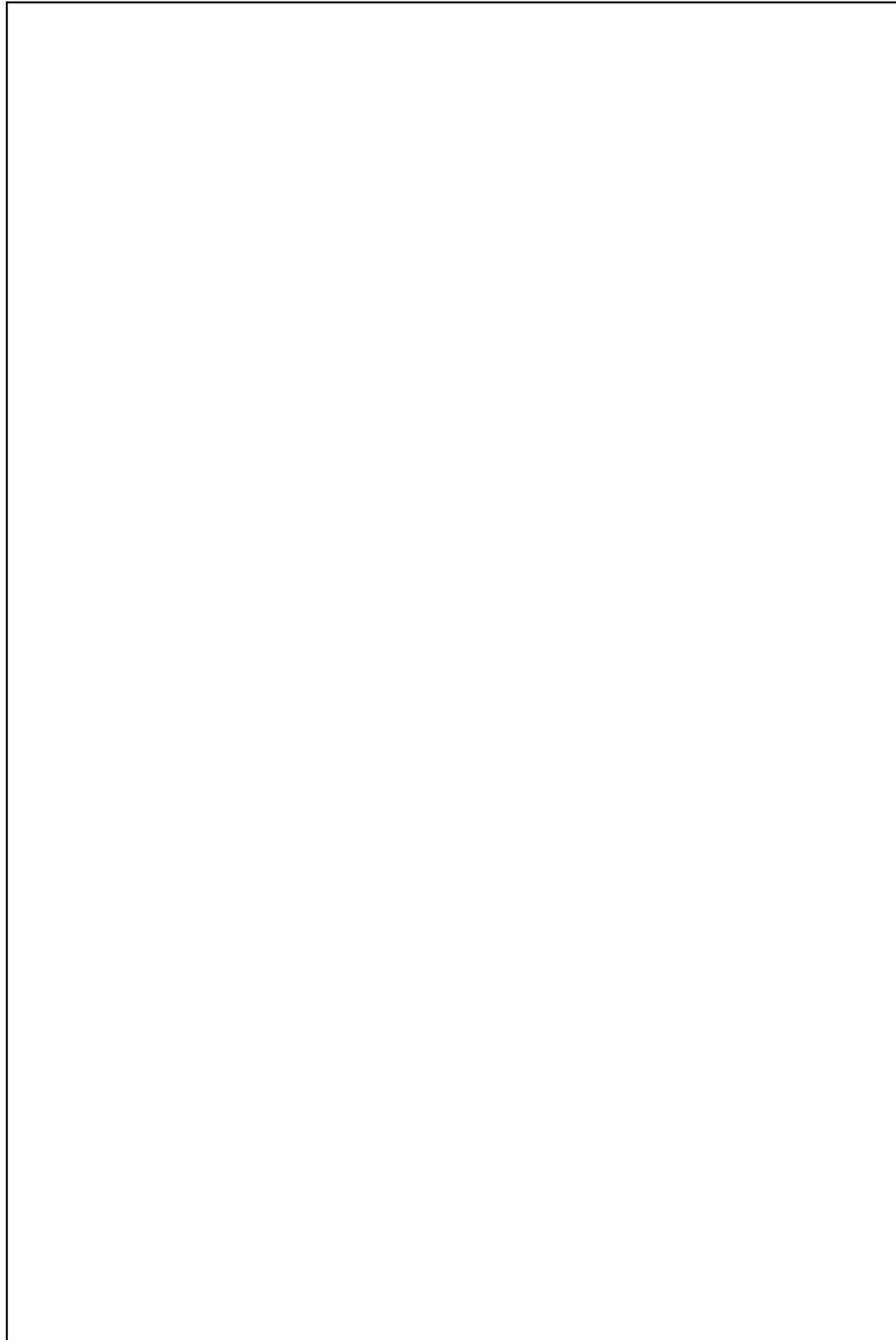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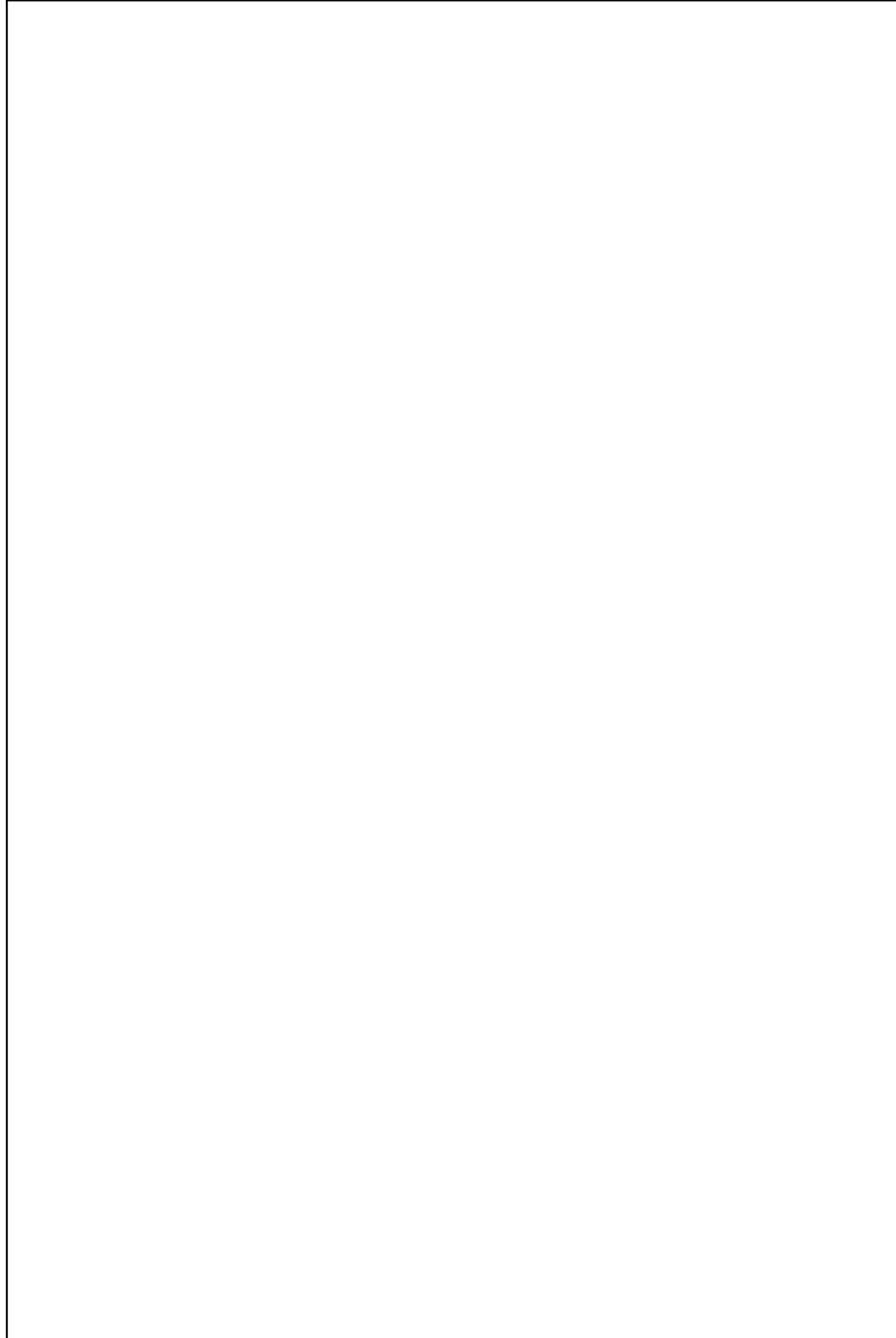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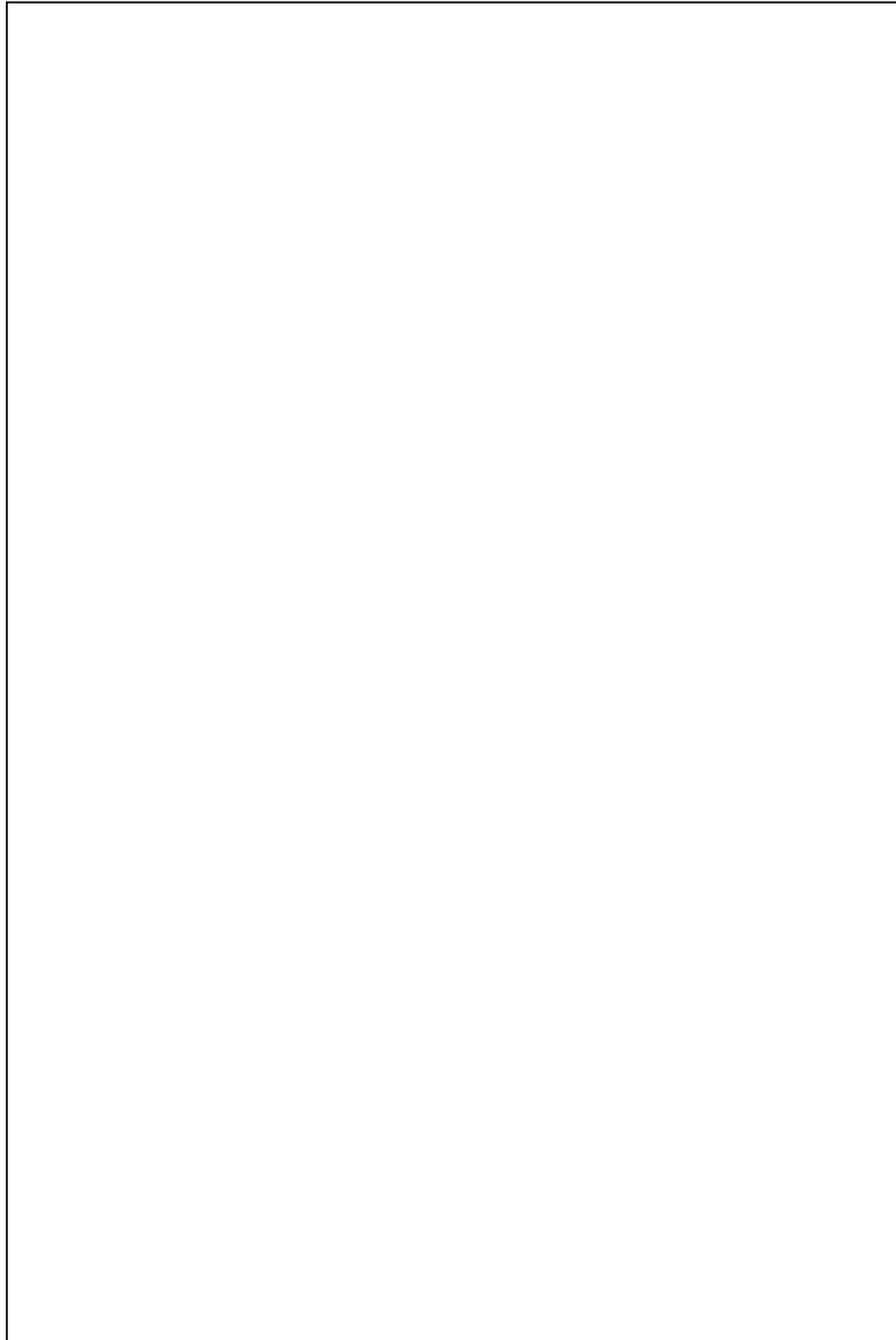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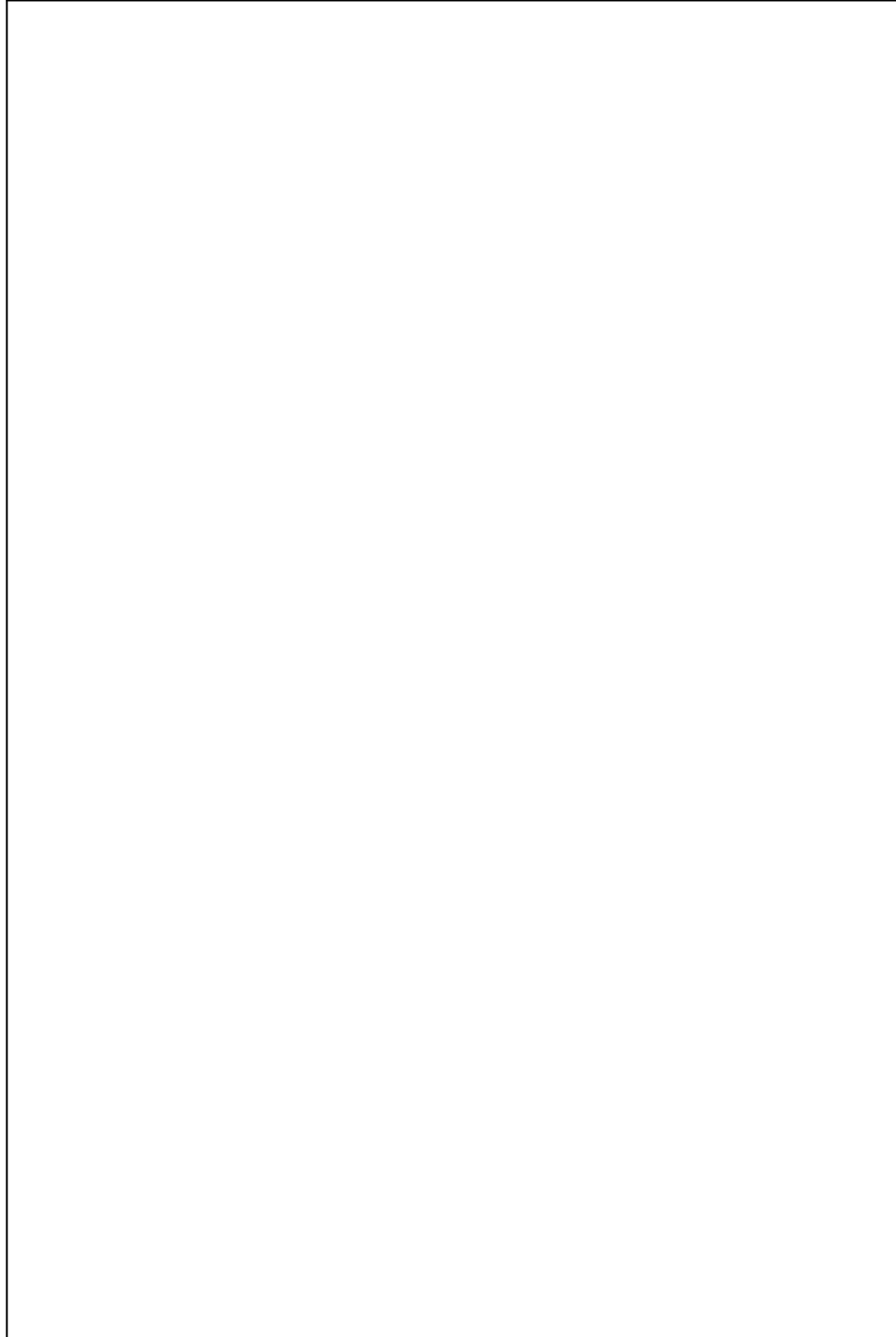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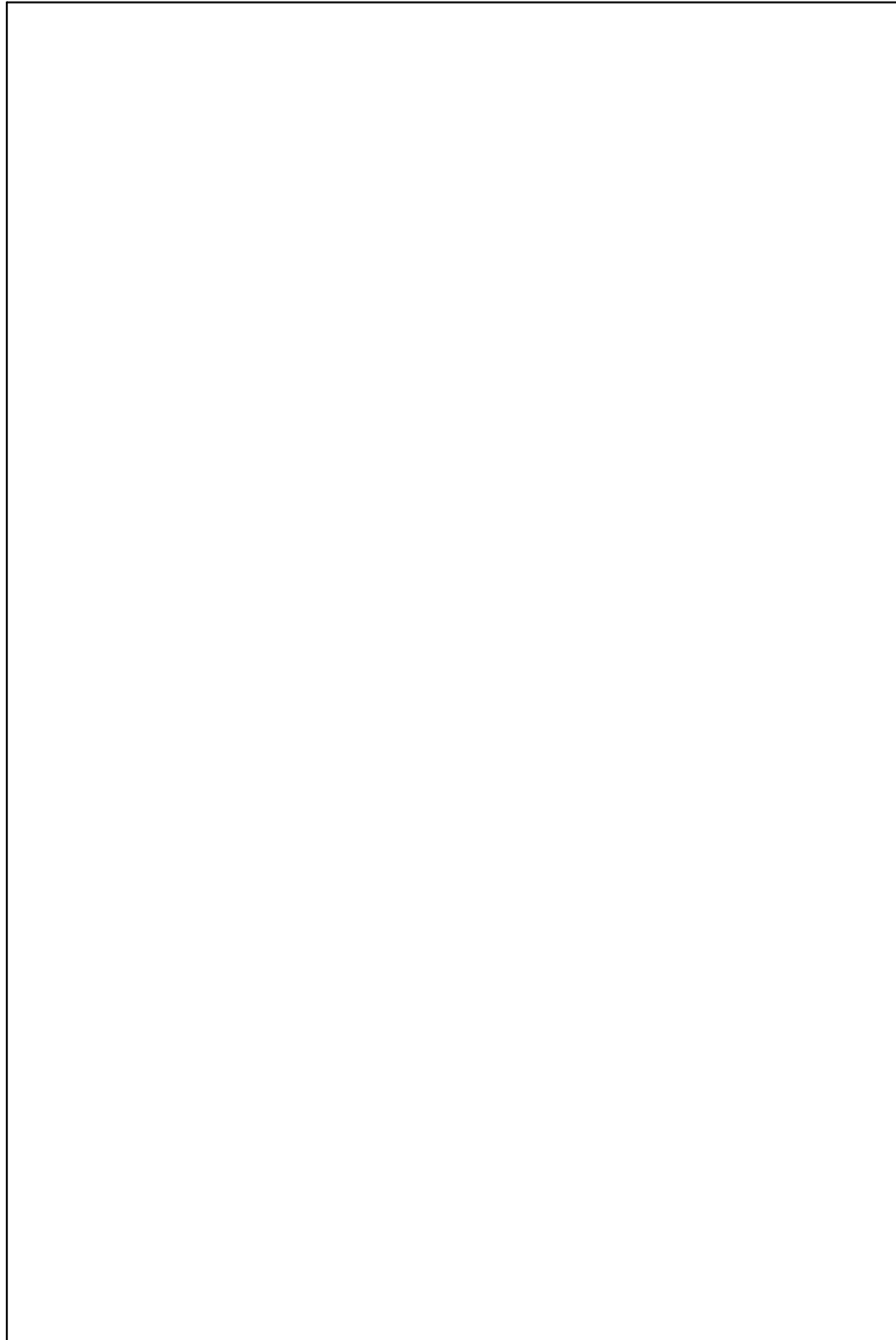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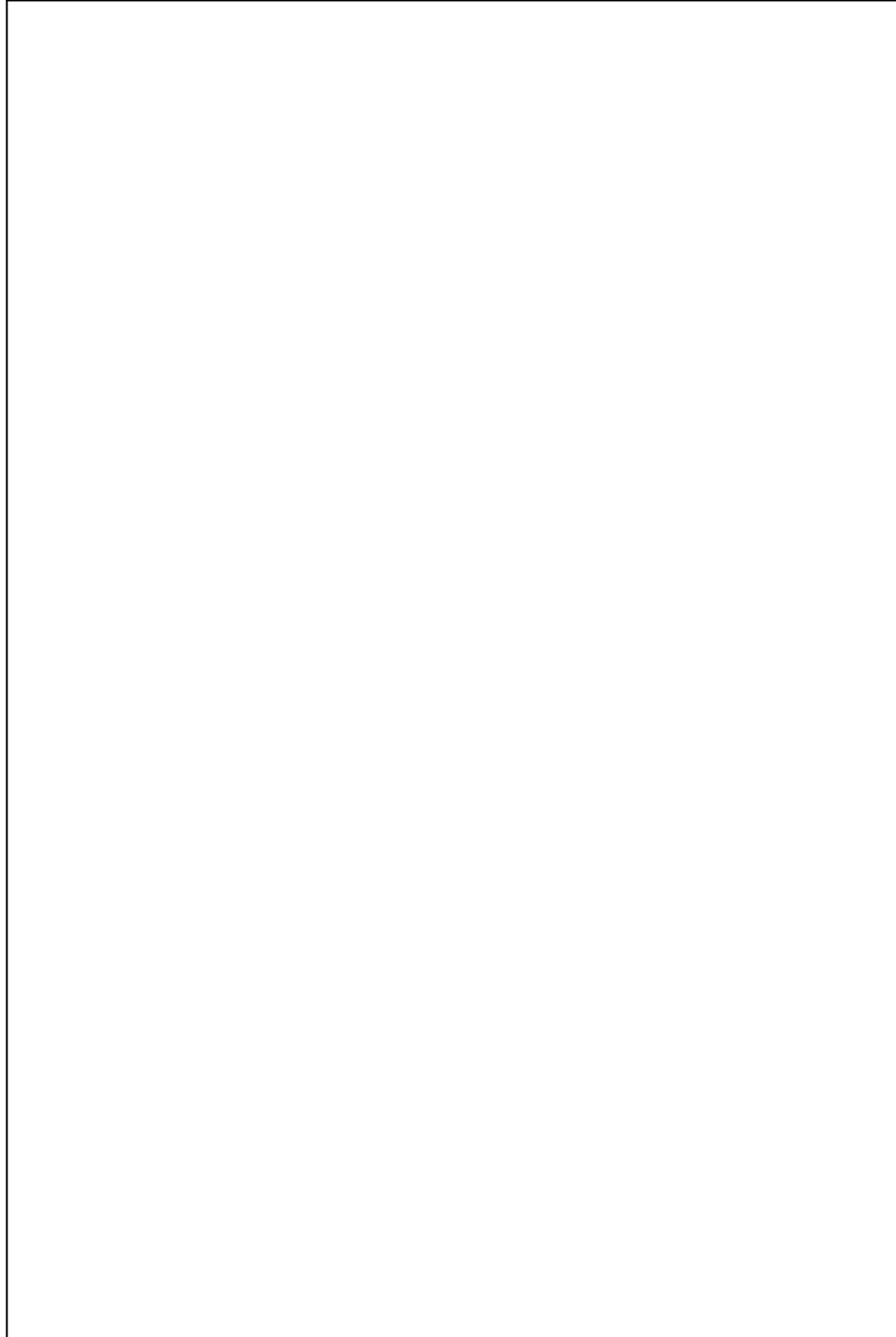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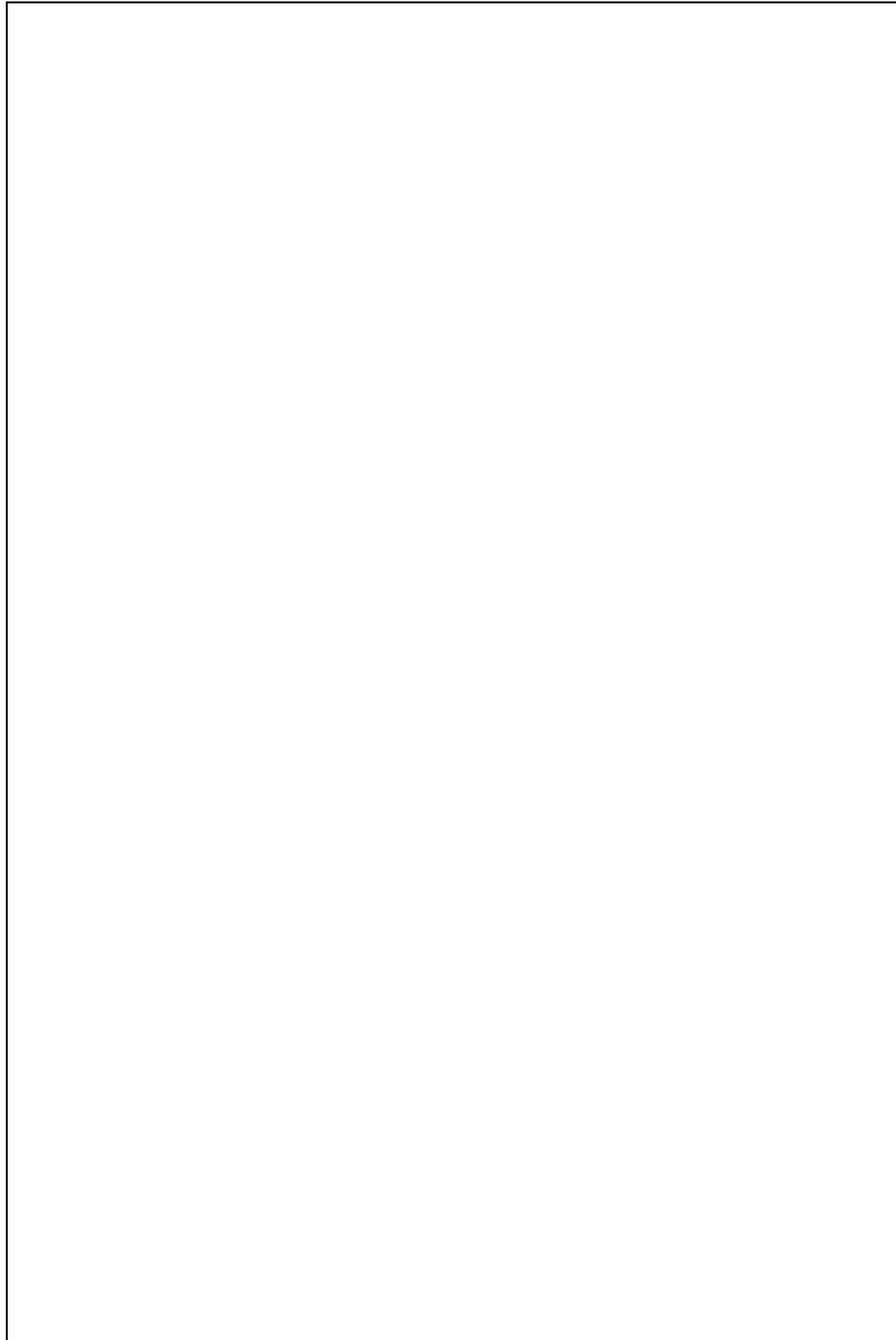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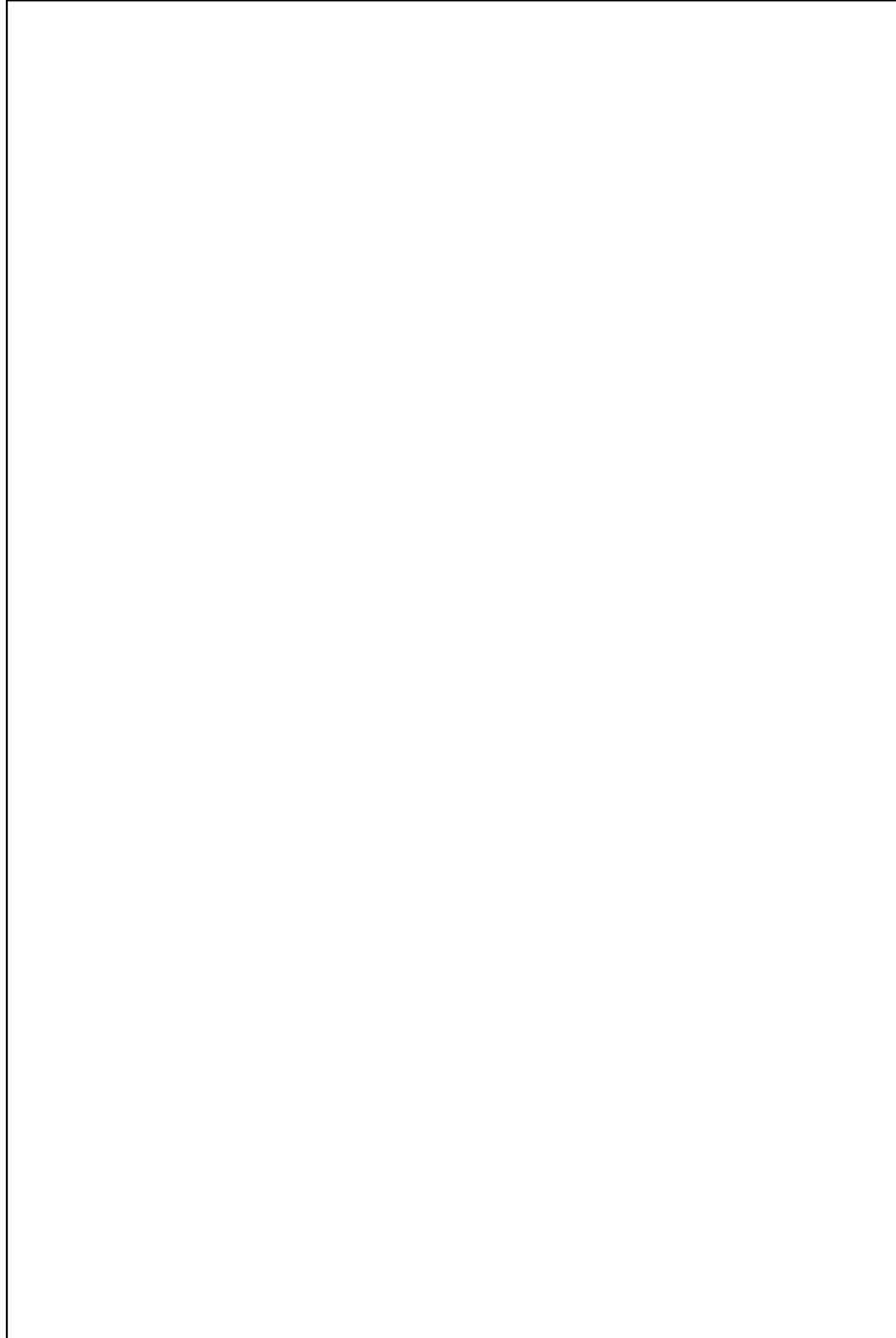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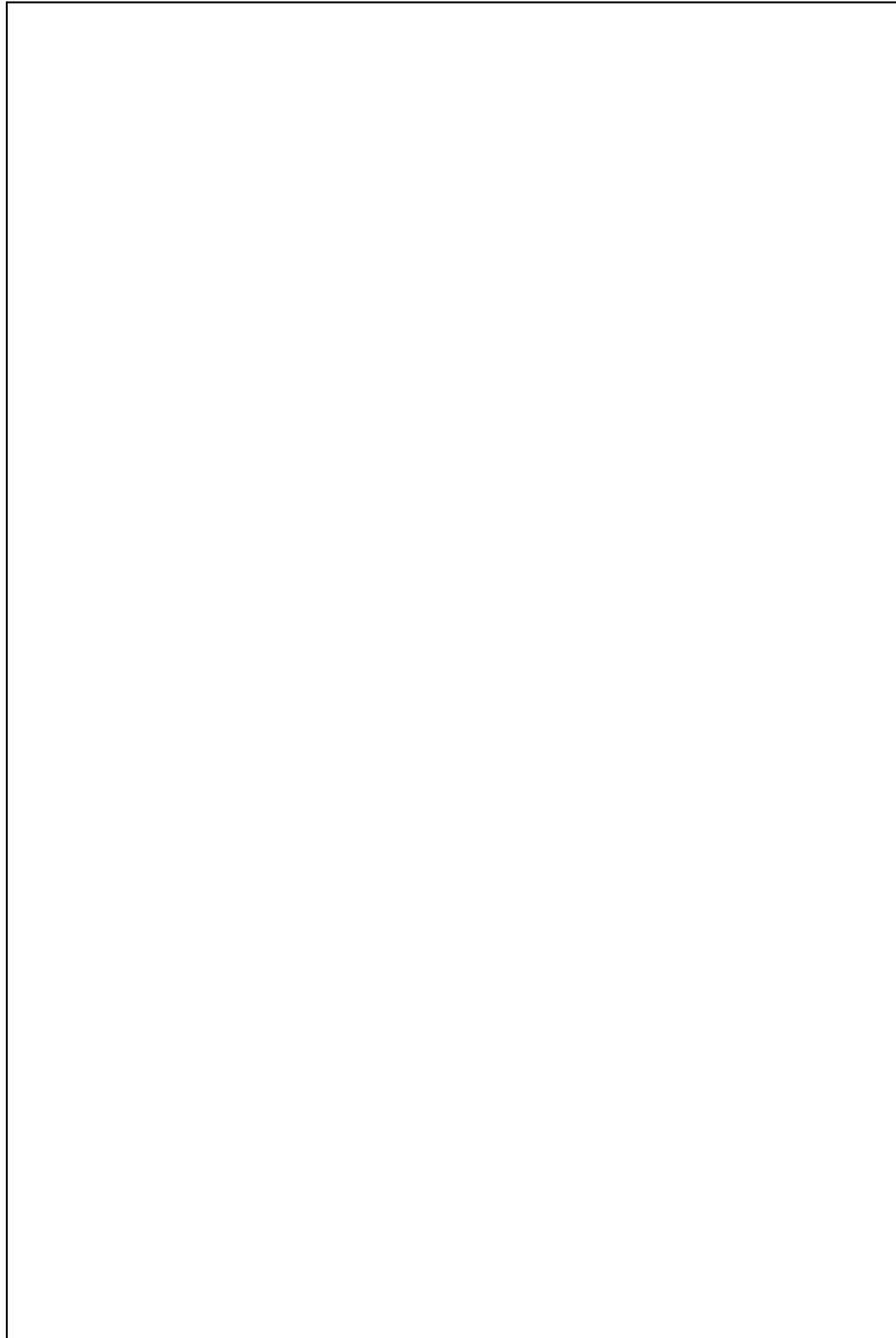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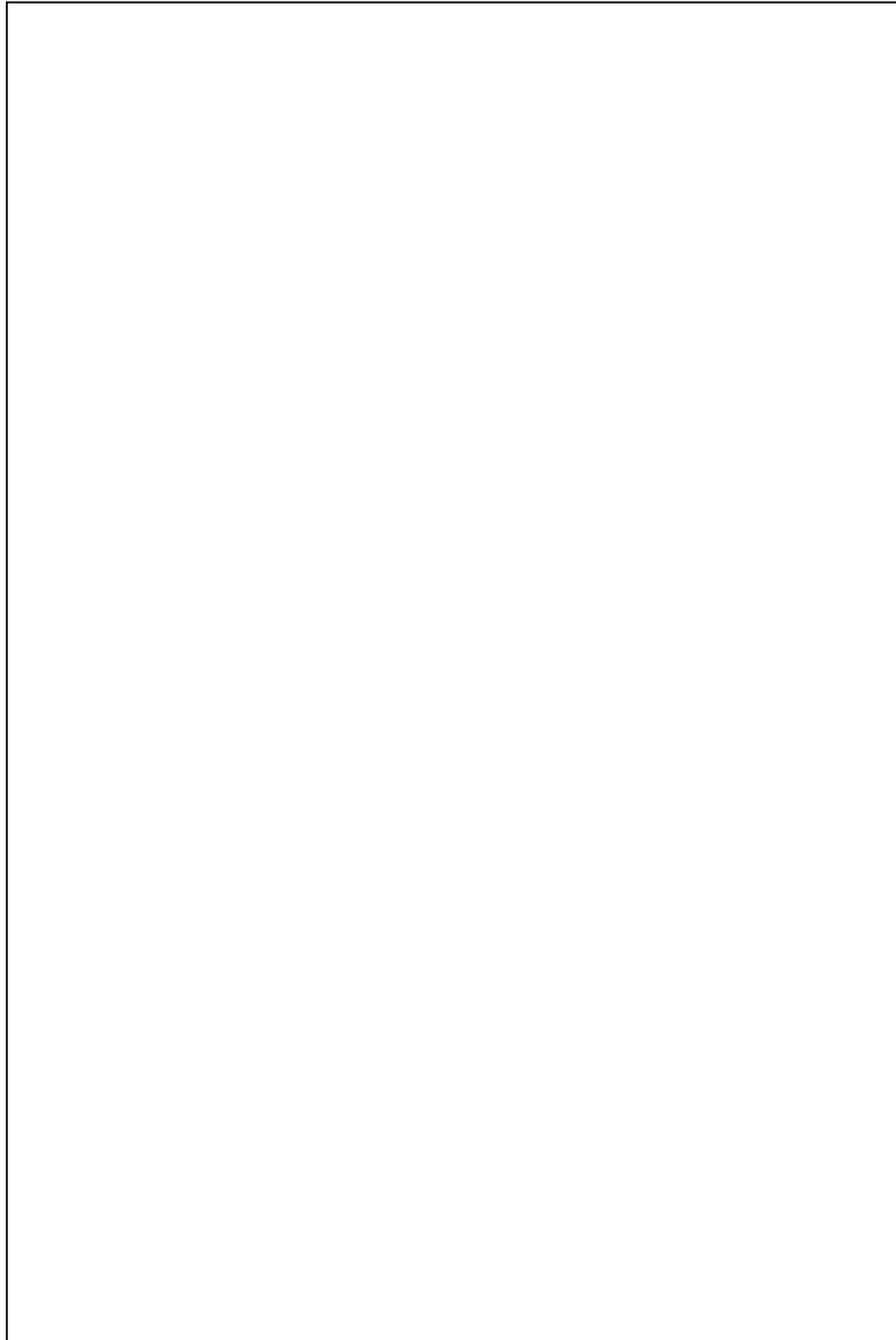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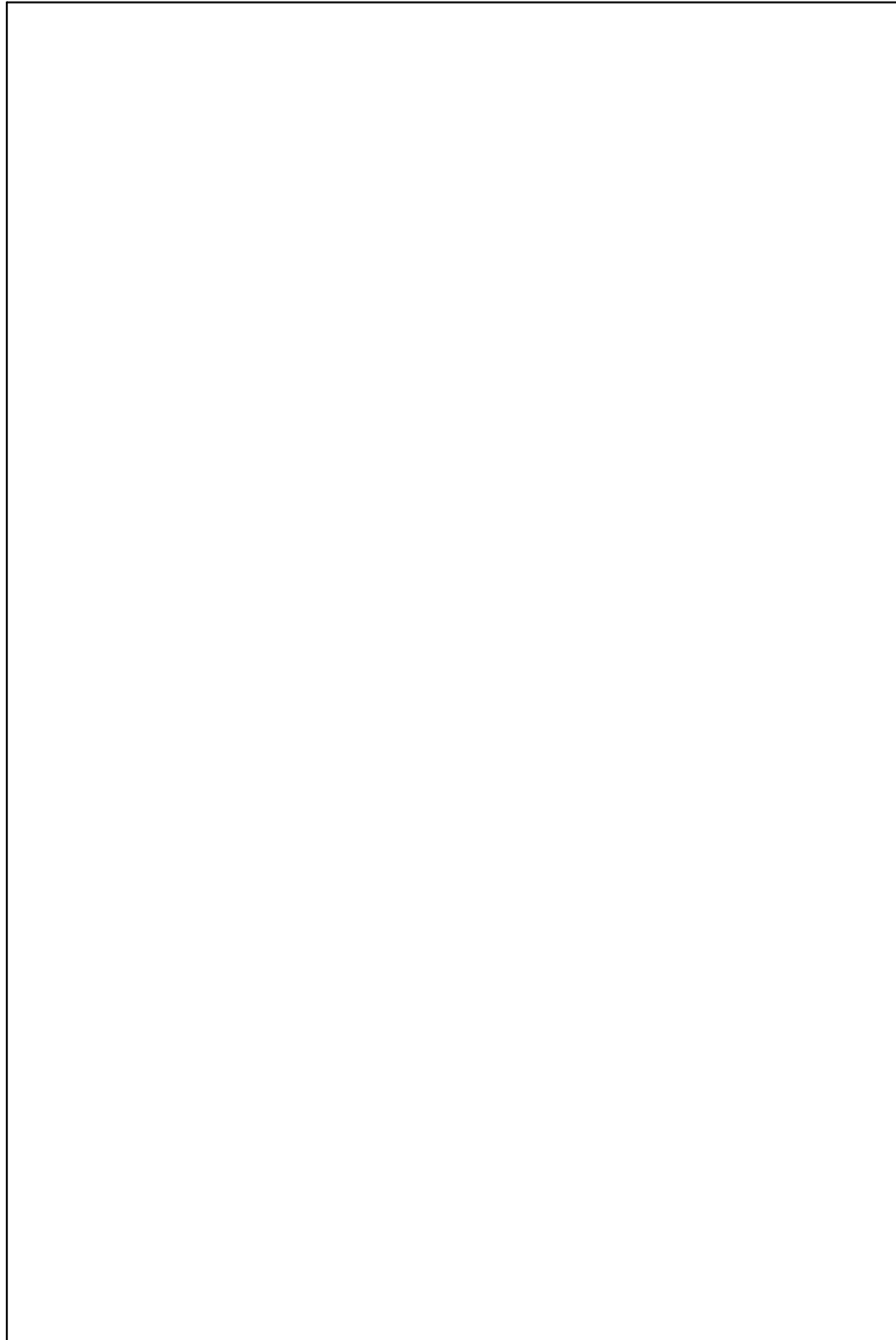






3[2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3[4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데이터 구입안내

1.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데이터 서비스

- ㉠ 한국여성개발원은 여성취업과 관련된 경제학적, 사회학적, 인구학적인 요인들을 조사하여 왔다. 여성의 취업실태조사는 1985년에 1차 조사를 실시하였고, 1992년에 2차, 1997년 3차 조사에 이어 2002년 4차조사를 완료하였다. 본 조사는 2차 조사에서부터 회상법(retrospective survey)를 사용하여 여성의 취업력을 조사하였고, 3차 조사 이후에는 취업력과 생활사를 같이 조사하였다.
- ㉡ 한국여성개발원은 여성취업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의 취업실태 조사의 자료(raw data)를 회원제로 판매하고 있다. 이미 1차 및 2차, 3차 데이터를 구입한 회원에 대해서는, 4차 자료를 할인된 가격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2. 『여성의 취업실태조사』의 구입신청

- ㉢ 한국여성개발원의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원자료의 구입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다음과 같이 신청을 하면 됩니다.
 - 한국여성개발원 노동통계 연구부에 구입의사를 표시하면, 본원에서 신청서와 서약서를 송부해 드립니다.
 - 신청서와 서약서를 본원에 제출하고, 구입대금을 온라인으로 납부하시면, 원자료, 보고서, 부호화지침서를 각각 1부 제공합니다.
 - 4차 자료는 2003년 1월부터 구입이 가능합니다.

㉔ 판매가격(부가가치세 포함)

	신규회원	기존 자료(1, 2, 3차) 구입회원	4차자료 신규구입회원
제1차 여성 취업실태조사 데이터	50만원	30만원	30만원
제2차 여성 취업실태조사 데이터	50만원	30만원	30만원
제3차 여성 취업실태조사 데이터	100만원	50만원	50만원
제4차 여성 취업실태조사 데이터	200만원	150만원	200만원

3. 『여성의 취업실태조사』의 구입 문의처

㉔ 한국여성개발원 노동통계연구부

㉔ 전화: (02) 356-0070

2002 연구보고서 230-4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2002년 3월 27일 인쇄
2002년 3월 30일 발행

발행인 : 장 하 진

발행처 : 한국여성개발원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363
전화 / 356-007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화 / 313-7593 (代)

<정가 9,000원>

ISBN 89-8491-030-9 93330